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2010년대 이도향촌 흐름:
인구이동과 농촌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이 선

2010년대 이도향촌 흐름:
인구이동과 농촌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지도교수 박 경 숙

이 논문을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이 선

김이선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2010년대 이도향촌 흐름:
인구이동과 농촌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이 연구는 2010년대 증가하고 있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이도향촌 이주'라는 인구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이 이동의 성격과 발생 맥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대 한국사회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새로운 인구이동이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형성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이 이동을 추동하는 발생 맥락에 우리사회의 모빌리티 증가와 농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도출했다.

먼저 전체 인구이동 흐름 속에서 촌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구조적 지속성을 확인했다. 인구 크기의 관점으로는 이도향촌 이주가 아직 전체 인구이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시간적 지속성과 공간적 확장성의 관점에서 이 이동은 2010년대에 주목되는 새로운 인구이동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교외화된 이동과도 구분되는 이동으로서, 비도시적 이동이면서도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진 이동임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현상이 2010년대에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 수준의 통계와 미시적 행위자들의 경험 서사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는 아직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현상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인과적 모형으로 풀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현상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존 논의가 많지 않은 까닭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 전략으로 본 논문은 혼합적 자료와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차용한다.

우선 지역 수준의 통계와 인구이동 기제 모형을 사용하여 이도향촌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경제적 요인은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수준 보다는 경쟁이 포화상태가 아닌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요인은 이주 후 정착에 영향을 미칠 뿐, 이주 시점에서 지역을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하다. 다만 지역개발 정책은 비도시적 이도향촌 이동에는 부(-)의 효과를 미친다. 3) 생활환경은 지역에 주택이 많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으며, 교육시설이나 도로와 같은 도시적 환경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중심의 이동 기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인구밀도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주 지역에 적정 수준의 인구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자연환경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경관과 관광경관, 농업경관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관광경관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서 도착 지역의 조건은 도시로의 이동과는 다른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독특한 기제가 미시적 행위자의 경험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에 대해 이도향촌 이주 경험을 '배경-결정-선택-실천'의 단계적 과정으로 재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과 추동력을 모빌리티 이론적 관점에서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귀농귀촌 논의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새로운 의미는 무엇인지, 이 이동의 다종다기함이 발생하는 맥락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이도향촌 이주는 이미 행위자들의 생애 속에 모빌리티의 감각, 문화적 가치와 태도, 도시 생활에 대한 평가, 촌 지역에 대한 전망이라는 요인을 배경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2010년대 들어 증가하고 심화되어 온 우리사회의 이동성과 유동성 증가, 그리고 귀농귀촌 담론의 증가, 다양한 삶과 생태적 가치의 확산 등

과 맞물려 형성된 것들이다. 이 요인들은 행위자들의 생애 속에 잠복되어있다가, 행위자들이 생애 사건이나 일자리 상황으로 인해 삶의 전환의 압력을 받게 되었을 때, 도시에서의 삶의 유동성과 맞물려 이도향촌 이주를 추동하고 촉발했다. 그리고 이렇게 촉발된 이주 결정은 사회연결망, SNS, 미디어, 귀농귀촌 정책 등을 통해 지역에 연결되는 경로를 설정하고 지역의 '자연 환경', '생활 방편', '지역주민의 환대' 요인에 따라 최종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이주로 실천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 공간은 전통적인 농촌 지역의 표상과는 다르게 전망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서 촌 지역은 도시대 농촌의 이분법적 공간이라기 보다는 도시와 농촌,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정거장이자 이주 행위자들의 다양한 전망을 실천하는 텃밭과 같은 공간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촌 지역의 '비어있음', 즉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경쟁, 미리 정해진 규칙, 타인들이 만들어놓은 틀의 부재'가 작동하고 있었다. 산업화 시기, 성장과 발전을 향한 인구이동이 도시 공간과 도시 문제를 탄생시켰듯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 역시 새로운 농촌 공간의 가능성, 그리고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이동의 방향이 도시에서 촌으로 설정되어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이동을 추동하는 기제가 도시로의 이동과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우며, 이동과 농촌 공간에 부여되는 의미와 전망이 이전 시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귀농귀촌 담론은 농업, 반(反)도시적 가치, 은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지역 인구문제의 담론은 경제, 개발, 생산인구(청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들 담론에 전제된 관점은 농촌 공간은 도시에 대한 대립항의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동은 비용이라는 것, 지역 문제의 해법은 생산인구를 통한 성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관점 모두 2010년대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도향촌 이주 흐름을 제대로 포착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의하였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구이동으로 읽어낸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은 다양한 모빌리티가 작동하

고 있는 흐름으로서, 농촌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요어 : 이도향촌, 인구이동, 모빌리티, 농촌공간, 귀농귀촌, 지역인구
학 번 : 2016-35613

목 차

제1장. 서 론 ····· 1

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 1

2절. 선행연구 검토 ····· 5
1. 귀농귀촌 개념과 현황 ····· 6
2. 귀농귀촌 현상의 규명: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 14
3. 귀농귀촌 담론의 성격과 한계 ····· 24

3절. 이론적 자원 ····· 29
1. 인구이동 이론: 이도향촌 이주의 구성 ····· 30
2. 모빌리티 이론: 이도향촌 이주의 해석 ····· 48

4절. 연구의 구성 ····· 55
1. 연구 질문 ····· 55
2. 연구 방법 ····· 59
3. 논문의 구성 ····· 66

제2장.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위치와 성격 ····· 69

1절. 전체 인구이동 흐름 속 이도향촌 이주의 위치 ····· 69
1. 전국의 장기적 인구유입 상태 분석 ····· 70
2. 지속유출형, 불규칙유출형, 순유입전환형, 지속유입형의 도출 ····· 76
3.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시간적 지속성과 공간적 확장성 ····· 81

2절. 이도향촌 이주의 다종다기성 ····· 83
1. 촌 지역의 유입인구 성격 분석 ····· 84

2. 비도시형, 교외화형, 혼합형의 도출 ····· 86
3. 이도향촌 이주의 다양성: 도시성과 비(非)도시성 ····· 94

3절. '비도시적 순유입 전환 지역'의 발견 ····· 96
1. 인구유입 상태와 (비)도시적 이동 간의 관계 ····· 96
2. 비도시적 이도향촌 이주 지역의 전국적 분포 ····· 100
3.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다양성과 비도시적 이동의 확장성 ····· 107

4절. 소결 ····· 108

제3장.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발생의 다양한 지역 요인 ····· 110

1절. 인구이동 기제와 지역 요인 ····· 112
1.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도향촌 인구 ····· 112
2. 인구유입의 조건: 경제적 요인, 정책 요인, 생활환경, 자연환경 ····· 115

2절. 비도시적 이동을 추동하는 다양한 지역 요인 ····· 128
1. 지역 요인의 다층적 구성 ····· 129
2. 경제 요인 중심의 이동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이동으로 ····· 133

3절. 소결 ····· 146

제4장.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전개 과정의 특징 ····· 149

1절. 이도향촌 이주 경험의 미시적 특성과 거시적 맥락 ····· 151
1.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의 미시적 특성 ····· 151
2.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의 거시적 분석 전략 ····· 157

2절. 이도향촌 이주의 전개 과정 ····· 160
1. 배경: 이동의 의미 형성 ····· 160

2. 결정: 이동의 촉발 ····· 180
3. 선택: 이동의 경로 설정 ····· 192
4. 실천: 이동의 다양한 '무게' ····· 207

3절. 소결 ····· 215

제5장.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속에서 재구성되는 농촌공간 ·· 219

1절. 이도향촌 이주와 농촌 공간 ····· 220

2절. 촌 지역이 이주 공간으로 전망되고 경험되는 세 가지 방식 ··· 221
1. 공백: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는 공간 ····· 222
2. 텃밭: 즉시적 실천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 ····· 239
3. 정거장: 도착하고, 출발하고, 연결하는 공간 ····· 251

3절. 소결 ····· 263

제6장. 결 론 ····· **265**

참고문헌 ····· **269**

<부 록> ····· **285**

<Abstract> ····· **286**

<표 차례>

<표 1> 인구이동 선행연구의 지역 범위와 분석 단위 예시 ····· 70
<표 2> 제2장의 분석 단위 구성 ····· 72
<표 3> 지방자치단체 체계의 개념도 ····· 73
<표 4> 인구 유입 상태의 배열 구성 예시 ····· 75
<표 5> 각 유형별 지역 수, 평균 순유입 인구 수(2015년) ····· 77
<표 6> 각 유형에서의 도시 지역과 촌 지역 비중 ····· 78
<표 7> 각 지역별, 유형별 순이동 평균(2015년) ····· 80
<표 8> 지역 군집분석에 사용된 기준 변수 ····· 85
<표 9> 군집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유입인구 차이검증 결과 ····· 87
<표 10> 각 유형에 속하는 지역의 목록 ····· 87
<표 11> 지역 유형별 유입인구의 연령별, 가구 형태별 특성 ····· 90
<표 12> 지역 집단별 유입인구의 전입사유, 경제활동별 특성 ····· 92
<표 13> 지역 집단별 유입인구의 통근·통학 특성 ····· 93
<표 14> 인구유입 상태와 유입인구 구성 유형 간 교차분석 결과 ····· 97
<표 15> 두 유형을 교차하였을 때 해당 지역 수의 비중(%) ····· 98
<표 16> 지역 유형별 지역 목록 ····· 100
<표 17> 통계청 2003-2019년 귀농·귀촌 인구 평균 상위 10개 지역 ·· 105
<표 18> 전체 유입인구 중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 비중(2016년) ····· 106
<표 19> 분석 대상 지역으로의 유입인구 현황(2016년) ····· 114
<표 20> 인구이동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예 ····· 116
<표 21> 경제적 요인 변수: 읍면 지역단위 기술통계 ····· 120
<표 22> 정책적 요인 변수: 지자체(시군) 지역단위 기술통계 ····· 122
<표 23> 생활환경 변수: 읍면 지역단위 기술통계 ····· 123
<표 24> 자연환경 변수: 읍면 지역단위 기술통계 ····· 125
<표 25> 기타 변수: 지자체(시군) 지역단위 기술통계 ····· 127
<표 26> 분석 모형의 단계별 투입 변인 ····· 131
<표 27> 기초모형의 고정효과와 무선효과 검정 결과 ····· 132
<표 28> 무선효과 설정을 위한 검정 모형 1-7 ····· 134
<표 29> 다층모형 최종 분석 결과표 ····· 136

<표 30>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 152
<표 31>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 155
<표 32>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이주 형태 분포(%) ····· 156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1990-2017년) ····· 8
[그림 2] 통계청 2013-2020년 연령별 귀농·귀어·귀촌인 합계 규모(명) 10
[그림 3] 도식화된 인구이동 ····· 45
[그림 4] 인구유입상태 배열분석 결과 그래프 ····· 76
[그림 5] 지역 유형의 전국 분포 지도 ····· 89
[그림 6] 지역 유입인구 성격별 인구유입 상태비중(%) ····· 98
[그림 7] 인구유입 상태 유형별 유입인구 구성 유형 비중(%) ····· 99
[그림 8] 교차된 지역 유형 분포 지도 ····· 104
[그림 9] 인구 천명 당 주택 수 ····· 141

제1장. 서 론

이 논문은 발전과 성공을 향해 변천해 온 한국사회의 인구이동과, 그 흐름이 만들어낸 공간적 결과로서 '특별시'와 도시 중심의 지역 구조가 2010년대 들어 새롭고 다종다기한 양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재발견하고, 이 현상을 지역인구와 이동성(모빌리티), 그리고 농촌공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우리의 삶은 언제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주 역시 더 나은 삶의 공간을 모색하기 위한 생활 터전의 움직임이다. 이주의 움직임은 대체로 사회 구조의 흠을 따라 흘러가면서 인구이동을 이루고, 이 집합적 흐름은 인구가 통과하는 지역 공간 및 사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이동과 사회, 지역공간은 따로 떼어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절은 연구의 배경으로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인구와 인구이동이 사회적·공간적으로 어떻게 변천해왔는가를 개괄하고, 이를 통해 2010년대 '도시에서 촌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조명하면서 이 논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우리 삶과 사회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 온 근대화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압력만큼 강력하고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오늘날 사회의 거시적 구조뿐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감정이나 욕망까지도, 그 양상의 근원을 근대화의 산물로 추적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압축의 힘만큼 폭력적이었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는 사회와 성원들을 온건하게 통합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서 해체되고 와해되는 삶을 지키기 위해 개인들은 '가족'을 생존과 발전의 거의 유일한 가능성으로 선택하였다(장경섭 2009). 한국 사회에서 가

족은 재생산과 친밀성, 돌봄의 공간을 넘어서 발전과 성공, 번영의 핵심 수단으로 욕망되었으며, 이는 사회발전의 원천적 동력이자 인구 변천의 주된 기제로 작용하였다(Park 2019).

이러한 과정은 국토 공간의 변천에도 동일하게 작동하였다. 빠른 성장을 위한 자본 집약의 공간적 전략으로서 도시가 개발되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 및 대도시 중심의 국토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1960-70년대 대규모 이촌향도가 일어났고, 서울은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체제의 지리학적 중심으로서 인구 초과밀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일자리를 찾아, 근대적 성공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수많은 부모들이 더 나은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향한 기원을 담아 자식을 더 큰 도시로, 서울로, 떠나보내거나 함께 이주했다. 이러한 열망 속에 도시는 경제적·사회적 자원뿐 아니라 문화적·인적 자원이 집약된 공간으로 성장하면서 더욱 많은 인구를 흡수했다. 1970년부터 19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어난 인구이동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의 전입이었고(권용우, 이자원 1995: 26), 그 외의 이동도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 지역을 향했다(이희연, 노승철 2010: 125; 엄창옥 외 2018: 260).

그러나 발전 중심의 삶과 사회가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현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공간에서는 불균형 성장과 지역인구의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인구 초과밀은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야기했고, 반대로 인구가 급감한 농촌 지역은 저발전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유례없는 '지역 소멸' 차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1].

이와 같이 사회와 인구 이동, 지역 공간은 밀접한 연관 속에 상호 변화를 추동해왔다. 이 중에서 인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집합 그 자체이며, 지역공간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인간 존재를 표상하는 개념이기에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 구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구는 국토종합계획, 시군기본계획 등 국가가 공간을 관리하는 각종 정책·계획

1) 한동안 지역의 위기를 강조하는 말의 느낌을 활용하기 위해 '지방소멸'이라는 표현이 유행하였지만, 구양미(202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물리적인 지역 공간이 사라질 수는 없으며 인구가 0명이 되는 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오히려 지역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인구 과소화 현상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구양미 2021: 303).

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며(김상원 2013), 지방세원의 근거이자 정치적 자원(대표적인 예로, 의회 의석 수)의 크기를 결정짓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 기간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주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생활환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김이선 외 2019: 84, 채성주 2015: 3).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인구 과소 문제는 지역 사회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요인이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인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서를 개설하고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과 법적 제도를 구축하는 등 인구 정책 인프라를 조성해왔다(최민정 2015). 이 과정에서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 관련 정책이 유행처럼 확산되거나,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등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실행되었다(임병호 외 2015: 178).

그러나 이러한 지역 사회의 대응은 근대의 발전주의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작금의 지역 문제를 만들어낸 근원적 구조가 근대화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인구를 발전의 주체로 호명하고, 더 많은 인구의 성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식은 근대적인 방법이다. 김이선 외(2019: 85-86)는 그간 지역 정책과 연구가 주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쇠퇴의 관점에서 인구를 다뤄왔음을 지적했다. 인구를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만 보는 관점에서는, 인구의 증감이 경제적 성장 혹은 쇠퇴와 연동되는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는 고령층 인구와 '젊은' 생산인구를 차별적으로 구분짓고, 지역과 인구정책의 방향을 생산인구 중심으로 정향시킨다.

그런데 작금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인구 모멘텀' 특징에 의해 단기에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생산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가능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제현정, 이희연 2017; 최민정 2015). 더욱이 경제 발전이나 지역 개발로 농촌이 도시를 앞서기 힘들다는 점에서 '생산인구'의 관점으로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에서는 오히려 지역을 경제성장과 개발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인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김이선 외 2019: 87).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10년대에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현상은 지역과 지역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할 수 있다(송미령 외 2015; 김정섭, 이정해 2017). 귀농귀촌인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이나 시골생활 등을 이유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인데, 귀농귀촌 자체는 최근 들어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마상진, 박대식 2019). 그러나 이전의 귀농귀촌은 주로 도시에서 경제적 기회를 얻는 데 실패하거나 주거불안정 등의 이유로 농촌으로 '후퇴'한 경우가 많다고 논의되었지만(최준호 2013), 최근의 귀농귀촌은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마상진, 남기천 2015; 이선영 2017). 또한 규모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와 구분될 정도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인구 구성을 보았을 때 젊은 청년층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지역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조망에 근거했을 때, 김정섭, 이정해(2017)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소멸론' 비판은 타당하다. 이들은 이상호(2016)의 지방소멸론은 인구의 자연 증감(출생, 사망)만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증감(귀농귀촌 같은 인구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결론이라고 본다. 또한 앞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구 전체가 고령화되면서 감소할 것임에도 지방만을 소멸위기의 대상으로 호명하는 논의는 오히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응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대 이후 귀농귀촌 인구 증가세를 고려한다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앞으로 농촌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귀농귀촌에 주목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 현상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 올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이 논문은, "이 현상을 '소멸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지역 문제의 맥락 속에 어떻게 위치지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다. 즉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은 지역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함축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으며, 그 움직임이 지역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이론적 탐구이기도 하다.

2010년대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이 오늘날 한국의 지역 문제에 대해 함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이 현상이 사회구조적 변화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부 지역이나 인구집단, 그리고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는 확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 현상이 근대의 발전주의와는 다른 기제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공간 구조는 근대화에 수반된 대규모 인구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역의 위기는 근대 사회의 작동 기제와 인구이동, 지역 공간이 상호 조응하면서 심화되어왔기에 단순한 인구 증가나 지역 개발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 근대적 개발의 방식이 아닌, 그와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인구이동의 흐름이 지역으로 흘러들 때 지역 문제의 해소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이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논문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설명한다. 먼저 2010년대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현상이 기존에 어떻게 포착되고 논의되어 왔는가를 검토하면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한계와 참조점을 정리한다(2절). 다음으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자원이 무엇인가를 검토한다(3절). 마지막으로 논의들을 정리하여 연구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답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분석틀을 제안한다(4절).

2절. 선행연구 검토

이 절은 2010년대 한국의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이 기존 논의

에서 어떻게 파악되고 설명되어왔는가를 검토한다. 이 현상은 주로 '귀농귀촌' 현상으로 포착되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2], 이 절은 귀농귀촌 연구를 개괄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귀농귀촌 개념을 검토하면서 오늘날 귀농귀촌의 추세와 현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미시적, 거시적 접근에 따라 정리하고 각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선행연구의 공통적 한계를 지적하고 '201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새로운 이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1. 귀농귀촌 개념과 현황

귀농귀촌 현상은 2010년대 들어 미디어와 담론에서 대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지만,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부침을 겪어왔으며 그 개념 역시 함께 변해왔다. 직관적으로 귀농귀촌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주한 후, 다시 농촌으로 돌아 간(歸) 경우'을 뜻한다(오수호 2011: 78). 그러나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연구 담론에서도 '귀농귀촌' 개념은 시기에 따라, 주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역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귀농귀촌의 역사를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리한 마상진, 박대식(2019)에 따르면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근래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2000년대 이전 시기에는 '귀농'의 개념만 존재했다. 근대 이후 한국의 귀농 역사는 1980-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3],

2) '귀농귀촌' 연구의 경우 선행논문의 양이 방대한 데 비해, 귀농귀촌 개념이 아닌 '농촌 이주 인구'(김창현 외 2008), '농촌 지향 인구이동'(오수호 2011), '이도향촌 혹은 향촌이도'(박수진, 나주몽 2016; 2017; 박수진 2018),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혹은 농촌 이주'(김반석 2019) 등의 용어를 사용한 연구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많지 않다.

3) 마상진·박대식(2019)은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 역사를 『삼국사기』에 기록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귀농귀촌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개념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도시'는 근대의 공간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귀농'은 근대 이후의 귀농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전의 귀농은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보다는 사회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농촌의 민주화, 농민운동 확산 등을 위해 대학생들의 '농활'과 '학출자'들의 귀농이 주를 이루었다(유정규 1998: 18).

이후 1990년대 귀농은 주로 농업 정책과 생태·환경운동의 맥락에서 파악된다.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우리 농촌·농업 지키기, 안전한 먹거리" 등의 가치를 내걸고 1996년 설립됐다. 특히 이 시기 귀농은 '영농을 위한 농촌으로의 이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이전 거주지나 직업을 불문하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일컬었다(유정규 1998: 25). 그러나 논의에 따라서는 '농촌에서의 거주'와 '농업에의 종사'라는 두 요인이 조금씩 다른 비중으로 결합되어 귀농의 개념을 구성했다. 강대구(2006: 26)는 귀농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① 과거 농촌 거주, ② 과거 농업 영위, ③ 현재 농촌 거주, ④ 현재 농업 영위의 네 가지 요건에 따라 귀농인의 범주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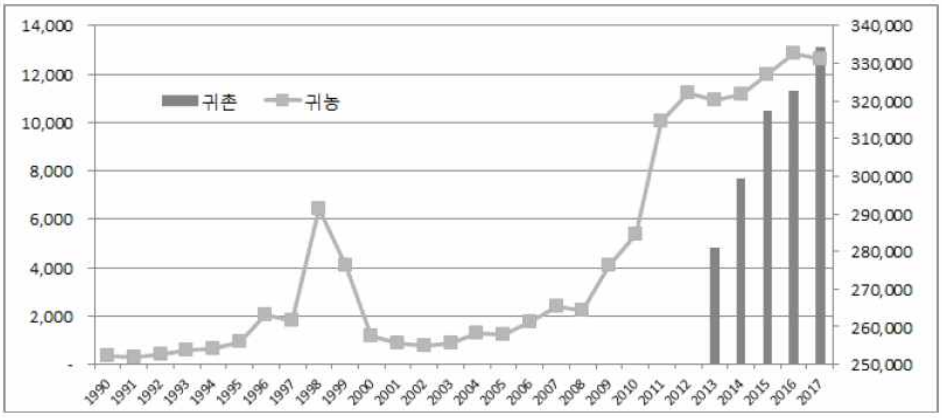
하지만 이 시기의 귀농 역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이동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소수의 집단에 국한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범주의 정의를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그 결과가 큰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1997-98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도-농 간 인구이동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다(박공주 2005; 정다래 2009: 2; 진명숙, 박성정 2012: 280; 오수호 2013; 마상진, 박대식 2019). 국가적 경제위기로 도시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고향으로, 연고가 있는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동 규모가 증가하면서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한 이주'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의 이주 형태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귀농'에는 포섭되

4)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귀농을 정의하는 데 '이주'를 요건으로 넣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황정임(2012)는 농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기에, 농촌에서 타직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귀농으로 포함하여 논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 않는 이주 형태를 포괄하기 위해 '귀촌'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박시현(2014: 26)은 1990년대 이전에는 '귀농'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귀촌'이라는 표현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도시근로자의 농촌이주 현상과 함께 등장하여 2000년대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귀농귀촌은 주로 경제위기로 인한 도시 실업자의 현실 대응 차원[5]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최준호 2013; 최병관 2019). 결국 1998년-1999년 크게 증가했던 규모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자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는 2000년대 후반까지 주춤한 상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그림 1]).

[그림 1]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1990-2017년)



※ 출처: 마상진, 박대식(2019) 21쪽 <그림 1>

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농귀촌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말부터이다. 이 현상에 대해, 일부 논의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도시 실업자의 귀농귀촌이 1997년-1998년 시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되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정다래

5) 단적인 예로, 유정규(1998)는 이 시기 귀농 정책이 농림부의 단독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실업문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상호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9: 2; 오수호 2011). 그러나 귀농귀촌 인구 규모는 1990년대 말과는 달리, 이후 2010년대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속됐고, 이 현상을 새롭게 분석하는 연구와 담론들 역시 크게 늘어났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귀촌'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말이 되어야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박수진, 나주몽 2016: 132), 귀촌 개념의 등장은 2010년대 이후 귀농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인구이동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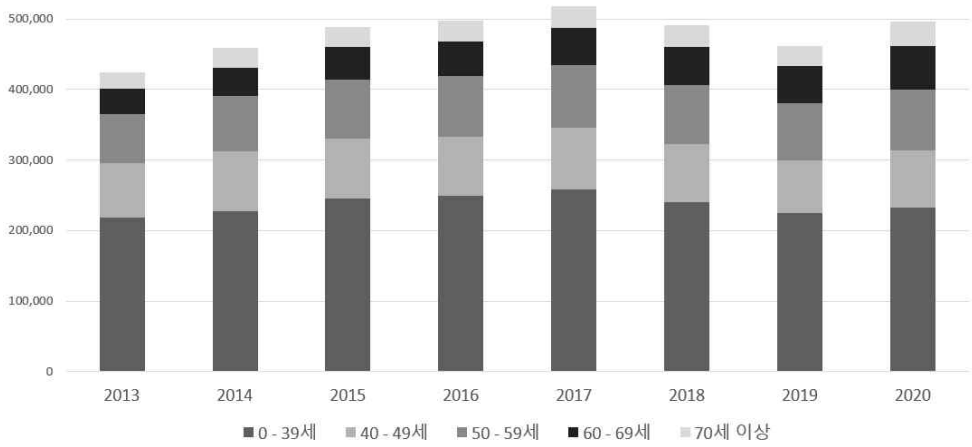
2012년 이후 통계청의 귀농귀촌 가구 및 가구원 집계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6] 그 수치를 연속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10년대 들어 귀농귀촌의 규모가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송미령 외 2015; 김정섭, 이정해 2017; 홍윤실 2019 등). 이미 2013년 40만명을 넘어섰던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49만 6천에 육박했고(김정섭, 이정해 2017: 4), 2019년까지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추세가 '초기 귀농귀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한다. 귀농귀촌의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이 흐름을 구성하는 인구집단의 성격과 이동의 이유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귀농귀촌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 인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외(2015)의 연구 역시 2010년대 들어선 귀농귀촌 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귀농귀촌은 60대 이상 은퇴 연령층보다는 30대 이하 및 40-50대의 증가폭이 크며, 귀농귀촌자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도시 근교의 특정 지역(경기, 충북권)에 집중되던 추세가 전국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셋째, 1인 가구보다는 가족단위 이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귀농인구보다는

6) 2012년 이전의 귀농귀촌인 관련 통계는 각 지역 마을이장을 통한 설문조사 혹은 행정조사를 집계하여 구성되었으나,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농어·귀촌인의 법적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고, 이를 집계하는 방식도 주민등록자료와 농·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의 신고 기반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통계정보보고서 2019). 이같은 변화는 귀농귀촌 현상에 대한 접근 시각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이 절의 2.에서 상론한다.

귀촌인구 증가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 자원 등 '어메니티'를 갖춘 곳일수록 유입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역별 차이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래 농촌 인구 증감 추이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2] 통계청 2013-2020년 연령별 귀농·귀어·귀촌인 합계 규모(명)



또한 기존의 농촌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 귀농귀촌 인구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강대구 2006; 정진화 외 2014; 채상헌 2013). 가령 우성호, 이성근(2015)은 경상북도 지역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귀촌 전 직업이 회사원(30%), 자영업(28%), 전문직(19%), 공무원(10%)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200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귀농귀촌은 지역 정책 혹은 담론에서 인구 규모의 차원과 인구 구성의 차원 모두에서 지역 인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기도 한다(노재선 외 2013; 박문호 외 2014). 2010년대 귀농귀촌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농촌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와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치를 잠재하고 있는 이동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마상진, 남기천 2015; 이선영 2017).

이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귀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식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지만,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귀농귀촌을 다루기 위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9년에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2016년에 새로이 수립, 2017년에 발표[7]하는 등 귀농귀촌을 지역과 농림어업의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마상진, 박대식 2019).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은 5대 추진전략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청년 농업창업 지원, 귀농귀촌 교육 내실화, 귀농귀촌 저변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학교 등 제도적 기관이 설립되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에 맞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김철수 2017; 염미경 2019).

이러한 변화는 귀농귀촌 개념에도 반영되었다.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귀촌 현상을 포섭하고, 개념상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등 관련 정부기관은 2015년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귀농'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7) 2009년 4월 발표된 정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경우,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1997-1998년 IMF 금융위기 시기에 급증했던 귀농귀촌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이민수 외 2009: 19-20). 반면 2016년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은 2010년 이후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귀농귀촌이 지역인구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호[8]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다. 다음으로 '귀촌'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며 이때 군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와 앞의 귀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은 제외된다(이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0: 5-6쪽에서 재인용). 이때 농어촌지역이란 행정구역상의 읍·면(邑·面) 지역을, 농어촌 외 지역이란 도시 지역으로, 동(洞) 지역을 의미한다(마상진 2018: 8).

2015년『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는 '거주지 이동'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중요한 변화를 보인다. 오수호(2011: 78)에 따르면 2006년 당시 농림부에서 제시하는 '귀농'에는 농촌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도시민의 유입과 농촌을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의 농업 종사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귀농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으로 범위가 제한된다[9]. 또한 2015년 법률 제정은 '귀촌' 영역에서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한 이주자를 중심으로 귀촌 현황을 파악해왔으나, 거주지 변화만을 기준으로 귀촌을 파악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마상진 2018). 이렇게 기준이 변한 데는 지역의 인구 문제가 심화되면서 주민등록 상의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 방향도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5년 제정 법률에서 귀농귀촌 현상을 정의하고 집계하는 데는 두 가지 정책적 목적이 담겨있다. 하나는 귀농귀촌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주 대상을 가려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에서 농촌으

---

8) 제2조제3호: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참고 조항: 제2조제1호: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2조제2호: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이 조건에 맞는 귀농 이주를 집계하는 방식은 한 해 동안의 주민등록부상의 이동과 농업경영체 등록 명부를 대조하여 교차하는 경우를 계상하는 것인데, 귀농인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 해의 귀농인구가 과소 집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로 이주하는 인구를 보다 실상에 가깝게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김기홍 2018). 그러나 2010년대의 이 흐름이 다양한 형태의 이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두 가지 목적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동의 모습은 다종다기(多種多岐)한데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대상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지역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 '실제 정책 지원 대상'을 구분해내는 작업은 더욱 어렵게 된 측면이 있어 지자체별로 별도의 '귀농귀촌' 집계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김기홍 2018).

대표적 사례로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귀농인'과 '귀촌인'의 범위가 제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삼선재단 귀농귀촌 보고서(2015)를 참고하면, 가령 양평군은 "귀농인이란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어업으로 전업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양평군에 전입한 만 3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20대 청년과 61세 이상 인구는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은군은 "타 지역에서 보은군으로 이주하여 농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중략)… 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삼선재단 2015: 78).

이러한 상황은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면서도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촌' 현상이 증가하면서 더욱 복잡해진다. 귀농은 귀촌에 포함되는 개념인가, 아니면 귀농과 귀촌은 병렬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인가, 아니면 '귀농귀촌'으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가 등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진양명숙, 김주영 2014: 124).

그런데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첫째,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와 둘째, 현상의 성격과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2010년대 증가하고 있는 도시-농촌 간 이주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현상을 적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귀농귀촌 개념이 포착해내는 대상에 한계가 있다면 이 현상의 원인과 성격을 진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현상의 원인과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지역 정책의 방향도 다르게 조응될 것이므로 이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기존

의 귀농귀촌 연구들이 이 현상의 발생과 특징을 어떻게 설명해왔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2. 귀농귀촌 현상의 규명: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귀농귀촌 현상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는 크게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방식을 취한다. 미시적 접근은 이주자를 분석의 단위로 하여 귀농귀촌의 의미와 계기를 파악하고, 이주자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거시적 접근은 사회구조적 변화나 이주 지역의 조건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귀농귀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각 선행연구를 두 가지 접근방식에 따라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2010년대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시적 접근

귀농귀촌을 행위자 수준에서 설명하는 연구는 이주자의 동기를 탐색하여 이를 유형화하거나, 이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귀농귀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강제이주나 자연재해로 인한 비자발적 이동이 아니라면, 이주는 행위자의 의지와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주자의 특성과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귀농귀촌 연구들이 이주자들의 동기 분석에 주력하고자 했다(강대구 2007; 진양명숙 2008; 이민수, 박덕병 2012; 마상진 외 2018; 마상진 2018; 최돈우 외 2019 등).

대표적으로 강대구(2007)의 연구는 귀농 동기에 따라 농촌 정착 과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아래 2005년 귀농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주 동기에 따라 '농촌생활선호집단, 이상추구집단, 사업실패집단, 도시생활문제집단, 퇴직집단, 영농승계집단, 건강문제집단, 기타 집단'이라는 유형들을 도출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농촌생활 선호집단’(20%)과 ‘이상추구집단’(18%)으로 나타났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진양명숙(2008)의 연구 역시 진안 지역 귀농자 22명을 심층 면담하여 ‘시골에서의 삶을 희구하는 집단’, ‘부모 부양을 위해 귀농한 집단’, ‘경제적 기대가 있는 집단’으로 이주 동기를 분류하였다.

2010년대 이전 연구들이 주로 ‘귀농’을 다루는 데 비해 201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상당수가 ‘귀농귀촌’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하여 논의하고 있으며(박시현, 최용욱 2014; 진양명숙 2014; 우성호 2013; 마상진 외 2018; 마상진 2018 등), 귀촌 이주만을 다룬 연구들(이민수, 박덕병 2012; 왕재억 2017; 이선영 2017 등)도 제출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귀농귀촌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 동기보다는 농촌 공간과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2010년 이전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타난다(박성복 2013: 254; 마상진 2018). 또한 귀농귀촌의 동기가 이주 과정과 지역 정착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송인하 2013; 우성호 2013, 이성일 2016; 왕재억 2017 등)도 보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들 연구가 밝혀낸 귀농귀촌 동기의 내용 차원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이민수, 박덕병(2012)의 연구는 도시민의 귀촌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동의 이유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 기회, 공동체적 삶 추구, 가족의 건강과 자녀 교육, 전원적 삶과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 등을 도출하였고, 마상진 외(2018)와 마상진(2018) 연구는 귀농귀촌 주요 동기로 ‘경제형’, ‘생계형’, ‘대안가치형’, ‘은퇴전원형’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조사 항목이나 도출된 범주를 살펴보면 2010년대 이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 이전의 귀농과 2010년대 이후의 귀농귀촌을 추동하는 의미와 동기의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래에 증가하는 귀농귀촌의 추세는 귀농귀촌 초기의 현상과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이를 고려한다면 귀농귀촌 동기와 의미에 대한 연구 결과가 큰 틀에서 다르지 않

게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인식하는 틀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물론 2000년대 이후로 귀농귀촌의 내용이 바뀌고 있음은 기존 논의의 틀에서도 일정 부분 포착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동기와 관련된 이주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데 비해 대안적·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관련된 이주의 비중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음은 다양한 연구에서 폭넓게 밝혀지고 있다(이해진, 김철규 2013: 69). 그러나 이동의 크기로 본다면 경제적 동기와 관련된 이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는 이동'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경제적 요인과 가치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작용이 실제 이주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질문과 일부 연구의 문제제기(삼선배움과나눔재단 2015; 김정섭 2018)가 나타난 것도 그 때문이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미시적 연구 중 개인의 동기를 분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귀농귀촌 결정 혹은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주로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도시민들의 특성이 귀농귀촌 의사나 실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연구가 설정하고 있는 모집단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령 서만용, 구자인(2005)의 연구는 2004년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학교를 수료한 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귀농인들은 학력이 높고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문승태, 김선애(2011)는 서울과 6대 광역시 거주 도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귀농귀촌 의향을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낮은 사람, 그리고 농촌에서 거주한 적이 있거나 농수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도시민에게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일홍과 이성우(2010)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

하여 도시민의 농촌이주확률을 추정하였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15-34세의 이주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주 확률이 낮아지다가, 55-65세 그룹에서는 은퇴의 효과로 이주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이상 가족보다는 2인 이하 가족의 이주율이 높았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이주는 강원권, 충청권으로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진, 김철규(2013)의 연구는 귀농귀촌인을 경제효용형, 대안가치형, 생활편의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대안가치형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교육 수준이 높고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돈우 외(2019)의 연구는 서울, 경기도 거주 50대-60대를 대상으로 귀농 의향 및 귀농 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60대보다 50대가 귀농 결정 확률이 증가하였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귀농 관심도가 높을수록, 귀농에 예상되는 투자금이나 생활비가 적을수록 귀농을 결정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연령에 주목하는 경우 잠재적 귀농귀촌 집단이 청년 혹은 은퇴인구 등으로 생애주기적 특징에 따라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또다른 특징이다(정일홍, 이성우 2010; 오수호 2011; 박수진, 나주몽 2017 등). 그런데 이러한 특징 역시 시기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2010년대 이전의 귀농귀촌 연구, 혹은 은퇴 후 귀농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등 은퇴 연령대의 인구를 귀농귀촌의 주요 집단으로 위치짓는 논의들이 있으나(오수호 2011: 85), 지역으로 청년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최근에는 청년을 귀농귀촌의 주역으로 호명하는 논의들이 늘어났다(예를 들어 박수진 2018; 민지애 2018; 김반석 2019 등). 이들 중 일부는 귀농귀촌인의 미시적 특성 중 연령, 생애주기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청년 혹은 은퇴자로 연구 대상을 더욱 한정하기도 하였다.

귀농귀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연구 대상(모집단)이 지역별, 연령별, 시기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 역시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서로 불일치하

는 지점도 발견되었다. 이주자의 동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0년대에 이 현상이 추동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는 바가 적은 것이다. 도시 거주자들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전망이나 의미, 개인적 특징뿐 아니라 이러한 특징이 형성된 사회경제적 맥락과 농촌 지역의 역학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이주자의 미시적 성격으로만 설명할 경우 이러한 거시적 맥락은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의 동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 중에서는 사회구조적 배경을 설명한 연구들도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귀농귀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을 검토한다.

2) 거시적 접근

귀농귀촌은 이를 실행하는 행위자들이 농촌 공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거주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주 실천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과 평가, 판단의 근거에는 개인의 특성과 경험뿐 아니라 미디어, 정부 정책, 사회의 정치·문화·경제적 조건들, 즉 거시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귀농귀촌 현상을 설명해 온 주요한 거시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도시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를 피하기 위한 현상이라는 '도시후퇴설'이다. 둘째는 베이비부머 인구가 대거 은퇴하면서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났다는 '베이비부머 은퇴설'이다. 셋째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의 변화로 생태적 가치, 대안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문화가치설'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중앙 정부의 정책적 요인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 조건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역조건설'이다.

그런데 이때 각 설명이 거시적 구조에 대한 논의라고 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와 별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각각의 거시적 설명 요인은 미시적 분석과 일정하게 연결되고 중첩되고 있음을 아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도시후퇴설'과 '문화가치설'은 귀농귀촌인의 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베이비부머 은퇴설'은 귀농귀촌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에 대한 논의와 중첩된다.

먼저 도시후퇴설은 경제위기로 인해 도시생활이 어려워진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귀농, 이주한다는 설명이다. 1990년대 말에 증가한 귀농 현상은 도시후퇴설로 설명되고 있다. 즉 1997-1998년 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촌 지역으로의 이주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 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도시후퇴설'로 진단하는 시각들도 존재했다(정다래 2009: 2). 그러나 2010년대 내내 귀농귀촌 흐름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도시후퇴설보다는 다음에서 살펴 볼 베이비부머 은퇴설, 문화가치설 등이 더 주요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설은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부머들이 2010년대에 은퇴 연령기에 접어들면서,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8-2009년의 경제 위기가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뿐 아니라 조기퇴직에도 영향을 주면서 은퇴 인구가 크게 늘었고, 이것이 귀농귀촌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도 1946-1964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생활로 인한 도농 간 이주 증가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오수호 2011: 78). 베이비부머 은퇴설의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은 은퇴 인구를 지역 쇠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동력으로 주목하면서, 이들 연령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오수호 2013: 85). 또한 이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요인으로 전원주택이나 주거환경의 쾌적함이 중요하게 분석되기도 한다(유기은, 고성수 2015).

그러나 2010년대의 도-농 간 이주는 이미 살펴보았듯 청년층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의 논의에서는 은퇴 연령대의 인구보다는 젊은 청년 세

대의 증가 추세가 주목되며, 청년 세대가 지역 사회에 더 많은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기도 한다(송미령 외 2015; 박수진, 나주몽 2017 등).

문화가치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 생태적 가치의 추구, 자본주의적 삶에서 벗어난 대안적 삶의 실천 등 다양한 선호와 가치를 실천하는 생활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박성복 2013; 박현제 2015; 김정섭, 이정해 2017; 마상진, 박대식 2019 등)으로, 최근의 귀농귀촌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한다. 가령 박성복(2013)은 2005년 이후의 귀농이 생활 환경에 대한 웰빙(Well-being) 추구, 공해, 소음 등 도시환경에 대한 불만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선호 보편화 경향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문화가치설에서 주요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의미는 자연환경에 대한 지향과 대안적 삶의 방식의 추구로 요약해볼 수 있다. 두 가지 지향은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구분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2016년 귀농귀촌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김정섭, 이정해(2017)의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의 귀촌인들에게서 농촌 이주의 이유로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연환경 외에도 도시적 삶의 피로감을 벗어난 생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생활에 좀 더 목적이 있는 이주도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선영(2017)의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주 현상은 '문화귀촌'인데, 이를 정의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자본주의 산업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이 삶을 새롭게 실천하는 방식'이다(이선영 2017: 21). 이 같은 기준에서 문화귀촌은 꼭 농촌으로의 이주가 될 필요는 없으며, 삶의 방식의 변화 여부가 더 중요한 요건이 된다(송수연 2013).

위의 두 가지 의미는 어느 쪽이든 비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데, 이렇게 비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이주 동기가 된 사회적 맥락으로 마상진, 박대식(2019)은 일과 삶의 균형, 즉 소위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자유로운 생활방식의 사회적 확산을 제시한다. 이해진, 김철규(2013: 50)는 벤슨과 오라일리

(Benson and O'Reilly 2009)의 논의를 가져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전환을 추동하는 "현대 사회의 성찰성 증대"와 연관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지역조건설'은 지역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비롯하여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이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흡입 요인으로 작용하여 귀농귀촌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의 연구는 여러 지역 조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창현 외 2008; 박기서, 정일훈 2012; 성주인, 김성아 2012; 우성호, 이성근 2015; 이철우, 전지혜 2015 등).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지역의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만큼 전국적 범위의 분석보다는 지역권역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손능수, 이재모 2012; 우성호, 이성근 2015; 이철우, 전지혜 2015 등).

이때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는 지역의 조건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귀농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과 영농여건, 자연환경과 함께 연고지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손능수, 이재모 2012; 성주인, 김성아 2012). 귀촌인의 선호 지역 요인에서는 3차 산업 고용자수, 대도시와의 거리, 평균공시지가, 주택증가율, 의사 수와 같은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박기서, 정일훈 2012). 귀농귀촌을 함께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저렴한 토지 가격, 대도시 접근성, 생활환경 등의 요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다(이철우, 전지혜 2015; 우성호, 이성근 2015 등).

또한 농어업 관련 일자리들이 도시적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귀농귀촌이 증가할 수 있었다는 진단도 있다(김정섭, 이정해 2017; 마상진, 박대식 2019: 25). 즉 '6차 산업[10]으로서의 농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발돋움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에

10) 6차 산업이란 전통적인 1차 산업으로서의 농림수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2차, 3차 산업과 결합한 복합산업의 개념이다. 즉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1) +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2) +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업(3) = 6차 산업(6)을 표현한 개념어라고 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단순히 각 산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이 결합하며 상호작용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2×3 = 6" 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이승희, 황동률 2021: 34). 귀농귀촌인 인터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사례로는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장체험'을 관광상품으로 제공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차, 즙, 청 등으로 가공하여 팔기도 하는 다각적 농업 활동이 있다.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육성·관리되고 있다.

종사하는 방식의 귀농이나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방식의 귀촌 외에도 여러 형태의 농촌 이주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거시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귀농귀촌 증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령 박수진, 나주몽(2016)의 연구는 1997-2016년의 기간 동안 귀농귀촌이 국내외 경제적 상황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요인이 도시인구를 분산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호작용하여 촉진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송미령 외(2015)의 연구는 도시의 높은 주택 가격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압출 요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탈근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흐름, 2005년부터 본격화된 귀농귀촌 촉진 정책이 함께 귀농귀촌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박현제(2015)의 연구도 '전원생활'이라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경향의 확산과 농촌의 공동화를 막으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귀농귀촌 현상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한 사회적 배경을 제안하였다. 각 설명은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 지역, 인구집단에 작용하는 사회구조적 효과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2010년대 도-농 이주의 이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도시후퇴설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 현상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2010년대 귀농귀촌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11].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은퇴설도 2010년대 초까지의 농촌 이주, 그리고 귀농에 국한했을 때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지만, 2015년경을 전후하여 귀농과 귀촌 모두에서 젊은 연령층의

11) 2008년-2009년 세계적 경제위기가 이후 경제·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자리 구조와 고용안정성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이 변화의 효과로 인해 증가한 사회적 유동성이 2010년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도시에서의 실직과 경제 상황 악화가 농촌으로의 회귀로 대응되는 1997년-1998년의 도시후퇴설로는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여러 연구들이 2010년대 귀농귀촌은 1990년대 말의 귀농귀촌과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 까닭이다(오수호 2013; 이연숙 외 2019: 16; 홍윤실 2019: 15 등).

이동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점, 귀촌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된다.

근래의 귀농귀촌, 특히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문화가치설이 대체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화가치설에 대한 논의는 이주자의 동기 중심의 분석이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어떻게 조응되는가의 지점에서 보다 발전될 필요가 있다. 문화적·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공간으로 농촌 지역을 선택하는 흐름이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된 것은 행위자 동기 중심의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민들의 이주 실천에 나타나는 다양한 동기와 의미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동기가 확장되는 사회구조적 배경, 즉 거시적 차원의 설명으로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비어 있다[12].

이 같은 논의의 공백은 이 이동이 가지는 거시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대안가치형 귀농귀촌'을 분석한 이해진, 김철규(2013)의 연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언급한다. 즉 연구대상이 진안군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대안가치형' 귀농귀촌이 '경제효용형' 귀농귀촌에 비해 어느 정도로 우위에 있는지,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촌 이주 유형이 전국적인 추세로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해진, 김철규 2013: 69).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선행연구뿐 아니라 지역조건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분석 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 이동의 흐름 변화가 감지됨에도 불구하고(엄창옥 외 2018; 이찬영 2018 등) 전체 인구이동에서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이동 이론과 모빌리티 이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제안할 것이다.

---

12) 한 예로, 문화적 가치가 추동되는 사회적 배경으로 도시에서의 불안정성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불안정성' 요인은 1997-1998년과 2008-2009년 금융위기 시점에서의 불안정성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다.

3. 귀농귀촌 담론의 성격과 한계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귀농귀촌'으로 명명되는 현상의 구체적인 모습과 발생 맥락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명하였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주로 귀농귀촌을 하는 이유(동기)와 생애주기가 주요하게 다루어졌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귀농귀촌을 추동한 사회구조적 배경과 지역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생활방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귀농귀촌 사이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이 연구들은 연구 방법이나 분석 대상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공통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201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 현상이 사회구조적 변화로서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근대의 발전주의적 인구이동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이 파악되어야 한다고 논하였다. 그러나 이 절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지점에서 이 두 가지 논점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모두 '귀농귀촌'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현상을 포착하고 풍부한 논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귀농귀촌 개념이 2010년대 도시 거주자의 농촌 지역 이주 현상을 적실하게 포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귀농귀촌'은 특정한 방식으로 도-농 이주를 포착하는 개념이다. 박수진, 나주몽(2016: 132)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귀농귀촌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책적 목적에 의해 정의된 용어이다. 따라서 그 정책적 지향에 따라 포섭하는 이동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시기와 목적에 따라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귀농귀촌 개념으로부터 '누락되는' 이동이 존재하게 된다. 201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은 귀농귀촌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이동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염미경(2019)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는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미디어에서 회자되는 '제주 이민'으로는 제주의 인구 증가를 설명할 수 없

다는 것을 지역별 인구 변화 추세를 통해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주의 인구 증가는 2010년도를 기점으로 독특한 양상이 나타난다. 2000-2009년의 인구 증가는 택지개발사업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원인으로, 제주시와 애월읍에서만 나타났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는 비(非)시가지 지역, 예를 들어 한림읍, 한경면, 우도면 등과 같은 읍·면 지역에서도 인구 증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역시 지속되고 있기에, 2010년을 기점으로 한 제주의 인구 유입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유입 양상은 귀농귀촌 개념으로 포착하기는 어렵다.

귀농귀촌 개념의 한계는 자료 상의 한계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방법 상으로도 전체적 흐름을 구성하기 어려운 지점을 내포한다. 앞서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농귀촌의 개념이 시기와 주체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에 국가 통계의 내용도 그에 맞춰 변해왔다. 2012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어촌에 이주한 자'만을 귀촌으로 포함하던 것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촌의 정의가 크게 바뀌면서 자료의 시계열적 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분석적 한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지자체에 따라서는 통계청의 집계가 실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자체적으로 귀농귀촌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 경우(금산군, 논산시, 청양군 등)도 존재한다(김기흥 2018: 62).

이와 같은 여러 차원의 한계는 결국 이 현상의 사회구조적 함의를 규명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귀농귀촌이라는 개념이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박기서, 정일훈 2012; 박경환 2017; 박수진, 나주몽 2017; 임석회 2017 등). 박기서, 정일훈(2012)은 2001-2008년의 기간 동안 대도시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촌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귀촌 현상에 도시성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였다. 박수진, 나주몽(2017)의 연구도 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농촌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인근 대도시 지역으로의 통근 증가 등으

로 농촌 공간의 정체성이 변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더욱 직접적인 문제제기로 임석회(2017: 45)는 2008년 이후 귀농귀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도향촌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으로 보지만, 귀농귀촌인 중 농업 종사자는 4%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귀농귀촌 현상의 실제 성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귀농귀촌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도 연결된다. 귀농귀촌 흐름이 농촌성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도시화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박경환(2017)은 귀농귀촌이 도시 공간에 대한 대립항 혹은 저항적 공간 형성으로서의 '역도시화'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시민들이 농촌을 자본주의적으로 잠식하는 양상으로서의 '촌락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볼 것인지를 묻는다. 박수진(2018)은 도-농 간 인구이동 흐름을 도시의 외연적 확산 혹은 분산화로 평가한다(박수진 2018: 3). 다만 이동의 목적지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귀농귀촌의 목적 역시 다양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상의 성격을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종합하자면 농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도시 인구의 성격은 복잡·다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적·이론적 작업이 보다 발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가 귀농귀촌 개념의 분석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짚은 것이었다면, 다음으로 귀농귀촌 논의에 전제된 관점의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귀농귀촌을 다룬 연구는 미시적 수준에서 귀농귀촌자의 관점을 취하든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의 관점을 취하든, 귀농귀촌에 긍정적 의미와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이를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관점이 전제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정책적 지향이 경제·개발·성장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귀농귀촌 시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청년층 귀농귀촌을 호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도시 은퇴자의 귀농귀촌은 (재)생산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농촌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박수진, 나주몽 2017: 292)'고 평가하면서 청년 인구의 귀농귀촌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송미령 외 2015). 최근의

귀농귀촌 논의가 산업화 시기의 경제개발논리 중심의 지역개발 담론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생산/재생산 인구 또는 청년 인구 중심의 관점은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청년 인구에 기대되는 역할은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발 귀농귀촌을 바라보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기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유정규(1998)의 논의에서 귀농귀촌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귀농귀촌은)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지 유휴화·황폐화 등 농지의 조방적 이용(생산력 저하)을 막고 농업 후계 인력 확보의 곤란을 해소하며 나아가서는 젊은이의 부족으로 인해 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다" (유정규 1998: 24)

1990년대 경제위기로 추동된 귀농귀촌을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이 20년 후 2010년대 귀농귀촌 담론에서 청년층의 귀농귀촌에 기대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이에 김반석(2019)은 귀농귀촌 담론에서 표상되는 청년들의 모습과 실제 이주 청년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내용의 괴리를 지적한 바 있고, 김기홍(2018) 역시 귀농귀촌인에게 농어업인으로서의 역할,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이주민들이 실천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김기홍 2018: 80).

청년의 귀농귀촌 외에도, 정책과 미디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귀농귀촌 담론 전체를 크게 세 가지 대표적 이미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모두 일정한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농촌 지역의 후속세대이자 6차 산업의 주체로서의 생산인구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가치를 좇는 실험적 기획자 이미지이며, 마지막 하나는 은퇴 중산층의 전원생활자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들은 귀농귀촌을 도시인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귀농귀촌자를 선별하고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인은 농촌 지역의 후속세대가 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실험하고 도전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의 상(像)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 귀농귀촌 경험의 복잡다단한 차원과 맥락을 생략하고 단면화한 것에 가깝다. 대표적인 예로, 귀농귀촌은 귀농과 귀촌을 뚜렷하게 분리하기 어렵고 많은 경우 이주자는 귀농과 귀촌의 양상을 오간다. 귀농귀촌인의 실제 삶은 매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과 귀촌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우성호, 이성근 2015). 귀농을 위해 이주하였으나 영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고 귀촌으로 전환한 경우, 귀농이 최종 목적이지만 영농시설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할 수 없어 귀촌으로 이주 생활을 시작한 경우, 애초에 '반농반X'[13]의 생활을 위해 영농과 귀촌 활동 모두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마상진, 남기천 2015: 93). 마상진 외(2018)는 자녀를 분가시키고 이주하는 귀농인들은 연금과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생활하면서 영농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귀촌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귀촌형 귀농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김기홍(2018) 역시 정부가 규정하는 귀농귀촌 개념과 실제 농촌 생활의 다양한 형태 간의 괴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역귀농 후의 재(再)귀농귀촌이 이뤄지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 어렵고,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농 소득을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귀촌의 형태로 생활하거나, 귀농하였으나 경작이나 판매에 실패하여 귀촌 생활로 전환하는 등 농촌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전개되고 있다.

귀농귀촌 담론의 가치 지향성이 실제와 괴리를 보이는 부분은 귀농과 귀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도 드러난다. 유입 인구 규모로만 본다면 귀농보다 귀촌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정책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학술 논의에서는 여전히 귀농이 주요 초점이기 때문이다.

---

13) '반농반X'란 일본 생태운동가인 시오미 나오키가 제창한 삶의 방식으로, 생활의 반(半)은 소규모 농업 종사를 통해 자급자족하면서 나머지 반은 자신이 원하는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수입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시오미 나오키 2016).

이는 귀농귀촌 개념의 기원이 '귀농'이라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농촌으로의 이주가 '영농을 통한 도시민의 실업 해소'나 '농촌 인력의 충원'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최현선 2016: 36; 김기홍 2018: 51). 최근 들어 지역의 문제가 '농촌 인력의 부족'을 넘어 '절대 인구 부족'으로 심화되면서 농업 종사 여부를 떠나 도시 은퇴자와 청년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정책의 목적이 바뀌며 '귀촌'이 주목받고는 있다(진양명숙 2015). 그러나 김정섭, 김종인(2017: 34)의 연구에서 지적되듯이, 지자체의 정책은 이름만 귀농귀촌일 뿐 '귀농'이 아닌 '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인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인지하고 경험하는 이동과 농촌 공간의 모습이 귀농귀촌 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201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이동에서 사람들이 농촌 지역이라는 공간을 전망하는 방식과 이주 실천에 부여하는 의미를 포착해내는 이론적 틀로서 귀농귀촌 개념 및 관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귀농귀촌 논의의 한계를 넘어서 2010년대에 새롭게 포착되는 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귀농귀촌을 인구이동 현상으로 재구성하고 그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3절. 이론적 자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귀농귀촌 개념은 특정한 목적의 거주만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201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 현상을 전체적 흐름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를 추동하는 사회적 변화를 읽어내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이론적 전략을 취한다.

첫째, 귀농귀촌 개념으로 인해 누락되는 이동을 포괄적으로 포착하여 분석 대상으로 구성하기 위해 인구이동 이론으로 현상을 접근한다. 구체

적으로 이주자의 동기나 목적, 이주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이동의 방향 -즉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대상을 정의하여 포착할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단순화하여 현상을 포괄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주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동의 흐름을 오히려 포괄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포착한 뒤, 각 이동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역추적해가는 방식으로 이 이동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재구성할 것이다. 이때 이동을 포착하는 효과적 관점이자 정통적 관점으로서 인구이동 이론을 동원한다.

둘째, 201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를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읽어내고자 하는 이론적 전략으로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을 가져온다. 귀농귀촌 개념은 '농촌 지역에서의 정착'을 강하게 지향하는 관점을 함축하고 있었다. 농업에의 종사가 귀농의 조건이 되거나, 직장 근무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이주는 귀촌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2010년대 인구이동의 특성을 읽어내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2010년대 인구이동이 근대화 시기 발전주의적 인구이동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면, 특히 현대 사회의 유동성 및 이동성의 증가와 조응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러한 지점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모빌리티 이론을 가져온다.

이 절은 먼저 인구이동 이론에 기반하여 연구 대상을 '이도향촌 이주'로 정의하고, 이 관점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보다 확장된 지평에서 평가·해석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모빌리티 이론을 제안하면서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을 설명할 것이다.

1. 인구이동 이론: 이도향촌 이주의 구성

인구이동은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의 공간적 움직임을 이른다. 이 때 "이동(movement) 개념과 이주(migration) 개념"

은 구분되지만, 한국의 국가통계는 이동과 이주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박경숙 2017: 41). 이동은 다양한 층위의 공간적 움직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주는 거주지의 변경을 이르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이동통계는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변경을 집계한다는 점에서 '이주'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두 개념의 중첩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인구이동 이론의 관점에서 국내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할 때는 '이주'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에서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는 '이동'의 개념과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인구이동 이론의 관점에서 2010년대 증가하고 있는 도-농 간 이주 현상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이동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이주의 목적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출발지가 도시 지역(동 지역)이고, 도착지가 촌 지역(읍면 지역)인 인구이동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도향촌(離都向村) 이주'라고 표현할 것이다. 이 표현은 산업화 시기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던 인구이동의 흐름을 일컫는 이촌향도(離村向都)와 대비되는 2010년대 인구이동의 성격을 함축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다. 귀농귀촌을 이도향촌 이주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첫째, 이주를 동기나 목적, 그리고 정책적 기준에 부합하는가와 같은 틀에 따라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주, 다양한 이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인식되는 다양한 이주와 이동의 양태는 현대 사회의 유동성 증가와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인구와 인구이동, 그리고 이주와 거주 개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둘째, 귀농귀촌 개념에서는 '농(農)'의 가치를 담지한 공간으로서만 규정되어 있던 촌 지역을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변화의 도상에 있는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귀농귀촌 담론에서 표상되는 지

역은 도시와는 대비되는, 자연에 기반하여 농림어업이 이루어지는 '농(農)의 공간'이다(진양명숙, 김주영 2014). 하지만 촌 지역은 농업 공간일 뿐 아니라, 고령화되는 인구학적 공간이기도 하고, 새로운 인구유입을 촉발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시도를 행하는 정책적 공간이기도 하고, 이주자에게 실천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대안적 공간이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국가적 기반으로서의 농업의 보루로서 호명되다가, 점차로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의 위기에 처한 문제적 공간으로 호명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농촌 공간을 '귀농귀촌의 목적지'가 아닌, '이도향촌 이주 흐름이 흘러들어가는 공간'으로서 파악함으로써 그 공간의 다양한 구성을 포착하고 해석하고자 한다[14].

다만 이렇게 이도향촌 이주의 의미를 '이동'의 층위까지 확장하여 읽어내는 작업은 이 연구의 후반부(제4, 5장)에서 진행한다. 이 절의 2.에서 살펴볼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을 통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에는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지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이동'(모빌리티)이 얽혀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이동의 방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작동 기제의 차원, 그리고 의미의 차원에서도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의 위치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인구이동 변천 이론과 기제 이론을 검토한다.

1) 인구이동 변천 이론: '도시를 이탈하는 이동'의 등장

인구이동변천 이론은 인구의 성장에 단계가 있듯이 인구이동의 흐름에도 단계별 변천 과정이 있다고 보고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한 이론이다. 근대의 인구이동은 도시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따라 변천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구이동 변천 이론은 도시화 이론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렇

14) 이렇게 공간의 성격을 확장하여 논의한다면, 농촌 지역이 아닌 지방소도시 등으로 관점과 논의를 확장해볼 여지도 기대할 수도 있다.

게 인구이동 변천 이론은 인구이동을 사회 구조와 공간의 변화와 조응시켜 설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이 이론적 관점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인구변천이론을 간략히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해, 도시화 이후의 인구이동 단계에 대한 논의들을 설명하면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설명 가능성을 검토한다.

전통적 인구이동 변천 이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은 깁스(Gibbs 1963)와 젤린스키(Zelinsky 1971)의 이론이다. 두 이론 모두 인구이동 변천을 약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1단계는 대부분의 인구가 촌락에 분포되어 있으며 인구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초기 단계이다. 2단계부터 근대화와 함께 도시가 출현하고 이촌향도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난다. 2-3단계에서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농촌은 인구 유출이 자연 증가 규모를 초과하여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 마지막 4-5단계는 도시 중심의 공간 체제가 자리잡고 인구이동이 안정화되면서 도시-도시 간 이동이 주요 흐름이 된다. 또한 도시 문제가 심화되면서 인구가 교외로 분산되기도 한다.

인구이동 변천 이론의 설명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논리는, 인구이동과 공간이 상호 연관되어 밀접하게 공변해왔다는 것이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인의 이동, 이주 선택은 집합적 결과로서 인구이동으로 나타나며, 이 인구이동은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 공간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 즉 한 사회의 인구이동은 그 사회의 발전 단계와 상호 조응한다(Park 2019). 그렇기 때문에 인구이동 변천 이론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를 새로운 인구이동 단계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검토 준거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대도시 출현과 발달 이후, 현재 인구이동은 지역의 공간 구조 내에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천의 단계로 논의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세계적으로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추세가 변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 현상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이동은 어떤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이 현상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논의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 기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인구이동 기제 이론을 설명하는 논의로 넘어갈 것이다.

인구이동 변천 이론의 5단계 이후, 즉 도시화 심화 단계에서 논의되는 이동은 도시 간 이동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교외화 현상이다. 교외화 현상(sub-urbanization)은 도심 지역에서 주변 비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흐름을 말한다. 사람들이 과밀한 도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여 개선된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도심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이주 양상이다. 이러한 교외화가 지가가 싼 주변 지역으로 점차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은 교외 난개발(sprawl) 개념으로 비판적으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Byun and Esparza 2005).

그런데 교외화 현상과 더불어 '교외 지역'의 경계까지도 넘어가는 인구이동이 관찰되기 시작했다(Greenwood 1997: 656). 도시 주변에 잘 조성된 주거 단지로의 이동이 아닌,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촌 지역으로도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발달에 따른 도시화가 심화되어 대도시(Metropolitan)가 형성된 국가들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가령, 영미권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대도시에서 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행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Milbourne 2007: 381; Abrams et al. 2012: 271). 2000년 발간된 미국 센서스 특별 보고서는 1995-2000년의 기간 동안 미국은 도시에서 비도시로의 이동이 비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보다 많았음을 보고하면서, 이를 "(미국에서) 이동 데이터가 가용한 시점 이후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설명한다(Schachter et al 2003).

미국 외에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근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중산층의 주거 스타일 변화에 주목한 연구(Aner 2016), 그리스 아테네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주목한 연구

(Gkartzios and Scott 2015), 잉글랜드 지역의 농촌 이주 확산 연구(Halfacree 2008)와 네덜란드의 반(反)도시적 공동체의 농촌 이주 연구(Meijering, Hoven and Huigen 2007) 등 소위 북반구 나라들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촌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와 연결지은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김두환 외 2014).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지역과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포착되어 논의되고 있다. 먼저 도시로 인구가 유출됐던 농촌 지역으로 인구가 '되돌아온다'는 의미를 강조한 개념들로 '인구이동 역전현상: Population Turnaround', '농촌 재(再)-인구화: Rural Re-population'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다(Gosnell and Abrams 2011: 305; Meijering, Hoven and Huigen 2007: 357).

그러나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이 국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동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이를 다시 개념화하려는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대표적인 개념이 '역(逆)도시화: Counter-urbanization'인데, 1970년대 미국에서 도시의 성장률이 완화되면서 도심 주변부 비도시 지역의 인구와 자본이 성장하는 현상을 도시화의 새로운 단계(new stage of urbanization)로 설명하면서 등장하였다(Berry 1980; Nefedova, Pokrovskii and Treivish 2016). 역도시화 개념의 특징은 논의의 중심축이 '도시(Urban)' 공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단계에서 도시를 '이탈'하는 이동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역행하는 움직임으로 표상되었고, Fielding(1989)과 같은 학자는 이를 '역(逆)이주: Reverse Migration'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도시를 벗어나는 역도시화 혹은 역이주의 양상은 그 성격에 따라 다시 다양한 하위 개념으로 나뉠 수 있다. 도시 외곽의 근교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교외화 현상(Sub-urbanization)'도 큰 틀에서 보면 역도시화의 하위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논의로 미첼(Mitchell

2004)의 개념 연구를 살펴보면, 역도시화 개념은 탈 도시화(Ex- urbanization), 대체된 도시화(Displaced-urbanization), 반(反)도시화(Anti-urbanization)라는 세 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탈도시화(Ex-urbanization)'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 공간'은 도심에 두면서 거주지는 촌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이른다. 이때의 촌 지역은 도시 근교의 '교외화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와 연결이 가능한 권역 내의 지역으로, 탈도시화는 교외화가 심화된 개념 혹은 원거리 교외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대체된 도시화(Displaced-urbanization)'는 새로운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 도시든 농촌이든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경우는 도시에서 마땅한 일자리나 거주 공간을 얻기 어려워 농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反)도시화(Anti-urbanization)는 급진적 환경주의나 공동체주의에 따라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땅으로 돌아가기 운동: Back to the land'과 같은 움직임이 반(反) 도시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는 이주 목적지인 농촌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주의 목적이 되는 요인들이 강조된 개념으로서 '연성(軟性) 이주[15]: Amenity Migration' 혹은 '문화적 이주: Life style Migration' 개념으로 농촌 이주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고스넬과 애브람스(Gosnell and Abrams 2011)는 사람들이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 쾌적함 등의 가치를 추구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 연성 이주 개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이들은 세계 무역 자유화로 인해 농촌이 생산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 공백을 도시민들이 풍경, 여유, 삶의 질과 같은 가치를 상상하는

15) 'Amenity' 개념은 국내 논의에서 흔히 '어메니티'로 번역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라는 단어가 외래어의 지위를 아직 얻지 못한 외국어이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어로 대체하고자 '연성(軟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연하고 무른, 부드러운 성질이라는 사전적 뜻을 가진 이 단어는 '경성(硬性)' 개념에 대비되어 다음과 같은 용법을 가진다. ① 연성 가치: 정치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가리키는 경성 가치에 대하여 환경적, 도덕적 가치를 가리키는 가치. ② 연성 요소: 사회 일반 특정 지역에서만 제공해 줄 수 있는 문화, 생활 풍속, 습관, 지역 의식, 지식, 볼거리나 매력, 환경이나 생태, 쾌적함처럼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 ③ 연성 기술: 환경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환경에 우호적이며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영향을 창조하는 적정 기술. (이상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소비 공간으로 메우면서 향촌 이동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한다. 이와는 다르게 가르치오스와 스콧(Gkartzios and Scott 2015)은 문화적 이주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 경제 위기 후 아테네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대안적 공간을 찾아 지방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다루면서 향촌 이동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성 이주 혹은 문화적 이주는 또다른 성격의 이주를 수반하기도 한다. 네페도바 외(Nefedova, Pokrovskii and Treivish 2016)는 러시아의 '다차(Dacha)' 현상을 설명하면서, 도시 근교에서 자연환경을 소비하기 위한 중산층 이상 계급의 연성 이주 스타일이 이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주하는 계급을 새롭게 만들어냈음을 드러내어 보였다. 결국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은 국가와 지역,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각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요청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외(2015)의 연구에서도 다수 서구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농촌으로의 순유입 증가가 나타났지만, 국가에 따라 추세가 강화되기도 하고 역전되어 사라지기도 하는 등 일관된 경향을 찾을 수 없다고 논의한 바 있다.

국내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서구 1970년대 이후의 농촌 인구유입과 같은 흐름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인구이동 변천 과정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한국의 인구이동은 대도시 지역, 그 중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뚜렷한 흐름으로 유지되어 왔다(이희연, 노승철 2010: 125; 엄창옥 외 2018: 260). 1970-1994년의 기간 동안 이뤄진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전입 인구가 총 이동 인구의 53.1%를 차지했다(권용우, 이자원 1995: 26). 1966-1990년 기간의 인구센서스를 분석해보면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 지역(부산, 대구, 인천 등)의 인구성장이 여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최은영 2004). 그 중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두드러진 성장은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던 배경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인구이동 흐름은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1990년대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논의가 집중되

어 있다. 박수진, 나주몽(2016)은 1986-2015년의 기간 중 사회과학 학술지에 게재된 농촌 지역 관련 연구 중 인구이동과 관련된 논문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촌향도 현상을 다룬 경우가 대다수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농촌-도시 간 인구이동이 둔화되고 도시-도시 간 이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서울의 경우 순유입이 순유출로 전환된다. 광역시와 일부 시도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 유입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다만 이 시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여전히 강력한 흐름으로 유지됐으며, 특히 경기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 심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최은영(2004)은 1990년대 들어 서울의 순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 성장 역시 1995년을 기점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지역에서 인구 성장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수도권의 확장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보다는 도시 간 인구 이동의 규모가 주류를 이루는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권상철 2005: 575; 하상근 2005: 327). 이정섭, 은정인(2016)은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시군 지역 인구증감율을 통해 1995년까지는 전형적인 이촌향도가, 1995년 이후에는 낮은 계층의 도시에서 높은 계층의 도시(수도권)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을 것임을 추론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2010년대 들어서는 '역도시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박시현, 최용욱(2014)은 2010년을 기점으로 동부에서 읍부로 전입하는 인구가 읍면부에서 동부로 전입하는 인구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박수진(2018)은 도농간 인구유입 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이도향촌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이찬영(2018)은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 20대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계속 순유출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그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30대는 매우 다양한 이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40-50대는 광역도 지역으로 순유입되는 동시에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였다.

김이선 외(2019)의 분석에서도 고령화된 농촌 지역이 획일적으로 인구감소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국내 인구이동이 더 이상 도시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인구이동 흐름의 변화는 해외의 다양한 역도시화 논의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아직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포착되기보다는, '귀농귀촌'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앞서 2절에서 살펴본 풍부한 귀농귀촌 논의에 비해, 이 현상을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구성하여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창현 외(2008)는 국토 공간의 인구 분포와 도-농 간 인구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농촌 이주 인구'라는 개념으로 연구 대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민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농 간 인구이동의 방향성 변화와 농촌 정주 인구 분포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2000년대 농촌 이주에 대한 분석으로서, 2010년대의 양상과는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16]. 비슷한 맥락에서 오수호(2011)의 연구가 '농촌 지향 인구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김민영, 최현(2015)의 연구는 특별한 개념틀 없이 '제주도 이주'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이동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이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였다. 박수진, 나주몽(2016; 2017)은 '이도향촌' 혹은 '향촌이도'라는 개념어를 제안하였으며, 이어지는 연구에서 박수진(2018)은 '이도향촌'으로 연구 대상을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박수진(2018: 15)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을 가리키는 말들로 귀농귀촌 외에 향촌이도, 반(反)-도시화, 역(逆)-도시화, 도-농 이주 등이 있으나, 각 개념들은 '도시적 삶을 거부하고 농촌으로의 삶을 추구하는 이주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교외화 현상과 중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도향촌'

16) 가령, 도시민의 이주 지역 선호가 수도권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분석이 그러하다.

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김반석(2019) 역시 '귀농귀촌' 개념에 내포된 정책적 패러다임과 가치 지향성을 의식하여 이를 소거한 '중립적 표현'으로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혹은 '농촌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박수진(2018)과 김반석(2019)의 연구는 청년 이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 인구이동 흐름은 분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를 벗어나는 이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 중에서 어떤 개념이 한국의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가장 잘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귀농귀촌의 개념이 논의되어 온 맥락을 살펴보면 한국의 귀농은 '땅으로 돌아가기 운동(Back to Land)'이나 '반(反)-도시화'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고, 은퇴 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한 귀촌은 '연성 이주'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서 2010년대 귀촌의 도시적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박기서, 정일훈 2012; 임석회 2017 등)가보여주고 있듯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는 '교외화'나 '탈(脫)-도시화'에 더 가까울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각 개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이동의 성격이 규명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외화, 탈-도시화, 반-도시화, 연성 이주, 문화적 이주 등의 개념은 이동이 작동하는 방식과 이동에 부여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특정한 성격의 이동을 포착하는 '귀농귀촌'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상을 구성하는 접근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택한다. 즉 이도향촌 이주 전체를 포괄하여 포착한 후, 이 이동을 구성하는 이주 양상들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로서 적합한 개념과 의미들을 읽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이주 양상의 성격을 분석하는 이론은 이어서 살펴 볼 인구이동 기제 이론이다.

2) 인구이동 기제 이론: '다종다기한 이동'의 등장

인구이동 기제 이론은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제공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

의 성격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 된다. 여기서는 인구이동 기제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과 발전 과정을 개괄하고,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라벤슈타인의 인구이동론, 중력 모형, 경제적 균형모형, 흡입-배출 모형이 있다. 라벤슈타인(Ravenstein)의 인구이동론은 1885년 영국 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제시한 고전적 인구이동론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인구이동 행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인구이동의 대부분은 단거리 이동이고,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 대도시를 향한 이동이라는 점 등이 근대적 인구이동 일반에 대한 강력한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 또 다른 고전적 이론으로 중력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이동이 이뤄지는 두 지역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지역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인구이동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경제학적 균형 모형은 지역 간 임금 혹은 기대 임금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를 통해 노동 공급량이 조정됨으로써 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본다. 특히 토다로(Todaro 1969)는 도시의 실업률이 높아도 사람들은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기대 임금) 수준이 농촌에서의 기대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도시로의 이동을 계속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은 실제 인구이동이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제학적 모형은 사람들이 이동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실천한다는 인적자본 이론으로 분화하여 발전하였다. 사람들은 이주 목적지에서의 현재 기대임금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장래 이익을 고려하여 이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 이론이 사람들의 이동 실천을 설명하는 방식은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과도 동일하다.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은 행태주의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장소에 대한 효용과 이주 비용을 고려하여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인구이동을 설명한다. 이처럼 경제학적 모형들은 효용과 비용의 구조에서 인구이동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 이

론은 인구이동이라는 집합적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환원시켰다는 비판(이상림 2009: 46)과 도시의 실업문제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하상근 2005: 312)을 받는다.

또한 이들 이론으로는 역도시화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인구이동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점차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인구이동에서 경제적 요인의 효과가 근대화 시기만큼 결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국내 인구이동 연구의 추이를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인구이동 연구들은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주목한다(권용우, 이자원 1995). 한국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2, 3차 산업이 밀집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대거 이동한 것이다. 특히 제조업이 인구 흡인 기능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데, 이 시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수도권이다(권용우, 이자원 1995: 31). 2000년대 초까지도 지역에서의 취업 기회, 개발촉진지역 선정 여부, 지역 사업투자비 등 경제 관련 요인들이 지역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하상근 2005; 한이철 외 2005 등).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이 시기 연구들은 기업·공장의 유치, 낙후지역 개발, 그리고 중앙정부의 자원배분 등 경제적 유인을 지역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시기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공기, 웰빙 등 '삶의 질'을 고려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박소현, 이금숙 2019: 352). 연령대에 따른 인구이동 영향 요인을 여러 연구에서 분석해 온 이찬영의 논의(이찬영, 문제철 2016; 이찬영, 이홍후 2016; 이찬영 2018)는 최근 전 연령층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엄창옥 외(2018)는 고용 가능성, 임금 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

인 중심의 접근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농 간 노동력 이동을 설명하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논의하면서, 21세기 인구이동에 이러한 접근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구이동의 새로운 영향요인을 탐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연경(2017)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구이동이 어떻게 증감하는가를 검증한 연구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할당 정책 수준이 높을수록 유입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 정책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가질 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발견으로 제시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2000년대 이후 혹은 2010년대에 한국 국내인구이동의 방향과 기제 모두에서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번영보다는 삶의 질이나 가치적 차원을 중시하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년대 이후 귀농귀촌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와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구이동 기제 이론으로 흡입-배출 모형이 있다. 흡입-배출 모형(Push-Pull Model)은 이동의 목적지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입(Pull) 요인과 이동의 발생지(출발지)에서 인구를 밀어내는 배출(Push)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흡입-배출 모형은 분석상의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진다. 먼저 흡입-배출 모형은 인구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의 조건으로 이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개인들의 선택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한계를 벗어난다. 또한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영향력의 크기를 그 시기의 정치·사회·문화·경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 모형의 핵심이 되는 경제적 유인 역시 흡입-배출 모형에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동 결정, 이동 목적지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구조를 가정하는 경제학적 모형의 한계를 넘어선다(이상림 2009: 47).

흡입-배출 모형의 하위 모형으로 포섭될 수 있는 다른 이론으로 티부

(Tiebout)의 정책 가설 모형과 편의성 추구 이동 모형을 추가할 수 있다. 티부의 정책 가설 모형은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따라 사람들이 계속 거주하거나 이주하게 된다고 보고, 편의성 추구 이동 모형은 인구이동을 자연 환경, 환경의 쾌적함 등을 추구하는 거주지 이전으로 설명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연성 이주, 문화적 이주 개념과도 연결되는 설명 방식이다. 이들 이론은 경제적 요인만으로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비경제적 요인이 인구이동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원인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 고려될 만하다.

3) 인구이동 환경의 변화로 인한 관점 확장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 본 인구이동 이론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인구이동으로 구성하여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틀로서, 이 현상을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는가를 구조(변천론)와 성격(기제론)의 두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전통적 인구이동론은 도시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도시를 벗어나는 이동 및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이동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개별적 요인 중심의 접근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자리, 주택가격 등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동이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생활환경이나 정부 정책 등의 새로운 요인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지역 공간을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요인으로 도식화되어 설명되기 쉽다. 이렇게 각 요인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현상의 간명한 골격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칫 왜곡된 이미지가 표상될 수도 있다. 마치 이도향촌 이주가 중산층의 노후 전원생활로 그려지거나, 제6차 산업의 새로운 일꾼이 된 청창농(청년-창업-영농인)의 인생 드라마로 그려지거나, 자연과 '힐링'을 추구하는 히피적 삶의 방식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 이미지로 표상된 실제의 삶과 이주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여러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가시화됨으로써 최근의 이도향촌 이주에 담긴 새로운 역동성과 그 기저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간의 인구이동의 주된 흐름이 도시로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도시 중심의 관점에서 설정된 부분이 크다. 이렇게 도시의 성장을 설명하던 틀로 2010년대 촌 지역의 인구이동 변화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뿐 아니라, 이동을 구성하는 지역 공간도 개별화된 요인으로 이론화된다는 한계를 보인다. 전통적인 인구이동 이론은 이동을 출발지와 목적지라는 두 점을 잇는 선으로 흐름을 도식화한 모형으로 설명한다([그림 3]).

[그림 3] 도식화된 인구이동

그러나 이러한 도식화는 이동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여러 방향을 오가거나, 순환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환경 변화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출발지와 도착지 외에, 두 지점 사이에 이동의 흐름선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3의 공간은 없는지, 여러 공간의 연결망 속을 다양한 인구가 흐르는 과정에서 그 일부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이동이 단절적으로 포착되는 것은 아닌지를 이론적으로 상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의 도시가 발달하던 시기의 일방향적 이촌향도 이동이 아닌, 최근의 다변화된 이동의 움직임으로서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의 이주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둘째, 인구이동 기제를 설명하는 관점에 전제된 정주주의가 새로운 이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다. 인구이동 이론에서 이동은 언제나 '비용'의 개념으로 설정된다. 기존의 거주지를 떠나 거리를 이동하는 것

은 시간과 노력, 기회비용과 경제적 자원 등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목적지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다고 판단할 때 자발적 이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동은 이주 목적으로서의 위상으로는 고려될 수 없으며, 언제나 수단으로서의 위상만을 가지게 된다. 이주의 목적은 출발지의 열악함(압출요인)을 '탈출'하는 것이거나 목적지의 우수함(흡입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을 선택하는 이주자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연구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구조는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이동을 이주에 필요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과정으로 위치 지으면서 이동이라는 움직임 자체의 의미를 비가시화하는 효과이다. 이 움직임은 현대 사회의 유동성 증가의 맥락에 주목하는 이론적 논의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이론의 틀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학 이론은 후기 근대 사회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여 왔지만(바우만(Bauman)의 '액체 근대', 벡(Beck)의 '위험 사회'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모빌리티 이론은 현대 사회의 이동성 증가와 과학·통신·운송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하이퍼 모바일' 양상에 좀더 주목하고 천착해왔다(Adey 2019).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리 이동하고 있을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 외에도 사물, 정보의 이동성 증가 역시 괄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이동의 의미와 효과가 비가시화되는 관점은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점점 더 큰 한계를 노정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주의 움직임을 정주적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는 효과이다.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에 비추어보면, 그동안의 귀농귀촌 연구가 상당히 정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농촌 이주와 지역 공간을 전제하고 해석해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주자의 이주 과정의 맥락이나 이동성 자체보다는 이주 지역, 지역에서의 정착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자연스럽게 지역 중심, 정책 중심의 논의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 중심의 관점과 정주주의를 전제한 논의는 이도향촌 이동이 지역과 상호작용하며 공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기존에 반복되어 왔던 특정한 방식으로만 드러내어 보여 줄 가능성이 크다. 이 한계점은 인문지리학의 공간-장소 이론적 관점을 취할 때 보다 예민하게 감수된다. 도린 매시(Massey 2015)가 지적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공간과 장소는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획되어 있는 고정된 물리적 지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공간/장소에 흘러드는 무수한 움직임과 신체, 사물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과 신체, 사물들이 정치적으로 뒤엉켜 작용하면서 형성하는 효과를 은폐하고 공간/장소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물리적 대상'으로 만든다.

그러나 모빌리티 연구자 비셀(Bissel)이 강조하였듯이, 사람들의 이동 행위는 그 사람의 생활 세계와 정체성을 구성할 뿐 아니라, "이동하며 통과하는 환경에 자취를 남긴다(Bissel 2020: 22)". 그리고 이러한 이동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이동을 둘러싼 맥락과 환경까지로 확장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인구이동을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기계적으로 이동하는 원자와 같은 입자로 상상"하는 것에서 좀더 풍부한 이해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issel 2020: 23).

그동안의 귀농귀촌 연구나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 연구에는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구분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고, 이동은 이 구분된 두 지점을 횡단하는 선형의 움직임으로 개념화되어 있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는 도시를 거부하거나 도시에는 없는 어떤 것을 찾아서 비(非)도시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간주되고 해석되어 왔다고도 정리해볼 수 있다. 국가적·정책적 담론 수준에서는 여전히 도시와 농촌의 지역 구분이 공고한 가운데 촌 지역으로 다양한 인구이동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되어 온 촌락 공간으로의 이주 흐름을 어떻게 위치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된 바가 적다.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공간 체계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농촌 공간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가의 연구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서 살펴볼 모빌리티 이론으로의 관점 확장이 요청된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촌 지역에는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인구 유입

의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 흐름에는 다층적인 궤적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이론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장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의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보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모빌리티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2. 모빌리티 이론: 이도향촌 이주의 해석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다양한 양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의 확장이 요청된다. 모빌리티 이론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동을 포착하고 그 의미와 맥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한다. 여기서는 모빌리티 이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모빌리티의 한 종류로서의 '이주'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검토한다.

1) 모빌리티 이론의 개요

모빌리티 이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동에 주목하면서 그 움직임에 얽혀 있는 의미와 실천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패러다임(Cresswell 2006; Urry 2014; Adey 2019)이다. 모빌리티 이론이 포착하는 '이동'의 범위는 인구, 자본, 정보의 이동과 같은 거시적 움직임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의 교통, 수송, 여행과 같은 미시적 움직임을 모두 포괄한다(Hannam, Sheller, and Urry 2006: 1).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이 곧 모빌리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움직임(movement)은 '추상적 위치로서의 공간들 간 이동'을 가리키는 물리적 혹은 공간지리적 개념이다. 이에 비해 모빌리티(mobility)는 "의미의 짐을 지고 있는", 사회 규범, 관습, 믿음 체계, 이데올로기 등이 부여된 움직임이다(Cresswell 2006: 20-22; Salazar 2017: 6).

즉 모빌리티 이론은 다양한 이동 및 이동의 재현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읽어내고 사유하며, 모빌리티가 생산/재생산되는 방식 속에서 정치, 문화, 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Sheller and Urry 2006).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지향은 현대 사회의 극적인 이동성 증가에 조응하는 것이다. 어리(Urry 2014)는 정량적인 지표만을 본다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이동 시간과 횟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더 빠르게 멀리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화,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등 현대 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모빌리티'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본 것이다(Urry 2014: 24). 교통·통신 기술과 시스템의 발전, 자동차의 보급화로 인한 생산, 소비, 유통, 교통, 사회성의 총체적 변화(Adey 2019)를 거쳐 이제 사회는 '흐름의 공간'이 '장소의 공간'을 대체하는 '네트워크 사회'(Castells 2000)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렇게 모빌리티가 크게 증가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체성까지도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Elliot and Urry 2010: 22).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 이론이 다양한 대상의 이동과 이동의 재현을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현상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빌리티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무수한 이동들의 양상을 심도있게 포착할 수 있는 관점으로 기능한다. 둘째, 모빌리티가 생산되는, 또 생산하는 공간, 문화, 정치, 시스템을 새롭게 이해하고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김태희 외 2019: 33). 모빌리티 이론은 이전에는 간과되어 왔던 생활 세계 속의 이동 경험을 전면으로 부각시킨다. 이 경험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량을 조형하며, 이동이 촉발시키는 사회관계 및 공간에 관한 사고를 추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Bissel 2020: 43).

그리고 모빌리티 이론의 이러한 관점은 곧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설명 가능성을 열어준다. 첫째, '귀농귀촌' 담론에 포착되지 않은 다양한 이동 양태들을 하나의 이론적 대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모빌리티 이론은 "이동적 주체가

취급되고 명명되는 방식"에 대한 메타적 인지를 함축하기 때문이다(Adey 2019: 74). 가령 모빌리티는 호명 주체와 대상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예: 자본의 이동),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 난민의 이동). 이러한 관점에서는 귀농귀촌 담론이 농촌 이주자들을 호명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내재된 특정한 가치지향성을 보다 세밀하게 감수할 수 있으며, 담론이 상정하는 가치지향성에 의해 비가시화된 다양한 양상을 감지해낼 수 있다[17].

둘째,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과정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미와 사회적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모빌리티 이론은 이동의 맥락과 효과를 다양하게 포착하겠다는 지향이 강하다. 특히 이동을 물리적 움직임으로 보는 관점을 극복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그 의미가 사회와 엮여 있는 방식을 보고자 한다. 이 점에서 이도향촌에 부여되는 의미를 개인적 수준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수준에서도 포착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이도향촌 이주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이주자 개인의 동기와 가치관, 의미 부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귀농귀촌 사례연구보다 확장된 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농촌 이주를 이주자의 드라마틱한 결심이나 의미심장한 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실천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실천의 기저에 흐르는 사회구조적 수준의 정서와 의미 맥락을 함께 읽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모빌리티와 이주: 정주와 유목의 다양한 결합 양태

'이주'는 모빌리티 이론이 다루는 이동 중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서 모빌리티 이론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17) 보다 구체적인 예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귀농귀촌 담론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생산적 인구, 지역인구의 가능성 등으로 호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사람, 농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구 혹은 젊은 부부와 같은 특정 인구집단의 이주가 귀농귀촌으로 포착되고, 조명되며, 관리된다. 일시적 이주, 지역사회에 융합되기 어려운 직업적 이주, 노년층 1인 가구 이주 등은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고, 논의되지 않는다.

(Thimm and Chaudhuri 2019: 274). 이론 발전의 초기에는 이주와 관련된 주제로 탈영토화의 문제, 노마디즘과 같은 개념들이 탐구되었으며, 정주와 거주, 유목과 여행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이주'를 둘러싼 이론적 해석 작업이 발전되어 왔다(Hannam, Sheller and Urry 2006: 10).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국제이주, 국경을 초월하는 움직임, 디아스포라에 주목해왔으며 상대적으로 국내의 거주지 이동은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Coulter, Ham and Findlay 2016).

그러나 이주에 관한 사회적 의미 체계 변화를 설명해 온 모빌리티 이론의 작업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오늘날 농촌 공간이야말로 다양한 이동 양상이 전개되는 곳이며, 이들 모빌리티가 농촌을 새로운 '장소'로 구성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Milbourne and Kitchen 2014; Gkartzios, Remoundou and Garrod 2017).

전통적으로 '이주'는 일상적 실천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건이나 거주지의 이동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식별되었다(Adey 2019: 72). 모빌리티 이론에서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하이데거(Hiddegger)의 '거주(dwelling)' 개념이다. 이주는 언제나 모빌리티 이론의 중요한 주제였지만 유목적 공동체에 한정된 특징으로 파악되었고, '실존적 인간의 조건'은 한 장소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전제되어 왔다는 것이다(Urry 2014: 74-75). 이렇게 한 장소에 오랫동안 정주하는 것을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기반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 2001)이나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1976)의 공간과 장소 개념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 '장소'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공간인데, 이 장소는 장기적인 머묾, 정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의미가 새겨지게 된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빌리티는 '장소를 떠나는 것', '장소를 잃는 것', '장소에 대한 공격'의 의미로 표상된다.

이렇게 '정주'를 인간 삶의 중심에 두는 관점에서 이동은 '비용'으로 해석된다. 이동에 소비되는 시간은 '비생산적이고 낭비되는, 죽은 시간'이

며, 그래서 사람들은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전제된다. 교통·수송 시스템이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발전되어 왔다. 이주도 마찬가지이다.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장거리는 이동의 발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논의되었다. 전통적 인구이동 이론의 모형 역시 이러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찍이 짐멜이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어딘가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 '모험의 매력'에 끌리고 활력을 찾아 길을 나서기도 한다(Simmel 2006). 모빌리티 이론은 '이동'의 이러한 차원에 주목한다. 사람들의 활동 중에는 이동성 자체가 목적이 되는 활동[18]도 있고, 이동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수행하는 경우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Bissel 2020: 43). 더욱이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더 먼 거리를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시공간의 압축(Harvey)'이 일어나면서 유목주의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했다. 이동은 권력과 구조에 대한 탈출과 저항의 전략이 되기도 하고, 탐색과 창조의 방법이 되기도 하였으며, 진보와 유능함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Duffy 2017: 445; Adey 2019: 149).

그러나 이렇게 모빌리티를 강조하는 시각에 대해 과연 정주주의와 유목주의의 관점이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는가라는 질문 역시 제기되어 왔다. 정주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장소에 대한 애착'과 유목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이동성'은 양립 불가능한 요소인가에 대해, 특히 디아스포라와 국제이주에 대한 분석적 연구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Gustafson 2001; Christensen and Jensen 2011 등). 구스타프손(Gustafson 2001)은 유목주의적 관점과 정주주의적 관점 모두 장소에 대한 애착과 모빌리티를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한다. 이주 행위자들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도 나름의 방법과 전략으로 장소와의 연속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간다는 점을 그는 스웨덴 지역 이주민 인터뷰를 분석하면서 논의한 바 있다.

---

18) 유명한 예시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설명했던 도시의 산책자들, 아케이드 쇼핑몰을 유유히 거니는 소비자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장소를 고정된 실체, 예컨대 인간 삶의 '뿌리(Root)'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태 속에 구성되는 '경로(Route)'로 파악하는 관점은 행위자를 평면적인 지역 공간에 가두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장소와 관계를 맺는 "더욱 이동적인 주체(Adey 2019: 162)"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클리퍼드(Clifford 1997)가 '여행 속 거주(dwelling-in-travel)'라고 불렀던 이동과 거주의 양상이나 모리스(Morris 1988)가 여행지 모텔에서 발견한 '집'으로서의 의미에서 보듯, 이동과 장소 간의 다양한 결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역도시화 현상 속의 농촌 공간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 분석적·해석적 틀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어 논의하고자 한다.

3) 촌 지역을 새롭게 구성하는 모빌리티로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모빌리티 이론이 주로 다루어 온 이주 현상은 국경을 넘어서는 움직임, 즉 국제이주나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였다. 국내 이동의 모빌리티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도시 지역과 촌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촌 지역에 대한 논의는 더욱 많지 않다. 이는 오랫동안 농촌이 부동성의 공간으로 표상되어 온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Milbourne and Kitchen 2014).

농촌에서의 삶, 농촌의 거주민은 끊임없이 유랑하는 유목민과 대비되는 관념으로서 정착과 안정의 이미지로 표상되었고, 더욱이 도시와 대비되어 사회적으로 '느리다'고 보는 경향이 존재한다(Adey 2019: 126). 자연스럽게 농촌으로의 이주는 '단일방향, 장거리, 영구적 성격'(Milbourne and Kitchen 2014: 327)을 가진 것으로 전제된다. 또한 이주자들은 농촌을 '여유롭고 단순한,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장소'(Meijering, Hoven and Huigen 2007: 358)로 전망하고 소비하는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맥락에서도 귀농귀촌에서 농촌 공간은 '자연으로의 회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 '느림의 미학', '공동체적 안정성', '안분지족적 삶' 등과 같은 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되어 왔다(진양명숙 2008).

그러나 농촌사회학자들은 현대 농촌 공간을 이렇게 도시와 대비된, '목가적 전원'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촌 지역은 다종다기한 모빌리티가 전개되고 새로운 인구이동이 유입되는 장소로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Bell and Osti 2010). 반(反) 도시화나 농촌공동체적 삶으로의 회귀 운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이주 형태일지라도, 이는 모빌리티를 '무언가로부터 동떨어지거나 멀어지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Vannini 2011). 이러한 시각에서는 오늘날의 역도시화 현상을 연성 이주 혹은 문화적 이주로 해석하는 것은 농촌 이주를 '도시 중산층의 전원생활 소비 양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Gkartzios, Remoundou and Garrod 2017).

이러한 논의의 지형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모빌리티 논의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현대 이주 모빌리티의 중요한 징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농촌 이주(Milbourne and Kitchen 2014: 327)를 분석한다는 함의, 그리고 그 현상을 보다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가 그것이다.

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모빌리티 이론이 기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를 목적 달성(거주지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전제하는 관점을 벗어난다. 출발지의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촉발되고, 도착지가 정주 환경으로서 '우월'하기 때문에 이동이 실행된다는 설명과는 다른 방식의 설명을 도입할 수 있다. 모빌리티 이론은 이동 자체가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와 촌, 이동과 장소, 정주와 유목의 개념을 상호대립항으로 구분하는 관점을 벗어난다. 오늘날의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이 체험되는 방식이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주와 정주, 공간과 장소의 사회적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이론적 전망이 중요하다. 근대적 인구이동과 공간체계 속에서 이분법적으로 구획되어 있던 개념들이 현대의 모빌리티를 통해 이동하고 연결되면서 다종다기한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모빌리티 이론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촌 지역을 자연의 공간, 전통적 공동체의 공간, 부동성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공간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에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이주를 행위 시점에 국한하여 선형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벗어난다. 모빌리티 이론은 이동과 장소 간의 얽혀듦뿐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상징, 사회경제적 제도와 요인, 사물과 기술 체계 등의 다층적 요인들을 모빌리티의 맥락으로 구성하여 상호 긴밀하게 포착하고자 하는 이론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 행위를 일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형성 과정과 구조 전반을 시야에 넣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이주의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는 일련의 사회구조적 영향력이 이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이 연구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분석에 있어 토대하고 있는 이론적 관점에 대해 모두 검토하였다. 이제 다음 4절에서 본 논문의 연구질문을 정식화하여 제시하고,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한 분석 전략을 설명하겠다.

4절. 연구의 구성

1. 연구 질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대 한국의 국내이동 흐름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더이상 가장 주요한 흐름이 아니며 다양한 방향과 기제를 함축한 이동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주로 '귀농귀촌' 현상으로 포착되어 논의되어 왔고, 일부는 '인구이동'의 한 흐름으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

다. 이 연구들은 귀농귀촌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와 미래 문제에 대한 함의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2010년대에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적절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부분에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출하고자 한다. 귀농귀촌 흐름은 '자연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거 변화'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보다 사회구조적인 함의를 가지는 현상인가? 도시에서 촌으로 향하는 인구이동은 도시의 외연이 확장되는 현상(sub-urbanization)인가, 아니면 근대 도시 시스템을 탈피하는 반(反)-도시화 현상(counter-urbanization)인가? 지역의 인구위기를 부각시키는 담론과 귀농귀촌을 대중적 유행(트렌드)으로 조명하는 담론 사이에서,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즉 이 연구는 2010년대에 눈에 띄게 나타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을 추동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행위자의 삶에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촌 지역(농촌 공간)의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인구학적 관점과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에 의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도향촌 이주'를 개념적으로 구성해내고 이를 2010년대의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으로서, 모빌리티와 지역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이동 양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다음과 같은 흐름의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은 구조적 안정성을 보이는 새로운 인구이동 변천 단계인가?

첫번째 연구질문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전체 인구이동 구조 속에 어떻게 형성되어있는가를 분석한다. '귀농귀촌' 개념이 아닌, '이도향촌'으로 재구성한 인구이동이 기존의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과 어떻게 다르게 분화되어 형성되어 있는지, 이를 인구이동의 새로운 변화로 평가할 수 있

는가를 분석한다. 이 현상이 새로운 인구이동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현상의 구조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상이 작동하는 기제가 근대의 이촌향도 이동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현상의 구조적 안정성은 시간적 지속성과 공간적 범위 확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상의 작동이 도시 중심의 이동과 다른가에 대해서는 교외화 현상과 구분되는 이동이 발견되는가, 이 이동이 구조적 안정성을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일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둘째,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발생하는 기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두번째 연구질문은 첫번째 연구질문으로부터 이어서 제기된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이 구조적 안정성을 보이는 새로운 현상이라면, 이 현상이 나타난 원인과 추동력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과연 '새로운 이동'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첫번째 질문과도 연결된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새로운 인구이동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이동의 작동기제가 이전의 인구이동 기제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작동 기제를 설명하는 작업은 이 현상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 현상에 함축된 새로운 인구이동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탐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자료를 동원하는 혼합적 연구 전략을 취한다. 먼저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과의 비교를 위해 인구이동 기제 이론에 근거한 지역 분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전통적 인구이동 모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차원을 발견하기 위해 모빌리티 이론으로 관점을 확장하여 이도향촌 이주 행위자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다.

셋째,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 속에서 촌 지역(농촌 공간)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세번째 연구질문은 이 연구의 문제의식의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질문인 동시에, 두번째 연구질문에서 확장된 모빌리티 이론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질문이다.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에서 이동은 통과하는 경로와 장소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기 때문에, 이동과 공간(장소)는 별개로 구분되어 설명되기 어렵다. 그렇기때문에 두 번째 연구질문이 이동 자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분석 결과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목적지인 촌 지역(농촌 공간)에 대한 연구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새로운 이주 현상 속에서 농촌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은 실제 이주 이후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러한 양상은 2010년대 한국 사회의 이동과 공간 체계에 어떠한 함의와 가능성을 가지는가? 특히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에서 발견되는 농촌 공간의 모습은 이전의 귀농귀촌 이동과는 다른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잠정적 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위 질문에 대해 일정하게 답하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다종다기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주 실천들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데는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본 장에서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위 질문에 대해,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가 조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어보이기 위해 인구이동이론, 모빌리티 이론, 공간-장소 개념을 동원하고, 현상을 질적 자료와 계량적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재구성한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연구는 현재 '귀농귀촌'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인구이동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개인의 생애 속에 나타나는 이동의 양상과 지역 공간의 작동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이

를 통해 2010년대 새롭게 나타난 인구이동 현상을 구조적으로 평가하고,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공간 체계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모빌리티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해석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201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이다. 분석적 정의를 제시하면, 2010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행정구역 상의 도시 지역(동 지역)에서 농촌 지역(읍·면 지역)[19]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이른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 도-농 간 이주 현상을 인구이동 개념으로 재구성한 것이다[20].

인구이동은 연구의 목적과 자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인구이동을 일반적인 의미로 풀면 인구의 '지역 사이의 움직임'이다(하상근 2005: 98). 이 의미는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움직임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이동을 지역 간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지역의 경계에 따라서 특정 움직임이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단위로 수집되기 때문에, 지역공간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 연구도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분할된 지역 체계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이동이라는 움직임은 인간 신체의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요 생활 근거지, 즉 거주지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의 변화를 이동으로 포착하여 분석한다. 거주 지역의 변

19) 이때 '농촌' 지역이라 함은 농업이라는 산업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지역이 아니라, 도시화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의미로서 농촌, 어촌, 산촌 지역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20) 박수진, 나주몽(2017)의 연구에서도 이촌향도 인구이동의 역방향의 이동이라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어 이 연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대상을 정의한 바 있다.

화는 개인 차원에서는 생애와 생활 전체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민으로의 편입과 이탈로서 지역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인구이동은 거주 지역을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바꾼 경우가 된다.

다시 정리하면 이 연구는 목적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농촌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으로서 '이도향촌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동의 목적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이동의 출발지가 도시 지역(동 지역)이고, 도착지가 촌 지역(읍면 지역)인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정의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통계 분석과 심층 인터뷰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이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지역 차원에서의 인구 변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구이동 전체 구조까지 세 가지 층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구이동은 그 단위 자체가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현상이며, 거시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통계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이동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개인이 실행하는 이주 행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층위에 접근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이동의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통계적 자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 자료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구이동은 지역과 정책의 변화, 거주의 사회문화적 조건 변화가 개개인의 생애와 상호작용하여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자료, 즉 미시 수준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재 가용 자료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21]. 인구 자료는 국가 차원에서 수집, 관리되는만큼 개인정보의 보

호와 기밀성의 이유로 대개 집계자료의 형태로만 제공되기 때문이다(김현중 여관현 2019: 301; Fisher and Langford 1996). 그래서 국내이동통계에서 이동자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도 성별, 연령, 전입사유, 이전 거주지에 불과하다. 또한 향촌 이동자는 그 규모가 증가세에 있다고는 하나,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에 거시적 분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변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 사례들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특히 향촌 이동의 증가세나, 지역 문제, 인구 문제, 사회 변동적 함의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도향촌 이동의 새로운 흐름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이어주면서, 양자 간의 관계를 드러내어주고 양쪽에 보완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모델로서 양적 자료 분석 방법과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적인 분석방법을 채택한다. 아래에서는 통계분석 방법과 질적분석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과 사용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1) 통계적 연구방법

통계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구조적 형태, 즉 방향성과 지역범위 및 구성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흐름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사용한다. 두번째는 이동향촌 흐름의 경로가 되는 지역 공간, 그 중에서도 목적지인 촌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회귀분석 중에서도 미시적 수준의 정보부터 거시적 수준의 정보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① 유형화 분석

21) 여러 인구이동 연구들이 이같은 자료의 한계를 분석 상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정섭 2014: 531).

지역 유형화 분석의 첫번째 방법은 배열분석(시퀀스 분석, Sequence Analysis)이다. 각 지역의 인구유입 상태가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장기적 시계열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하나의 패턴으로 포착하여 유형화한다. 배열분석은 범주형 값들이 일련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값의 배열 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분석 대상을 유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Abbott and Tsay 2000).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인구유입 상태가 순유출인지, 순유입인지의 변화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분석 모형은 2000년대 이후, 인구유입이 이촌향도에서 이도향촌으로 변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유입 상태의 지속적 패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촌 이동의 시공간적 특성을 보여줄 것이다.

두번째 모형은 각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성격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확인한다. 이 때 사용하는 방법은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이다. 군집분석은 같은 집단 안에서는 유사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에는 이질적으로 나뉘도록 여러 개체들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n개의 개체가 개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집화 단계를 거듭할수록 유사한 개체(군집)가 서로 묶여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개체(군집) 간 유사성은 분석에 투입되는 기준 변수들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도시 지역으로 통근통학하고 있는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고용지위는 어떠한가, 연령과 가구형태, 전입사유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등의 자료를 기준 변수를 사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비중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촌 이동이 도시적인 이동 혹은 도시에 종속적인 이동인지 아닌지 등 그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② 회귀 분석

이도향촌 이주에서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공간의 요인은 무

엇인가를 설명할 때는 회귀분석 모형 중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사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요인의 효과를 검정한다. 다층모형은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이라고도 하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계적 층위를 가지는 여러 차원의 정보를 하나의 통계 모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강상진 2016).

먼저 지역으로의 이도향촌 유입인구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두 단계의 수준에서 구성한다. 제1수준에서는 각 지역의 읍면 단위 수준에서의 경제적 요인, 도시적 개발 요인, 생활환경 요인(교육, 의료, 문화, 편의시설), 자연경관 요인을 구성한다. 제2수준에서는 각 지역의 시군 단위 수준에서의 요인, 즉 지자체의 정책 요인과 이도향촌 유형 범주 요인을 구성한다. 이렇게 설계된 모형은 각 정보들의 층위에 맞는 수준을 설정해줌으로써 전통적인 회귀모형이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한다.

③ 분석 자료

도시 지역에서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기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에서 조사·수집한 다양한 지표이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통계청 '국내이동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역 조건 요인으로 '인구센서스 2%표본 데이터', 'e-지방지표', '지적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주택총조사', '도시기본계획현황'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영향 요인을 나타내는 지표이면서도, 도시 지역과 촌 지역으로 분석 단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때 귀농귀촌인 등을 조사 집계 대상으로 한 통계청 자료('귀농어·귀촌인통계')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어·귀촌인통계'는 2012년부터 집계가 시작[22]되어 자료 누적 기간이 짧다.

22) 2011년 이전 자료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사 결과를 집계한 자료로서, 귀농가구와 귀촌 가구를 분리조사하지 않았고, 세대주와 세대원 역시 구분하지 않고 조사되었다. 2012년부터 귀촌가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행정조사, 귀농가구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통계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있다(송미령 외 2015)

둘째,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게 되어 집계 체계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자료에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셋째, 도시 지역에서 촌 지역으로의 향촌 이동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뿐 아니라 귀어와 귀산촌을 포함해야하는데, 귀산촌 통계는 2018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고, 귀어촌 통계는 개인정보식별 가능성의 문제로 시도 단위로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귀농어·귀촌인통계’의 귀촌인 중에는 직장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가 제외되기 때문에 지역의 실제 유입 인구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인구 유출입을 포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료로서 국내이동통계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고, 그 외의 통계지표들도 읍면동 단위의 정보에 접근하여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읍면 단위의 값과 동 단위의 값을 분류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들과 차별된다[23].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자료는 국내이동통계, 센서스 2% 표본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지적통계이다. 먼저 인구 센서스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하여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자료(통계청 2018: 13)”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인구센서스 2% 표본 자료는 센서스 대상 중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기본 조사보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국내이동통계는 주민등록전입신고에 기초하여 국내 지역 간 인구이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며, 인구 센서스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전출입지 정보가 시군구 단위까지 제공되고 있어, 인구이동 흐름이 세부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23) 채성주(2015)는 인구이동 기제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가 최소 분석단위를 시, 도로 설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채성주 2015: 7). 이는 상당 부분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으나, 이렇게 시도 단위 혹은 광역자치단체별 단위로 분석할 경우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본 연구와 같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MDSS)를 사용하였으나, 충북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된다.

다음으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지역 자료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재정자립도, 생활 편의시설 수준 등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지역 통계 지표들이 분석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 통계 자료만으로는 새로운 인구이동 현상으로서의 향촌 이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향촌 이동이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 공동체적 가치, 삶의 질과 같은 연성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이 반영된 연구자료를 분석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적(地籍)통계를 반영하여 지역의 공간적 정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질적연구방법

개인의 차원에서 이주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깊이있게 해석하기 위해, 심층면담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고 질적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인간과 사회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인식하고 구성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에 기초하여,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에 관련된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서술과 다양한 문헌·상징 자료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Charmaz 2006).

먼저 이 연구가 구성하고자 하는 이론에 부합하는 경험, 즉 도시를 떠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험을 하고 이에 대해 실질적이고 깊은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개인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의 전후로,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민감성'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교육센터에서 예비귀농귀촌인 교육을 직접 수강하고(귀농귀촌 기본공통교육 3기: 2019년 6월 10일~25일), 귀농귀촌자 모임('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청년의 지역살이를 고민하는 사람들' 2018년 11월 2일, '청년창업농 끝장토론회' 2018년 11월 27일, '홍동 마을공부모임 일소공도

2020여름 강학회’ 2020년 7월 25일)이나 컨퍼런스(‘제16회 전국지역리더대회: 젊은 농촌, 지역에서 희망을! 도농공생과 농민행복의 길’ 2019년 7월 12일~13일)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귀농귀촌자가 쓴 글, 에세이, 단행본들, 귀농귀촌 안내서, 온라인 카페의 귀농귀촌 논의 자료, 언론 기사와 다큐멘터리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담은 사전에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이의 경험과 생활, 그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태도를 자유롭고 심층적으로 구술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 때 향촌 이주는 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있던 ‘이동적 맥락’이 특정 계기에 의해 발동되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복합적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를 감지하기 위해 일종의 이동의 생애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모집하였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한살림과 같은 지역 기반 커뮤니티 모임, 귀농귀촌 교육기관 관련자, 농민신문 기자 등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소개받았고, 참여 신청자들 중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그 과정에서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적합한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거주 지역이나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방문하여 대면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대면 인터뷰가 적절치 않은 경우 전화나 온라인 화상통화를 이용한 인터뷰 방식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3. 논문의 구성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4장의 본론으로 구성되어 전개된다. 각 장은 앞서 제시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구성된다. 본 논문의 연구질문이 ①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를 구조적

지속성을 가지는 새로운 인구이동 단계로 볼 수 있는가? ② 새로운 인구이동 단계라면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③ 이러한 인구이동이 가져오는 농촌 공간의 변화와 가능성은 무엇인가? 라는 순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장 역시 이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논의된다.

먼저 2장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를 새로운 인구이동 단계로 볼 수 있는가의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지속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구조적 지속성은 시간적으로 장기간 유지되는가, 공간적으로 전국적 범위에 확장되어있는가의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양상을 2000년대부터의 시계열 변화로 파악한다. 또한 촌 지역의 교외화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을 제외하고도 구조적 지속성을 보이는 이도향촌 이주 흐름이 확인되는가를 보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 구성의 특징을 검토하여 지역을 유형화한다.

다음으로 3장은 2장에서 밝혀진 '2010년대 새롭게 나타나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 이동의 발생을 설명한다. 3장은 전통적 인구이동 기제 이론의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경제적 요인, 정책 요인, 생활 환경 요인, 자연 환경 요인이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지역의 어떤 요인이 이도향촌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발견함으로써,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작동하는 기제가 기존의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를 설명한다.

4장은 기존의 논의에서는 포착되기 어려웠던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다층적 발생 구조를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을 통해 읽어낸다. 2-3장이 거시적 분석단위로서 지역 통계 자료를 사용했다면, 4장부터는 미시적 분석단위로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다. 그러나 인터뷰 자료는 미시적 층위와 거시적 층위 모두에서 해석된다. 즉 이주 행위자의 생애 맥락 속에서 이도향촌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형성하는 2010년대의 사회구조를 모두 포착하고 연계하여 이 이동을 다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때 3장의 지역 요인 분석 결과가 해석의 근거로 함께 활용된다.

5장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 속에서 농촌 공간이 어떻게 전망되고 있으며, 이주 후에 어떻게 체험되고 있는가를 4장 분석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설명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구이동은 언제나 공간을 변화시켜왔기에,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새로운 인구이동이라면 농촌 공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2010년대에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을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으로서의 '이도향촌 이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도향촌 현상 통해 우리 사회의 모빌리티 증가에 따른 새로운 인구이동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으며 동시에 농촌 공간 역시 새로운 의미를 얻어 형성되고 있음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생애주기나 이주 동기,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오던 이도향촌 이주자의 범주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어 전통적 부동성의 이미지로 표상되어오던 지역 공간의 경계 역시 새롭게 해체-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제2장.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위치와 성격

제2장은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이도향촌 이주의 흐름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이 현상의 위치와 성격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새로운 인구이동 변천 단계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일차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흐름이 구조적 지속성을 보인다면, 그 원인이 도시적 이동이 확장된 결과로서 교외화 때문인지, 아니면 비도시적 이동이 확장되었기 때문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전국적 흐름을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장기적 시계열로 구성하여 유형화한다. 이 유형화 속에서 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도시 지역과 대비하여 평가한다(1절). 2000년-2010년대 한국의 인구이동은 도시 지역으로 흘러드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와는 다른 움직임이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시계열 분석에서 2010년대를 기점으로 뚜렷하게 인구유입 상태를 유지하는 촌 지역에 주목하여, 이들 지역으로 어떤 인구가 유입되는가를 분석한다(2절). 타 광역시 통근통학자나 임금근로자 비중 등으로 교외화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고, 그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한다. 셋째, 1절과 2절의 분석 결과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전체 인구이동 흐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성격은 무엇인가를 평가한다(3절).

1절. 전체 인구이동 흐름 속 이도향촌 이주의 위치

이 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인구이동을 각 지역의 인구유입 상태 변화로 나타내고, 그 패턴을 분석한다. 이 작업은 2010년대 이후 이도향

촌 이주 현상이 1990년대 말 급증한 귀농귀촌처럼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소수의 사회운동적 실천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변동의 성격을 함축한 현상임을 보여주는 일차적 자료가 될 것이다.

1. 전국의 장기적 인구유입 상태 분석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약 20년 기간 동안 각 지역 단위에서 인구유입 상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어떻게 전체 인구이동 양상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점을 둔 부분은 전체 국토 공간의 범위를 포괄하면서도 '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명확하게 포착하고자 한 점이다. 이를 위해 분석 단위를 행정구역에 따라 동 지역(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촌 지역)을 구분하여 별도의 단위로 생성하였다.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역 단위는 시도 혹은 광역권별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채성주 2015: 7), 가장 세부 단위까지 살펴 본 연구들도 시군구 단위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분석 단위가 작을수록,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가 특정 권역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전국을 범위로 하면서 지역 단위를 세부적으로 구성한 인구이동 분석은 많지 않다. 가령 기존 인구이동 연구들의 분석 단위와 연구 대상 지역 범위를 대략적으로 참고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이동 선행연구의 지역 범위와 분석 단위 예시

논문 서지사항	연구 지역 범위	지역 분석 단위
하상근(2005)	경상남도 20개 시,군	시군 단위
김현아(2008)	전국 16개 광역시, 도	광역시도 단위
이희연(2008)	전국 228개 시군구	시군구 단위
김홍배, 이창우(2009)	전국 16개 광역시, 도	광역시도 단위

이희연, 박정호(2009)	전국 228개 시군구	시군구 단위
박기서, 정일훈(2012)	제주도, 울릉도 제외 87개 군 지역	시군구 단위
오은열, 문채(2016)	전라남도 22개 시,군	시군 단위
이찬영, 이흥후(2016)	전국 16개 광역시, 도	광역시도 단위
채성주(2016)	충청권 지역	시군구 단위
박수진, 나주몽(2017)	전국 82개 군 단위 농촌지역 (도농복합시 제외)	시군 단위
이찬영(2018)	전국 5개 광역시 및 8개 도	광역시도 단위

그러나 이러한 지역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이도향촌 이주, 즉 도시 지역에서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특히 행정구역 체계에서 '도농복합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도향촌 이주를 분석할 때는 기존의 인구이동 분석에서 사용하던 지역 단위와는 다른 단위를 조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도농복합시는 도시 지역인 '동'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일반 시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읍·면'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24]. 가령 강원도 춘천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도심 공간의 특징을 가진 동 지역과 농촌 공간의 성격을 가진 읍·면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농복합시뿐 아니라, 인천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 일부 광역시에도 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군' 지역만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을 분석할 경우(예를 들어 박기서, 정일훈 2012; 박수진, 나주몽 2017), '시' 지역 내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누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

24) 도농복합시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 1항은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네 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계가 발생한다. 가령 2015년에 통계청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귀포시, 제주시, 완주군, 상주시로 나타난다. 그런데 군 지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면 이들 지역들이 누락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마치 '귀농귀촌' 개념이 일부 이도향촌 이주만을 포착하게 되는 것처럼, 국내이동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제약한다. 특정 권역 내의 이동만이 분석되거나, 도농복합시의 촌 지역이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등 이도향촌 이주가 부분적으로만 포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장의 분석은 시군구 단위에서 더 상세하게 들어가 분석 단위를 재구성한다. 즉 읍면동 단위의 정보에 접근한 후, 읍면 지역을 '군 지역 단위(촌 지역)'로 재범주화하고 동 지역을 '시 지역 단위(도시 지역)'로 재범주화하여 이도향촌 인구이동을 포착하고 드러내고자 한다(아래 <표 2>).

<표 2> 제2장의 분석 단위 구성

	읍면 지역 없음	읍면 지역 존재
동 지역 없음	-	군 지역 77개
동 지역 존재	시 지역 24개	도농복합시 60개

* 총 행정구역 161개 지역 (광역시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집계)
* 분석 대상 동 지역 단위 84개, 읍면 지역 단위 137개
* 세종시와 세종시로 통합된 지역(청원군, 연기군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행정구역을 읍면동으로 분류할 때는 <표 3>의 지방자치단체 체계를 참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지역 행정구역의 가장 하위 단위는 동, 읍, 면 지역으로 나뉜다. 여기서 동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읍과 면 지역을 촌 지역으로 묶어 분석 단위를 구성하였다.

<표 3>의 체계를 참조하여 예시를 들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 지역'만 존재하기 때문에 1개의 도시 지역 단위로 투입된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에는 동 지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개의 촌 지역 단위로 투입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는 기장군에 읍면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이들이 촌 지역으로 묶여 별도의 분석 단위로 구성된다. 즉 부산광역시는 도시 지역 1단위와 촌 지역 1단위로 총 2개 단위로 투입된다. 부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시도 동일하게 구성된다. 즉 제주시는 동 지역으로 묶인 제주시 도시 지역 1단위와, 읍면 지역으로 묶인 제주시 촌 지역 1단위로 나뉘어 분석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전체 인구이동 내에서 도시-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의 위치와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 지방자치단체 체계의 개념도

<table>
<tr><td colspan="9">지방자치단체 체계 (출처: https://namu.wiki/w/지방자치단체)</td></tr>
<tr><td>광역
자치
단체</td><td>특별시</td><td colspan="2">광역시</td><td>특별자치시</td><td colspan="3">도</td><td>특별자치도</td></tr>
<tr><td></td><td>서울특
별시</td><td colspan="2">예)
부산광역시</td><td>세종특별자
치시</td><td colspan="3">예) 경기도</td><td>제주특별자
치도</td></tr>
<tr><td>기초
자치
단체</td><td colspan="2">구</td><td>군</td><td rowspan="2">(없음)</td><td colspan="2">시</td><td>군</td><td rowspan="2">(없음)</td></tr>
<tr><td></td><td>예)
중구</td><td>예)
연제구</td><td>예)
기장군</td><td>예)
수원시</td><td>예)
이천시</td><td>예)
양평군</td></tr>
<tr><td rowspan="4">자치
권
없음</td><td colspan="3" rowspan="2">-</td><td rowspan="2">-</td><td>구</td><td colspan="2" rowspan="2">-</td><td>시</td></tr>
<tr><td>예)
팔달구</td><td>예) 제주시</td></tr>
<tr><td colspan="2">동</td><td>읍, 면</td><td>읍, 면, 동</td><td colspan="2">읍, 면, 동</td><td>읍, 면</td><td>읍, 면, 동</td></tr>
<tr><td>예)
명동</td><td>예)
연산동</td><td>예)
기장읍</td><td>예) 보람동</td><td>예)
매산동</td><td>예)
중리동</td><td>예)
양평읍</td><td>예) 연동</td></tr>
</table>

다음으로 각 지역단위의 인구유입 상태를 매해 각 년도의 전입·전출 인구 수에 따라 ① 순유입, ② 균형(순이동이 0인 상태), ③ 순유출 상태의 세 가지 범주로 설정한다. 범주를 순유입과 순유출을 기준으로 간명하게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이동의 경우 인구유입량과 유출량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 요인 중 한 요인만을 분석할 경우 지역인구의 사회적 증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분석 기간에서 전체 인구이동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 간 이동이며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량은 규모의 관점으로 파악했을 때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인구가 이동했는가를 보기에 앞서, 인구 유출입의 역전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적은 수의 인구가 이동하고 있더라도 인구 순유입 상태가 지속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여전히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지역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관점으로 인구이동 양상을 구성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구 유입 규모에 대한 분석은 이후 이어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고, 여기서는 인구유입 상태 변화만을 기준으로 현상을 분석한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2003년과 2019년 두 시점이 설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도향촌의 흐름이 2010년대 들어 활발하게 주목받았기 때문에, 이 현상의 장기적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기간부터 가장 최근의 기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최근(2019년)[25]까지의 인구이동 추세를 분석하고자 했다.

둘째,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분석 기간에 포함하되, 분석 상 자료의 제약을 고려하여 시점을 2001년이 아닌 2003년으로 설정하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즉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적 범위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행정구역의 변화가 최소화되어야 분석 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증평군은 괴산군 내의 지역으로 존재하였으나 2003년에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경우 2003년 이전부터 증평군과 괴산군의 인구유입 상태 시계열 변화를 일관되게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2003년 이전에 행정구역이 변한 지역이 증평군 외에도 경기도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화성시, 충청북도 계룡시,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군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3년을 기점으로 분석 시점을 조정하였다. 시작 기점을 2003년으로 조정하여도 경기도 여주군(2013년)과 충청남도 당진군(2012년)이 각기 여주시와 당진시로 변했으나, 시 승격일뿐 행정구역 경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같은 지역단위로 묶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 출범

25) 2021년 현재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의 가장 최신 자료는 2019년까지 제공되고 있다.

한 세종시의 경우, 인근 연기군, 청원군 등의 지역이 세종시로 통합되었으나 이를 반영하기는 어려워 배열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한 지역 인구 순유입 상태의 시계열 배열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즉 개별 단위 마다 17개 시간 마디로 인구유입 상태가 반영된 배열이 구성된다. 모든 지역이 똑같은 인구유입 상태를 유지한다면 단 1개의 배열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지역이 다른 인구유입 상태 변화를 보였다면 3의 17제곱(약 1억 3천)개의 배열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는 그 사이의 수 n개 만큼의 배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배열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4> 인구 유입 상태의 배열 구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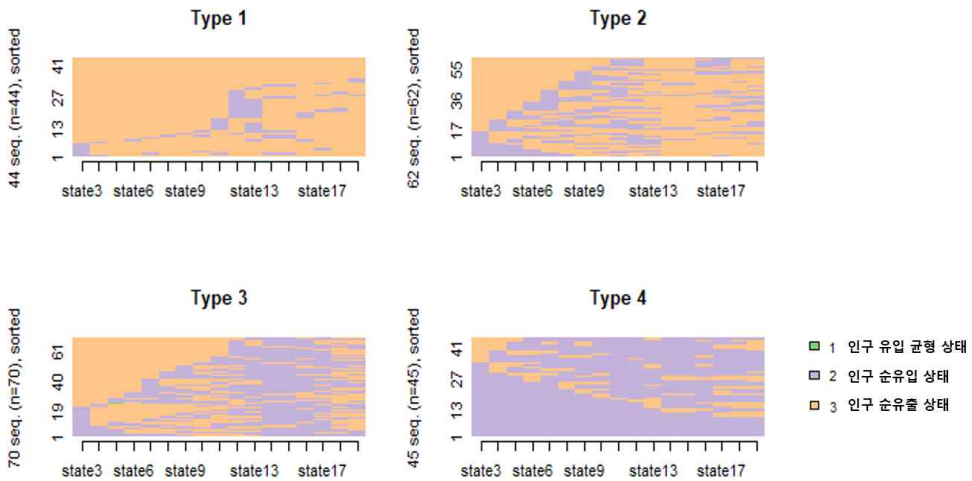
분석 지역	2003년	2004년	…	2018년	2019년
지역 1	순유출	순유출	…	순유입	순유입
지역 2	순유입	균형	…	순유입	순유출
…	…	…	…	…	…
지역 n	순유입	순유출	…	순유출	순유출

여기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동안 각 지역단위의 인구유입 상태가 순유출이었는지, 순유입이었는지의 변화를 유형화하는 방법으로 배열분석을 선택한다. 시퀀스분석(Sequence Analysis)으로도 불리는 배열분석은 범주형 값들이 일련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값의 배열 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분석 대상을 유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Abbott and Tsay 2000; 이상직 외 2018).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배열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분석 대상 지역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구이동에 어떤 패턴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①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얼마만큼 지속적인지와 ② 지역적으로 얼마만큼 광범위한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도향촌 이주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2. 지속유출형, 불규칙유출형, 순유입전환형, 지속유입형의 도출

배열분석 결과 221개 도시 및 촌 지역단위들은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래프에서 순인구유입이 0인 균형 상태는 녹색(1번 범주)으로, 순인구유입이 양의 값을 가지는 순유입 상태는 보라색(2번 범주)으로, 순인구유입이 음의 값을 가지는 순유출 상태는 주황색(3번 범주)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만 순인구유입이 0인 균형 상태는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자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않아 그래프 상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림 4] 인구유입상태 배열분석 결과 그래프



이러한 배열 형태에 따라 각 유형이 함의하고 있는 바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번은 분석 기간 내내 인구이동이 순유출 상태(주황색)에 있는 지역으로, '지속 유출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에 잠깐 인구 순유입 상태(보라색 부분)였던 지역도 있으나, 그러한 추세가 2-3년 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순유출 상태로 돌아가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 2번은 대체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나 때때로 순유입 상태가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순유입 상태는 2010년대 보다는 2000년대에 더 자주 나타났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순유입 상태보다는 순유출 상태가 더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분석 기간 전체로 보았을 때도, 순유입 상태(보라색)보다는 순유출 상태(주황색)가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은 '불규칙 유출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형 3번은 분석 기간의 전반부, 즉 2000년대에는 대체로 순유출 상태(주황색)에 있다가 2010년대 들어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순유입 상태(보라색)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흐름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순유입 상태의 지속이 2010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역들은 2010년 이전에는 순유출 상태에 있다가 2010년대에 지속적인 순유입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순유입 전환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순유입 전환형의 발견은 2010년대 인구이동의 흐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들 지역이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는 아직 이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유형에 속하는 적지 않은 지역들(전체 지역의 약 32%)에서는 2010년대에 인구 유출입 흐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 4번은 분석 기간 내내 인구가 순유입(보라색)되고 있는 지역들로, '지속 유입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유형의 인구유입 상태는 1번 유형과는 반대의 패턴을 보여준다. 즉 순유출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다.

이제 분석 결과 도출된 4개의 유형의 구체적인 특징-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수, 촌 지역의 비중, 순유입 인구 규모-를 검토하면서 분석 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겠다. 먼저 각 유형에 속하는 지역 단위의 수와 순유입 인구규모를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각 유형별 지역 수, 평균 순유입 인구 수(2015년)

전체 지역	지역(개)	순유입 인구 평균(명)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지속유출형	44	-7,905	32,277	-209,708	138
2. 불규칙유출형	62	-1,490	3,531	-14,643	4,840
3. 순유입전환형	70	1,010	2,808	-1,244	20,071
4. 지속유입형	45	7,410	8,834	-1,801	38,694
총계	221	-163	15,805	-209,707	38,694

‘순유입 전환형(유형 3번)’에 가장 많은 지역 단위가 포함되어 있고(70개), ‘불규칙 유출형(유형 2번)’이 그 다음(62개)이다. ‘지속 유입형(유형 4번)’이나 ‘지속 유출형(유형 1번)’은 각각 45개, 44개이다. 순유입 인구규모는 지속유출형은 약 7천9백명 유출, 지속유입형은 7천4백명 유입이고, 불규칙 유출형은 약 1천5백명 유출, 순유입 전환형은 약 1천명 유입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표준편차 값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유형 내에서도 지역 간 유입인구 규모의 편차는 매우 크다. 즉 지역 조건에 따라 이동 인구의 규모는 차이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유입 인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3장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인구이동의 주요 방향은 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방향, 즉 이촌향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속 유입형(유형 4번)’에 속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2000년 이후에도 도시로의 유입만이 주요한 인구이동의 방향이라면, ‘순유입 전환형(유형 3번)’에 속하는 지역들도 대부분 도시 지역일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의 이도향촌 이주가 일부 인구집단이나 일시적 유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인구이동 흐름이라면 ‘순유입 전환형’에 촌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유형에 속하는 지역들이 도시 지역인지, 촌 지역인지 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각 유형에서의 도시 지역과 촌 지역 비중

유형	도시 지역(동)		촌 지역(읍면)		전체	
	지역 수	비중(%)	지역 수	비중(%)	지역 수	비중(%)
1. 지속유출형	15	17.9	29	21.2	44	19.9
2. 불규칙유출형	30	35.7	32	23.4	62	28.1
3. 순유입전환형	18	21.4	52	38.0	70	31.7
4. 지속유입형	21	25.0	24	17.5	45	20.4
합계	84	100	137	100	221	100

도시 지역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불규칙 유출형(약 36%)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속 유입형(25%)이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흐름 속에서 형성된 대도시 발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주요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도향촌 이주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순유입 전환형의 지역 비중이다. 도시 지역 중 순유입 전환형에 속하는 지역은 약 21%인 데 비해, 촌 지역에서 순유입 전환형에 속하는 지역은 38%를 차지한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불규칙 유출형이었던 데 반해, 촌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순유입 전환형이다.

물론 촌 지역은 지속 유출형의 비중이 약 21%이고, 불규칙 유출형도 약 23%로 이 두 유형을 합치면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형에 속하는 지역이 많다. 또한 촌 지역에서 지속 유입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도시 지역에서 지속 유입형이 차지하는 25%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개의 유형 중에서 대략 2010년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상태로 전환되는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것에서 2010년대에 인구이동 흐름에 변화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유형에 속한 지역들이 도시보다는 촌 지역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 변화의 성격이 '이촌향도'에서 '이도향촌'으로의 역전적 의미를 담고있

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역 유형별로 도시 지역과 촌 지역을 나누어 2015년 각 지역으로의 순이동 규모를 집계한 것이 다음 <표 7>이다. 먼저 도시 지역을 살펴보면, 지속 유출형과 불규칙 유출형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불규칙 유출형 지역의 평균 순이동 규모는 약 3천명 유출인 데 비해, 지속 유출형 지역은 약 2만2천명 규모의 유출로 나타난다. 또한 순유입 전환형 지역의 평균 순이동 규모(약 2천명)는 절대값으로 보았을 때 불규칙 유출형의 규모(약 3천명)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평균 순이동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지속 유입형으로 약 1만명인데, 절대값으로 보면 지속 유출형의 규모(약 2만명)가 더 크다.

<표 7> 각 지역별, 유형별 순이동 평균(2015년)

지역 구분	유형	지역 수	순이동 평균(명)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도시 지역	1. 지속유출형	15	-22,320	53,491	-209,708	-356
	2. 불규칙유출형	30	-2,938	4,643	-14,643	4,840
	3. 순유입전환형	18	2,255	5,161	-324	20,071
	4. 지속유입형	21	10,752	11,450	-1,801	38,694
	총계	84	-1,864	25,440	-209,708	38,694
촌 지역	1. 지속유출형	29	-449	602	-2,839	138
	2. 불규칙유출형	32	-133	663	-2,012	1,904
	3. 순유입전환형	52	579	1,026	-1,244	5,273
	4. 지속유입형	24	4,485	4,020	595	16,150
	총계	137	880	2,500	-2,839	16,150

반면 촌 지역의 순이동 평균 규모는 이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지속 유출형과 불규칙 유출형 모두 약 5백명 안쪽의 규모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 그 크기가 크지 않다. 순유입 전환형 역시 평균 약 6백명으로, 절대값으로 본다면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띄게 다른

것은 지속 유입형 지역의 순이동 평균 값이다. 지속 유입형 지역의 순이동 규모는 약 4천5백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도시 지역의 유입 규모에 비하면 크기는 작지만,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유형이 유출형이 아니라 유입형이라는 점에서 도시 지역과 촌 지역에서 인구이동 흐름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동 인구의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유입 인구 규모로 집계하면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대에도 인구이동의 주된 흐름은 도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 관점에서, 각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흐름이 유출로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유입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는가를 기준으로 장기간 살펴보게 되면, 2010년대에 분명히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인구이동 상태 변화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고, 그 상태의 시간적 지속성과 공간적 확장성을 기준으로 변화의 중요성을 평가한다면 순유입 전환형 지역 유형이 발견된다는 것, 그리고 도시와 촌 지역에서 각 유형 분포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서 2010년대 인구이동 흐름에 이도향촌이라는 새로운 인구이동이 유의미하게 등장했음을 읽어낼 수 있다.

3.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시간적 지속성과 공간적 확장성

이 절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이동 흐름을 시계열 배열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전체 인구이동 흐름을 '동'과 '읍·면'을 구분하여 구성한 지역 단위(도시 지역과 촌 지역)로 분석하면, 동 지역으로의 유입이 중심이 되어왔던 기존의 이동과는 달라진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약 20년 동안의 장기적

시계열 속에서, 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인구 유입 상태로 전환된 지역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지역이 일부 범위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촌 지역으로의 유입 인구 중 70%가 도시로부터 온 이주라는 점에서 '이도향촌'이라는 이동의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의 크기로만 본다면 이도향촌 인구가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더라도, 인구이동 방향의 변동적 추세와 지역공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현상은 주요하게 포착되는 사회변동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그동안 인구의 '크기'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왔던 전통적인 지역 인구정책의 관점에 새로운 접근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

즉 이 절의 분석 결과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2010년대 전체 인구이동 흐름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만으로는 2010년대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의 '성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바가 크지 않다. 인구이동의 성격이라 함은, 촌 지역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도시를 벗어난 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도시화된 지역 또는 교외화 지역으로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근래에 들어 인구이동의 흐름이 도시를 벗어나는 징후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 연구들이 발견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인 현상인가와 함께, 과연 '탈(脫, ex-)' 도시화 -혹은 '반(反, anti-)' 도시화 성격을 가진 이동인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절에서 도시에서 촌으로의 인구이동 방향 전환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성'의 약화가 아닌 강화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즉 해당 촌 지역으로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는 이유는 '도시를 벗어나는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이 도시적으로 개발되어 '교외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대도시 권역'이 이러한 방식으로 발달됐기 때문에[26] 이 가

26) '교외화(Sub-urbanizatio)'라는 개념, 그리고 교외화가 대도시 인접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설명하는 '도시 난개발(Urban sprawl)' 개념 등이 이러한 현상

능성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만약 '순유입 전환형'에 속한 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사실상 '도시 권역'의 확장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면, 이 유형의 발견만으로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새로운 성격의 인구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순유입 전환형'에 속한 촌 지역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전후로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포시와 평택시의 읍면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읍면 지역이기는 하지만, 도시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개발된 곳들이다. 전형적인 교외화 지역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형식 상으로는 이도향촌 이주에 포괄되지만,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새로운 성격의 이도향촌 이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2010년대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특히 귀촌 인구에 도시적 성격의 이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음(박기서, 정일훈 2012; 박경환 2017; 박수진, 나주몽 2017 등)을 고려한다면 각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어떤 성격을 가진 이동인가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각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를 바탕으로 촌 지역을 유형화한다.

2절. 이도향촌 이주의 다종다기성

앞의 1절에서 2010년대 도시에서 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시간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전국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이동을 도시로의 인구유입과 구분되는 성격의 이동인가 아니면 교외화 흐름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 절은 2010년대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특징

속에서 발전해오고 있다.

을 분석함으로써 검토할 것이다.

이 분석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구성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는 것이 아니다. 촌 지역으로의 이동이 교외화 지역으로의 이동의 성격을 가지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선별하였다. 교외화 개념은 도시의 외연적 성장으로 인해 접경 지역으로 도시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황의정, 우명제 2016: 21)인데, 이때 전통적·협의의 교외화는 '거주' 기능이 도심에서 교외화 지역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이르지만 근래의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광의의 교외화에는 '산업' 기능이 이전되는 현상까지를 다루고 있다(이다혜, 주경식 2013: 641; 박정일 2015: 160). 이 절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외화 현상을 포착하고 가려낼 수 있는 이동인구의 특징으로 7개 종류의 인구경제학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수를 사용하여 137개 촌 지역 단위를 유형화함으로써 이도향촌 이주 흐름이 그 성격에 따라 어떻게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해석하고자 한다.

1. 촌 지역의 유입인구 성격 분석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성격에 따라 대상 지역을 유형화하는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한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병합적 방법(agglomerative) 사용하여 각 개체들을 하나의 전체 집단으로 순차적으로 묶어나가는 유형화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론적 용이함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구에서도 지역들을 다양한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데 자주 활용된다(이종상 2013; 김화환 외 2015).

각 개체를 몇 개의 집단으로 묶어내는 데 사용되는 군집화 거리는 Ward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방법은 군집 내 거리와 군집 사이의 거리 정보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집 결과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김화환 외 2015: 232), 군집을 만들기 위해 병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잔차

제곱합(ESS: Error Sum of Squares)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개체 간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 개념으로 측정되어 반영되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은 도시 지역(동 지역)을 제외한 촌 지역(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27]. 앞선 시계열 배열 분석에서는 전체 인구이동 내에서의 향촌 이동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분석 상의 이유로 제외된 일부 지역말고는 모든 지역, 즉 도시 지역(동 지역)까지도 유형화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이 절의 목적은 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137개 촌 지역 단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각 지역 단위에 유입되는 인구를 연령, 전입사유, 가구형태,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통근통학 여부 등으로 측정하여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지역들을 군집분석으로 유형화한다. 각 변수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입 사유나 농업 관련 종사 여부, 주변 도시로의 출퇴근 여부 등을 반영하여 해당 이동이 교외화 혹은 귀농귀촌 등의 성격을 얼마만큼 함축하고 있는가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유형화 기준이 되는 상세한 변수와 자료 출처는 아래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이 때 각 변수가 군집화 과정에서 동일한 단위로 분석될 수 있도록 표준화[28] 절차를 거쳐 값을 사용하였다.

<표 8> 지역 군집분석에 사용된 기준 변수

기준 변수	세부 항목	자료 출처
연령별 유입자 수	0-69세 각 연령별 유입자 수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2015년)
	70세 이상 유입자 수	
전입사유별 유입세대 수	전입사유: 가족	
	전입사유: 직장	
	전입사유: 주택	
	전입사유: 건강	
	전입사유: 교육	

27) 1절의 분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분석 대상 지역을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지역은 2장 전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총 137개의 촌 지역(읍·면 지역)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28) 표준화는 각 변수의 평균값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전입사유: 교통	
	전입사유: 기타	
가구형태별 유입세대 수	1인 가구	
	18세 이하 미성년자 포함 2인 이상 가구	
	19세 이상 성인 2인 이상 가구	
이주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상태별 유입인구 수	경제활동상태: 주로 일하였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 인구조사[29](2015년)
	경제활동상태: 가사, 학업 등 다른 활동 중 틈틈히 일함	
	경제활동상태: 일시 휴직	
	경제활동상태: 일하지 않음	
이주 지역에서의 종사상지위별 유입인구 수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이주 지역에서의 종사 산업별 유입인구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유입인구 중 타 광역시로의 통근통학자 비율	타 지역 중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로 통근통학하는 사람 / 전체 통근통학자 수	

2. 비도시형, 교외화형, 혼합형의 도출

위 변수들을 사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 촌 지역들을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검토하기 전에, 도출된 군집유형들이 적절하게 분류된 것인가를 먼저 검증하였다. 검증 방법은 지역으로의 총 유입인구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지역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표 9>).

<표 9>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번 집단으로의 평균 유입인구 수가 약 3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번 집단의 평균 유입인구

29)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중에서, 1년 전 거주지가 '다른 시, 군, 구'라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추출하였다.

수가 약 1만7천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1번 집단의 평균 유입인구 수는 약 5천9백명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유입인구 수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했을 때, 유의확률(p-value) 0.001의 수준에서 3개의 지역 집단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9> 군집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유입인구 차이검증 결과(ANOVA)

집단 번호	평균 유입인구 (명)	표준편차	사례(개)	F값
1번	5,953	2,163	102	327.35***
2번	35,052	11,484	11	
3번	17,321	3,226	24	
				*** p-value ≤ 0.000

이렇게 분류된 3개 지역집단에 각기 속한 구체적 지역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1번 지역에 가장 많은 지역(102개)이 속해 있고, 2번 지역에는 11개 지역, 3번 지역에는 24개의 지역이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지역의 이름을 살펴보면, 2번 유형에 속한 지역들의 대부분은 광역시의 읍면 지역이거나, 경기도 지역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표 10> 각 유형에 속하는 지역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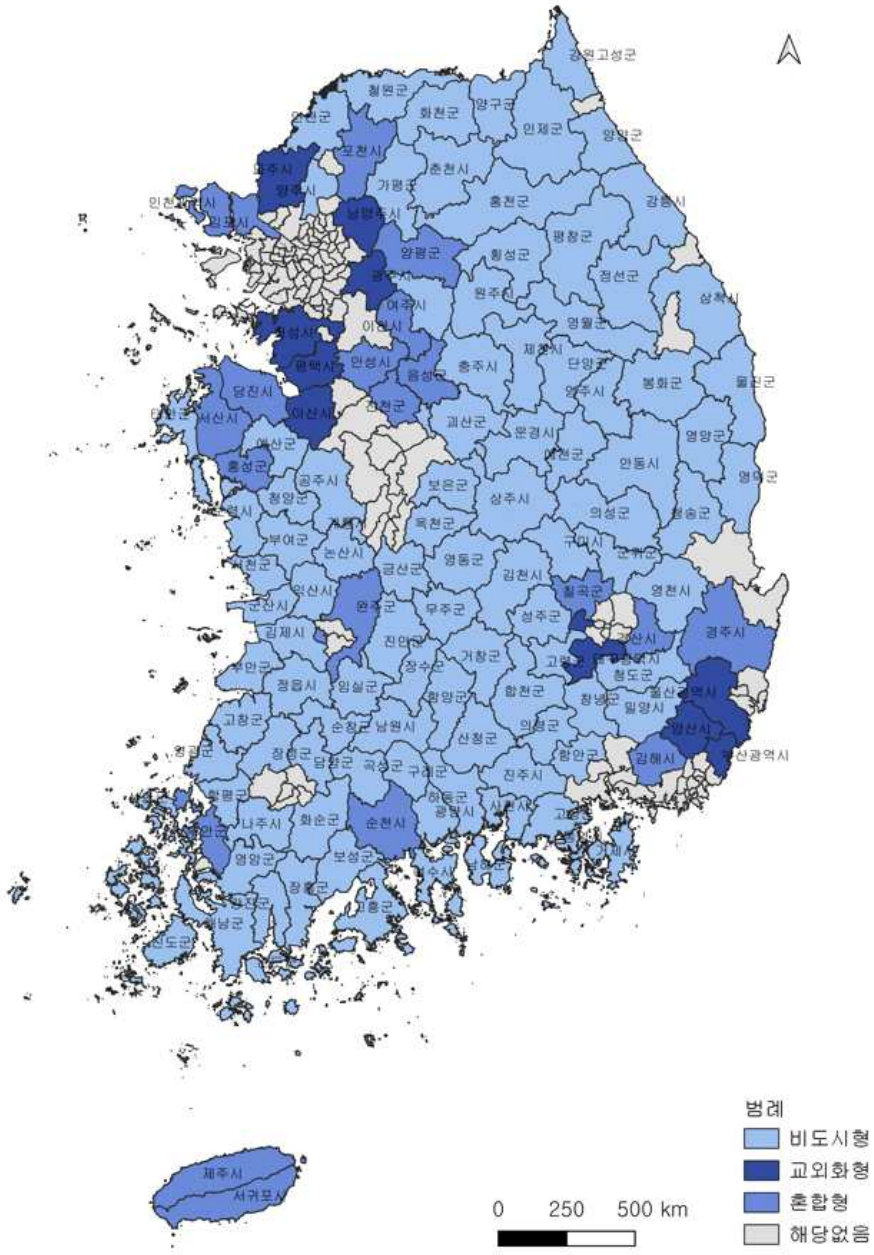
유형	지역 수(개)	비중 (%)	해당 지역명
1번	102	74.5	가평군, 강릉시, 강원고성군, 강진군, 거제시, 거창군, 계룡시, 고령군, 고성군, 고창군, 고흥군, 곡성군, 공주시, 광양시, 괴산군, 구례군, 구미시, 군산시, 군위군, 금산군, 김제시, 김천시, 나주시, 남원시, 남해군, 논산시, 단양군, 담양군, 무주군, 문경시, 밀양시, 보령시, 보성군, 보은군, 봉화군, 부안군, 부여군, 사천시, 산청군, 삼척시, 상주시, 서천군, 성주군, 순창군, 신안군, 안동시, 양구군, 양양군, 양주시, 여수시, 여주시, 연천군, 영광군, 영덕군, 영동군, 영암군, 영양군, 영월군, 영주시, 영천시, 예산군, 예천군, 옥천군, 완도군, 울릉군, 울진군, 원주시, 의령군, 의성군, 익산시, 인제군,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정선군, 정읍시, 제천시, 증평군, 진도군, 진안군, 진주시,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청양군, 춘천시, 충주시, 태안군, 통영시, 평창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평군, 합천군, 해남군, 홍천군, 화순군, 화천군, 횡성군
2번	11	8.0	광주시,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아산시, 양산

			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3번	24	17.5	경산시, 경주시, 김포시, 김해시, 당진시, 무안군, 서귀포시, 서산시, 순천시, 안성시, 양평군, 완주군, 용인시, 음성군, 이천시, 인천광역시, 제주시, 진천군, 창원시, 천안시, 칠곡군, 포천시, 포항시, 홍성군
계	137	100	-

각 유형의 지역적 분포를 아래 지도 [그림 5]와 같이 전체 지형으로 조망하면, 좀더 가시적으로 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2번 유형으로, 모두 대도시 또는 광역시에 인접해있다. 다음으로 3번 유형은 중간 짙은 푸른색으로 표현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2번 유형에 비해서는 거리가 있으나 역시 광역시 권역 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지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연한 푸른색 지역이 1번 유형에 속하는 지역이다. 참고로 지도에서 옅은 회색 지역은 읍·면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시 지역(서울, 경기권 대도시, 광역시 등)이거나 세종시 지역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공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지리 공간에서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각 지역 유형의 의미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유입 인구가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유형은 2번 지역(가장 짙은 푸른색 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권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교외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유입 인구가 많은 3번 유형 지역(중간 짙은 푸른색 지역)도 대도시 권역에 인접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촌 지역이더라도 인근 대도시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도시 지역과 비슷하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2번, 3번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번 유형 지역(가장 옅은 푸른색 지역)으로 분류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유형은 전국 범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입 인구의 크기로 보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5] 지역 유형의 전국 분포 지도



그러나 앞서 1절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인구의 크기'에서 '지역 공간의 범위'로 관점을 확장한다면 1번 유형 지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위치지을 수 있다. 특히 다음 3절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들 1번 유형 지역 중에서도 2010년대에 인구 순유입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순유입 전환형 지역(1절의 3번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을 드러내어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이 2010년대 인구이동 흐름 및 귀농귀촌 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이 절은 분석 결과 군집의 특성을 개별 변수별로 더 자세히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유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각 유형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먼저 <표 11>은 연령대 및 가구 형태별 특성이다.

<표 11> 지역 유형별 유입인구의 연령별, 가구 형태별 특성

항목	값	1번	2번	3번	총계
전체유입자 수(명)	평균	5,953	35,052	17,321	12,762
	표준편차	2,163	11,484	3,226	11,488
	최소값	1,653	24,403	12,443	1,951
	최대값	11,243	61,281	23,771	75,321
20-40대 유입자 비중(%)	평균	43.1	48	46	35.6
	표준편차	4.1	2.6	3	3.1
	최소값	35.2	43.3	38.9	27.6
	최대값	61.5	52.6	53.3	45
50대 이상 유입자 비중(%)	평균	27.1	19.9	21.1	20.7
	표준편차	5.1	2.1	3	4.7
	최소값	11.5	16.1	16	8.8
	최대값	38	23.1	29.6	32.3
전체 유입 세대 수(가구)	평균	3661	18260	9595	5,900
	표준편차	1,187	5,471	1,788	4,720
	최소값	1,114	13,318	6,611	1,114
	최대값	6,030	30,038	13,235	30,038
1인 가구 유입 세대 비중(%)	평균	77.9	68.7	71.9	76.1
	표준편차	5	4.2	4	5.7
	최소값	46.1	63.7	61.4	46.1
	최대값	91.7	74.1	77.1	91.7
미성년자 포함 유입 세대 비중(%)	평균	11.7	16.9	15.9	12.9
	표준편차	3.6	2	3.1	3.9
	최소값	3.9	13.9	11.6	3.9
	최대값	37	20.3	25.8	37

2번 유형에서 지역 유입 인구의 수가 가장 많고, 젊은 연령층(20-40대)이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2인 이상 가구의 비중도 가장 높다. 지역 정책과 지자체에서 주목하는 '생산인구'의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번 유형은 그 다음으로 많은 유입 인구 수와 높은 비중을 보이고, 1번 유형이 가장 적은 수와 낮은 비중을 보인다. 1번 유형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나 1인 가구의 비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그러나 이를 '1번 유형 지역으로는 50대 이상 연령이 주로 유입된다'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된다. 1번 유형 지역에서도 20-40대가 유입 인구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1번 유형에서 50대 이상 연령층 유입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 구성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다양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입 사유, 즉 이주의 목적에 따른 유입 인구의 비중과 일자리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실제로 이주의 목적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일단 전입 신고 시 밝힌 '가장 주된 사유'를 기준으로 유입 인구의 특성을 추론한다. 또한 유입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해당 지역으로의 이주가 주로 경제적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좀더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입 사유를 살펴보았을 때, 단일 사유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직업'으로 인한 이주이고(전체의 약 32%), 그 다음은 '주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가족, 건강, 교육, 기타 등의 사유는 개별로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합계하면 절반이 약간 되지 않는 정도를 차지한다. 직업 사유로 인한 전입은 3번 유형이 가장 높고(약 33%), 2번 유형이 가장 낮지만(약 31%) 그 차이가 2%p로 크지는 않다. 그러나 주택 사유로 인한 전입에서는 유형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2번 유형에서는 주택 사유로 인한 전입이 30%를 차지하여 직업 사유로 인한 이주와 함께 대등한 주요 요인을 구성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 본 교외화 개념 중 거주 차원에서 도시 지역의 외연이 확장된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번 유형에서 주택 사유로 인한 이주는 약 17%에 그쳤다. 1번 유형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사유는 여러가지 사유들을 합산한 항목이었다(약 49%). 이를 앞서 검토한 유입인구의 연령대 구성비와 함께 고려하여, 1번 유형으로의 인구유입이 좀더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표 12> 지역 집단별 유입인구의 전입사유, 경제활동별 특성

항목	값	1번	2번	3번	총계
'직업' 사유로 전입한 가구 비중(%)	평균	31.7	31.4	32.9	31.9
	표준편차	9.2	9.7	7.7	8.9
	최소값	19.3	16.9	16.6	16.6
	최대값	63.3	43.6	45.3	63.3
'주택' 사유로 전입한 가구 비중(%)	평균	16.7	30.2	24.1	19.1
	표준편차	5	8.1	5.2	6.8
	최소값	5.4	18.9	14.6	5.4
	최대값	30.7	41.1	37.2	41.1
'가족, 건강, 교육, 기타' 사유로 전입한 가구 비중(%)	평균	49.1	36.7	41.3	46.7
	표준편차	7.8	3.2	5.1	8.2
	최소값	27.7	31.6	33.3	27.7
	최대값	66.4	42	51.2	66.4
경제활동인구 수(명)(상시근로+임시근로)	평균	870	6,315	2,823	1,658
	표준편차	491	2,819	810	1,823
	최소값	277	2,450	1,476	277
	최대값	2,148	10,926	4,958	10,926
임금근로자 비중(%)	평균	74.7	83.6	83.1	76.9
	표준편차	15.2	5.9	5.5	13.9
	최소값	31	73.9	70.5	31
	최대값	100	92.3	93.9	100
농수산업 종사자 비중(%)	평균	12.9	1.9	2.8	10.2
	표준편차	12.4	1.9	2.4	11.6
	최소값	0	0	0	0
	최대값	59.1	6	8.3	59.1

이는 일자리 요인에서의 분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유형별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1번 유형이 가장 작고, 3번 유형

이 그 다음이며, 2번 유형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규모도 전체 유입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결과다. 그런데 1번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약 75%로 2번 유형(약 84%)이나 3번 유형(약 83%)에 비해 10%p 가까이 낮다는 점, 그리고 농수산업 종사자 비중이 약 13%로 2번 유형(약 2%)과 3번 유형(약 3%)에 비해 10%p 가까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귀농귀촌' 이동 등 다양한 이동이 1번 유형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이에 비해 2번 유형 지역은 전형적인 교외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아래 <표 13>에 나타난다. 교외화 지역의 대표적인 속성은 대도시 인근 권역에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이 지역에서 주거하면서 대도시로 통근·통학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고자 지역 유입 인구 중 타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의 수를 집계하고, 특히 타 광역시로의 통근통학자 비중을 계산하여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표 13> 지역 집단별 유입인구의 통근·통학 특성

항목	값	1번	2번	3번	총계
통근통학자 수(명)	평균	1,021	7,227	3,479	1,961
	표준편차	594	3,338	1,293	2,161
	최소값	297	2,776	1,476	297
	최대값	2,688	12,056	7,349	12,056
타 광역시 통근통학자 비중(%)	평균	4.1	23.9	6.6	6.2
	표준편차	8	19.3	9.6	10.9
	최소값	0	3.2	0	0
	최대값	43.8	48.1	37.3	48.1

2번 유형에서 통근통학자 수가 많고 특히 타 광역시로의 통근통학자 비중을 보면 1번 유형이나 3번 유형이 약 5% 내외에 머무르는 데 비해 2번 유형에서는 약 24%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앞서 살펴본 표에서 2번 유형에서 '주택'을 전입사유로 꼽은 이주 인구 비중이 다

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았던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2번 유형은 대도시권역에 형성된 교외화 지역으로의 이동이 주된 흐름이 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경제활동 등을 대도시에서 영위하면서 주거는 지가가 낮은 인근 교외화 지역으로 옮겨 출퇴근하는 인구가 만들어내는 이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외화 현상은 지리적 공간 상으로는 촌 지역, 즉 비-도시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해당 지역이 인근 대도시의 영향권에 들어가 도시 생활권역으로 개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외화 지역으로의 이동은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그로 인한 대도시 발달이 심화되었을 대 일어나는 이동으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도향촌 이주'라기보다는, '도시적 이동'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2번 유형의 이동을 '도시적 이동'으로, 1번 유형의 이동을 이와 대비하여 '비도시적 이동'으로 해석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유형의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1번 유형 지역을 '비도시형 유형', 2번 유형 지역을 '교외화 유형', 3번 유형 지역을 '혼합형 유형'으로 명명한다. 이 때 3번 유형은 비도시화 유형과 교외화 유형의 중간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형으로 명명한다. 3번 유형은 대부분 변수의 평균값이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사이로 나타났을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보아도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요소와 귀농귀촌 정책의 성공으로 인한 요소가 동시에 발견되는 지역들(가령 홍성군, 완주군, 서귀포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도향촌 이주의 다양성: 도시성과 비(非)도시성

이 절의 분석에서 도출한 주요한 발견은 전체 137개의 촌 지역을 이동인구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유형을 통해 교외화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과 비도시적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구

분하여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발견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와 같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는 반(反)도시화 성격의 이동뿐 아니라 교외화 성격의 이동이 혼합되어 다종다기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 권역에 위치한 일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교외화 이동인구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인근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율뿐 아니라, 유입 세대의 가구 형태 비중이나 임금근로자의 비중,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 등이 비도시형 지역으로의 유입인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비도시형 지역은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중이나 전입 사유의 구성, 연령 구성비 등을 보았을 때 훨씬 다양한 성격을 띠는 인구집단이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유입 인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는 유형화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이 절의 첫 번째 의의다.

둘째, 교외화 이동 지역으로의 유입 인구의 크기와 세대 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지속유입형'에 도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크고, 도시 지역으로의 순유입 인구 규모도 훨씬 크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도시 방향으로의 인구이동의 흐름이 '교외화' 현상으로도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절에서 유입인구의 크기는 작지만 2010년대에 뚜렷한 인구이동 변화를 보여주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절의 결과 역시 새로운 인구 흐름을 발견하는 단계로 심화시킬 수 있다. 앞서 1절의 결과만으로는 2010년대 전환된 인구이동 흐름이 촌 지역의 교외화로 인한 것인이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절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절에서 전체 137개 촌 지역을 비도시형 지역과 교외화 지역, 그리고 혼합형 지역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이제 1절의 순유입 전환형 지역 중 어떤 지역이 교외화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비도시형 지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1절의 유형화 결과와 2절의 유형화 결과를 교차분석으로 연결함으로써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위치와 성격,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절. ‘비도시적 순유입 전환 지역’ 의 발견

이 절에서는 앞서 2절에서 분류한 지역 유형을 1절에서 분류한 지역 유형과 중첩하여 분석한다(교차분석). 이 교차분석을 통해 첫째, 인구유입 시계열 상태 유형과 유입인구의 구성 상태 유형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둘째, 두 분석 결과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2절에서 분류한 ‘비도시형 이동 지역’이면서도 1절에서 분류한 ‘순유입 전환형’에 속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분포를 통해 2010년대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교외화 지역으로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도시적 이동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2010년대 주목받고 있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위치와 성격를 묻는 연구질문에 대한 이 장의 답을 제시할 것이다.

1. 인구유입 상태와 (비)도시적 이동 간의 관계

교차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인을 하나의 분할표에 동시 배치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여기서는 인구유입 상태 배열에 따른 유형화 결과(1절)와 지역 유입인구 구성에 따른 유형화 결과(2절)를 두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상관관계를 검증한다. 이 때 결과 자료가 두 가지 이상의 명목변수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 )과 귀무가설(H_0)은 다음과 같다.

H_a : 유입 인구의 구성에 따른 지역유형과 지역의 인구유입 시계열 변화 패턴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H_0 : 유입 인구의 구성에 따른 지역유형과 지역의 인구유입 시계열 변화 패턴은 상호독립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위의 연구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도시적 이동’과 ‘비도시적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유형이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유입 지역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비도시적 이동’이 주요한 지역이면서도 지속적 인구 순유입 상태로 전환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자유도(df =6), Pearson 값 62.46, 유의도 0.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는 촌 지역의 장기적 인구유입 구조와 유입인구 구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표 14> 인구유입 상태와 유입인구 구성 유형 간 교차분석 결과

단위(개)		03-19년 인구 유입 상태에 따른 유형				계
		지속유출	불규칙유출	순유입전환	지속유입	
유입인구 구성에 따른 유형	비도시형	28	28	41	5	102
	교외화	0	0	1	10	11
	혼합형	1	4	10	9	24
계		29	32	52	24	137
분석 결과값		Pearson Chi2(6) = 62.46 , Pr = 0.000				

두 변인 간의 교차표를 살펴보면, 유입 인구 구성에 따라 분류한 교외화 지역과 혼합형 지역 유형에는 인구유입 상태가 ‘지속유출형’인 경우나 ‘불규칙유출형’인 경우가 거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외화 유형은 1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속유입형’에 속해있고, 혼합형 유형은 전체 지역의 과반수 이상이 순유입 전환형(약 42%)과 지속유입형(약 38%)에 분포되어 있다. 2절의 분석 결과에서 교외화 유형과 혼합형 유형이 수도권 및 광역시 권역 지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외화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은 유입의 규모도 크고 지속 상태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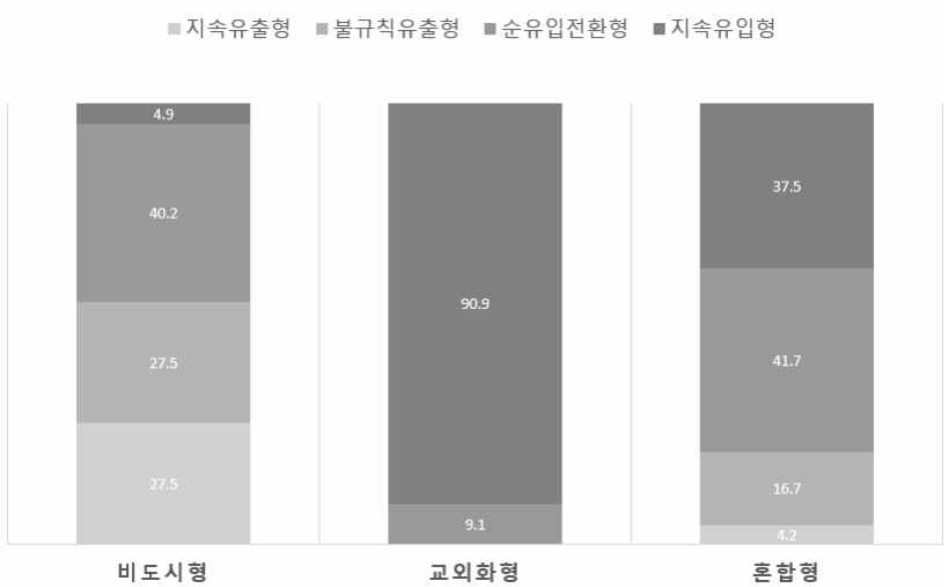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1절과 2절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1번 비도시형 유형과 순유입 전환형이 교차하는 지점에 속하는 지역들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표 15> 두 유형을 교차하였을 때 해당 지역 수의 비중(%)

		03-19년 인구 유입 상태에 따른 지역 유형				계
		지속유출	불규칙유출	순유입전환	지속유입	
유입인구 구성에 따른 유형	비도시형	20.4	20.4	29.9	3.7	74.5
	교외화	0.0	0.0	0.7	7.3	8.0
	혼합형	0.7	2.9	7.3	6.6	17.5
계		21.2	23.4	38.0	1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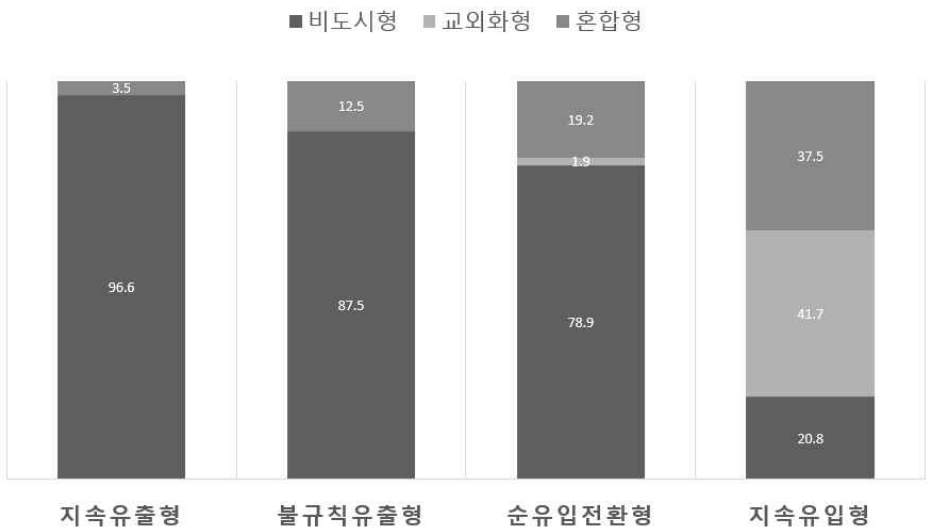
<표 15>에 나타나있듯, 전체 촌 지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차 유형은 비도시적 인구이동이 일어나면서도 2010년대에 순유입 전환을 지속하고 있는 유형(약 30%)이다. 이러한 비중은 각 유입인구 유형별 비중으로 보았을 때도 작지 않게 나타난다. 즉 아래 그래프([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도시적 이동 지역 중 약 45%가 순유입 전환형(40.2%)이나 지속유입형(4.9%)으로 나타난다.

[그림 6] 지역 유입인구 성격별 인구유입 상태비중(%)



비도시형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권역으로의 인구이동과는 성격이 다른 인구 흐름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만약 2010년대에도 여전히 도시로의 유입만이 인구이동의 주된 흐름이라면 비도시적 이동 지역은 인구 순유입보다는 순유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비도시적 유형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2010년대 인구 순유입 전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2010년대의 이도향촌 이주가 전체 인구이동 흐름에서 상당히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흐름으로 형성된 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인구유입 상태 유형별 유입인구 구성 유형 비중(%)



이러한 해석은 인구유입 상태 유형을 기준으로 보아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 그래프([그림 7])는 인구유입 상태 유형에서 비도시형, 교외화형, 혼합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현한 것이다. 순유입전환 유형에 속하는 지역 중 약 79%의 지역이 비도시형에 교차하여 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절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 2010년대에 들어 인구 순유입 상태로 전환된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이동이 도시적 이동에 가까운 것

인지, 아니면 비도시적 이동의 성격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명료하게 도출할 수 있다. 즉 약 30%에 이르는 지역들에서 비도시적 인구이동에 의해 인구유입이 순유입 상태로 지속되는 변화가 2010년대를 기점으로 발생하였다.

2. 비도시적 이도향촌 이주 지역의 전국적 분포

두 유형화 결과를 교차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이 배치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지역 유형별 지역 목록

		03-19년 인구 유입 상태에 따른 지역 유형			
		지속유출형	불규칙유출형	순유입전환형	지속유입형
유입인구구성에 따른 지역 유형	비도시형	강릉시, 고흥군, 공주시, 군산시, 김제시, 나주시, 논산시, 보령시, 보성군, 봉화군, 부안군, 부여군, 서천군, 안동시, 영광군, 영덕군, 영암군, 영양군, 예산군, 완도군, 울진군, 청송군, 청양군, 진도군, 철원군, 하동군, 해남군, 화순군	고성군, 강진군, 고령군, 고성군, 구미시, 김천시, 남해군, 담양군, 무주군, 삼척시, 상주시, 순창군, 신안군, 양구군, 양주시, 여수시, 영양군, 영주시, 의령군, 의성군, 인제군, 장흥군, 진주시, 천안시, 홍천군, 화천군	거창군, 계룡시, 고창군, 곡성군, 광양시, 괴산군, 구례군, 군위군, 금산군, 남원시, 단양군, 문경시, 밀양시, 보은군, 사천시, 산청군, 성주군, 양양군, 여주시, 연천군, 영동군, 영월군, 예천군, 옥천군, 원주시,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제천시, 증평군, 진안군, 창녕군, 청도군, 청송군, 청양군, 충주시, 태안군, 평창군, 함안군, 함양군, 함평군	가평군, 거제시, 통영시, 춘천시, 횡성군
	교외화	없음	없음	평택시	광주시, 남양주시, 달성군, 기장군, 아산시, 양산시, 울주군,

					청주시, 파주시, 화성시
	혼합형	천안시	경주시, 이천시, 포천시, 포항시	경산시, 김포시, 서귀포시, 순천시, 완주군, 제주시, 창원시, 칠곡군, 홍성군[30]	김해시, 당진시, 무안군[31], 안성시, 양평군, 용인시, 인천시, 음성군, 진천군[32]

이들 지역을 전국 지도에 색깔로 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지리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이 나타난다. 지도에서 비도시형은 녹색 계열로, 교외화 유형은 황색 계열로, 혼합형 유형은 푸른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다. 각 색깔 계열에서 짙은 색으로 갈수록 인구유입이 순유입으로 지속되는 유형을 표현하였다. 즉 비도시 유형 중에서 가장 짙은 녹색으로 표현된 지역(예를 들어 춘천시, 횡성군 등)은 '지속유입형'이고, 그 다음 짙은 녹색은 '순유입 전환형'(예를 들어 원주시, 충주시, 괴산군 등)이다. 옅은 녹색 지역은 '불규칙유출형'(홍천군, 상주시 등)과 '지속유출형'(강릉시, 봉화군 등)에 속한다.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된 지역들이다.

각 유형에 속한 개별 지역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이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일관된 구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비도시화 유형과 순유입 전환형에 동시에 속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몇몇 지역의 특성을 간략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도 권역에서 2016년[33]을 기준으로 순유입 인구 크기가 가장

30) 2012년 충남도청 이전
31) 2005년 전남도청 이전
32) 음성군,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개발지역
33) 각 지역의 조건과 유입 인구 간의 관계를 분석한 제3장에서 종속변수를 2016년의 인구유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 이 장에서도 2016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큰 지역은 원주시인데, 원주시는 2005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상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상의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왔다. 또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정규호 2013). 같은 유형에 속한 지역 중 다음으로 순유입이 많은 지역은 영월군과 평창군인데, 영월군은 '창조문화산업'을 기치로 약 25개 이상의 박물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였다(이형수 2012). 평창군은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지로, 관련 산업의 형성이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양양군은 해양 레포츠인 서핑에 특화 발전하면서 관련 인구가 귀어귀촌의 흐름처럼 꾸준히 유입되어왔고, 2018년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더욱 유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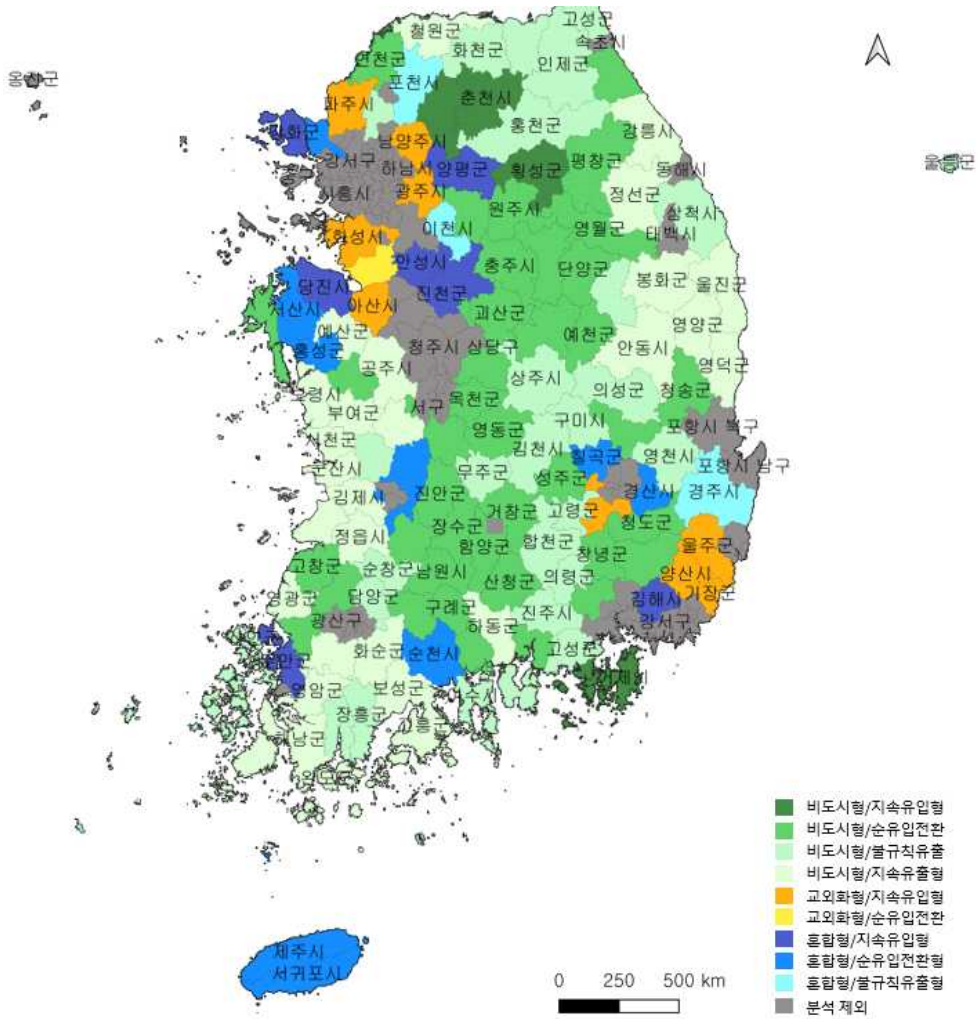
충청도 권역에서는 충주시, 계룡시, 괴산군, 태안군, 청양군 등이 2016년 기준 순유입 인구 수가 많다. 충주시는 원주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상의 기업도시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축제, 문화·관광 요인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개진해왔다(손호기 외 2011). 계룡시는 대전광역시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 유입의 요소가 풍부하고, 군사 시설의 요충지로서 '국방도시'로도 불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괴산군은 유기농 농·축산업으로 홍성군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살림을 위시하여 협동조합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 귀농귀촌 지역으로도 유명하다(한주성 2020: 575). 청양군 역시 충청권 지역에서 홍성군, 금산군 등과 함께 2000년대 말에 귀농귀촌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다음으로 태안군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이 넓게 설정되어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어촌체험 마을이 발달해 있어 다각화된 어촌 경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귀어인의 수요도 높다(성주인 외 2019: 141-156). 또한 2012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소 등 일부 공기업이 이전한 바 있다.

다음으로 전라도 권역에서는 고창군, 광양시, 장수군, 구례군, 임실군이 인구 순유입 상위 5개 지역이다. 이 중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고창군은 주요 귀농귀촌 지역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명하며, 2009년

정부의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5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장수군도 이 시범사업 5개 지역 중 하나인데, 이는 이들 지역이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단위거점개발'에 따라 장수군 외에도 구례군, 남원시, 산청군, 함양군, 곡성군 등의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정상순 2015; 김용진, 손용훈 2018: 76).

마지막으로 경상도 권역에서는 예천군, 밀양시, 창녕군, 성주군, 산청군이 2016년 기준 상위 인구 순유입 지역이다. 예천군은 군 내 일부 지역(호명면)이 2008년부터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에 포함되어 개발되기 시작했고, 2016년 경상북도청이 이전하였기에 이에 따른 인구유입이 인구 순유입의 주요 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밀양시는 지리적으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창원시와 인접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도시로부터의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점만을 고려하면 밀양시가 비도시적 이동 지역으로 분류된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밀양시는 여러 대도시권역이 중첩되는 위치에 자리하고있지만, 동시에 귀농인구 평균 상위 10개 지역에 드는 지역이기도 하다. 창녕군 역시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창녕군은 부산과 대구광역시, 창원시와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대합일반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인 '넥센타이어(주) 창녕공장'이 입지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해 출장식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창원시와 부산시에서 많은 인구가 창녕군으로 귀농귀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수진 2018: 50). 마지막으로 산청군은 1990년대말부터 생태공동체(안솔기마을)가 자생해온 역사가 있으며, 유명한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가 운영되는 등 다양한 생태·교육·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이주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교차된 지역 유형 분포 지도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도시적 인구유입 유형이면서도 인구순유입전환형에 속한 지역들의 특징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귀농귀촌 지역으로서의 면모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좀더 다양한 맥락[34]이 작동하고

34) 가령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서 발단되어 추진되어 온 다양한 수도권 기능 분산 작업(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각 도별 혁신도시 등)의 진행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후속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귀농귀촌 지역으로서의 특징과 인구 유입 성격 간의 불일치는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 수에 따른 상위 유입 지역의 구성과 이 절의 결과 지역을 비교해봄으로써 좀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7> 통계청 집계 2003-2019년 귀농·귀촌 인구 평균 상위 10개 지역

귀농 인구(명)			귀촌 인구(명)		
순위 지역	기간 평균	2016년	순위 지역	기간 평균	2016년
고창군	286.7	246	남양주시	21,318	21,904
제주시	271.7	368	화성시	19,319	20,575
상주시	268.0	302	광주시	16,257	16,870
서귀포시	258.6	402	대구광역시(달성군)	15,337	22,783
의성군	251.4	273	양산시	14,407	15,073
창녕군	249.9	294	아산시	11,842	12,384
완주군	226.6	250	부산광역시(기장군)	11,610	11,316
영천시	222.4	206	청주시	11,147	11,243
고흥군	220.6	279	울산광역시	10,566	9,266
밀양시	219.3	272	용인시	10,045	9,464

위 <표 17>은 2003년-2019년 기간 동안 통계청에서 '귀농인'과 '귀촌인'으로 각기 집계된 인구의 평균 규모 상위 10개 지역과 각 지역의 귀농인, 귀촌인 수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귀농인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지역 중 비도시형 지역이면서 순유입 전환형에 속하는 지역은 고창군, 창녕군, 밀양시 3개 지역뿐이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완주군은 순유입 전환형 지역이기는 하지만 혼합형에 속하는 지역이고, 나머지 4개 지역인 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흥군은 불규칙유출형과 지속유출형 지역에 속한다. 즉 귀농인구가 많은 지역과 2010년대 인구이동 유입지역이 동일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귀촌인 지표를 살펴보면, 귀촌인구 유입 상위 10개 지역의 대부분은 교외화 유형, 즉 도시화된 인구유입 특성을 보이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용인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교외화 유형과 지속유입형에 동시에 속하는 지역 집단과 일치한다. 용인시는 혼합형 유형과 지

속유입형에 동시에 속하는 집단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에서 집계되는 '귀농귀촌' 인구 범주가 상당히 이질적인 인구집단을 귀농귀촌이라는 개념으로 묶고 있을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귀농 유명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인구이동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고, 귀촌인이 대거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에서 재현하고 있는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환경으로서의 촌'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혼합형과 순유입전환형에 동시에 속하는 지역 집단에 귀농귀촌지로 유명한 지역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지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완주군, 홍성군 등으로, 미디어와 학술논의에서도 두드러진 귀농귀촌 지역 사례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혁신도시, 신도시 선정 등으로 인한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농업에 종사하거나 대안적 생활 환경을 찾아 이주하는 인구유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교외화 유형과 구분되는 지역으로 분류되도록 작동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지금까지의 지역 분석에서 대상이 되는 지역을 유입 인구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인구 크기는 작더라도 인구유입 상태 변화의 차원에서 변화를 보이는 중요한 지역들도 물론 존재한다. 이들 지역을 모두 포함한 분석은 다음 제3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입인구 중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 비중을 지역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전체 유입인구 중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 비중(2016년)

비중(%)		03-19년 인구 유입 상태에 따른 지역 유형				계
		지속유출	불규칙유출	순유입전환	지속유입	
유입인구 구성에 따른 유형	비도시형	64.8	67.1	65.4	72.1	66.0
	교외화	-	-	62.8	73.0	72.1
	혼합형	64.5	69.7	70.5	64.8	68.0
계		64.8	67.4	66.3	69.8	66.9

<표 18>을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의 과반수 이상이 도시로부터 유입된 인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지역의 인구이동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3.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다양성과 비도시적 이동의 확장성

이 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0년대에도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방향은 '도시화된 이동'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부터 계속 인구가 유입된 지역(지속유입형)은 도시화된 이동에 가까운 인구유입 유형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외화 유형에서는 지속유출형과 불규칙유출형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은 대체로 비도시적 이동의 성격을 보이는 비도시형과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외화가 진행되는 지역은 어쨌든 인구유입이 지속적인 순유입 상태에 있다는 점과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도시 개발의 인구유입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둘째, 2010년대 인구이동 흐름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점은 비도시형과 순유입전환형이 교차되는 항목에 전체 촌 지역의 약 31%가 속해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유입 인구의 구성이 '비도시적 이동'의 성격에 가까우면서도, 2010년대에 인구 순유입 지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분석 대상이 된다. 특히 도시적 이동이 중심이 되어 2000년대 이후 내내 인구유입 상태가 지속되는 '지속유입형'과 달리, 2010년대 들어 인구유입 상태로 전환된 '순유입전환형'에 속한 지역은 인구유입의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을 요한다. 이 유형에 속한 지역은 혼합형에 속해있으면서도 유명 귀농귀촌 지역인 경우가 다수 발견될 뿐 아니라, 통계청 집계에 기반한 주요 귀농귀촌 지역의 분포와도 불일치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귀농귀촌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다시한번 연결되며, 인구이동으로 재구성한 이도향촌 이주 현상에 대한 다음 단계의 심층적 분석 필요성을 제기한다.

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귀농귀촌'의 틀이 아닌,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흐름을 포착하고 그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위치와 의미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의 흐름을 구성하는 이동의 의미가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2010년대 이도향촌과 함께 이 이동이 흘러들어가는 지역 공간의 의미와 위치 또한 변하고 있을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도시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국내인구이동 흐름에 2010년대를 기점으로 구조적 분화가 형성되었음을 장기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새로운 흐름은 도시가 아닌 촌 지역으로의 이동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장기 지속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전국적 범위로 확장되어 발생하고 있었다. 즉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는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을 인구의 크기만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이 이동의 위치와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만을 놓고 보아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이동은 교외화된 촌 지역으로의 이동 혹은 도시 개발 요인에 영향을 받은 이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 규모의 차원이 아니라, 인구유입의 상태와 그 지속성, 공간적 확산성, 그리고 이동의 성격과 이를 추동하는 사회적 맥락의 변화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은 새롭게 포착된다. 이 장은 그러한 포착의 방법으로 인구유입 상태에 따른 시계열 패턴 분석, 지역 유입 인구의 성격에 따른 지역 군집화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동안의 인구정책, 특히 지역의 인구문제 접근 관점이 주로 인구의 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이도향촌 이주를 새롭게 포착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동 규모에서 이동의 방향, 이동의 내용, 공간의 열림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장의 분석 결과는 도시에서 촌으로의 이주가 일시적 현상이나 '유행'이라거나, 소수의 사회운동적 혹은 문화적 실천이라고 보는 관점 혹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이 귀농귀촌 이주를 분석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특수한 사례나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자의 동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사회구조적 변화와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 이 현상에 대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심도있는 의미 분석과 함께 거시적·사회구조적 분석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본 장에서 확인한 '새로운 인구이동으로서의 이도향촌 이주'가 왜 발생하는가를, 거시적 단위(제3장, 지역통계)와 미시적 단위(제4장, 이주 경험자 인터뷰) 모두에서 검토할 것이다.

제3장.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발생의 다양한 지역 요인

앞서 제2장은 2010년대 한국의 인구이동에서 도시에서 촌 지역 방향으로의 이동이 새로운 흐름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흐름을 구성하는 인구의 성격에 따라 교외화 이동 지역과 비도시적 이동 지역, 혼합형 이동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여 보면, 비도시적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이면서도 2010년대에 인구 순유입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곳들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다음 연구질문은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본 장은 제2장의 분석 내용을 이어서, 지역 수준에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여기서는 제2장에서 유형화한 지역들 중에서 '비도시적 이동' 유형에 속하는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좁힌다. 2010년대에 새로운 이주 현상으로서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기제가 무엇인지, 각 지역의 여러가지 특성 중 어떤 요인이 이도향촌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앞서 살펴 본 인구이동 기제 이론의 흡입-배출 모형을 따른 것이다. 이주자가 움직인 경로에서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을 정의하고, 각 지역의 특징을 변수로 조작화한 뒤, 각 변수가 도착 지역으로의 이동량에 인과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구이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인구를 유입시키는 지역의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이동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이며, 개별적 이주 행위를 집합적 수준에서 총량적 자료(aggregate data)로 조성하여 그 발생 원인을 거시적으로 추론하고 설명하는 논리이다(임창호, 이창무, 손정락 2002: 97; 손승호 2014: 393).

제1장에서 논의하였듯,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연구의 관점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제출될 수 있다[35]. 본 장은 여러가지 접근 방법 중, 미시적 개별 이주의 총량으로서의 인구이동을 지역 수준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제2장의 결론에서 드러난 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는 특수한 행위자 혹은 일부 집단에 국한된 현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이주 행위자의 미시적 특성과 동기를 중심으로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도향촌 이주에 행위자의 특정한 동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동기가 2010년대에 넓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구조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본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인구이동 기제 이론의 관점에서 이도향촌 이주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즉 제2장에서 발견된 '비도시적 이동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조건들을 인구이동 이론에서 논의해오던 바에 비추어 검증한다. 해당 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촉진할만한 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실제로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을 국내이동통계 및 지역 통계를 사용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도향촌 이주가 일어나는 지역적 맥락이 무엇인가를 추론한다.

그리고 이 때, 이 장 분석의 추가적 함의로서,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을 설명해 온 전통적 인구이동 기제 이론이 비도시적 이동 지역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앞서 제기했던 문제의식 중 하나는 전통적 인구이동 분석 모형

35) 본 연구가 채택한 지역 수준의 인구이동 기제 분석(제3장)과 행위자 수준의 인터뷰 분석(제4장)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을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이주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미시적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동에 필요한 경제적 자본 혹은 고-학력자본을 가진 계층이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 "생애단계에 따라 특정한 연령층이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 등을 대표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이주 행위자의 특징이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이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이 보다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질문의 초점이 좀더 맞춰져 있다. 둘째, 이주 행위자의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이동을 설명하는 작업들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음으로써 이동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서술되는 설명은 미시적 수준에서부터 거시적 수준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지만, 분석의 초점을 행위자의 동기에만 맞출 경우 그 저변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적절히 검토되지 못할 수 있다.

이 도시 중심의 이동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본 장은 인구이동 기제 분석 모형으로 '비도시적 이동 지역의 인구이동'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작동하는 지역 요인을 얼마만큼 설명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다. 그 후,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심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도향촌 이주자의 경험을 분석하는 제4장을 전개할 것이다.

본 장의 내용은 총 두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자주 검토되어 온 요인들을 선별하고 기본 통계값을 살펴보면서, 이 변수들이 촌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1절). 다음으로 각 변수들을 위계적 선형회귀분석모형(다층모형)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비도시적 이동 지역의 인구유입 기제를 분석한다(2절).

1절. 인구이동 기제와 지역 요인

이 절에서는 이도향촌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조건을 검증하는 통계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각 변수들이 어떻게 설정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인구이동 기제와 지역 조건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그 함의를 검토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온 지역 조건들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서는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가를 검토하면서 분석 모형을 구성할 것이다. 먼저 종속변수로 인구유입 지표(이도향촌 전입자 수)를 설정하고, 그 다음 독립변수를 선별, 검토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1.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도향촌 인구

이 장에서 분석하게 될 인구이동 모형의 종속변수는 도시로부터의 전

입인구 수이다. 이때 전입인구 수는 읍면 단위로 집계되며, 회귀분석의 가정에 따라 정규분포화 하기 위해 로그 변환한 값으로 모형에 투입된다. 제2장의 분석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행정구역(시·군)을 동 지역 묶음과 읍면 지역 묶음으로 재구성한 단위를 사용하였지만, 이 장에서는 분석의 단위가 달라진다. 즉 읍·면 개별 행정단위들을 각각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한다. 제2장의 분석 단위를 사용할 경우, 102개 촌 지역 사례[36]가 모형에 투입되는데, 사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 상의 제약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읍·면 지역을 각각의 사례로 분석에 투입할 경우 각 지역의 주거환경이 보다 상세한 수준에서 측정되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상의 강점을 가진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인구 변수는 분석 단위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입자 수이되, 이 중에서도 도시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자 수를 사용한다. 전입 인구 수를 종속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촌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순이동 인구 수는 전출 인구 규모에 의해 상쇄된다. 특히 전입 인구 수가 클수록 전출 인구 수 커지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 순유입 값이 아닌 전입 인구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만 전입 인구의 수가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유입 인구 수를 로그 변환한 값으로 정규분포에 가깝게 전환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또한 유입 인구 수를 측정하는 시점은 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실제에서 인구이동과 지역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해간다.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라 지역의 인구규모가 변하게 되며 지역 인구규모 자체가 지역의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자연 등의 전반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의 두 요인을 단순히 인과관계로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활용한다. 즉 종속변수가 되는 인구 변수는 2016년을 시점으로, 독립변수가 되는 지역 변수는 2015년을 시점으로 고정하여 분석한다[37].

---

36) 다시 강조하는 바, 본 장의 분석 범위는 제2장에서 '비도시적 이동 지역'으로 분류된 102개 지역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 대상 지역으로의 전체 유입인구 수와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 수, 그리고 도시로부터 유입된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이 장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제2장에서 도출된 “비도시적 이동 유형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1,053개로서, 전국 읍·면 지역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표 19> 분석 대상 지역(비도시적 이동 지역)으로의 유입인구 현황(2016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명)	317.9	398.2	0	4,399
전체 유입인구(명)	479.2	591.1	2	6,138
전체 유입인구 중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 비중(%)	67.4	10.1	0	93.3

위 <표 19>에 정리되어있듯이, 2016년 비도시적 이동 지역에 속한 읍면지역의 전체 유입인구는 평균 약 479명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 값이 약 591명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볼 수있듯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연간 유입인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2명(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인 것에 비해 가장 많은 지역은 약 6,100명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이 자료의 특징이다.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는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이도향촌 이주인구로서, 출발지의 주소가 동(洞) 지역인 전입자만을 집계한 것이다. 해당 값을 살펴보면 평균 약 318명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표준편차 값이 약 398로 나타난다.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 역시 0명(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과 4,399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전체 유입인구와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지역별 유입인구 규모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8].

37) 2015년을 분석 시점으로 잡은 이유는, 2015년이 2010년대 기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에서 2010년대를 어느 정도 대표하여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0년, ~5년 등 5년 단위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대표적으로 인구 센서스), 분석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2015년이 적합한 분석 시점이 된다.

38) 이때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가 0명으로 나타난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은 유입인구 값이 0이기 때문에 로그변환이 불가능하여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제외되었다.

한편 도시로부터의 유입인구가 전체 유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67%로 나타나, 촌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시로부터의 인구이동이 촌 지역 인구유입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로서 유입인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2장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관점은 이동 인구의 크기가 아닌, 이동이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해석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유입인구 수가 종속변수로 설정되기 때문에, 인구 크기가 다시 논의의 초점으로 맞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 인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수량적 크기와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 모형은 지역의 조건이 인구 유입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설계된 것이지, 어떤 지역 조건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지역 변수가 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될 경우, 그 변수를 이동을 발생시키는 인과적 맥락으로 파악하는 해석의 논리는 인구이동 이론에 근거를 둔다.

2. 인구유입의 조건: 경제적 요인, 정책 요인,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설로서, 다양한 지역 조건 변수를 설정하였다. 전통적으로 인구이동 이론은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생활환경 요인, 정책적 요인을 논의해 왔다. 토다로(Todaro)를 위시한 경제학적 균형 이론은 경제 요인을, 티부(Teibout)를 위시한 공공서비스 이론은 정책적 요인을, 어메니티 이주 이론은 여러 생활환경 요인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경제, 정책, 생활환경 영역의 여러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흡입-

배출 모형을 주로 채택하여왔다. 실제 이주를 경험적 자료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장의 분석 모형 역시 흡입-배출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에 투입되는 기본적인 독립변수를 구성한다. 흡입-배출 이론에 따르면 출발지역의 조건도 인구이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한 축이지만, 일반적으로 출발지역의 압출요인보다는 목적지역의 흡입요인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김동수 외 2009; 박기서, 정일훈 2012: 94). 즉 인구이동 기제를 설명함에 있어 유출지역보다는 유입지역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론으로서, 이 연구에서도 향촌 지역의 특징만을 모형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요인을 분석할 것인가는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다룬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아래 <표 20>과 같이 검토한 후 이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크게 경제적 요인, 정책 요인, 생활환경 요인(교육, 의료, 문화시설 및 도로 시설 등)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연구에 따라서는 타 지역과의 거리나 지역의 인구지표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표 20> 인구이동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예

논문 서지 사항	사용 변수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생활 환경 요인	기타
하상근 (2005)	취업기회, 1인당 월평균 소득, 주택보급율, 택지개발, 국가산업단지, 광역권 개발, 개발촉진지역	예산,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사업투자/경제개발비, 공무원 수	고교/대학 진학율,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도시공원면적, 의료인력수, 의료시설, 도로포장률	인구 규모, 주이동 연령 비율,
김현아 (2008)	기대소득, 전세가격, 공시지가	1인당 재산세	교육여건, 총도로면적	-
이희연 (2008)	종사자 수, 종사자 증감수, 종사자 증가율, 취업기회, 도소매업 비율,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지방정부 총	교육시설 수, 학급당 학생수, 평균 교육년수, 도시공원 면적, 인터넷전용회선 보급율,	-

	고차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생산액, 주택 증감수, 신규주택비율, 주택 보급률, 주택공가율, 1인당 주거면적, 지가변동률	자산	의료인력 수, 약국수, 병상수, 문화/체육시설 수, 복지/사회시설 수, 보육시설수,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포장률	
김홍배 , 이창우 (2008)	경제활동인구 비율, 1인당 GRDP,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종사자당 매출액, 주택보급률, 건설호수비율	지방예산비율, 지방세부담률, 공무원 수 비율	대졸이상 인구비율, 문화/체육시설면적비율, 초중고학급/대학교 수 비율, 병원수 비율, 사회복지시설 수 비율, 범죄발생건수 비율, 도시공원면적율, 도로포장율, 자동차주차면수비율, 상하수도보급율, 생활쓰레기 발생률	-
이희연 , 박정호 (2009)	종사자 증감수, 종사자 증가율, 종사자 수, 취업기회, 도소매업/고차서비스업/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생산액, 주택 증감수, 신규주택비율, 주택보급률, 주택공가율, 1인당 주거면적,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총자산, 주민 1인당 총자산, 인구 만명 당 생활보호대상자 수	초중고 사설학원 수,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 요육연수, 의료인력수, 약국/병상 수, 문화/체육시설 수, 복지/사회복지 시설 수, 보육시설 수, 도시공원 면적, 상하수도보급률, 인터넷전용회선 보급률, 도로포장률	-
박기서 , 정일훈 (2012)	1/2/3차산업 고용자수, 주택보급/증가률,전업농가율, 평균 공시지가	1인당 지방세	의사 수, 범죄발생건수, 도로연장	대도시와의 거리, 산림면적
이찬영 , 이흥후	대기업 임금, 취업률, 전세지수	-	문화서비스액	인구당 혼인건수,

(2016)				인구밀도
오은열, 문채(2016)	산업별 취업자 수, 규모별 종사자수, 생산가능인구,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	교육 시설 수, 사설학원 및 독서실,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시설	고령인구 수, 학령인구 수
이찬영 (2018)	기대임금, 양질의 일자리 비중, 전세가격	-	문화기반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 수, 도로포장률	-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도출되는 지역 요인 외에도, 이 장의 분석모형에 투입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서 인터뷰 분석과 귀농귀촌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지역 요인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논의가 배치된 순서로 인해 도출 과정은 다음 장인 제4장에 서술되었지만, 이 장에서는 도출된 주요 요인으로 '사회연결망과 제도공간', '빈집과 일자리의 구해짐',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변수를 조작화하고 분석 결과 해석에 반영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각 영역별 요인을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병행하여 논의한다.

1) 경제적 일자리 요인

전통적인 인구이동 이론인 토다로 모형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지역 간 이동을 한다고 설명한다(Todaro 1969). 여기서는 취업기회, 소위 '좋은 일자리' 등 도시로의 인구유입 요인으로 작동했던 전통적인 경제 변인이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서도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확인한다. 즉 도시적 삶, 도시적 이동을 경제 요인 중심의 양상이라고 본다면, 2016년 이도향촌 인구유입에 경제적 요인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 아니면 '경제 중심의 도시적 삶'을 떠난 문화적, 환경적인 요인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추론해볼 수 있다. 더

불어 그동안의 지역 인구 유치 패러다임 중 '경제발전',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관점인가를 평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도향촌 이주자들이 이주한 후 당장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귀농귀촌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나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모임, 포럼 등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주제이기도 하며, 제4장의 인터뷰 분석 속에서도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 분석 모형에도 해당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설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경제적 일자리 요인 변수로 인구 당 사업체 수, 종사자 수와 함께 '좋은 일자리 비중'을 구성하여 반영하였다. '좋은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의 의미를 넘어서, 고용 안정성과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경제학적 인구이동 모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이찬영, 문제철 2016). 만약 이도향촌 이주에서 비도시적 이동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좋은 일자리'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면서도 고용 기회를 의미하는 '인구 당 종사자 수' 변수는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업체 수는 지역에서의 고용 기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되고 있는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업체 수는 경제적 일자리로서의 직접적 의미와, 지역 인프라로서의 간접적 의미,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적 일자리 요인은 통계청 센서스 2%표본(2015년)과 전국사업체조사(2015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서 값을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3개의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각 값은 읍·면 지역 단위별로 산출되었다.

① 인구 당 사업체 수: 읍·면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의 수를 해당 읍·면 지역의 인구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지역 인구 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사업체가 있는가를 통해 그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

어 있는가, 경제적 경쟁의 밀도는 얼마나 높은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② 인구 당 종사자 수: 읍·면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해당 읍·면 지역의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지역 인구 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를 조작화함으로써, 지역에서 고용될 기회가 얼마만큼 풍부한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③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비중: 고용 기회(일자리)의 의미를 넘어서, 소위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그 대리 변수로서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대기업)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된 인구 규모를 전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고용 안정성과 기대임금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이를 간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기업의 상용직 비율을 조작화하였다[39].

<표 21> 경제적 요인 변수: 읍면 지역단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 백 명당 사업체 수 (개)	7.3	3.0	1.1	21.3
인구 백 명당 종사자 수 (명)	20.1	17.7	0.0	208.0
'좋은 일자리' 비중 (%)	1.5	6.1	0.0	76.3

2) 정책적 요인

정책 요인은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티부(Tiebout 1956)의 인구이동 모형을 기초로 한다. 인구이동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이 모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련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반공공행정 예산(비

39)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 규모'를 반영한 것이고, 상용직은 '고용 지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접근은 이상직, 김이선, 권현지(2018)의 논의를 참조로 하였다.

중)’과 ‘사회복지 예산(비중)’의 틀이 아닌, 향촌 이동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를 구성하여 정책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때 인구유입에 효과적인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은 지역개발과 인구늘리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지역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곳에서는 무작정 인구를 늘리려는 것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려나가야한다는 등의 다양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실제로 이도향촌 이주에 작동하고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책 요인의 차원을 ‘지역 개발’과 ‘지역 복지’로 나누어 두 차원 중 어느 차원이 인구유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경험 속에서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기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들이 발견되는 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반영하는 대리변수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관련 제도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착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2015년 당시 집계 자료가 형성되어있지 않다. 특히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지자체의 체계, 전담부서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책정되기도 하고, 농림수산 분야 예산으로 책정되기도 하는 등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사회복지 예산 집행 비중과 농림수산 분야 예산 집행 비중을 대리 변수로 설정한다. 다만 귀농귀촌 정책에 집행되는 예산의 금액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복지, 농림수산업, 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해당 지자체 정책 운영의 무게중심을 반영함으로써 위에서 살펴 본 두 가지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예산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 금액으로 변수를 조작화하기보다는, 각 항목이 전체 예산 집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여 이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 자료의 한계는 읍면 지역 단위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은 시군구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읍·면·동 단위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도농복합시 지역과 군 지역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도농복합시인 경우와 군 지역인 경우를 가변수로 만들어 통제변수로 투입함으로써 그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려했다.

다음으로 각 변수들은 2015년 『지방재정연감』 상의 예산 집행액(결산)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체 예산 총 집행액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각 항목들은 지방재정 예산 편성 체계에서 분류한 항목들로, 이 연구에서 따로 산출하여 분류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다만 각 항목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복지 예산집행 비중: 기초생활보장, 취약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총 8개 항목 예산 집행액이 전체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다.
② 개발 예산집행 비중: 수자원, 지역 및 도시 개발, 산업단지 총 3개 항목 예산의 집행액이 전체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다.
③ 농림수산분야 예산집행 비중: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총 3개 항목 예산의 집행액이 전체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했다.

<표 22> 정책적 요인 변수: 지자체(시군) 지역단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복지 예산집행 비중 (%)	19.6	4.2	7.6	31.5
농림수산분야 예산집행 비중 (%)	18.8	6.0	4.6	32.7
개발 예산집행 비중 (%)	8.5	4.0	2.2	27.4

3)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 요인은 기본적으로 흡입-배출 인구이동 모형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살기좋은 주거 환경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시군구 단위로 집계되어 있는 『e-지방지표』의 자료를 사용하

여 도로포장률, 상하수도보급률, 초등학교 수, 사회복지시설 수, 문화시설 수, 의료병상 수, 주택 수 등의 변수를 구성해왔다. 이 장의 분석은 이도향촌 이주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교육기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시설이 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조건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설 수 지표에 대해서는 e-지방지표가 아닌,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읍면동 단위의 정보를 변수 값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선행 분석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각 지표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모두 2015년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① 인구 당 주택 수: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건축 형태와 관련없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호수를 지역 인구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② 인구 당 교육시설 수: 지역 내 교육 관련 사업체 수를 지역 인구로 나눈 값으로, 여러가지 학원 사업체뿐 아니라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수도 포함되어 있다.
③ 인구 당 의료시설 수: 지역 내 의료 관련 사업체 수를 지역 인구로 나눈 값으로, 병원, 약국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④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이 변수는 국토교통부의 『지적통계』를 사용하여, 지역 내 도로를 이루는 토지 현황을 집계함으로써 지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도로 뿐 아니라 철도용지 면적을 함께 포함하여, 철도와 관련 시설물의 규모를 통해 지역의 교통시설 구축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23> 생활환경 변수: 읍면 지역단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 백명 당 주택 수 (개)	47.7	8.2	21.3	74.7
인구 천명 당 교육시설 수 (개)	1.4	0.7	0.0	5.7
인구 천명 당 의료시설 수 (개)	0.4	0.6	0.0	3.0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	3.1	1.6	0.5	9.0

4) 자연환경 요인

'연성 이주'의 관점에서 자연환경 요인은 도시민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변수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통계적 분석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40]. 이 장의 분석 모형은 지역의 토지가 용도별로 어떻게 구성·분포되어 있는가를 대리변수로 산출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자연환경 요인을 임야, 하천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자연경관과 사적지, 공원 등의 관광경관, 그리고 농업경관으로 구분함으로써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대해 전망하고 기대하는 자연환경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추론해보고자 하는 탐색적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작성하는 『지적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내 토지 이용 현황(지목)별 면적으로 자연 경관과 관광 경관, 그리고 농업 경관 변수를 구성하였다. 지적통계의 지목은 대지, 전답, 잡종지, 임야, 공장용지, 묘지 등 총 2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의 자연 경관을 이루는 요소들과 관광 경관을 이루는 요소들로 구분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 경관 면적 비중: 임야[41], 유지[42], 구거[43], 하천, 제방 지목의 토지 면적을 전체 지역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인위적으로 조

40) 지역의 자연경관을 변수로 측정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별 관광객 통계와 국립공원 면적 통계를 분석변수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동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요인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투입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관광객 통계의 경우, 관광자원으로서 소비되는 자연환경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일 수 있으나, 쇼핑몰과 같은 도시적 관광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료 상의 한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면적의 경우, 국립공원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자연환경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였다.

41)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 개척하지 아니하여 인가가 없는 벌판과 들)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42)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43) 구거: 용수 도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水路) 부지

성되지 않은 자연환경(임야, 하천)과 이에 인접한 토지(유지, 구거, 제방)를 자연 경관을 이루는 면적으로 조작화하였다.

② 관광 경관 면적 비중: 사적지, 유원지, 공원 지목의 토지 면적을 전체 지역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관광 경관은 자연 경관과 달리, 시각적·미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 즉 사적지, 유원지, 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작화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이도향촌 이주에 있어서 목적 지역이 자연적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좀더 문화적 성격이 복합된 경관적 공간으로서의 성격 중 어느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적지, 유원지 등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지목으로 종교용지와 체육용지가 있으나, 이 두 공간은 '관광객의 시선'을 내재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지역 거주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더 가깝다는 판단 아래 변수 집계에서는 제외하였다.

③ 농업 경관 면적 비중: 농업과 관련된 토지 사용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염전, 양어장 지목에 해당되는 면적을 집계하여 변수를 산출하였다. 농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비중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24> 자연환경 변수: 읍면 지역단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연경관 면적 비중 (%)	68.3	17.5	10.3	96.9
관광경관 면적 비중 (%)	0.1	0.2	0.0	4.3
농업경관 면적 비중 (%)	24.2	14.2	2.4	81.6

5) 기타 변인

지금까지 살펴 본 변수들은 자연경관 변수를 제외하면 기존 인구이동 기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검증해왔던 요인들이다. 이 장에서는 이도향촌 이주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지역의 '귀농귀촌인 수', '농가 수', '인구밀도'를 추가하여 이도향촌 이주 모

형에 적합해지도록 수정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이 투입되는 주요 근거는 제4장의 분석에서 이도향촌 이주자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작용하는 요인 중에 '사회연결망 요인'과 '빈 공간으로서의 지역 전망 요인'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연결망 요인'은 지역의 '지인'을 통해 이주 지역과 연결되는 과정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를 조작화하기 위해 여기서는 지역의 귀농귀촌인 수를 2015년 유입 귀농귀촌인 수로 변수화하여 분석 모형에 투입한다. 2015년 유입 귀농귀촌인 수가 이도향촌 이주 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연결망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포착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자료의 한계 속에서 가장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음으로 '빈 공간으로서의 지역 전망 요인'은 향촌 이주자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적고 경쟁이 적은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개념화한 것이다. 이를 조작화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지역의 농가 수와 인구밀도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농가 수' 외에도, 앞의 경제적 요인 변수 중 '인구 당 사업체 수' 역시 촌 지역의 경쟁 포화 상태를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이 지역의 '비어있음'을 좇아 이동하는 것이라면, 지역의 경제적 포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는 '인구 당 사업체 수'와 농업 경쟁의 밀도로 해석할 수 있는 '농가 수', 그리고 지역의 비어있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인구밀도' 변수가 모두 부(-)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리변수의 설정이 본 연구가 해석하고자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데 충분히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장의 분석 모형은 다만 간접적이나마 각 요인이 거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 장(제4장)에서 이도향촌 이주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이 도농복합시에 속한 지역인지 아니면 군에 속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지자체 정책이나 거주 환경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고, 읍 지역인지 아니면 면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 해당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① 귀농귀촌인 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5년 귀농귀촌인 수이다. 귀농 가구원, 귀촌 가구원을 모두 합산한 수치로서 각 시군 단위로 집계되어 있다.
② 농가 수(호):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5년 각 시군 지역 농가 호 수이다. 자료가 읍·면·동 단위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반영하였다.
③ 인구밀도: 도로면적 비중과 마찬가지로 『지적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면적 $1m^2$ 당 인구 수로 값을 산출하였다. 아래 <표 25>에는 수치가 지나치게 작게 집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천명 단위로 환산하여 값을 제시하였다.
④ 도농복합시 여부: 읍·면 지역이 도농복합시에 속한 경우를 1, 군에 속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도농복합시 여부가 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5>는 1,053개 지역 사례 중에서 도농복합시에 속하는 지역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⑤ 읍 지역 여부: 지역 사례가 읍 지역인지 면 지역인지를 구분함으로서 모형 설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잠재적 지역 특성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읍 지역인 경우 1, 면 지역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표 25>는 1,053개 지역 사례 중 읍 지역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 25> 기타 변수: 지자체(시군) 지역단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귀농귀촌인 수(명)	1,841	740	458	4,596
농가 수(호)	7,355	2,974	473	15,125
인구밀도(천명/m^2)	0.09	0.12	0.00	1.37
도농복합시 비중(%)	32.5	46.9	0.0	100
읍 지역 비중(%)	12.5	33.1	0.0	100

2절. 비도시적 이동을 추동하는 다양한 지역 요인

이 절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각 지역 변수들이 이도향촌 인구 유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한다. 각 요인들과 이도향촌 유입 간의 관계를 위계적 선형모형(다층모형)으로 검증함으로써 지역 조건과 이도향촌 이주 간의 관계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은 하나의 데이터에 서로 다른 층위를 가지는 정보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각 층위에서의 효과(개체 내 분산과 개체 간 분산)를 통제하여 모형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강상진 2016; 백영민 2018). 이 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는 읍면 단위 수준과 시군 단위 수준의 지역 정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역의 다양한 지표들은 정보를 집계하는 주체와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가진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 체계 속에서 일괄적으로 정렬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단일 차원의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할 경우 모형에 투입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시군구 단위의 변수를 사용할 경우 읍면동 단위 변수나 시도 단위 변수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계적 선형 모형은 변수의 층위를 구분하여 모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간의 성격을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읍면 단위 지역 정보는 앞의 절에서 살펴 본 독립변수들 중, 정책 변수와 '귀농귀촌인 수', '농가 수',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구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이다. 즉 경제적 요인(인구 당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좋은 일자리' 비중), 생활환경 요인(인구 당 주택 수, 교육시설 수, 의료기관 수, 도로면적 비중, 인구밀도)[44], 자연환경 요인(자연 경관 비중, 관광

44) '인구밀도' 변수는 제1절에서 '기타 요인'으로 분류되어 논의되었지만, 읍면동 단위로 집계된 변수이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제1수준 변수들과 함께 묶어서 논의하는 것이 간결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 '인구밀도' 변수는 생활환경 영역의 변수들과 함께 배치될 것이다.

경관 비중)은 읍면 단위 수준(제1수준)으로, 정책 요인(사회복지 예산집행 비중, 농림수산 예산집행 비중, 개발 예산집행 비중)과 '귀농귀촌인 수', '농가 수',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구분' 변수는 시군 단위 수준(제2수준)으로 설정된다. 구체적인 분석 모형의 설정은 이어서 설명한다.

1. 지역 요인의 다층적 구성

다층 구조를 가지는 지역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첫째, 제1수준 변수들은 각 읍·면 지역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j지역)의 신북읍(i번째 하위 행정구역)이 제1수준 모형의 분석 단위가 된다.

제1수준 모형(읍면 수준):

$$Y_{ij} = \beta_{0j} + \beta_1 * X_{1ij} + \beta_2 * X_{2ij} + \ldots + \beta_n * X_{nij} + e_{ij} \quad , \; e_{ij} \quad N(0, \sigma^2)$$

위 모형에서 Y_{ij}는 j지역의 i번째 하위 행정구역으로의 유입 인구 중 도시 지역(동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인구 수의 로그값을 의미한다. β_{0j}는 모형의 절편항으로 각 j지역 간 변량을 나타낸다. 각각의 변인 X_{nij} 는 제1수준의 설명 변인들로 총 11개이기 때문에 X_{11ij}까지 설정된다. 각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식은 아래와 같다. 마지막으로 e_{ij}는 잔차항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된다.

제1수준 모형의 변수 구성:

$$_j \quad \beta_{0j} + \beta_{1j} * (X_{\text{구당사업체수}ij}) + \beta_{2j} * (X_{\text{인구당종사자수}ij}) + \beta_{3j} * (X_{\text{좋은일자리비중}ij}) + \beta_{4j} * (X_{\text{인구당주택호수}ij}) + \beta_{5j} * (X_{\text{인구당교육기관및업체수}ij}) + \beta_{6j} * (X_{\text{인구당의료관련업체수}ij}) + \beta_{7j} * (X_{\text{지역내도로면적비중}ij}) + \beta_{8j} * (X_{\text{자연경관면적비중}ij}) + \beta_{9j} * (X_{\text{관광경관면적비중}ij}) + \beta_{10j} * (X_{\text{농업경관면적비중}ij}) + \beta_{11j} * (X_{\text{인구밀도}ij}) + e_{ij}$$

$$e_{ij} \quad N(0, \sigma^2)$$

이 때 각 $_j$ 값은 집단평균 중심화 값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각 X_{ij}의 변량에는 집단 내 변량(제1수준)과 집단 간 변량(제2수준) 효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화 방법을 통해 그 효과를 분리해주어야 한다. 중심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집단평균 중심화(group mean centering)와 전체평균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 방법이 있다. 전체평균 중심화 방법은 제2수준에서의 변인 간 차이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고, 집단평균 중심화는 제1수준 변인의 효과를 확인할 때나 집단(제2수준)에 따른 제1수준 변인의 효과 변화를 보고자 할 때 좀더 적합하다(강상진 2016; Ulmer and Johnson 2004; 김이선, 손명아 2018: 212). 여기서는 각 읍면동 지역 조건의 인구유입 효과를 시군구 지역 효과의 통제 하에 확인하고자 하므로, 집단평균 중심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제2수준 모형에서는 하나의 지자체로 묶여있는 시군구 단위 지표들이 추가된다. 이때 각 요인이 제1수준 모형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따라 무선효과 절편 모형(random effect intercept model)과 무선효과 기울기 모형(random effect slope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모형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표 29>에 제시된 각 모형 적합도 비교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이다.

제2수준 모형(지자체 수준) 예시(무선효과 절편 모형):

$$_{0j} = \gamma_{00} + \gamma_{01} * W_{\text{회복지정책}j} + \gamma_{02} * W_{\text{농림수산정책}j} + \gamma_{03} * W_{\text{개발정책}j} + \ldots$$
$$+ \gamma_{07} * W_{\text{읍지역여부}j} + u_{0j}$$

$$\beta_{1j} = \gamma_{10} + u_{1j}$$

...

$$\beta_{11j} = \gamma_{11\,0} + u_{11\,j}$$

$$u_{0j} \quad (0, \tau)$$

위 제2수준 모형 중에서 β_{0j}는 제1수준 모형의 절편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1수준 모형의 절편항을 제2수준에서 다시 모형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시군구 지역에 따라 종속변수(유입인구)가 다른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지역별로 $_j$값이 다르게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연구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구성 비중과 귀농귀촌인 수, 농가 호, 도농복합시 여부, 읍 지역 여부를 가설적으로 구성하였다. 즉 j지역의 사회복지 예산 집행 비중($_{1j}$), 농림수산 예산 집행 비중(W_{2j}), 개발 예산 집행 비중(W_{3j}), 귀농귀촌인 수(W_{4j}), 농가 호(W_{5j}), 도농복합시 여부(W_{6j}), 읍 지역 여부(W_{7j})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때 절편 계수(γ_{00})는 전체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u_{0j}는 시군구 지역 수준 잔차로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τ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된다. 다만 위 모형은 무선효과 절편 모형의 형태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최종 모형에서 제2수준 모형의 구성은 달라질 것이다.

이상의 모형 설정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6>과 같으며, 이 절의 내용 역시 분석 단계에 따라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

<표 26> 분석 모형의 단계별 투입 변인

모형	투입 변인
기초 모형	없음
1단계 모형	제1수준(읍면 단위) 변수 투입
2단계 모형	제2수준(지자체 단위) 변수 투입

위 <표 26>은 '기초 모형'으로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층모형 분석은 기초모형의 검증으로부터 시작한다. '무조건 모형'으로도 불리는 기초모형은 모형에 어떠한 설명변수도 포함시키지않고, 종속변수의 총 분산을 오직 제1수준(개별 수준)의 분산과 제2수준(집단 수준)의 분산으로만 나누어 분석해보는 단계로, 각 수준에 따라 설명되는 분산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다층모형 분석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강상진 2016).

기초모형은 아래 두 개의 식으로 구성되며, 지역으로 유입되는 이도향촌 인구 변수의 전체 분산 중에서 읍면 단위 수준의 분산(σ^2)과 지자체

단위 수준의 분산( )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추정해준다. 즉 설명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제2수준의 변량만을 투입하여 제2수준에 따라 제1수준의 종속변인 변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유입 인구변인의 분산 중 얼마만큼이 지자체 단위 수준의 분산으로 설명되는가를 확인한다.

제1수준: $_j = \beta_{0j} + e_{ij}$, e_{ij} $N(0,\sigma^2)$

제2수준: $\beta_{0j} = \gamma_{0j} + u_{0j}$, u_{0j} $(0,\tau)$

각 식에 따라 기초모형을 검정한 결과는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기초모형의 고정효과와 무선효과 검정 결과

모형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절편	5.42	0.04
무선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절편: 제2수준 분산	0.13	0.36
잔차: 제1수준 분산	0.56	0.75

*: p < 0.05, **: p < 0.01, ***: p < 0.001

위 표를 사용하여 제2수준 단위에 따른 변량 차이가 종속변인의 총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값으로 이 분석에 2수준 다층모형이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 ICC값을 산출하는 식은 아래와 같으며, 결과값은 약 0.19, 즉 약 19%로 도출되므로 읍면 단위와 지자체 단위 두 수준에서의 분산을 각각 고려하여 다층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CC = \frac{Level_1\text{분산(지자체 단위)}}{Level_1\ \text{산(지자체 단위)} + Level_2\text{분산(읍면 단위)}}$$

2. 경제 요인 중심의 이동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이동으로

이제 분석모형을 단계적으로 검증해나가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1) 1단계 모형: 읍면 단위 지역 지표

여기서는 실제 분석모형의 첫번째 구성 단계로 제1수준의 변인들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을 설명하고, 검증결과를 해석한다. 1단계 모형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위 단계별로 읍면 단위 지역지표들을 투입하면서, 모형에서 지자체 단위의 분산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비교검정하여 검토하고, 2단계 모형의 바탕이 될 최종 모형을 결정한다.

(1) 분석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층모형에서 제2수준의 분산효과, 즉 무선효과는 절편 효과와 기울기 효과의 두 종류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서는 절편 효과만을 가정한 모델(모형1: random intercept model)과 기울기 효과를 각 지역요인별로 나누어 설정한 모델(모형2-7: random intercept & random slope model)을 설계하고 각 모형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요인 중 어느 요인에서 제2수준의 분산이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모형적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총 7개의 모형은 공통적으로 읍면 단위 지역 지표(제1수준 변수)를 고정효과 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며(고정효과 변수: 경제적 요인 3개 변수[45], 생활환경 요인 5개 변수[46], 자연환경 3개 변수[47]) 무선효과 변수는 모형

45) 인구 당 사업체 수, 인구 당 종사자 수, '좋은일자리' 비중
46) 인구 당 주택 수, 인구 천 명당 교육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인구밀도
47) 자연경관 비중, 관광경관 비중, 농업경관 비중

번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할당된다.

<표 28> 무선효과 설정을 위한 검정 모형 1-7

	무선효과 변수 할당
모형 1	없음
모형 2	경제적 요인
모형 3	생활환경 요인
모형 4	자연환경 요인
모형 5	경제적 요인, 생활환경 요인
모형 6	경제적 요인, 자연환경 요인
모형 7	생활환경 요인, 자연환경 요인

각 모형의 분석 결과는 고정효과 변수의 계수와 표준편차 및 유의도, 무선효과 변수의 분산값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갈무리하였다. 여기서는 분석 결과를 서술하여 제시한다. 다만 지자체 수준 변수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가설적 단계의 결과이므로 각 효과 계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개략적인 방향만을 검토한 후 모형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넘어가겠다.

일단 전체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인구 당 종사자 수, 인구 천 명당 의료시설 수, 인구밀도 변수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인다. 반면 인구 당 사업체 수, 인구 당 주택 수, 인구 천 명당 교육시설 수 변수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인다. 그 외 경관 관련 변수와 좋은 일자리 비중,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변수 등은 유의한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각 모형에서 각 변수의 효과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C값과 BIC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모형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여 2단계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모형적합도 판단

최대우도추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수를 추

정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로그우도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우도비검정(LR: Likelihood Ratio Test)방법은 비교하고자 하는 모형이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구조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층모형의 적합도 판단, 즉 위에서 분석한 모형 1-7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최대우도추정법(REML: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으로 모수를 추정한 후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값이나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값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판단한다(백영민 2018: 47-49).

각 모형의 AIC와 BIC 값 역시 부록의 결과표에 제시되어있다. 값을 비교해보면, AIC값과 BIC값 모두에서 가장 낮은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기준 모두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모형 3의 적합도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였다. AIC값과 BIC값 모두에서 적절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형 3은 제1수준 투입 변수들 중 생활환경 요인 변수들에 무선효과 기울기(random effect slope)를 설정한 모형이다.

2) 2단계(최종) 모형: 지자체 단위 지역지표 추가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결정한 '모형 3'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지자체 단위의 지역 지표를 추가한 모형(2단계 모형)을 검증하고, 두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장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해석한다.

(1) 분석 결과

아래의 분석 결과 <표 29>는 각 단계의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1단계 최종모형과 2단계 최종모형을 나란히 제시하였다. 1단계 최종모형은 앞서 살펴보았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넣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2단계 모형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29> 다층모형 최종 분석 결과표

	1단계 최종모형		2단계 최종모형	
종속변수: log(이도향촌 인구)	ϐ	S.E.	ϐ	S.E.
A. 고정효과				
제1수준: 읍면 단위				
1) 경제적 요인				
인구 당 사업체 수	*-1.88	0.87	┼-1.32	0.82
인구 당 종사자 수	***0.75	0.17	***0.68	0.16
'좋은 일자리' 비중	*0.56	0.27	0.27	0.26
2) 생활환경 요인				
인구 당 주택 수	***-2.13	0.39	***-1.60	0.39
인구 당 교육시설 수	***-0.23	0.04	***-0.19	0.04
인구 당 의료시설 수	***0.22	0.04	***0.14	0.03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4.02	2.21	┼-3.44	1.89
인구 밀도	***2.95	0.20	***3.23	0.33
3) 자연환경 요인				
자연 경관 면적 비중	0.12	0.60	0.11	0.58
관광 경관 면적 비중	*15.30	7.09	┼11.04	6.74
농업 경관 면적 비중	0.25	0.65	0.13	0.63
- 절편	5.44	0.05	5.24	0.04
제2수준: 지자체 단위				
4) 정책 요인				
사회복지 예산 집행 비중			*-2.48	1.01
농림수산 예산 집행 비중			*-1.50	0.65
개발 예산 집행 비중			*-1.60	0.70
5) 기타 요인				
귀농귀촌인 수			***0.00	0.00
농가 수			***-0.00	0.00
도농복합시 여부			***0.32	0.05
읍 지역 여부			***0.34	0.09
B. 무선효과				
제1수준 분산 (잔차)		0.15		0.13
제2수준 분산 (절편)		0.20		0.07
인구 당 주택 수		6.51		7.09
인구 당 교육시설 수		0.07		0.06
인구 당 의료시설 수		0.05		0.02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98.27		19.86
인구밀도		12.69		2.80
AIC		**1541**		**1380**
BIC		**1709**		**1583**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1

(2) 모형적합도 판단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여 최종모형을 확정하고, 최종모형에 대해서만 결과값을 해석하고자 한다. 앞서 1단계에서 모형적합도를 AIC값과 BIC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므로, 1-2단계 모형 간 적합도 비교에도 두 값을 사용하여 모형적합도를 판단한다.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 비해 2단계 모형이 AIC값과 BIC값 모두 더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2단계 모형이 모형적합도에서 가장 나은 모델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무선효과 부분에서 제2수준 절편에 해당하는 분산값이 0.20에서 0.07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2단계 모형에 투입된 제2수준 변수들이 제2수준 차원의 분산을 그만큼 설명해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 모형은 주어진 자료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최종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최종 모형으로서 2단계 모형의 결과를 각 수치별로 자세히 해석한다.

(3) 최종모형의 해석

여기서는 최종모형의 분석결과를 각 영역요인별로 살펴보고, 이어지는 소결에서 최종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①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 3개 변수 중에서 유의확률 0.0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변수는 인구 당 종사자 수뿐이며, 그 효과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유의확률 기준을 0.1% 수준으로 완화하면 인구 당 사업체 수 변수를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좋은 일자리' 비중은 계수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에서 경제적 요인이 가지는 의미의

복합성을 잘 보여준다. 귀농귀촌 담론, 특히 문화적 이주(Life style migration)에 있어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대안적, 생태적인 가치, 삶의 질 등이 중시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주행위자들에게는 가치 지향의 문제 못지 않게 경제적 활동과 소득의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담론 수준에서는 이러한 필수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다. 만약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라면, 고용 기회를 의미하는 '인구 당 종사자 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표 2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구 당 종사자 수'는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서 일자리 요인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다음 제4장의 이도향촌 이주 경험자들의 인터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만을 본다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로의 이동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표 29>의 분석 결과는 이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같은 경제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변수의 의미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과 유의미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좋은 일자리 비중'은 유의한 변수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구 당 사업체 수'는 오히려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좋은 일자리' 변수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정(+)의 효과를 꾸준히 유의한 것으로 검증해왔다. 도시를 향한 이동에서 좋은 일자리 요인은 이동을 추동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그러나 비도시적 이동을 대상으로 한 이 장의 분석에서는 '좋은 일자리'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이 결과 차이를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일자리를 도시로 찾아 떠나는 이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 당 사업체 수'는 제4장에서 논의할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미리

참고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촌 지역이 '경쟁이 없는 빈 공간'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주를 실행한 경우가 많았다. 도시의 '경쟁 포화 상태'를 벗어나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당 사업체 수' 변수가 부(-)의 효과를 가지는 맥락을 추론해볼 수 있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서 지역의 비(非)포화 상태가 고려된다면, 그 지역의 사업체 수가 적은 것이 '종사자 수'와는 다르게 지역의 경쟁 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도향촌 이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촌 지역의 경제적 요인은 이도향촌 이주에서 맥락에 따라 복합적 의미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는 경제적 요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결정은 아니지만('좋은 일자리' 변수가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음),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목적지로 정해지는 효과('인구 당 종사자 수' 변수가 정(+)의 효과로 유의하게 검증됨)를 가지며, 경쟁이 적기 때문에 사업체의 시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 고려되기도 한다는 점('인구 당 사업체 수'가 부(-)의 효과로 유의하게 검증됨)을 읽어낼 수 있다.

② 생활환경 요인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변수에 따라서 영향력의 방향만 다르게 나타났다.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인구 당 의료시설 수'와 '인구밀도' 두 개의 변수다. 의료시설 변수가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귀농귀촌 실태에 대한 조사자료나 선행연구를 참고했을 때 무난히 예상되는 바이다. 2016년『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의 경우 41.8%가, 귀촌인의 경우 38.4%가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을 꼽았다(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6: 19, 37).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사례들 속에서도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던 요인 중 하나가 의료시설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향촌

이주자들의 의료시설에 대한 걱정 혹은 관심은 '인구 당 의료시설 수'가 이도향촌 인구유입에 대해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와 일치한다.

인구밀도 변수는 유입인구 크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효과 변수 중 하나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촌 지역의 '비어있음'의 효과가 이도향촌 이주를 추동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과는 배치된다. 이어지는 제4장과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도향촌 이주 경험자들의 서사 속에서 촌 지역은 '빈 공간'으로서 전망된다. 이 빈 공간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으로, 인구밀도와 생활의 밀도, 그리고 경쟁의 밀도의 느낌으로 인지되고 해석되고 있었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지역의 '비어있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추동된다면 이 장의 분석에서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유입인구가 많아지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일관된다. 그러나 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밀도는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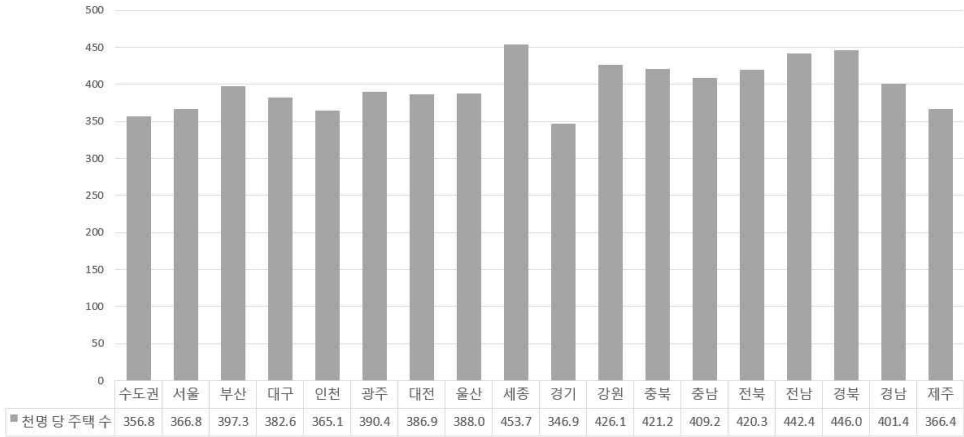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이주 행위자가 이주 전에 인식하고 전망하는 지역 공간이 실제 경험적 공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주행위자들의 서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 공간으로서의 농촌'은 추상적 공간의 층위에서 전망되는 내용이고, 실제 이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마을, 즉 인구밀도가 보다 높은 지역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상상은 농촌 지역 일반을 도시공간과 비교했을 때 전망되는 층위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실제 이주의 층위에서는 인구가 어느정도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됨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유입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요인은 '인구 당 주택 수', '인구 당 교육시설 수',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세 개의 변수이다. 인구 당 주택 수는 지역 주거 환경이나 수요 등과 관련지어 해석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제4장에서 논의될 '빈 집 구하기' 경험과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제4장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거주지를 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로 나타난다. 마을에 '빈 집'은 많은데, 내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

되는 집은 없다는 것이다.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다른 조건을 고려하기 이전에 '집이 구해진 마을'을 자동적으로 이주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지역에 '집'은 많아도 막상 이주자가 구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은데, 집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비어있거나 집 소유자가 타지에서 온 이주자와 거래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도향촌 이주자는 '집이 구해지는 지역'으로 이주 지역을 선택하게 되거나, 원하는 지역 혹은 그 인근 지역에 임시적으로 머물면서 차라리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물색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주택의 수가 많은 것이 인구 유입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상황이 거시적 수준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또다른 근거로는 국토교통부의 2015년 주택보급률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도권·대도시 지역의 주택 수와 그 외 지역의 주택 수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림 9] 인구 천명 당 주택 수(국토교통부 2015년 주택보급률 자료 재구성)



[그림 9]는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2015년 해당 지역 인구 천 명당 주

택 수를 나타낸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그리고 광역시의 '인구 당 주택 수'가 광역 도 지역보다 적게 나타난다. 이는 수도권 지역 거주 인구는 한 가구에 여러 가구원이 살고 있는 데 비해 비수도권 광역 도 지역에는 고령화된 1인 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주거 공간에 비해 인구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부 지역, 대표적으로 세종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구 당 주택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장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읽어내야 하는 점은 지역의 주택 수와 유입 인구 간의 반비례 관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수의 부(-)의 효과를 도시적 풍경의 지표로 해석해볼 수 있다. 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읍내 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진 곳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입지해있는 경우 주택 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도향촌 이주자들에게는 아파트 단지가 도시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택 수가 부(-)의 효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인구 당 주택 수' 변수의 부(-)의 효과가 여러 자료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데 비해, '인구 당 교육시설 수'와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변수의 부(-)의 효과를 해석하는 데는 보다 많은 추론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 있어 교육시설이나 도로 비중과 같은 도시적 환경 요인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로 작동할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제4장의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 농촌의 '비어있음'을 결핍이나 부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경쟁이 없음', '자율성과 창의성의 공간', '1인당 더 많은 교육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음' 등의 해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양적 수준이 도시 지역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도로면적의 비중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이동에서 도로면적 비중은 도시 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나거나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는데, 이 장의 비도시적 이동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생활환경 요인이 도시 중심의 이동에서 작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자연환경 요인

자연환경 요인은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포착하기 위한 '자연경관'과 인위적으로 조성된 자연으로서의 '관광경관', 그리고 농·어업 환경을 반영하는 '농업경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어느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는가, 그 효과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를 통해 이도향촌 이주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논의되는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의 현상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분석 결과 자연경관 비중과 농업경관 비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경관 비중만이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이도향촌 담론에서 유통되는 지역공간에 대한 전망, 특히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어떤 특성이 강조되고 있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귀농귀촌 담론에서 강조되는 자연 환경은 '자연 그 자체'로서 추상적 개념에 가까운 경관으로 유통되고 소비되지만, 실제 촌 지역 공간은 들, 임야, 하천, 논, 밭, 목장 등의 다양한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어떤 경관에 반응하여 이도향촌 이주가 유입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위 <표 29>의 분석결과는 지역의 다양한 비도시적 공간 중에서, 이도향촌 이주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공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선 이도향촌 담론 속에 등장하는 '자연환경'이 실제 촌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가령 '들, 임야, 하천' 같은 공간인가 아니면 '논, 밭, 목장' 같은 공간인가, 아니면 '공원, 유원지' 같은 공간인가)과 단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광경관이 이도향촌 이주에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광경관의 영향력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하나는 관광을 매개로 유동하는 인구의 흐름이 이주 인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지역에 관광산업이 발달할 경우, 이것이 이도향촌 이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광경관 자체가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4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에서 오늘날 사회의 이동과 경관 간에는 중요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 어리(Urry)가『사회를 넘어선 사회학』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한 “풍경”의 개념이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전후 미국 정부는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자연환경을 “매력적인 그림”으로 보이도록 조성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변화가 자동차 여행(혹은 자동차 모빌리티) 증가에 일조했다는 것이다(Urry 2012: 111). 이같은 논의를 참고하여본다면 <표 29>에 나타난 관광경관의 유의미한 효과는 2010년대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경관의 관광상품화, 지역 여행의 개발과 홍보 등이 이도향촌 이주와 넓은 맥락에서 연관될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④ 지자체 수준의 정책 요인

모든 정책요인 변수는 유입인구 규모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개발 예산집행 비중 변수는 이도향촌 유입에 지역개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도향촌 유입의 새로운 대안적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세우는 등 지역공간을 산업화하고 도시화하는 개발은 2010년대 비도시적 이도향촌 인구유입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또다른 가설은 귀농귀촌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을 사회복지 예산과 농림수산 예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도향촌 유입인구 규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었으나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사회복지 예산과 농림수산 예산 집행의 비중은 개발 예산 집행과 마찬가지

로 인구 유입에 유의하게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림수산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에서 귀농귀촌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후속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오히려 사회복지 예산의 크기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 복지 대상 인구 크기와 관련될 수 있으며, 촌 지역에서 복지 대상 인구는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유입에는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또한 농림어업 예산 관련하여, 이도향촌 이주가 더이상 '귀농'만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농림어업'이 중심이 되는 농림수산예산 집행 비중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는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⑤ 지자체 수준의 기타 요인

기타 요인으로 투입된 변수 중 귀농귀촌인 수는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이도향촌 인구유입이 더 많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귀농귀촌인 변수의 영향계수 크기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도향촌 이주에서 이동의 기제와 지역 선택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귀농귀촌 현상에서만큼 귀농귀촌 인구 변수의 뚜렷하고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가 수 변수 역시 유의하게 검증되었지만, 그 값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실질적인 유의미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통제 변수였던 도농복합시 여부 변수와 읍 지역 여부 변수이다. 군 지역에 비해 도농복합시인 경우, 면 지역에 비해 읍 지역인 경우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는 지역 단위의 크기와 관련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구의 크기가 큰 지역이 인구의 유출과 유입 모두 크기가 클 가능성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한 지역 유형 중에서 '비도시적 이동 지역'으로 분석 대상을 좁혀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공간의 요인이 무엇인지, 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도향촌 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독립변수로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생활환경 요인, 자연환경 요인이 설정되었고, 각 요인이 읍면 단위 수준과 지자체 단위 수준 각각에서 이도향촌 이주의 분산이 다르게 형성되어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적합한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중요하게 도출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서 '좋은 일자리' 비중은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으며 일자리를 의미하는 '인구 당 종사자 수'가 유입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도시로의 이동과 달리, 이도향촌 이주에서는 높은 임금이나 고용안정성을 담보한 일자리가 유의하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생활환경 요인에서는 투입된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작동의 방향은 달랐다. 의료시설 수와 인구밀도는 정(+)의 효과로 작동했지만 주택 수와 교육시설 수, 도로면적 비중은 부(-)의 효과를 보였다. 본 장은 이러한 결과에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하나는 도시로의 인구이동 기제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기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해석이다. 교육시설, 도로면적은 모두 도시로의 인구유입에서는 정(+)의 효과가 예상되는 변수이다. 그러나 이 장의 분석 결과에서는 부(-)의 효과로 나타난 바, 도시로의 인구이동 기제와 비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기제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하나는 지역 요인들이 이주 행위자들의 전망 속에서 추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실제 집합적 이주 양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음 제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주 행위자들의 서사 속에서 촌 지역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비해, 본 장의 지역 분석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인

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비어있는 공간'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추동되기는 하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그만큼 주거-생활 공간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인구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셋째, 자연환경 요인을 구성하는 자연경관, 관광경관, 농업경관 중에서는 관광경관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이도향촌 이주에서 논의되는 '자연환경'의 의미가 실제 지역의 자연환경의 복합성과는 다른, 추상적 담론 수준에서의 '자연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나 농업과 관련된 환경보다는 '경관'으로 조성된 환경이 이도향촌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관이 이동(모빌리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정책 요인은 예상과 다르게 복지, 농림수산 예산집행 모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발 예산집행 변수는 가설에 부합하는 방향인 부(-)의 효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도향촌 인구유입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도시적 인구이동과 차이를 보이는 또다른 지점이라고 하겠다. 다만 복지 및 농림수산 예산집행의 부(-)의 효과는 이 변수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후속 연구로 원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제2장의 결론, 즉 2010년대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으로서의 이도향촌 이주가 일어나는 맥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먼저 이 이동은 도시로의 이동과는 구분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나 주택, 교육시설, 도로, 개발 요인 등이 도시 인구유입과는 다른 방향으로 검증되었다. 관광 경관처럼 새로운 변수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제2장에서 유입인구의 구성이나 지역의 공간적 범위로 보았을 때처럼, 이동의 기제로 보았을 때도 이 이동은 기존의 도시 중심의 이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이 새로운 성격의 이동으로서 2010년대 인구이동

에 다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다음으로 이 이동을 추동하는 데는 2010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유동성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는 일자리 환경의 변화가 감지된다. 경제적 상황의 유동성은 도시를 쉽게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귀농귀촌의 증가 추세와 유행 담론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동을 쉽게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자리' 요인이 중요하고 새로운 경제적 활동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의 유동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귀농귀촌인 수가 (비록 영향계수의 크기는 미미하지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계량적 분석 결과로 '추론되는 가능성'이 실제 이도향촌 이주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장의 모형은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설명하면서 발달한 전통적 인구이동기제 모형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적·이론적 지평을 확장하여 질적 분석을 진행하면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발생 과정을 심도있게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촌 지역으로 흘러드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조건을 검증하였기에, 인구유입과 관련된 지역정책에 함의하는 바를 추가로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인접 지역과의 위치와 유입 인구의 성격에 따라,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지역의 모습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정책을 유사하게 반복하는 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국토균형개발'적 시각에서 지역을 산업화하는 개발 전략은 2010년대 증가하고 있는 이도향촌 흐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이 지역공간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도향촌 이주가 추구하는 바가 농촌의 가치인가, 아니면 생태적 가치인가, 아니면 쾌적한 자연환경인가, 농업의 가능성인가에 따라 이에 조응하는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제4장.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전개 과정의 특징

지금까지 이 연구의 전개 과정은 전국 범위의 인구유입 흐름을 분석하여 2010년대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고(제2장), 비도시적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이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제3장)이다. 이제 본 장(제4장)은 이도향촌 이주를 행위자의 경험 속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제3장의 수량적 지표와 전통적 인구이동 모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특징과 원인을 질적 자료와 이론적 확장을 통해 발견하기 위함이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도향촌 이주 경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이미 많은 연구 속에서 풍부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이주 행위자들의 경험을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의 논의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2010년대의 이도향촌 이주의 성격을 이론적 확장을 통해서 발견하고 드러내보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이도향촌 이주를 귀농귀촌 개념을 중심으로 포착하고 있으며,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주자의 동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각도에서 조명되는 이도향촌 이주는 몇 가지의 특정한 이미지로 단면화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정리해보면, 이도향촌 이주는 중산층의 은퇴 후 전원생활 혹은 '인생 이모작'[48]으로 그려지거나, '제6차 산업의 새로운 일꾼'이 된 청년 창업농 인생드라마, 혹은 생태적 가치나 대안적 삶, 자연과 '힐링'을 추구하는 '리틀 포레스트'[49], '로컬'에서의 다양성을 찾아 나서는 문화적 기획

48) 동일한 토지에서 한 해동안 농작물을 두 번 심어 거두는 농법에 빗대어, 직장 은퇴 후에 농업으로 다시 새로운 직업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시사용어이다.
49) 임순례 감독의 2018년 개봉 영화 제목으로, 도시로 나갔던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와

등으로 범주화된다.

이러한 담론들은 도시 거주자들에게 지역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데 많은 영감을 준다는 점, 그리고 현상의 두드러진 특성을 간명하게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귀'농'이냐, '농'이 아닌 '촌'이냐, '청년'층이냐 '은퇴'연령층이냐, '생계'추구형이냐 '가치'추구형이냐 등과 같이 현상을 범주화하는 접근에서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 -즉 구조적 특성-이 비가시화될 수 있다. 또한 각각 범주화된 이동의 모습이 2010년대 들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이도향촌 이주 흐름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像)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령 중산층 이상 계층 혹은 은퇴 계층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Abrams et al 2012: 270), 이들의 이주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한편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엔 젊은 연령층의 귀농귀촌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구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성 이주(Amenity Migration)'나 생태·문화적 이주 현상이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이주자의 경제적 배경이나 소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생태·문화적 가치나 자연경관의 미적 소비를 위해 생활 터전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만큼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2010년대에 이도향촌 이주 현상이 뚜렷한 인구이동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보다 새로운 층위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그 사회구조적인 층위를 행위자들의 경험 속에서 길어올려 재구성하는 이론적 틀로서 모빌리티 이론을 차용하는 것이 이 장의 분석 방법이다. 제4장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관통하는 2010년대의 사회적 맥락을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설명하

농작물을 키우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지쳤던 삶을 회복해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귀농귀촌 담론에서 자주 회자되어왔다.

고자 한다. 이도향촌 이주를 하나의 '모빌리티'로 보고, 일련의 움직임들이 2010년대 한국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연결되고 발생하면서 '이주'라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흐름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유용성은 이도향촌을 이주자의 동기나 생애주기 단계, 정착 형태 등으로 범주화하기 이전에, 이동 자체의 역동성과 사회구조적 모빌리티 요소들의 얽혀듦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기본정보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경험의 구체적 경로를 배경적으로 설명하고, 이들 사례의 의의와 분석 전략을 설명한다.(1절). 다음으로는 이주 과정을 배경-결정-선택-실천으로 구성하여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맥락이 무엇인지, 이것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인지를 분석하면서, 특히 도시 중심의 이동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도 도출해낼 것이다(2절). 마지막으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을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유동성과 이동성 증가의 구조적 맥락을 결론으로 정리한다(3절).

1절. 이도향촌 이주 경험의 미시적 특성과 거시적 맥락

이 절에서는 이 장의 분석 자료인 이도향촌 이주 경험자의 인터뷰 내용과 이를 분석하는 관점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이주 특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을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1.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의 미시적 특성

여기서는 분석 자료인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자들의 사례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를 어떻게 모빌리티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가

를 검토한다. 먼저 분석 대상의 구성 논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이도향촌 이주 경험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는 구성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논문의 진행과정은 다양한 인구이동 흐름 중에서 2010년대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이도향촌 이주의 갈래를 좇아 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제2장에서는 전체 국내이동에서 2010년대 이도향촌 흐름을 발견하고 위치지었으며, 이 흐름을 다시 비도시적 이동과 도시적 이동으로 식별하였다. 제3장은 이 중에서 비도시적 이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동의 발생 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장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분석의 초점을 더욱 좁힌다. 연구 관점을 모빌리티 이론으로 확장하였을 때 포착되는 새로운 측면, 즉 2010년대 한국사회의 모빌리티 증가와 유동성이 이 현상의 발생구조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기때문에 본 연구 대상이 되는 이도향촌 이주 경험은 연령, 지역, 이주 동기와 형태, 정착 방식 등의 범주에서 2010년대 농촌 이주를 대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표집'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전체 이도향촌 이주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한 뒤, 이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구성하지 않는다[50]. 이보다는, 2010년대에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이도향촌 이주 현상에 현대 사회의 모빌리티 증가의 맥락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이론적 관점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석 대상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이 모빌리티의 작동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원으로 이론적 적합성이 높은 행위자들의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이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을 인터뷰해주신 연구참여자들의 기본정보는 다음 <표 30>과 같다.

50)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가 연령, 지역, 이주형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대표성을 띄도록 표집되지 않았다는 점은 본 장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작업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30>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사례 번호	향촌 시기	지역(군)	연령대	성별	이주 가구형태	영농활동 여부
1	2012년	횡성	60대	여성	부부	O
2	2018년	춘천	60대	여성	부부	O
3	2018년	홍천	30대	남성	부부	-
4	2018년	홍천	30대	여성	부부	-
5	2020년	화천	30대	여성	부부	O
6	2019년	화천	30대	여성	1인가구	-
7	2018년	화천	20대	여성	시댁 이주	O
8	2017년	봉화	50대	여성	1인가구(귀농당시)	O
9	2013년	봉화	30대	여성	부부	O
10	2014년	상주	40대	여성	가족단위	O
11	2018년	울진	30대	여성	부부	-
12	2017년	남해	20대	여성	친구들	-
13	2016년	괴산	30대	여성	가족단위	O
14	2019년	괴산	30대	남성	가족단위	-
15	2018년	괴산	30대	남성	가족단위	-
16	2018년	홍성	30대	여성	1인가구	O
17	2017년	홍성	40대	남성	가족단위	O
18	2010년	홍성	40대	남성	가족단위	O
19	2018년	부안	30대	남성	1인가구	O

이들은 2010년대에 동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가장 일찍 향촌 이주한 사람은 2010년(사례 18번)이고 그 후로 최근 2020년(사례 5번)까지 2010년대 전체 기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지역(사례 1-7번), 경상도 지역(사례 8-12번), 충청도(사례 13-18번), 전라도(사례 19번)을 포괄한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은 한 건의 사례만이 조사되었고, 경기와 제주 지역 사례는 없다.

연령별로는 20대(사례 7번, 12번), 30대(사례 3-6번, 9번, 11번, 13-16번, 19번), 40대(사례 10번, 17-18번), 50대(사례 8번), 60대(사례 1, 2번)로 분포 비중이 균일하지는 않으나 주요 연령대는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주 당시 가구 형태도 1인 가구(사례 6, 8, 16, 19번), 부부 단위 2인 가구(사례 1-5번, 9번, 11번, 17번), 3인 또는 4인 가족 단위(사례 10번, 13번, 15번, 18번)를 포괄하고 있으며, 촌 지역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주한 사례(7번)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이주한 사례(14번), 여

러 친구들과 공동이주한 사례(12번)도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12건이었고, 이 중 사례 5, 7, 8, 10, 18, 19번이 전업농이었다. 그 외 7건의 사례는 한살림과 같은 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거나(사례 3, 14, 15번), 마을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거나(사례 6번), 단기적 프로젝트나 아르바이트(사례 4, 12번)를 하고 있거나, 전업주부(사례 11번)로 생활하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러한 분포를 2016년『귀농귀촌실태조사』결과에 비추어 비교해볼 수 있다. 2016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2012-2015년 사이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으로 나뉜다. 귀농인은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하고, 귀촌인은 귀농인과 같지만, “귀농인/귀어인을 제외한 사람. 단 학생, 군 복무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제외”로 정의된다(2016년『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4쪽).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의 개념인 ‘이도향촌 이주자’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사례 분포의 위치를 가늠하는 데는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51].

다음 <표 31>에서 정리한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귀촌보다는 귀농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실태조사 결과보다 훨씬 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수는 귀농과 귀촌 모두 2명인 경우(주로 부부)가 가장 많았고 이는 본 연구참여자들의 분포와도 비슷하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귀농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귀촌은 경상도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때 경기도 지역의 귀촌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제2장의 분석결과에 비추어본다면 교외화 성격의 이동이 포함되어 집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장의 연구참여자들은 제2장의 분석에서 비도시적 이동 지역 혹은 혼

51) 비교 대상이 되는 값은 모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가중치를 적용한 후의 값을 사용한다.

합형 이동 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표 31>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보고서 자료 재구성)

항목		귀농	귀촌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5.5	9.2
	40대	15.5	19.0
	50대	42.0	32.1
	60대	30.8	29.7
	70대 이상	6.2	10.0
가구원 수	1명	17.9	20.9
	2명	49.1	47.5
	3명	15.7	16.6
	4명 이상	17.3	15.1
지역	경기도	9.0	28.0
	충청도	19.6	19.5
	전라도	28.0	16.8
	경상도	32.5	25.8
	강원도	8.2	7.8
	제주	2.6	2.2
영농 활동	등록 완료	98.3	24.8
	해당 없음	1.7	75.2

마지막으로 영농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귀농인은 거의 대부분이 농경영업체나 농지원부 등에 등록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귀촌의 경우에도 영농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약 25%에 이른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귀농과 귀촌은 농업 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본 장의 분석 사례 속에서도 농업 관련 활동이 전업농에서부터 겸업농, 장래 영농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단기적 농사일 품앗이, 텃밭활동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경험에서 공통점을 발견함으로서 이도향촌 이주의 성격와 추동력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이들 경험 속에서 어떤 모빌리티가 발견되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것이다.

<표 32>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이주 형태 분포(%)

항목		귀농	귀촌
이주 유형	농촌 출생, 연고지 이주	41.4	28.0
	농촌 출생, 비연고지 이주	26.8	31.3
	도시 출생, 연고지 이주	6.6	9.9
	도시 출생, 비연고지 이주	25.0	30.5
	기타	0.2	0.3
지역선택 이유	연고지라서	32.5	28.0
	자연환경이 우수해서	16.2	21.8
	이전 거주지 근처라서	13.2	8.7
	농업여건이 좋아서	6.9	0.9
	주거지 확보가 용이해서	6.7	10.2
	생활환경이 편리해서	6.2	8.5
	지가가 저렴해서	5.5	5.3
	귀농정책이 우수해서	3.2	1.0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2.1	4.0
	귀농귀촌인이 많아서	2.0	3.3
	자녀 거주지와 가까워서	1.7	2.2
	교육환경이 좋아서	0.9	2.3

다음으로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이주 유형과 지역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위 <표 32>와 같다. 귀농의 경우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중이 약 6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귀촌은 약 59%가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이도향촌 이주가 전체 연령대로 확산됨에 따라, 특히 젊은 연령층의 이주가 늘어날수록 바뀔 가능성이 크다. 집중적인 이촌향도(離村向都) 이동의 결과로 최근으로 올 수록 젊은 연령층에서 농촌 출생 비율보다 도시 출생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비연고지로 이주하는 비율이 더 높다(귀농은 25%, 귀촌은 30%).

본 장의 연구참여자들도 농촌에서 태어난 경우와 도시에서 태어난 경우, 연고지로 이주한 사례와 비연고지로 이주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넌 이미 시골에 살고 있는데 무슨 귀촌이냐(사례 6번)”는 이야기를 들을만큼 농촌 환경에 가까운 공간에서 거주했던 경우들도 있고, 출생지와 상관없이 자주 농촌과 농사일을 접한 경우(사례 10번) 등 다양한 사례들이 함께 발견된다. 그렇기때

문에 이 연구는 이들의 이주 경험을 출생지, 연고지, 농촌 경험 등의 범주에 따라 나누기보다는 이러한 다양성과 복합성을 동일한 관점으로 관통할 수 있는 설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적용되는 관점은 이들의 경험 속에 2010년대 한국 사회의 '모빌리티'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의 거시적 분석 전략

이 장에서 이도향촌 이주 경험을 분석하는 전략은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에서 이주를 행위자의 생애 전반 속에서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시 중심의 이동을 설명하는 관점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성격과 원인을 분석의 초점으로 잡아내고자 한다.

사람들의 이동이 전통적으로 다뤄져 온 방식은 '이동'을 '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주는 다른 지역에서의 '거주'를 목적으로 한 이동이라는 것, 그리고 거주는 전통적으로 정주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동은 제약이자 비용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면, 이주는 손익 계산의 결과로 도출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현재 거주 지역의 제반 조건과 이주 후보 지역들의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이주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현재 거주 지역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제한 후에도 최종적으로 더 나은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주가 실행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 및 결정은 일반적으로 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개념화된다. 이 지점에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으로서 전통적 인구이동 이론과 모빌리티 이론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통적 인구이동이론에 따르면, 이주 행위자는 현재 거주지와 이주 후보 지역의 일자리 임금 수준을 비교하거나, 각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생활복지의 종류 혹은 수준을 비교하여 이주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각 요인들은 모든 지역에서 동질적인 기능과 의미로 작동한다

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는 이주 행위자가 도시적 환경을 모색하는 경우나 도시-도시 간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현재 거주지와 이동 지역이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이도향촌 이주에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적 환경과는 크게 다른 농촌 환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요인, 생활 환경 요인 등이 도시에서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제3장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도-농 간 이주는 주거 지역의 변화뿐 아니라 생활양식 전반의 전환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드는 비용과 결과적 이익이 단선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촌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나 이사 비용 등 이주 자체와 관련된 소요 비용은 상당히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사례는 이도향촌 이주를 설명하는 틀로 '비용-이익'의 단선적 구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다.

따라서 도시 중심의 인구이동을 분석하는 틀을 넘어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 장의 분석 전략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경험을 이동 시점에 국한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생애 전반 속에서 이도향촌 이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때 이도향촌 이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기준으로 '모빌리티'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분석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경험 속에서 이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 지점이 이도향촌 이주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공간에 대한 행위자의 경험과 의미 부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주목하여 인터뷰 내용을 검토한다. 이도향촌 이주 이전의 공간, 즉 도시 공간에 대한 평가와 의미부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촌 지역과 이주에 대해 무엇을 전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 전략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는 일회적 시점에서 이도향촌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관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점만을 분석하는 접근은 향촌 이동에서 이주자의 결심과 의지, 동기를 훨씬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 행위자들의 실제 경험 속에서 이주는 치밀한 계획과 필연성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우연한 만남과 실천의 연쇄로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경험은 일견 무모해보이기도 하는 '용감한 감행'이나 '실험적 시도'로 표현되고 의미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화는 향촌 이주자가 청년일 경우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장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 이주가 발생하기까지 다양한 환경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도향촌 이주 모빌리티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있던 '이동적 맥락'이 특정 계기에 의해 발동되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복합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이도향촌 이주가 행위자의 '드라마틱한' 결심이나 동기에 의한 실천으로 해석되는 것에서 나아가 사건 발생의 기저에 흐르는 일련의 사회구조적 영향력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모빌리티 이론에서 모빌리티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포착하고 드러내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이주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클레이와 멀더(Kley and Mulder 2010)는 이동이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결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욕구와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 탐색과 결정, 실행의 단계를 통해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아야한다는 관점에서 독일 청년들의 이주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일련의 연구에서 미시적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이주 과정을 '이주를 고려하는 단계(considering migraion)'와 '이주를 계획하는 단계(planning migration)'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Kley and Mulder 2010; Kley 2017). 다만 이들의 작업은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한 것이기 문에 본 장의 분석과는 관점을 달리한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과정을 ① 농촌 이주에 대

해 긍정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맥락적 상황으로서 '배경' 단계와 ② 이주를 실행하겠다고 마음먹는 '결정' 단계, 그리고 ③ 이주할 지역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주거지를 정하는 '선택' 단계, 마지막으로 ④ 이삿짐과 함께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이주 '실천' 단계로 나누어 본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모빌리티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도출해낼 것이다.

2절. 이도향촌 이주의 전개 과정

1. 배경: 이동의 의미 형성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은 이동에 부여된 의미와 그 의미가 형성된 사회구조적 맥락까지를 부착하여 이동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도향촌 이주를 포착하면, 한 시점에서 지역을 결정하여 이주하는 것과는 층위를 달리하는 '배경적 맥락'이 드러난다. 이 배경적 맥락은 행위자가 향촌 이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이주 지역을 선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형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예로 들 수 있는 경우는 촌 지역에 대한 인상깊은 체험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아래 사례 9번과 11번을 보면, 과거의 '시골생활 경험'이 농촌 이주를 전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사례 11번은 수도권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유년기는 지방 소도시에서 보내다가 청소년기에 부모님을 따라 농촌으로 이주했고, 성인이 된 후 서울에 살다가 향촌하는 이주 궤적을 보여주었다. 이 때 유년기 때 체험한 '생태적 감수성'이 촌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해주었다고 설명한다. 사례 9번은 서울에 살았지만, 도심이 발달하지 않은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논밭이 있고 자연 환경 속에서 놀았던 유년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례 11번] 그거(시골생활에 대한 애정)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긴해요. 행복했던 기억이나 생태적 감수성?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크지만. 그냥 고등학교 시절도 그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고. 어렸을 때 아빠랑 산에 갔던 기억들이나. 그래서 사실 OO가 더 시골이지만 그 전에 기억이 저한테는 더 '시골이 좋다' 이런걸 느끼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시골의 공기나 땅 이런 거. 그런 것들.

[사례 9번] 보통 서울에 다른 데 살면은 친구들이 저희동네 놀러오면 여기는 뭐냐, 시골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어렸을 때 논바닥 얼려가지고 타는 스케이트타고 막. 학교 과학시간에 개구리를 잡아서 관찰할 거다 하면 논에서 개구리를 잡아가고 막 그랬던 지역이거든요. 서울인데도. 엄마아빠도 직장생활 하시고 그랬는데, 살던 동네가 되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 그냥 산에 가서 놀고 숲에 가서 매미잡고.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인과관계로 요약되어 설명될 수는 없다. 어릴 적의 경험이라는 것은 향촌 이주 시점과 시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 14번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례 14번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수도권 변두리 지역의 전원주택 단지였고, 이 곳에서의 생활을 매우 긍정적으로 회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현재 향촌 이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례 6번이나 15번 역시 여행가서 만난 시골의 풍경이 무척 좋기는 했지만, 그것이 농촌 이주를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만큼의 경험은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사례 6번] 아니요, 제가 경험이라고는 그냥 할머니네, 남원 할머니네 간 기억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의아해 하는거는, 너가 무슨 어렸을 때 시골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할머니네 그렇게 오랫동안 가서 생활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명절 때만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할머니네 가는 그 정도?

[사례 15번] 여행을 다니기는 쫌 다녔죠.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뭐 시골로도 도시로도 전국적으로 다니기는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서 제가 특별히 농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

정을 더 많이, 감동을 받거나 그런 경험은 딱히 없었어요.

또한 촌 지역에서의 경험이 향후 이주 지역 선택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배경적 맥락이 향촌 이주와 인과적으로 연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례 10번은 어렸을 적에 일을 돕던 친척 과수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사례 14번은 오히려 연고지를 피해서 지역을 선택하였다. 즉 연고나 경험으로 연결된 곳이라고 해서 이주 지역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4번] 저희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그 당연히 부모님 쪽 연고가 있는 고향에도 내려갈 수 있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도움받아서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강원도 쪽 말고 저희가 충남 쪽도 많이 알아봤어요.

과거 경험과 관련된 지역이나 연고지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주 시점에 그 지역에 적절한 집과 땅을 구할 수 있는가, 귀농귀촌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의 요인들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요인들을 향촌 이주의 원인으로 연결시켜 해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향촌 이주자들 중에는 촌 지역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례들도 있다. 즉 향촌 이주자들의 경험은 향촌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두 가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주 전 경험은 인과적 차원에서 원인 변수로 파악되기보다는 배경 맥락으로 설정되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향촌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이주할 지역을 선택하는 단계와는 분리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주 전 경험은 단순히 농촌 공간과 관련된 경험으로 한정될 수 없다. 촌 지역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이도향촌 이주에 영향을 미친 또다른 경험의 차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촌 지역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 설정한 '배경' 개념은 향촌 이주 모빌리티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차원적 층위에서 진행된 모빌리티의

의미와 영향력을 하나의 종합적 맥락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의 요인들이 향촌 이주 모빌리티의 맥락을 형성하는가를 이제부터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도록 하겠다.

1) 경험의 누적을 통해 형성된 모빌리티의 감각

실제 사건의 내용적 다양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배경 요인은 '모빌리티의 감각'이다. 이 '모빌리티의 감각'이란 시골이나 자연과 관련된 경험이든 아니든, 연구참여자가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흘러가도록 삶의 유동성을 높여주었던 맥락적 요인들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이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인지되는 활동이며, 인간에게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은 특히 인간이 사물, 기계, 자연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감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Urry 2014).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에서도 인터뷰 참여자들은 향촌 이주와 연결지어 회상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경험했으며, 농촌이나 자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삶의 유동성, 유연함에 관련된 경험을 누적하여 가지고 있었다. 이 다양한 경험의 스펙트럼을 이 절에서는 '모빌리티의 감각'이라는 틀로 묶어 정리하였다. 어떤 사례는 어릴 적에 시골과 비슷한 환경을 체험했지만, 반대로 서울에서 태어나 시골 친척집에 가본 경험도 없이 도시 생활만 해 온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 나가 외국의 시골 생활을 체험하면서 향촌 이주를 생각해보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개별 생애의 경험들은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 경험들은 모빌리티의 시각에서 추상화하여 분석할 경우, 촌 지역으로의 이동을 '보다 실현 가능한 것', '낯설더라도 친밀한 것'으로 전망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일종의 감각을 형성하는 토대로 범주화할 수 있다.

먼저 향촌 이주 모빌리티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은 시골 생활과 자연환경의 체험이다. 과거 촌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이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단기적 방문·여행·체류의 형태이든 장기적 거주의 형태이든, 촌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선호할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례 5번] 텃밭 생활도 있었고 제가 농가들 많이 보고 자랐죠. 논을 베고, 밭을 태우고, 심고. 이런 건 보고 자라긴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저에게 줬던 것 같아요.

[사례 9번] (제가) 거의 태어나자마자 전라남도 OO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거기는 더 많이 시골이잖아요. 그때도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정말 근처에 다 논밭이고 조계사, 지리산, 이런 곳 되게 많이 갔던 거 같아요. 무슨 계곡 이런 데를. 어렸을 때 첫 기억이 저는 그냥 논을 굴러다니면서 놀던 기억? 그런... 그냥. 그리고 약간 엄마의 영향? 아빠는 그냥 완전 쌩 도시 사람 사대문 안에 그 이렇게 살던 서울 사람인데 이제 엄마는 경기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지으시고, 엄마 자체도 되게 뭐 밖에 나가서 무슨 메뚜기나 매미 같은 거 있으면 이건 뭐고 이름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잡는 거고 이런 자연 놀이를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식물 좋아하셔서 많이 키워보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거 같고.

다음으로 향촌 이주자의 '모빌리티 감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체험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이주 궤적이다. 가령 사례 4번, 13번, 17번의 생애 이주 이력 속에는 해외에서의 이주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20대 시기에 중국(4번, 13번), 뉴질랜드(17번)에서 교육을 받거나, 어학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다. 해외로의 이주와 공간적 층위는 다르지만, 사례 5번은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근무지에 따라 자주 이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넓거나, 시간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이동을 경험했기에, 각 사례들의 생애 속에는 도시 지역을 넘어서는 이동, 즉 이도향촌 이주가 비교적 낯설지 않은 모빌리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례 5번] 저희가 이제 군인 가족이었어서,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저도 사실 시골 체질이에요. 어렸을 때는 OO에서

거의 자라서 초등학교를 마무리를 짓고, 그 후로 서울로 이사를 가서 사실상 서울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주자들의 모빌리티 감각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은 일상화된 이동의 경험이다. 단기적인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것', 즉 이동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동의 감각을 긍정적으로 체험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사례들 중에서 발견된다. 가령 사례 6번은 향촌 이전에 가졌던 직장에서 영업직을 맡아 대부분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좋았고, 재미있게 일을 했다고 회상한다.

[사례 6번] 저는 약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렇게 일하는 게 쫌 안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3년동안 제가 그래도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니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일 할 수 있었던 거는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일이었거든요. 또 저희 전무님이, 영업인은 사무실 안에 있으면 안된다 무조건 나가라 약간 그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거의 앉아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래처 만나고 돌아다니고 하는 일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3년은 그래도 버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5번은 자주 '드라이브'를 다녔고 특히 도시보다는 강가,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는 것이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5번] 애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드라이브를 많이 시켜주셨어요. 도시에서도 드라이브, 그런데도 제가 찾는 건 자연 이더라구요. 강가에 간다거나 한강 변에 간다거나, 뭐 이렇게 바람을 쐬러간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즐겼어요. 중학생 때부터 그게 저의 유일한 분출구 였거든요.

이러한 단기적 이동 역시 모빌리티에 속하는 경험이며, 이런 이동의 잦은 체험이 '언제든 멀리 훌쩍 떠날 수 있음("언제든 튈 수 있는(사례

16번)")'에 대한 익숙함을 형성하고 이것이 이도향촌 이주를 추동하는 바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인 농촌으로 '떠난다는 것'을 또다른 모빌리티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이동의 감각과 결합하여 평가했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경험들은 발생 시점이나, 경험의 종류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지만, 좁은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이라는 점, 긍정적 이동 감각을 체험했다는 점에서 이도향촌 이주의 전망과 실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추론은 이주자들의 경험을 어릴 적의 시골생활 체험, 자연에 대한 선호 감정 등으로 해석하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달된 모빌리티의 감각'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함으로써 '시골-자연 체험'과 '향촌 이주' 간의 인과적 관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구조적 차원(모빌리티의 차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분석적 관점은 향촌 이주를 단순히 자연환경과 연결짓는 데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도향촌 이주 흐름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빌리티의 성격을 종합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함의 또한 가지고 있다.

2) 문화적 의미와 가치 태도

이도향촌 이주 경험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배경 요인은 촌 지역에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문화적 담론과의 연결이다. 이도향촌 이주를 추동하는 담론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것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지향과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 추구이다. 많은 이도향촌 이주자의 경험 속에서 생태적 가치 추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경요인으로 작동하는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도향촌 이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배경으로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지향과 '텃밭'에 대한 애정과 경험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례 4번과 9번은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거주 도시에서 운영하는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 사례 10번은 어렸을 적 과수원 일을 돕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들은

“흙을 만지고 생명을 기르는 기쁨”을 체험하고, 농촌 이주를 통해 이러한 체험을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선호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촌 지역으로 ‘갈 준비가 된다’.

[사례 4번] 회사생활 하면서. 도시생활 하면서 농사도 한번 배우러 가고, 텃밭도 한번 지어보고, 그러면서 아, 이런 삶이 나에게 맞나? 뭐 그러면서 좀 차근차근 준비가 저 스스로는 됐던 것 같아요.

[사례 9번] 도시텃밭도 엄마랑 같이 쭉 하다가, 결혼하고는 제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농사하다가. 거기서 만난 분이랑 인연이 되어가지고 강사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사례 13번의 서사에는 농촌 공간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신선한 먹거리’에서 체험한 위안과 회복의 감정을 통해 이도향촌 이주의 동력이 형성되는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사례 13번은 지방 대도시에서 살다가 중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외롭고 고된 유학생활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시골장터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이것이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농촌 이주 후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례 13번] (중국에서) 아파트 옆에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침에, 새벽마다 아침 장이 섰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느 날 또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학교에 가는데, 그 시장에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싱싱한 토마토 줄기채로 따와서 팔고, 막 옥수수 쪄서 팔고, 막 그런 방금 막 나오는 따끈따끈한 오리알 팔고. 두유 막, 직접 짜낸 두유 팔고. 거기에 너무 매료가 된 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맨날 그 시장에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이것저것 채소 구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리프레쉬를 했던 거 같아요. 그게 이어져서 요리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또 요리 하다 보니까 중국인 친구들도, 그 때 드라마 한류 이런 거 유행할 때니까 막 제육볶음 해주고 된장국 끓여주고. 김치볶음밥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벽도 허물어지고. 교수님들도 막 편하게 놀러와서 한번씩 밥 드시고 가고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싱싱한 재료로 요리하는 그런 기쁨? 그런 걸 좀 맛봤던 거 같아요.

둘째, 직접적 경험 외에 자연친화적 가치관이나 성향이 형성되는 또다른 맥락은 교육이나 직업을 통한 생태 담론과의 접촉이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도시문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치관은 사람들의 교육적 배경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직업적 배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사례 13번은 대학원에서 도시디자인정책을 전공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 "자연으로의 회귀" 방향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례 2번은 "자연으로 가야한다는 가르침"을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사상으로부터 배웠다고 설명하고, 그 외에도 귀농에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습했음을 이야기했다.

[사례 13번]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또 대학원에서는 어떤 접점이 있었냐면요, 산업디자인공학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도시디자인정책 -공공디자인정책 이쪽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디자인시스템' 이런 것들을 접하다보니까. (중략) 사람들의 취향 아니면 사회 모습이 '첨단화를 달리는 것'과 그리고 '진짜 원시와 자연으로의 회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저는 일단 성향상 후자를, 후자에 더 이렇게 많이 눈이 가더라고요.

사례 9번도 『월든』이나 『아나스타시아』 같은 생태 사상 서적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깊은 공감을 설명했다. 사례 18번도 귀농을 결정하기 전 환경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하는 데 큰 동력이 됐다.

[사례 18번] 그 때 이제 몇 권의 책을 좀 봤었는데. 먹거리에 관한 책도 좀 있었고. 세계의 불평등이라든지, 그런, 환경이나,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을 좀 보고 하다가. 그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를 들면, 한살림에서 먹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육식을 좀 끊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대안적인 삶을 고민을 하던 중에, '내 직업이 과연 친환경적인 직업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때는 그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거 같아요.

특히 이러한 가치관을 배우자나 가족도 공유하고 있을 때, 가족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래 사례 2번과 4번, 9번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례 2번] 귀농은 원래 30대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중략) 젊을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저는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연으로 가야 한다는 가르침.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마침 본인은 과수원을 하고 싶다는 거. (중략)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책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었나 그냥 영화 보듯이 쭉쭉 봤어요.

사례 4번은 결혼과 동시에 향촌 이주하여 강원도 홍천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주 전에는 '적정기술'과 관련된 NGO단체에서 일했다. 적정기술은 무분별한 과학기술 발전을 지양하고 한 사회가 그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에 맞춰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사례 4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여 전자기기 없는 생활을 향촌 이주와 함께 실천했던 과정을 보여주었다. 사례 9번에서도 배우자가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태적인 삶에 대한 지향이 일치했고, 이것이 향촌 이주 결정에 동력이 됐음을 시사하였다.

[사례 4번] 저희가 한 일 년 정도는 안 했었는데. 전기없이 살아보자. 제가 약간 그런 곳에 있었어요. '적정기술'이라고. 비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곳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세탁기랑 냉장고 없이 한 일 년을 보냈었었죠.

[사례 9번] 아, 그리고 그때 남편이 환경단체에서 간사였는데 머리로는 굉장히 그런 뭐. 뭐, 아무튼 자급자족과 그런 도시에서의 그런 삶이 생태적이지 않고 순환이 불가능하고 막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에 그런 것들이 쌓인 거에요 생각이. 이제 가서 몸이 어떻게 살게 될지는 그때는 미처 생

각하지 못하고, 되게 충동적으로 같이 왔어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자연친화적인 가치관이 향촌 이주의 하나의 배경요인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관의 작동은 선행 귀농귀촌 연구에서도 중요한 위상으로 다뤄져 온 내용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감각 저변에는 현대의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파국적 결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두려움과 감수성(김홍중 2019)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990년대-2000년대 생태지향적 귀농귀촌의 맥락과는 또다른 결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예로 연구 기간 중 발발한 코로나19 사태와 도시 생활의 지속 불가능성, 촌 지역에서의 삶을 연결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서사들이 종종 등장하였다.

[사례 8번] 서울 가면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사람들은.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가면은 어떻게 사냐. 그 생각이 더 들고.

[사례 12번] 요새는 도심같은 곳은 코로나 상황에 재난지역이잖아요. 그래도 시골은 청정지역이잖아요 밀도가 낮으니까.

[사례 16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촌 지역 이주를) 많이 결심했을 거야 하고 혼자 상상했지만. (도시가) 사람 살 데가 아닌 거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자연환경이라는 주제가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모빌리티의 감각'을 형성한 경험이 모두 농촌 체험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듯이, 문화적 가치와 태도 역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가치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사례들의 서사 속에서는 '농촌 지역'이 자연환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표상되거나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표상되기보다는, 대안적인 삶 혹은 주체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전망되는 방식으로 이도향촌 이주를 추동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서사는 앞서 살펴 본 사례들에 비해 '자연친화성'에 주목하지 않거나 그 중요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사례 17번은 촌 지역의 '농촌적 특성'이나 '자연환경'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설명한다. 이 때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생태적 가치가 아니라 가족적 삶,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문화적 태도이다.

[사례 17번] 농촌의 무엇을 보고 내려온 것 같진 않고 1순위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은 어디일까, 도시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농촌 한 곳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이 어디 있었을까. (중략) 예전부터 시골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일단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제일 컸었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뿐 만이 아니라 예전에 아버지들은 계속 직장 돈 벌어오는 게 1순위였고, 가정은 조금 소홀히 한 채 먹고 사는게 일차적인 목적이었으니까, 점점 아내와 자식 들로부터 멀어지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조금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견지에서 이동의 방향은 꼭 촌 지역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례 17번의 '대안적 공간 찾기'에서 해외 지역으로의 이민은 선택지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는 "농촌보다 먼저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언어의 문제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모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두가 안"나서 단념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하게 사례 4번에서도 촌 지역 외의 대안적 공간으로 해외 거주가 선택지로 고려되었음이 나타난다. 사례 4번은 배우자와 함께 촌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문화가 맞지 않아서' 서울을 떠나 해외 거주를 고려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4번] 그냥 한국에 살 생각이 없었어, 나는. 한국이 문화나 사람이 안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안 맞다고 생각한 게 도시 문화였던 건지.

이러한 발견은 이도향촌 이주의 맥락이 좀더 확장된 범위에 걸쳐있음을 보여준다. '비(非)자연으로서의 도시'와 '자연으로서의 촌'의 이항 구도가 아닌 것이다. 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촌 지역이 아닌 다른

공간도 모빌리티의 이동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된다. 즉 2010년대 향촌 이주자의 모빌리티는 단순한 귀(歸)-농촌의 방향을 넘어서는 폭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각 사례들을 살펴보면, 향촌 이주의 배경적 요인으로 자연친화적인 가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체적으로 자아를 실현해나가고자 하는 '문화적 태도'라는 범주의 층위에서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례들과 하나로 묶일 수 있다.

그런데 농업이나 자연·생태적 가치가 아닌, 그 외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향촌 이주'라는 실천으로 연결되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농촌성'으로 표상되어 온 지역 공간이기에, 농촌성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향촌'이라는 방향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방향의 끝에 존재하는 공간은 '도시로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으로서의 촌 지역'이라기 보다는, 또다른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촌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기에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향촌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인지를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 향촌 이동을 지역 공간과 인구, 그리고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3) 도시 공간과 생활에 대한 평가

이도향촌 이주의 배경 맥락에서 발견되는 세번째 공통점은 도시 공간에 대한 비교의 방식으로 이도향촌 이주의 서사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요인은 거주했던 도시 공간과 도시 생활에 대한 평가이다.

도시와 촌 지역은 거주 환경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도향촌 이주는 거주 지역의 변경을 넘어서, 생활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를 강조하는 사례 19번은 "귀농은 이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차이는 삶의 전반에서 발견되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수 없게 되거나(사례 11번, 사례 15번), 식료품 소비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사례 8번, 사례 10번)처럼 예상되는 것들도 있지만,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지내게 되거나(사례 10번) 반바지를 더이상 입지 않는 등(사례 6번) 의외의 지점에서도 발생하게 되고, 주변 이웃과의 관계 맺음까지 생활 방식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례 10번] 여기와서는 문도 전혀 잠그지 않고 살아요. 출근할 때도 현관문도 잠그지 않고. 왜냐면 대문을 닫고 처음에 생활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대문을 왜 닫냐고. 동네 분들이. 그래서 (웃음) 그래서 대문도 열기 시작하고 현관문도, 사실 뭐 집어갈 것도 없긴 하지만, 현관문도 그래서 잠그지 않고. 쉽게 누가 열고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도향촌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가령 사례 12번은 여성으로서 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말(성차별적 언어)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한다. 사례 14번은 촌 지역에서는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경제적으로 둘이 벌던 게 절반의 반도 안될 거다. 지금은 그래도 여유있게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거 괜찮냐”)을 경고받았다고 회상한다.

따라서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의 이주에 드는 ‘비용’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감행하는 동기로 ‘도시가 싫어서’, ‘도시가 살기 힘들어서’ 라는 해석이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즉 도시의 하자가 압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탈 압력이 발생하고, 이것이 촌 지역으로의 이동을 추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귀농귀촌 담론에서 도시 거주 환경의 열악함, 삶의 ‘이행 불가능성’ 등이 자주 등장하는 맥락이다. 이러한 맥락은 인터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례 11번에서 서울은 “치러야하는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공간이었고, 사례 16번에서는 “사람 살 데가 아닌” 곳이었다.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지하’철을 타고 “좀비처럼 지하세계를 떠도는” 생활로 표현되었다.

[사례 11번] 서울에서 꽤 오랫동안 대학교 때부터 지내다가, 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서울살이가 힘들구나, 치러야하는 대가가 너무 크고 월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생활이었던 것 같고. (중략) 그냥 이제 여기서 저는 더이상 힘들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사례 16번] (서울은) 사람 살 데가 아닌 거 같아요. 사람이 지하철만 한번 타도 그 앞에 사람, 좌석에 서 있든 앉아있든 그 앞에 사람과 눈을 어떻게 마주쳐야 할 지. 집 밖에 나와서 계단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을 어떻게 관계해야 될 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다 단절된 대상화된 집단으로, 약간 뭐라 해야 하나 좀비처럼 지하세계를 떠도는. 지하철로 해서 지하세계를 떠도는 생활들이 약간 저랑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례 18번에서 도시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도시 공간에서 “탈퇴하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사례 18번]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하철은 타야하고 버스는 타야하고 집도 사야하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이건 그 때(귀농을 결정할 당시) 생각입니다-, 도시란 시스템의 부속이잖아요. (환경에)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즉 지금까지 살펴 본 사례 속 서사에 드러나듯이, 도시는 다양한 문제를 담지하고 있는 공간이며, 개인이 이 공간을 바꿀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을 떠나고싶다는 압력이 작동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본 장의 연구사례에서는 도시적 삶을 부정하지 않으며, 향촌 이주 후에도 자주 도시를 오가는 모빌리티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즉 ‘도시도 좋지만 촌에 살고 싶어서’라는, 촌 지역에 대한 강한 긍정적 기대와 전망에 의해 이동이 추동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모빌리티적 실천의 차원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이들 사례 속에서 촌 지역으로의 이주는 도시의 대립항으로써 촌 지역을 선택했다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촌 지역으로

의 이동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사례 13번은 도시에서 퇴근 후 “양치하다가 칫솔 물고 잠이 들어버린” 적이 있을 정도로 바쁘게 생활했지만, “도시 생활을 너무 잘 즐기다가” 귀농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앞서의 사례들처럼 도시 생활은 빡빡하게 짜여져있고 피곤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도향촌 이주를 추동하는 압출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사례 6번 역시 도시 생활이 “막 질리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보다는 농촌이 더 끌려서 이주하게 됐다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정서는 마찬가지로 사례 14번에서도 발견된다.

[사례 14번] 지금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도시에) 살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도 사실 저희 동네가 좋았고 그랬거든요, 그냥?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중략) 전철 타는 것도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힘든 건 맞죠. 근데 힘든 걸 못 견딜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힘든 것 맞다. 힘들긴 한데 그걸 스트레스받아까지 하진 않는데 저는.

이들 사례는 도시 생활이 어렵거나 도시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대안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이도향촌 이주자의 이동 범위는 더욱 열린 가능성으로, 더욱 유동적으로 설정된다. 도시를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도시와 연결되고 오고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례 17번이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다. 사례 17번은 도시 생활을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것을 넘어서, 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에도 자녀가 도시 공간과 농촌 공간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다.

[사례 17번] 저는 뭐 도시는 엄청 싫진 않아요. 물론 도시 너무 좋죠. 조금만 가면 문화공간도 느낄 수 있고, 연극도 볼 수 있고, 극장도 갈 수 있고, 아울렛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엄청 편하고, 게다가 행사라던지 이런 게 엄청 많이 일어나니까. 도시가 되게 편하긴 한데. 편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숨 쉬며 살만한 곳은 그래도 도시보다 농촌인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도시가 싫었으면 안 올라갔죠. (중략) 크게 멀진 않으니까 한 2시간이면 가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도시도 느낄 수 있고, 사는 거는 농촌에서 살고 하면 나쁘지 않

은 것 같아요.

이러한 사례들에서 향촌 이주는 도시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해, 혹은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시 공간의 특성이 '압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도향촌 이주자들은 왜 촌 지역으로의 이주 결정까지 흘러가게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그만큼 촌 지역이 자신에게 가치있는 공간이었고, 긍정적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공간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제5장에서도 상세히 재론할 것이다.

4) 지역 공간에 대한 전망

마지막으로 '촌 지역에 대한 전망'을 이도향촌 이주의 중요한 배경적 맥락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이 '전망'은 특정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이주 계획이 아닌, 이도향촌을 결정하기 전후 맥락 속에서 촌 지역에서의 삶과, 도시를 떠나는 이동이 어떠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과 기대, 걱정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삶과 의식주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데 있어 도시 공간과 지역 공간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추상적 평가와 예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앞서 살펴 본 '모빌리티의 감각'을 형성해 온 경험과 기억, 문화적 담론과 가치, 이미지 등을 질료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성향 등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전개되면서 이도향촌 결정을 추동하는 배경을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이 이도향촌 이주에서 지역 공간을 농업과 자연의 공간으로 표상하여왔고, 이에 따라 이주 동기도 '자연이 좋아서'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인터뷰 속에서 나타난 촌 지역으로의 이동과 농촌 공간은 훨씬 다양한 맥락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이도향촌 이주는 자연이나 농촌성(rurality)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농촌 공간에 대한 모종의 전망

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 전망은 도시 생활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배경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의미로 구성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촌 지역과 이도향촌 이주에 대한 전망이 도시 공간과 생활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사례 15번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놓고”싶지만, 도시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전망이 ‘소용없게 느껴졌다’. 사례 17번 역시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삶’은 도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이것이 가능한 공간이 어디인가를 항상 고민했다고 술회했다.

[사례 15번] 그냥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사는 걸 좋아해서. 이 때(직장생활을 시작한 때)부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챗바퀴 도는 직장 생활에 그림을 그려봐야 뭔 소용이 있나싶기도 하고.

[사례 17번] 제가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뉴질랜드를 갔었는데 거기에 홈 스테이를 했었는데 거기 가족은, ‘홈 스테이’(한 가정의) 아버지가 직장 일을 하시긴 하지만 정시에 딱 일이 끝나면 집에 오세요. 그리고 오로지 그 이후의 시간은 가족하고만 보내시는 거에요. 어떤 누구의 터치도 없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우라나라의 어디서.

사례 18번 역시 촌 지역 공간이 “전혀 다른 곳”, “미지의 땅”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18번] 도시에서의 삶은 아무리 친환경적인 삶을 사려고 해도 거기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해 유발을 하는 거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략) 그래서 좀 다른, 여기 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고 미지의 땅이니까 미지의 땅을 탐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여기서 좀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회의감도 그 중에 좀 있었던 것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도 찾았던거죠.

이러한 기대감은 사례 18번과 같이 생태적 의미를 담고있기도 하지만,

사례 12번에서처럼 좀더 확장된, 그렇지만 모호할 수는 있는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례 12번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일하다가, 도시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무기력함을 느꼈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고민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광화문이나 명동, 용산구처럼 “서울에서도 더 중심가”에 살고싶어할 정도로 도시 공간을 좋아했지만, 더이상 흥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비하여 촌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은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으로 상상됐기에 향촌 이주의 기회가 왔을 때 흔쾌히 떠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례 12번] 친구랑 계속 얘기 했던 게, 살아가는 게 좀 무력하고 재미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을 종종 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회사로 옮긴다거나, 열심히 저축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던지 그런 대안 같은 게 안보였고, ‘이대론 안 되겠다, 뭐라도 뭔가 해 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뭐 교보문고.. 퇴근길에 교보문고에 들려서 독서를 즐기고 많이 막 이렇게 어디 뭐 쇼핑, 명동이나 홍대 이런데 가서 쇼핑을 하고 뭐 독립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제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는. 영화를 보러가고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전시를 보러 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문화재나 퇴근 후 문화재 같은 것들이 저한테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서울에서도 더 중심가에 살고 싶어서 용산구로 이사 가고 그랬거든요. (중략) 근데 막상 그런 걸 제가 별로 이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해에 가는 게 더 재밌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더 재밌고 친구들이랑 거기서 막 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상상을 하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도시적 문화 생활을 강하게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던 사례 12번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것은 문화 전시든 영화든 “보러 가는” 관람객의 입장을 벗어나, “내가 주도해서 내 삶의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이었다. 정형화되어 편리하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문화와 달리, 촌 지역에서 자신만의 삶을 모색해보는 것은 “다른 사람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실천이자 “내 친구들의 친구들의 친구들”까지 모이고 협력하여 해볼만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간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작동한 것이다.

사례 17번의 서술 속에서도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전망이 자세히 표현

되고 있다. 여기서 이주를 모색하고 추동한 계기가 되는 농촌 공간의 모습은, 가족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공간이다. 경쟁이 심한 도시에서의 삶은 “직장 돈 벌어오는 게 1순위”인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손이 덜 돼 있”는, 즉 경쟁이 없는 촌 지역에서 생활을 모색해야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사례 17번] 저는 돈 벌려고 농사를 지으려고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농사는 너무 힘들고 물론 그걸 돈 벌려고 하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힘든 건 농사도 똑같거든요. 근데 뭐 나 농사지어서 한 달에 몇백 벌어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은 조금 벌어도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 누구한테 쫓기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중략) 일단은 저희가 초반이고 하니까 저희는 집을 지으려고 최종 목표가 그거 거든요. 와이프가 건축과를 나오기도 하고 저는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니까, 마당 딸린 조그마한 집에서 가족이 같이 사는 꿈은 항상 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시에서는 안되고, 그것도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내려왔고.

이상의 분석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지점은, 이도향촌 이주자들이 자신의 서사를 설명함에 있어 도시공간, 지역공간, 이동에 대한 의미 부여와 평가, 해석이 얽혀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제5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지역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단초가 된다. 즉 이도향촌 이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 나름의 서사와 공간 전망을 가지고 지역으로 이주하며, 이러한 전망과 해석을 공간에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지역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사례에서 이도향촌 이주가 대안적 삶, 주체적 삶의 방법으로 다뤄지는 까닭은 이들이 촌 지역은 도시와는 다른 모종의 탐색과 실천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를 (흔히 귀농귀촌 담론에서 전제되듯이) 도시와 농촌 공간이 이분법적 의미를 가지는 대립적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도시 공간과 생활에 대한 평가’ 요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도시에 대한 해석은 부정적이기만 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경우도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동은 '부정적 도시'를 떠나 '긍정적/대안적 농촌'으로 추동되는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사례에서도 촌 지역 공간에 대한 평가가 도시 공간에 대비되어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도시 공간을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여 이들의 이동이 도시와 촌 지역 공간의 연결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들의 모빌리티가 도시 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해석과 지역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이주와 지역 모두에서 혼종적인 양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 양상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 결정: 이동의 촉발

'배경'의 다음 단계인 '결정' 단계는 이도향촌 이주가 실질적으로 촉발되는 시점이다. 결정 단계는 여러가지 배경적 맥락 속에서 생활하던 행위자가 이도향촌 이주를 현 시점에서 실천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 결정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은 오랜시간 형성되어 온 배경적 맥락 속에서 서서히 예상되면서 도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애 변동 속에 뜻하지 않게 돌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결정 단계에서 향촌 이동의 배경적 맥락이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와 '실제로 이주가 실천되는 결과'로 갈리게 된다. 예를 들어 표현해보면, '자연친화적 삶을 추구하고 귀촌을 상상해보며 살아가는 도시사람'에서 '실제로 귀촌을 한 사람'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지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전환 계기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이도향촌 이주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오랫동안 이도향촌을 준비해 온 경우이든, 아니면 갑자기 이주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 경우이든 상관없이, 향촌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시점을 특징짓는 몇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 요인들은 '모빌리티를 촉발하는 구조'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요인은 현상 차원에서는 졸업, 혼인, 출산, 퇴사, 은퇴 등의 다양한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이도향촌 이주'라는

모빌리티를 촉발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동일성은 '전환 압력'과 '유동적 상황'이라는 주제로 논의될 수 있다.

1) '전환 압력'을 발생시키는 생애주기 요인

졸업, 결혼, 자녀의 진학, 은퇴 혹은 자녀의 독립이라는 생애주기 사건이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하는 시점에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애 단계가 변하면서 그 사건이 주는 '전환의 힘'에 압력을 받아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사례 13번은 귀농을 계획하고 있던 배우자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동시에 괴산군으로 이주하였다. 혼인 결정이 곧 이주 결정이기도 했던 셈이다. 이는 사례 5번과 7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7번의 경우에는 대학의 졸업과 혼인, 이도향촌 이주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사례 7번] 이제 오빠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가 만나가지고. (중략) 오빠가 '만약에 농사 짓는다고 하면은 너도 따라 내려올 거냐'고 해서 그러면 오빠가 농사 짓는다고 하면은 내가 뒤에서 이제 밀어주겠다, 이러고 그냥 생각 없이 내려온 거죠. (중략) 뭔가 시골에 와서 되게 조금 힐링도 엄청 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서 오빠가 그런 고민을 했었을 때 가차 없이 '오빠 농사 지을 거야? 그럼 나도 따라 내려갈래' 이러고, 이제 오빠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 내려가는 걸로.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내려갔던 거거든요.

앞의 사례들이 결혼과 이주가 중첩된 결정으로서 동일 시점에 발생했다면, 사례 1번과 2번은 본인 혹은 배우자의 퇴직이 이주를 촉발하였다. 사례 1번은 배우자가 퇴직 후 농촌 이주를 희망하여 함께 이주한 경우이고, 사례 2번은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 시점을 염두에 두고 귀농을 준비하다가 우연한 기회[52]에 본인이 먼저 귀농하게 된 경우이다.

52) 이 '우연한 기회'는 세번째 단계인 '지역 선택'에서 '(살 곳의) 구해짐'에 해당되며, 추후 다시 설명할 것이다.

[사례 2번] 우리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농사에 대한, 농사 짓고 싶은 것에 대한 깊은 로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퇴직을 한 후에 할 일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그런데 그때 가서 농업을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중략) 그래서 우리는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하자고 해서 이제 일찍 한 거죠. 그래서 퇴직을 하면 짠, 할 수 있게 준비를 한 거죠.

이처럼 생애주기 사건들이 이주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귀농귀촌 혹은 이도향촌 이동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분석해왔다. 생애주기 이론을 명시적으로 전개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년의 귀농귀촌', '중장년의 귀농귀촌', '은퇴 후 귀농귀촌'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관점은 모두 공통적으로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의 이주와 은퇴 후 이주가 다르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가정에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이주자를 생애 단계에 따라 구분하는 관점이 실제 지역에서 이주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지원, 정책 자원이 청년 정책인가 은퇴 장년층 정책인가 등에 따라 나뉘면서, 불필요한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례 16번] 세대 간의 갈등 등이 또 귀농자들 안에서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초반에 어려웠던 거 같아요.

물론 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자본과 지원정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는 것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더라도 관점 자체는 정책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 한계는 생애주기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는 관점으로는 2010년대 이도향촌의 전반적인 확산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기 귀농귀촌 시기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귀농의 증가 추세가 맞물리면서 이들의 생애주기로 귀농귀촌 증가가 설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연구참여자들의 서술들을 종합하고 비교하며 분석해보면, 생애주기가 결정 시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혼인 자체 혹은

은퇴 자체가 모빌리티를 촉발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가령 다음의 사례들에서는 혼인이나 은퇴가 앞의 사례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2번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시작하여 이도향촌 이주를 은퇴 후로 계획했지만, 아래 사례 6번은 은퇴까지 이주를 미룰 수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사례 2번과 6번은 30대와 60대라는 연령 차이가 있지만, 은퇴라는 생애사건과 이도향촌 이주에 대한 해석의 층위만을 본다면 이 사건이 이도향촌 이주에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례 6번] 다들 이제 시골(이라고)하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 다 가게 되는데 너는 지금 젊은 나이에 가려고 그려냐. 나중에 일 다 정년퇴직하고 그러고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왜 그 50~60대까지 미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50~60대 가서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당장 이 일을 해보고 싶고 이 길을 가보고 싶고. 현재 이, 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왜 내려놔야 되는거지?

혼인에 대한 의미 부여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앞의 5번, 7번, 13번 사례에서는 혼인이라는 생애 전환과 함께 이도향촌 이주가 일어났지만, 사례 8번이나 16번은 혼자였기 때문에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사례 8번] 제가 그냥 남편이, 남편이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었죠. 제가 하고싶은대로 했죠.

사례 10번과 18번에서 언급되는 자녀의 생애주기는 이러한 해석 가능성을 더욱 열어놓는다. 사례 10번과 18번은 성별도, 이주 과정도 서로 다르지만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한 시점을 설명할 때 자녀의 생애주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은퇴 후 이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했다는 점이 이주를 추동하는 영향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10번과 18번 사례에서는 자녀의 생애주기가 독특한 관점에서 해

석되어 이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사례 18번] 뭘 할 거면 애가 어릴 때 해야 할 거라는 그 약간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돈에 대한 의존성이 약할 때, 지금이 그만둘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하고 그때는 좀 성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례 10번] 더 빨리 오고싶었는데, 애들이 그 때 초등학교 다니고. 전세기간이 2년마다 되잖아요. 그 때마다 고민은 계속 했어요. (중략) 이제 큰 애가 6학년이 되고 작은 애가 5학년이 되고 연년생이니까.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이제 해가, 이번 해가 지나가면은 얘가 중학교를 가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못 올거 같더라고요. 더이상 애가 크면 학교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안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때 온 거에요.

이러한 내용들은 혼인, 은퇴, 자녀의 성장이나 독립과 같은 생애 사건들이 그 자체로서 이주 결정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오히려 이 사건들은 개별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한 단계 추상화된 차원에서 행위자의 삶에 '전환의 동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 사람들의 삶에 가하는 변화의 압력이 도시에서의 삶을 촌 지역에서의 삶으로 변환시키는 동력으로 전환되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생애 사건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크게 변동시킴으로써 변화의 압력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변화의 압력이 '거주지 변화'까지 일으키는 기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압력은 생애주기 사건 외에도, 일자리 요인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촉발 구조로 일자리 요인을 살펴본다[53].

53) '은퇴'는 생애 사건인 동시에 일자리 요인에 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자리 요인' 논의에서 살펴볼 사례들은 비슷한 직종으로의 이직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퇴직이라는 점에서 은퇴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은퇴는 노년기로의 진입이라는 생애사적 함의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생애주기 요인 항목에 배치하였다.

2) ‘유동적 상황’을 조성하는 일자리 요인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다른 요인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일자리 요인은 두 가지 방향에서 향촌 이주 결정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도향촌 모빌리티의 배경 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퇴직이나 이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도향촌 이주가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때 퇴직이나 이직의 발생은 고용안정성이나 직업적 지속성 전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즉 일자리 요인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직업적 전망이 지속적이지 않는 데서 오는 불안정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실제로 퇴사나 이직 등으로 직업적 연속성이 중단되는 데서 오는 유동적인 상황을 조성한다.

사례 6번은 이주 이전에 다녔던 직장 일이 너무 힘들었기에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직을 준비하게 됐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농촌 이주를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사례 6번] 근데 아무튼 그 전 직장에서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평생 직장으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고.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겠다. (중략) 근데 영업이 이제 조금 질려서 영업 관리라던지 다른 사무직 업무를 계속 알아봤었는데 그것도 좀 마땅치 않았고 잘 안됐고. 그래서 좀 그 기간이, 이직기간이 길어졌어요. 그 구직하는 활동이. 그 기간이 길어졌는데.

사례 16번과 18번 역시 이전 직장에서 자기자신은 물론 조직의 발전 가능성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일할 ‘전망’을 가지기 어려웠고, 이것이 퇴사와 이도향촌 이주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16번] (도시에서) 일을 하던 게, 많이 소진되고. 그 조직이 새롭게, 좀 다음 단계로 발돋움해야되는 단계가 됐는데, 성장의 측면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 성향과 저의 비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진된 '저',라는 실무자로 인해서 새롭게 혁신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영향을 많이 끼치니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쉬어야 되겠고, 혁신이 좀 필요하고 조직도 새로운 물이 좀 들어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겠다. 구체적으로.

직장 생활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특정 시점에 이도향촌 이주 결정을 추동한 계기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일자리 조건이 퇴사 혹은 이직으로 연결되었고, 직장을 그만 둔 상태가 생활 거점을 도시에서 촌 지역으로 옮기는 적절한 시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향촌 이주의 결정을 촉발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향촌 이주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촉발 요인이 된다는 점은 아래 사례 9번에서 좀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9번은 귀농에 대해 막연한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향촌 이주 계획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9번] 그냥 귀농을 결정을 한 거는 딱 우선 어렴풋한 마음이었다가 그냥 근데 저는 어렴풋한 마음이었지만 회사를 다닐 때도 약간 돌파구를 뒤진다는 느낌으로 항상 귀농·귀촌 카페에서 매물을 보고 있었어요. 작은 시골집을, 작은 땅이랑. 근데 보고만 있다가 한 번도 그걸 실제로 보러 간다던가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는데 그냥 저희 남편이 환경단체를 그만둔 다음부터였던 거 같아요. '진짜로 시골을 갈 거야'라는 느낌으로 제가 전투적으로 좀 그것(이사 준비)을 임한 거는 한, 3~4개월 됐나?

이렇게 이직이나 퇴직이 발생하는 데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자리의 고용안정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사례 3번, 11번, 16번은 NGO 혹은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12번과 18번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짧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사례 12번은 이전 직장에서 1~2년이면 인력이 교체되었다고 회상했고, 사례 18번은 6년 동안 일했지만 자신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 요인은 이도향촌 모빌리티의 맥락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유동적 상황을 조성하고 삶의 전환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자리 요인은 또다른 차원에서 이주 결정을 추동하는 계기로 작동하는데, 그것은 이주 후보 지역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게 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이주가 촉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례 6번은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망설이게 되었던 부분이 지역에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에 확신이 없었던 것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주었다.

[사례 6번] 제가 시골생활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농사를 지을 건 아니고 만약에 가게 되면 귀촌인데, 내가 시골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시골에 가서 귀촌 하신 분들 보면은 예술을 하신다던가,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처럼 그냥 회사 생활 그냥 단순 사무직을 하다가 시골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중략) 만약에 그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알아보고 못 구했었으면은 아 진짜 내가 시골 와서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직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이후 사례 6번은 지역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일자리 요인과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지점은 이도향촌 이주가 흔히 비경제적 성격을 가진다고 논의되지만, 결정 시점이 일자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지역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적 요인이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선택' 단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며, 여기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러한 상황이 제3장의 지역요인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3) 이도향촌으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2010년대의 모빌리티 환경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전환의 압력'과 '유동적 상황'이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도향촌 이주'로 흘러가게 되는 원인을 2010년대의 사회구조적 환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서사는 이도향촌 이주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절에서 살펴 본 생애 사건이 주는 전환의 압력과 일자리 상황에서 오는 유동성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행위자들이 이도향촌 이주라는 선택지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적 환경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절은 이에 대해, 2010년대의 '모빌리티 환경'이 전환의 압력과 유동적 상황에 놓인 행위자가 보다 쉽게 '이도향촌 이주'로 흘러갈 수 있는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빌리티 환경'은 사회 전반의 모빌리티 증가를 의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도향촌과 관련된 구체적 환경을 말한다. 유동적이고 전환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도향촌 이주를 선택지로 쉽게 떠올리고 이를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증가를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환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현상의 새로운 환경적 특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서술 속에서 '삶의 전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서사는 기존의 귀농귀촌 담론이나 이주 논의에서 서술되는 것과 조금 다른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어떻게 정주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보다는 이주한다는 것, 삶을 바꾼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전망 -이동에 초점을 맞춘 전망-이 발견되는 것이다. 지역 공간에 대한 기대보다는 도시 공간과 도시에서의 생활로부터의 이탈 혹은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 많은 귀농귀촌 담론에서 향촌 이주는 농촌 지역에 대한 특정한 전망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그려지는 데 비해, 아래 사례들에서는 향촌 이주 이전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감정들이 더 강하게 서술되고 있었다.

사례 11번은 서울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느낌, 도시 공간에서 소진되었다는 체감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살았던 촌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다. 하지만 이 때 어떤 지역 공간을 선택한다는 의식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전히 서울에 있었을 수도"

있었고, “도시에서의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안적인 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봤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당시의 고갈된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촌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런 선택은 사례 11번 자신에게도 “좀 놀랍기도”했고 “홀가분한 마음”과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마음”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지역 공간에 초점을 맞춘 이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전환’ 혹은 ‘변화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이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더 적절해보인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촌 지역으로의 이주는 “이런 모든 걸 어떻게 딱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핑계”로 표현된다.

[사례 11번] 아 이런 선택(향촌 이주)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놀랍기도하고, 그래서 좀 신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쨌든 가서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많이 지쳐있어서 좀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게 되게 좀 쉬운 선택이었던 것 같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니까 또 도움도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쉽게. 그리고 여전히 서울에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 제가 하고 싶고, 할 일은 더 많거든요. (중략) 이제 도시에서의 삶 이란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갈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장소도 그때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않았고, 근데 또 부모님이 이런 일 을 하신다니까 어떤 이게 핑곗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또 말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좀 필요로 하신다.’ 이런 모든 걸 다 어떻게 딱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핑계가 돼서 가게 된 것 같아요.

사례 16번 역시 이도향촌 이주가 삶을 전환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자신은 “시골 출신이라 별로 시골 생활에 대한 환상도 별로 없”었지만, 삶의 전환과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주하던 도시를 떠났다고 이야기한다. 도시에서 활동가로서의 자신의 삶과 소속되어 있던 조직이 정체되었다는 체감은 그 상황에 대한 전환, “새롭게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이도향촌 이주는 그 수단으로서 실행되었다. 특히 살던 지역 공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전의 관계와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거주지 이동이 더욱 필요하였다.

[사례 16번] 그 전에 일로 관계된 사람들이 OO에 거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연락이 오고 제가 그 다음에도 일했던 조직에 개입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발생해서 일단은 좀 떠나야 되겠다.

두 사례는 향촌 이주에서 지역 공간의 의미에 비해 이동이 불러오는 전환의 효과가 훨씬 중요했다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 대한 의미 부여가 지역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와 대립하여 상호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모든 사례들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으며, 중간 범위에 속하는 사례들에서는 전환의 효과와 지역공간에 대한 전망이 복합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가령 사례 9번은 촌 지역으로 이주한 삶에 대해 여러가지 공간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도시를 떠나는 이동이 주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사례 9번] 그냥 되는대로 살면 되지 일단 벗어나는 게 좋다. 그냥 그렇게 이 삶을 떠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 자체가 좀 되게 기뻤고 그때는.

사례 15번 역시 농업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주했지만, 향촌 이주가 자신의 이전 생활을 "다 잊고", "리셋 되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설명하였다.

[사례 15번] 여기는. 저기,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리셋 되는 느낌이라고. 여기는 다 진짜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다 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도 고민했던 게. 진짜 머리 아프다. 막 내 삶을 리셋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중략) 근데 포기하는 용기가 없어서 포기를 못했지. 그런데 포기하고 나서 와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이 새롭게 있는 거에요.

이렇게 이도향촌 이주에서 전환이 주는 효과가 크다면, 전환의 의미가 클수록 지역공간의 가치는 도시와 가까울 때가 아니라 도시로부터 멀수록 높아질 수 있다. 정일홍, 이성우(2010)은 2010년대 이전 이도향촌 이주를 분석한 연구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민의 선호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내 지역과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권, 충청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구들, 가령 송미령 외(2015)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이도향촌 이주의 목적지가 전국 범위로 확산되는 추세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였다. 전라권이나 경북권 귀농귀촌인 중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나, 수도권 인구의 이동거리가 길어졌다는 결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은 향촌 이주 경험 속에서 다양한 모빌리티의 추동이 함께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사례 9번]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힘들면 확 뒤집히고 뒤집히고 이런 거처럼 또 저희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 같아요. 결정도 그렇고 지금 여기 와서 사는 건가 좀 거의 다 충동이고 우연이고 근데 가벼운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사실 저희 겨울 나느라고 태국에 3개월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또 너무 좋아서 온갖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렇게 태국에 가면 (중략) 엄청 자유로웠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가끔 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디를 가게 되지 않을까? 그냥 여기 OO에 있는 지금 너무 좋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기에 뿌리박혀 사는 삶이 답답해서 근데 이제.. 커피트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캠핑카처럼 해서 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다음으로 둘째, 이동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는 맥락과 함께 '촌 지역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배경적 요인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추동되는 주요한 환경이 된다. 이 절에서 살펴 본 생애 사건의 압력과 일자리의 유동적 상황에 앞 절(1절)에서 살펴 본 배경 요인들이 맞물려 작용하면서 이도향촌 이주가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래 사례 9번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례 9번] 2013년에는 이제 OO구(서울)가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만 해도 도시 텃밭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오기 전까지는 도시 텃밭, 그, 밭 일하구, 학교 텃밭 수업, 방과 후 수업 강사 같은 거 좀 하다가. 이제 그냥, 되게 충동적으로 OO, 여기로 오게 됐어요.

사례 9번은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한 시점만을 놓고 본다면 배우자의 퇴사를 계기로 생태적 가치 추구형 귀촌을 실행한 이주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전략에 따라 배경 요인과 모빌리티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주 과정을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다. 사례 9번은 위 인터뷰에서 이도향촌 이주의 계기를 '충동적으로 오게 됐어요'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충동적 이동이 가능하게 된 맥락으로 2013년 서울지자체의 '도시 텃밭 활성화'와 9번의 유년기에 경험하고 형성한 자연친화적 환경에 대한 선호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사회적 정황은 1997-98년 경제위기 시기의 귀농이나, 2010년 이전의 초기 귀농귀촌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상황과는 매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지역으로의 이동 경로 '선택' 단계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2010년대에는 전환의 압력과 상황의 유동성이 촌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경로가 열려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3. 선택: 이동의 경로 설정

'선택' 단계는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한 이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이다. 이주 과정에서 '배경'과 '결정'이 실제 이주로 연결되는가에 따라 층위가 구분되듯이, '선택' 단계는 이도향촌 이주를 결심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탐색하고 한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촌 이동 결정과는 다시 층위가 구분된다.

이도향촌 모빌리티에서 결정과 선택의 층위가 구분된다는 것은 이 이주의 성격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전통적인 인구이

동이론은 이주 과정을 현재 거주지(출발지)와 하나 혹은 복수의 이주 후보지(목적지)의 조건을 비교하고, 이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이주 비용보다 더 클 경우 이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설명 모델에서 이주 지역을 선택하는 것과 이주 결정은 분리되는 단계가 아니라 동시적 과정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2010년대 향촌 이주 경험 속에서 향촌 이동의 과정은 많은 경우, 도시를 벗어나겠다는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촌 지역'으로 후보 지역 공간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고, 그 중에서 한 지역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후 이주 행위가 실천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인구이동에서 설명하는 인구이동 모형과는 차이를 보인다[54].

다만 이 '선택' 단계는 이주 행위자가 여러 후보 지역 물색하고 비교·선택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구이동 기제 모형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제3장에서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비도시적 이동 지역의 요인들을 분석 한 결과를 일정 부분 참조하여 본 장의 분석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 절은 향촌 이주를 결정한 행위자가 여러 후보 지역을 탐색하고 한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도향촌 모빌리티가 흘러가는 경로가 탐색되고 설정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결정 단계에서 발생한 모빌리티의 잠재적 상태가 실제 특정 지역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정해져야하는데, 이 목적지까지로의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도출할 것이다. 분석 결과 도출되는 첫번째 주제는 그 지역과 연구참여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인데, 이 요인들은 행위자와 연고가 있는 가족, 친척, 지인들인 경우도 있고, 귀농귀촌교육기관이나 지자체 행정기관일 수도 있으며, SNS 같은 미디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두번째 주제는 이주를 고려하는 행위자가 그 지역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체험하게 되는 자연환경, 풍경과 그 느낌이다. 세번째 주제는 거주할 수 있는

54) 물론 실제 행위자들의 경험 속에서는 결정과 선택의 층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례들도 발견된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모빌리티가 배경-결정-선택-실천이라는 선형성으로 도식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배경-결정-선택-실천의 단계를 나눈 것은 이 장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자의 경험이라는 대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동원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수용될 여지가 있다.

공간(집)을 마련하는 문제와 지역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지역의 원주민, 기존 귀농귀촌인 및 관(官)과 이주 희망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1) 지역으로의 통로가 되는 사회연결망과 제도

이도향촌 이주를 결정하고,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행위자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지역과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경로는 '사회연결망'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연결망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 친척, 지인들이다. 이들을 통해 지역에 진입하는 경로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알고있는 사람들로 이뤄진 관계망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진입하는 경로가 되어주는 사회연결망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다. 페이스북, 온라인카페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면식이 없더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두번째 경로는 '제도'로 묶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전국귀농운동본부나 전여농(전국여성농민총연합), 지역재단 같은 시민·환경 단체들이 제공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귀농귀촌 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을 한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각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각 개념별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사회연결망을 통한 연결

사회연결망을 통해 지역과 연결되는 사례에서 사회연결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연고(緣故) 지역'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온,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친척이나 지인의 관계망이다.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도시 지역(동 지역)에서 촌 지역(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 2번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사례 5번, 7번도 포함된다. 사례 10번은 외가가

있는 지역에서 향촌 이주 전부터 농사 일을 도운 경험이 있었고, 귀농도 인근 지역으로 하였다. 이들 사례는 가족·친척이 이주 지역과의 연결 경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고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바로 이주 후보 지역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동시에 드러났다. 사례 13번이나 16번은 본인 혹은 배우자에게 연고 지역이 있었지만, 이주 지역을 선택할 때 오히려 배제되는 지역이 되었고, 비연고 연결망을 통해 이주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연고가 없는 지역이 자신들의 이주 목적에 좀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5장 향촌 이주자들의 지역공간 전망에 대한 분석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사례 16번이 고향이 아닌 다른 촌 지역을 이주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사례 16번은 촌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시골 공간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선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단지 지인을 통해 살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주 지역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라고 설명한다. 물론 이 지역 공간의 여러가지 다른 특성들, 예를 들어 젊은 귀농귀촌인이 많이 살고있다는 요인도 이 지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례16번] 같은 모(母)법인에서 활동하던 활동가가 일 년 전에 미리 내려와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 통해서 집을 세 번 정도 여기 내려와서 보면서, 내려오게 됐어요. (중략) 저는 시골 출신이라 별로 시골 생활에 대한 환상도 별로 없고. OO은 일단 그 지인이 집을 얻어줄 수 있다. (중략) 어쨌든 집을 전국 어디 가서 모르는 지역에 가서, 고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 가서 집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고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죠. 안전한 집, 안전한 뭔가 관계에서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인 있는 곳, 그 사람이 집을 구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오게 됐고 그 전에 OO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죠 간접 경험이. (연구자: 어떤 경험일까요?) OO 의료생협이나 OO학교나,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거 관련돼서 유명한 곳이다. 잘 되고 있다. 도서관도 만들고 필요에 의하면 뭣도 만들고 하는 유명한 곳이다. 이런 것들, 사전 지식이 약간 경험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된 이유도 두 번째 이유인 거 같아요.

이상의 사례들은 혈연 관계이든 비혈연 관계이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지역을 소개받고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연결망을 통해 지역에 접속하지만, 그 연결망이 면식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즉 언론 미디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이 닿고, 이들을 통해 지역을 소개받는 경로라는 점이 주목된다.

사례 8번은 잡지에 소개된 귀농인 기사를 읽고, 잡지사를 통해 해당 귀농인의 연락처를 얻어 연락하여 그 지역에 이주한 경험이 있다. 사례 8번은 촌 지역에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에 소개된 귀농인 기사에서 자신이 혼자 귀농할 수 있는 경로를 참조할 수 있는 기회를 읽어냈다. 출판사에 연락하여 기사에서 다룬 귀농인을 소개받았고, 그 귀농인의 초대를 받아 마을에 가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 내의 다른 귀농인 커뮤니티를 알게되어 그 커뮤니티에서 1차 귀농 생활을 시작하였다.

[사례 8번] 그 아까 말한대로 가톨릭 농민회 잡지에, (중략) 거기서 소식지가 왔는데, 이름이, 지금은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수녀 생활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농사짓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의 글을 보고 내가 비슷하게 저도 가서 혼자 살아야하니까. 일단 그 기사만든 분,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분 연락처 좀 알려달라. 이메일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니까, 연락처를 주시면서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일단 갔죠. 그런데 뭐, 연고가 없으니까 어디든 가야 되니까 일단 갔어요. (중략) 귀농한 자들 몇 중심으로 모여서,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문화 생활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농하고싶다고해서 왔으니까, 온 김에, 그럼 여기 시골집이 있다, 와서 살아봐라, 해가지고.

사례 13번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한 귀농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방문했을 때 마을주민들을 만나 환대를 받은 것이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사례 13번] 어, 정보는 일단 저희가 귀농한 OO면에 (먼저) 귀농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의 페이스북을 어떻게 알게돼서, 그냥 진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귀농지를 막 여기저기 보다가. (중략) 어, 그럼 이런 분이 귀농한 이런 동네도 있네? 하면서 가봤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향촌 이주자들을 알게되고 소식이나 정보를 얻게되는 경우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그리고 이주 지역 선택 단계뿐 아니라 이주 후의 생활 속에서도 자주 발견되었다. 이런 경로가 널리 공유되고 있기에, 사례 12번 역시 향촌 이주 단계에서 같이 이주할 '친구들'을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페이스북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 이런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바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결망이 아닌 비연고 연결망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 지역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지역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흥미롭게 발견되는 점은 오늘날 귀농귀촌 담론이 단순히 '롤 모델'로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를 통해 귀농귀촌 이미지가 소비되고 이것이 이동을 추상적으로 추동하는 방식을 넘어서, 담론이 유통되는 공간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후 논의에서 살펴보겠지만 촌 지역에서 집과 땅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착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연결망을 통해 지역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경로가 더욱 중요하다.

(2) 제도를 통한 연결

다음 사례들은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정책, 제도를 통해 지역과 연결된 경우이다. 주로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사례 18번은 퇴사 후 귀농을 결정한 후, 이주 지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로 이 지역에 위치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풀무학교 전공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례 18번] 왜 왔냐면, 여기 풀무학교가 있어요. 풀무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 풀무학교의 부속기관으로 2년제 대학과정이 있습니다. 풀무학교 전공부라고 하는데. 생태농업이라고 하는 한 가지 전공을 가르치는 학제라고 저도 들었는데. 거기 입학을 해서 2년 공부를 했고. 거기 졸업을 하고.

사례 6번은 향촌 이주에 대한 막연한 탐색 속에서 전국적 범위의 이주 후보 지역을 현재 거주 지역으로 좁히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귀농귀촌 학교였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특히 귀농귀촌 제도의 효과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많은 지역 중에서도 귀농귀촌 교육 기관이 있는 지역이 보다 우선 순위의 이주 후보 지역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지역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가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의 근거는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내실있는 교육 내용이었다.

[사례 6번] 이런 귀농학교들이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맡기다 보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딱 되어 있는게 아니고, 왜 사이트들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그냥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여기 OO귀농학교는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계속 활동하는 것도 계속 업데이트에서 올리고. 이런 활동을 했다, 작년 기수는 이런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러면서 교장 선생님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뭔가 되게 활성화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할 거다,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들은 막 사이트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도 모르겠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막 사진들도 계속 올라오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볼 수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몇 가지 중에 추리다가 확, 여기는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한번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받으러 갔었죠.

지금 살펴본 사례 6번이나 18번에서 제도는 향촌 이주를 결정하고 이주 지역을 탐색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으로의 경로를 확보하고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도는 다른 방식으로도 작동하는데, 이미 지역에 유입된 인구가 '귀농귀촌'의 틀로 포섭될 경우에 이들이 지역에 쉽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사례 16번은 이주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인이 집을 얻어줄 수 있었다는 것과, 이곳에 귀농귀촌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 농촌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좀더 적응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지역 선택에 귀농귀촌 정책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그러나 이주 후 생활에는 정책의 지원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내 생애 첫 농지구매 지원', '청년부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청년 농부 바우처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사례 17번 역시 지인을 통해 지역을 소개받아 이주하게 되었기에 제도를 통한 지역 선택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주 후에 지원사업의 혜택을 통해 정착에 도움을 받고있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제도'가 현실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활용,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도향촌 과정의 단계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작동은 제3장의 지자체 정책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가 명료하지 않게 도출된 것과도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3자에서 귀농귀촌 혹은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을 복지 예산집행 변수와 농림수산 예산집행 변수가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촌 이주자가 지역 선택 단계에서는 지원정책의 크기를 고려하기 보다는 지역을 탐색하는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연결망 경로와 제도 경로 모두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직접 지역을 탐색하는 것에 앞서서, 혹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관련 온라인 카페, 카톨릭농민신문, SNS 등을 통해 이주 가능 지역을 탐색하는 양상이 자주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 담론'이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향이 도시이거나 지역에 연고가 없는 향촌 이주자들은 대부분 정부나 기관이 제공하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 제도에 접속하거나, 귀농귀촌을 주제로 다루는 언론·출판 미디어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지역을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연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귀농귀촌 담론이 단순히 이미지만을 창출하거

나 롤모델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서는 작용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분석 결과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빌리티의 모습이 정책/미디어에서 호명하는 모빌리티와 차이가 있을지라도, 현재 귀농귀촌 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미디어 담론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간다!"는 식으로 이주가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담론이 일종의 사회연결망을 제공해주는 장이 되어 실제 귀농귀촌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도나 정책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기능함으로써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경관으로 해석되는 지역의 자연환경

앞의 사회연결망과 제도 공간이 이주 지역 범위를 좁히고 연결하는 '통로'였다면, 그렇게 연결된 지역으로의 이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것은 지역과 이주 행위자 간의 모종의 상호작용들이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첫인상', 마을의 '분위기' 같은 언어로 표현되는 향촌 이주자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개념화할 수 있다. 첫째는 그 지역의 풍경, 경관으로 표현되는 '자연환경'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지역을 방문하고 탐색하면서 지역 내 주거 공간과 경제적 활동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의 마을 거주민, 즉 향촌이주자의 잠재적 이웃들과의 상호작용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에 연결된 행위자들이, 지역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그 곳의 자연경관과 공간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의 주거와 경제활동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하며, 그 마을 공간에 성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과정이다. 이 때 이주 예정자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은 이주 예정자가 지역을 평가하고 배제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 역시 이주 예정자(혹은 후보자)를 평가하고 배제 혹은 환대하는 과정이 상호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 첫번째 요인인 자연환경에 대해 검토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자연환경'은 이도향촌의 전체 맥락 속에서 배경 단계와 선택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사

례에 따라서는 자연환경이 이도향촌 과정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도시 공간과의 비교에서 촌 지역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자연환경이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가 배경 단계에서부터 주요하게 등장했던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지역 공간의 자연환경을 하나의 풍경 또는 분위기로 인지하게 된다. 아래 사례 6번의 서술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풍부하게 드러난다.

[사례 6번] 저는 약간 여기 딱 왔을 때, 여기가 그 북한강 흐르는 파로호라고 거기가 되게 멋있어요. 약간 저는 그 풍경에도 반한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이쪽 동네 풍경들을 보니 뭔가 너무 좋은 거에요. 그래서 어 약간 그런 쫌 그냥 감정적인 그런 끌린게 또 있었던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풍경이었나요?) 아아.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니까 저는 강원도는 아예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또 이쪽은 되게 춥잖아요. 제가 추위도 되게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나는 따뜻한 전라도를 가야되겠다. 근데 그쪽 밑에 지방보다 여기 강원도가 산이 되게 멋있잖아요.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와보니까 그런 산의 절경들이 너무 멋있는거에요. 뒷배경에 웅장한 산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로호가. 꼬불꼬불하게 호수가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그 호수가 더 되게 새파란거에요. 그래서 뭔가 새파란 그런 뭔가 북한강이 흐르는 모습과 뒤에 있는 그런 산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어리(Urry)는 근대 모빌리티의 발달을 추동한 원인으로, 19세기 서양에서 정점에 이르렀던 '시각화의 발달'을 꼽는다. 신성하면서도 두렵고, 외진 공간이었던 황야나 광할한 자연이 시각적으로 '조망'이 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이미지나 풍경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러한 풍경화된 자연을 '방문'하고 '여행'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관광 모빌리티를 위시한 이동의 흐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Urry 2014: 143-145).

그동안 농촌 이주 현상을 다룬 논의에서도 농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미적으로 추구하는 이주 양상을 '연성 이주'나 '문화적 이주'의 개념으로 설명해 온 바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서사 속에서도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연경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어렵지않게 발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도 단위의 지역을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래 사례 6번이나 9번과 같이 같은 지역 내에서 사는 곳을 고르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례 6번] 네에. 제가 처음에 집을 알아볼 때도 일단 여기에 정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집을 알아볼 때 제가 사는 이쪽 동네는 전 월세가 없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음... 읍내까지 알아봐야 되나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읍내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도시 느낌인거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런 풍경과 이런 뷰를 볼려고 시골로 온 것 아니었기 때문에 읍내까진 나가기가 싫은 거에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좋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집을 알아본다고 했을때, 저는 약간 그렇게 북적이고 그런 도시 느낌의 도시 느낌의 그런 쪽은 안볼 것 같아요.

[사례 9번] 제가 약간 올라가서 산을 보는 풍경을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진들에 혹 해가 지고 실제로 보러 갔는데. (중략) 이제 옆에 있는 산 풍경이 너무 좋았고 거기에 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냥 집이 겉모습이 귀농인이 지은 집이니까 한옥골 흙벽돌 집이었는데 그 처음에 귀농할 때 막 머리로 그렸던 집들 있잖아요. 나무로 지은 집 흑으로 지은 집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고, 그 앞에 보이는 산이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한편 앞서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연경관'은 추상적 개념 그대로의 자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주 행위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고, 추구하고 있었다. 가령 아래 사례 13번의 서사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시각적 풍경보다는 '아늑한 느낌'과 '냄새가 없는 깨끗한' 공간의 느낌으로 구성되고 있다.

[사례 13번] 그 산세나, 그 어떤 환경적인 느낌? 그러니까 막 평야지대가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 속에 아늑하게, 폭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좋았고. (중략) 깨끗함? 그 처음 귀농한 그 마을도, 축사가 없었어요. 축사가 없어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마을이었고.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자연환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망되지만, 도시 환경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상상되고 모색되면서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영향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지않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촌 지역의 공간적 특징보다는 모빌리티적 특성, 즉 특정한 장소로의 정착이 목적이 아닌, 일종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향촌인 경우에 자연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앞에서 살펴 본 사례 16번은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 대한 환상도 없"기 때문에 자연경관의 우수성보다는 '구할 수 있는 집'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고, 아래에서 사례 18번 또한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흥미가 있을 뿐, 전원적 풍경 속에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로망'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초기에는 농가에서 살았지만, 배우자의 요청으로 현재는 읍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사례 18번] 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농사 직접 하고 그러니까, 집 짓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집 짓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남이 지은 집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와이프가 평생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라 시골집이 무서웠나봐요. 나중에 (읍내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층간 소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동물 소리 들리면 무섭고, 제가 늦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외딴 집이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또한 농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온, 작물 재배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례에서는 작물을 정하여 그에 맞는 지역으로 이주한다기보다는 이주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주와 농업이 시작되었다.

[사례 8번]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농사, 귀농 하는게 중요하지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지역의 자연환경이 단순히 자연 그 자체로 구성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도향촌 행위자는 자신의

맥락과 서사 속에서 자연환경을 인지하고 이를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 자연경관으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제3장에서 나타난 지목별 토지 면적의 비중과 이도향촌 이주 간의 모호한 관계를 일부 보완하여 설명해준다. 즉 이도향촌 이주에서 작동하는 지역의 '자연환경'은 의미함축적으로 구성되며, 이 구성과정은 행위자가 기반한 맥락과 해석 방식[55]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3) 거주 공간과 생활 방편의 마련

이주자들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귀농귀촌 담론에서도 촌 지역에서 살 집을 구하고 먹고 살 만큼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향촌 이주자들의 이동이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일자리 혹을 집이 '구해져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독특한 양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다음 사례에서는 지역에서 생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 선택의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사례 14번은 처음 계획은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독립적으로 농지를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귀촌으로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고, 배우자가 지역 한살림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 이주로 바로 이어졌다. 사례 3번과 4번 부부의 경우도 비슷하다.

[사례 14] 와이프는 지금 회사를 다니다가, 저희가 이제 연고가 따로 없이 다 내려왔어요, 이쪽에. 그래서 근데 이제 한살림, (이 지역) 연합회 총무 자리가 났는데 지원을 했어요, 거기, 내려오기 전에. 근데 이제 그래서 면접 날도 따로 내서 면접도 보러 오고 했는데, 결과가 좋게 돼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쉬지 않고 바로 내려와서 같이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와이프는.

---

55) 이때 행위자의 해석 방식에 어리(2012)가 논의했던 '대지'와 '풍경' 개념이 분화되어 발달해 온 사회적 맥락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논의에서 '대지'는 하이데거적 거주의 장소이며,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물질적이고 형태를 가진 자원이다. '풍경'은 이에 대비되는, 모빌리티적 성격을 내포한 개념으로, 관광객이나 여행자들의 시각적 소비에 의해 구성된 무형의 자원을 뜻한다(Urry 2012: 231-233).

[사례 4번]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연고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지인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보니까 힘들었는데, 마침 여기(배우자) 직장을, 결혼을 하기 전에 직장을 알아보다가, 직장이 딱 홍천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게 됐어요. 이곳으로. 직장 때문에.

다음으로 일자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빈 집'이다. 촌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과정은 도시에서의 집 거래 과정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존재하는 '빈 집'은 여러가지 복잡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지역에 존재하는 집은 비어있다고 해서 누구나 돈을 지불하고 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아니다. 촌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가가 사례 10번의 경험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사례 10번] 남편이랑 같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보증금 백에 월 20이었나? 그래서 연세로 240만원을 주고. 거주할 생각하고 갔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게 상가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의 꼭대기 층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에요. 오래된 상가다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닌데, 빨리 땅바닥에 있는 촌 집을 가자, 그래서 촌 집을 하나 구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전세로만 내놓으신대서 잘됐죠. 까먹을 일이 없으니까. 전세도 엄청 쌌어요. 천6백만원에 전세를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집을 살다보니까, 제 집이 아니니까 수리를 하기가 아까운 거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집을 살기좋게 만들어놓으면, 나가라고 그러고 딴 사람 세를 준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팔라고 그러면, 요즘에 잘 팔지는 않으세요. 그게 자녀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시골집을 누구한테 물려주면 돈이 얼마 안하는데, 그냥 돌아가셔버리면 자녀들이 공동명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동의를 해야지만 판단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 팔아봤자 돈 이천만원도 못 받으실 집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어느정도 살만은 하거나, 살지 못한다해도 그 이천만원을 사남매 오남매가 나눠가지려고 몇 백만원을 가지려고 고향집을 없애버리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요새는 거의 안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팔지를 않아요. 집이 허물어져도 안팔고. 또는 나중에 장남이 들어온다고 안 팔거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의 이주 지역은 앞서 살펴 본 사회연결망이나 제도, 자연공간의 느낌같은 요인으로

정해지지만 좁은 범위에서 주거 공간이 정해지는 것은 그곳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 혹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사례 18번은 어떤 선택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나온 집을 바로' 선택했다고 표현한다. 사례 17번에도 유사한 맥락이 나타난다.

(사례 17번) 그게 이자 구하고 싶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다보니까, 땅이라는 게 다 마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웬만해서는 안 파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땅을 더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 지을 괜찮을 땅이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양상은 지역의 마을 주민, 선(先) 귀농귀촌인, 이장과 같은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자연풍경, 그리고 '빈 집'이라는 독특한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제3장에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유입인구가 줄어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추론적 설명을 제공해준다. 앞서도 논의하였지만, 빈 집이 많아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을에 이미 주택이 많은 경우보다는 땅을 구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이주가 쉬울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4) 마을 주민의 환대

마지막으로 이주자들이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마을의 환영이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 본 일자리 혹은 살 집의 '구해짐'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원주민의 텃세'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이주 희망자들은 지역 주민의 환대가 느껴질 경우 그 지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데 마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례 13번] 마침 그 날(마을을 찾아간 날) 겨울이었는데 농한기니까 다들 마을회관에 모여계셨던 거에요.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마을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농하려고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하니까 다들 너무 환영하시는 거

죠. 그리구 마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귀농지를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 거에요, 그냥.

[사례 6번] 1년 동안 (귀농학교에) 있으면서 여기 마을 분들도 많이 알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정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난 분들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 사람적인 부분도 컸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싶다, 이 동네에서 이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연고가 없는 이주자,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적은 이주자는 마을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도 이주 후에도 마을의 도움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험들이 자주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이주 시점을 분석한 다음 4.항목에 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4. 실천: 이동의 다양한 '무게'

마지막 '실천' 단계는 이도향촌 이주 행위자들의 신체와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소지품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모빌리티 현상에 대한 것이다. 이주 경험을 일종의 모빌리티 현상으로 재구성한다면, 이주의 움직임에서 이동하는 신체와 사물들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된다. 그리고 이 규모에 따라 이주 지역과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향촌 이주 모빌리티에는 다양한 '무게'가 있으며, 지역 공간이 이 무게에 반응하는 양상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 다양한 무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다. 하나는 이동하는 신체의 무게로, 1인 가구인지, 가족 이주인지, 여러 명의 친구들과의 이주인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본 크기에 따른 차이로, 자본이 없이 지역에 이주하는 경우와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이주하는 경우 지역 공간에 융화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분석 결과, 대체로 모빌리티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지역에

쉽게 융화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었다.

1) 가구 형태

이도향촌 사례들을 살펴보면, 혼자 이주하는 경우, 가족과 이주하는 경우, 그리고 비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례들 중 혼자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6번, 8번, 19번이었다. 각 사례들의 '이사 당시'에 대한 회상은 가족 단위 이주보다 좀더 간결했다. 사례 12번은 친구들과 함께 이주했지만, 각자의 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혼자 이주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가벼운' 이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19번] 이사를 할 때. 애초에 짐이 없었어요 제가. 짐이 별로 없었어요. 책이나 이런 자료들, 컴퓨터 한대. 그게 짐의 전부여가지고. 제 차로 두 번 왔다갔다 했던 거.

[사례 12번] (이사는) 일사천리로 했고. 왜냐면은 대규모 뭐,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서.

이에 비해 가족들과 이주한 사례 17번은 이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사례 13번도 부부가 이주할 때는 컨테이너형 거처에서 생활했지만,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는 아이들의 위생과 건강 문제로 새로운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17번] (이사할 때 어려웠던 것은) 집 구하는 거였죠. 집. 마땅히, 예를 들면, 청년들은 장·단점이 있는데, 돈이 없고 혼자니까 청년들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나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농촌에 집이 없으니까 집 구하는 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13번] 저희가 컨테이너에 있다가 왜 이사를 나왔냐면, 이게 밑에 시멘트 공구리 마감을 안 해서 쥐가 들어왔어요. 주방 배관을 갉아먹고 집 안에, 집안

으로 쥐가. 쥐가 막 들락날락 하고, 막, 제가 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쥐똥을.. 쥐똥이 막. 그런데 그때 둘째가 걷지 못하고 기어다닐 때에요. 그래서 똥 냄새, 쥐똥 냄새 나고. 애들한테 너무 안좋은 거에요. 그래서 당장 나왔죠.

이주하는 가구의 크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동의 규모, 즉 '이삿짐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주 후에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주 가구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경우는 1인 가구로 이주하는 경우다. 혼자 이주했던 사례 6번과 8번의 경험 속에서는 '혼자'인 자신을 챙겨주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이들과 친구가 되고 어울리는 경험이 좀더 눈에 띄게 서술되고 있었다.

[사례 6번] 그래도 좋은거는 뭔가 이렇게 더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시골에서는 그런 시골의 정이라고 하나? 혼자 와 있다 보니까 요리도 잘 못하고 밥은 챙겨먹나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먹을꺼 엄청 잘 챙겨주시고, 그런 약간 시골정을 되게 많이 느껴요. (중략) 그냥 어르신들하고 생활하는 게 되게 좋더라구요. 정겹구.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도란도란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농담하고 이야기 하는것도 너무 좋고.

혼자 지역으로 이주했기에 주변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적응하는 게 더욱 중요한 필요성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사례 6번은 이러한 경향을 이주하기 전에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음을 느꼈다는 설명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사례 8번도 여성 농업인으로 자리잡기위해 자신과 "띠동갑"인 어린 친구와 함께 농사를 지은 경험을 회상했다.

[사례 8번] 그 마을에 또 그 거기서 나고 자란 아가씨가 있었는데, 저랑 띠동갑이었는데, 12살 아래죠. 근데 그 친구는 농고 나와서 계속 농사만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또 여성이니까 농사 배우기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1년 동안 그 친구랑 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가족과 이주한 사례나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주한 사례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나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좀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령 사례 5번은 배우자의 연고 지역으로 결혼하면서 이주한 경우인데, 배우자와 함께 연결되는 관계맺음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사례 5번] 서울에서는 '남편 친구 여자친구다', 그럼 모르게 지내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런 관계까지) 항상 신경을 써야 해요. 좁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물론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좁은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요. (중략) 남편 친구들이 저를 보고 누구 와이프다. 어디서든 오빠 친구들이 저를 볼 수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사례 12번은 혼자 이주한 경우에 비해, 여러 사람이 이주할 경우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주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사례 6번과 8번에서 볼 수 있듯이 홀로 이주한 청년은 가르쳐주고 챙겨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관계맺음이 이뤄졌지만, 사례 12번에서는 여러 명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도 하겠지"라는 기대가 함께 부여되는 방식으로 관계맺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서로 어긋날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이 어긋남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 이주자든 지역주민이든 관련된 사람들은 '상처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례 12번] 뭐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한테 기대를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니까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거 할 거야 이런 기대를 막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되게 호혜적으로 배풀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당연히 어른들이랑 젊은 세대랑 할 수 있는 건 다르지만, 저희는 갖고 있는 게 없고. (중략) 그래서 이장님도 너무 큰 기대를 하셔서 저희한테 실망하셨던 것 같고. 저도 너무 큰 기대를 해서 상처 받았던 거 같고.

이 사례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이주 행위자들의 이도향촌 이주가 도시 거주자들에게만 전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사회도 이도향촌 이주에 대해 특정한 기대와 전망을 형성한다는 점을 이 사

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망 간의 관계성과 역동성이 이도향촌 이주자의 생활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역 사회도 이도향촌 이주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양상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5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한편 12번 사례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일방적인 타협하는 방식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이주자들 간의 협력과 대응 등이 개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가능성을 사례 12번의 이어지는 아래 서술에서도 읽어낼 수 있었다.

[사례 12번] 그래서 그런 이야기(지역사회가 이주 청년들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끼리는 웃어 넘겼어요. 웃어넘겼고. 어떤 건 웃어넘겼지만 어떤 건 마음 속에 남았고. 그래서 저도 상처받고, 영화찍던 친구도 상처받고. 이장님도 상처받았겠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친구들이랑 웃어넘기는 부분이 많이 역할을 했죠.

이상의 분석에서 발견되는 지점은 이주 행위자의 규모에 따라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신체의 '무게'로 개념화하여 '질량이 무거울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비유로 현상을 해석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자본의 크기

각 이주 사례에서 무게의 차이가 드러나는 또다른 차원은 '자본'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경제 규모이다. 이 자본은 이주민의 실제 계급적 위치나 재산 규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주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집과 땅을 구입했는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농)경제 활동을 시작하는가를 뜻한다.

자본의 크기도 가구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커질수록 이주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자본의 크기가 작은 이동은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무난하게 편입되거나 호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집과 농지를 구입

하려하거나 사업체를 꾸리려는 시도를 하기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준비기간과 지역사회와의 사전 교류가 쌓여있어야 갈등이나 분쟁, 지역사회의 거부를 우회할 수 있었다.

먼저 자본의 크기가 작은 이동이 비교적 지역사회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음을 사례 3번과 9번이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이주 규모를 "텃세를 부를 깜냥도 안"된다고 표현하거나, "정말 없이 와서"라고 표현하였다.

[사례 9번]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저희 되게 좋아요. 그 여기가 귀농하신 분들 귀농 안 하신 분들 그런 경계랑 벽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다들 잘해주세요. 그니까 뭐 심술을 부리거나 텃세를 부리거나, 그니까 저희가 텃세를 부를 깜냥도 안 되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아마 향후 30년 정도 마을에서도 가장 젊은이일 거 같은데. 이제 뭐 그렇게 할 깜냥도 안되고 저희는 그냥 집을 오자마자 좋은 걸 짓고 이렇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도움이 없이는 애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농사도 가보면 자연농 한답시고, 보면 다 풀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 할머니들이 와 가지고 '내가 젊을 때나 이렇게 풀을 뽑았지, 지금은 약이 좋은 게 많은데 왜 이러고 살아' 하시면서 풀 뽑아주시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사례 3번] (귀농귀촌) 교육 받으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에요. 텃세. (중략) 그런데 저희는 정말 없이 와서 그런 건지.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왔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텃세를 받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약간의 자산이 있다고 해야하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텃세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연고지 없이 온 케이스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아 이런거는 또 이렇게 그렇구나. 그랬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적응은 잘 한 거 같더라고요.

더욱이 사례 13번은 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거형 컨테이너를 거처로 만들고자 했는데,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과정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이주자가 자본이 많지 않고 이주와 정

착에 지원이 필수적일 때,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나서면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례 13번] 인제 공사하고 그 컨테이너를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복잡한지 저는 그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중략) 전혀 몰랐는데.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정화조 설치도 땅에 묻어야 되고, (중략) 막 그런 것들이 진짜 땅을 파서 수로를 묻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마을 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마을 분들이, 대가를 안 받으시고. 본인도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중장비나 기계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랑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땅 파주시고, 마을 관정에서 수도 연결해서 막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름에는 열이 많이 받는다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얘네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을분들이 대책회의를 하신 거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쓰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앞뒤로 비닐하우스를 좀 길게 씌워서 앞뒤로 창고처럼 쓸 수 있게도 하고, 비도 안 들이치게도 하고. 그거를 또 마을 분들이 공사를 다 해주셨어요.

반면 이주에 수반되는 자본의 이동이 규모가 커지면 그 크기만큼 사전 준비와 적응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음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움직이는 자본의 크기만큼 지역사회에 융화되는 데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사례 2번은 어느 정도 은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였고, 마을에 잘 융화되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교류해왔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2번] 저는 언젠가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이제 거기 면장을 찾아가서, 우리 합창단을 만들자 내 전공이 음악이고 합창을 잘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계기도 제가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서 왔다갔다 했잖아요.

자본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주자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을 모으기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이동에 수반되는 자본 손실의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관계 형성도 좀더 신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기간과 관계 형성이 움직이는 자본의 크기만큼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기존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연구 참여자들의 조언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 8번] 1억 정도 가져갔는데. 지금도, 땅을 사려고 가지고는 있죠, 계속. 못 사고 있어서 그렇지. (중략) 그런데 이제 진짜 한 푼도 없이 와서 벌면서 하겠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와서 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일을 바로 하면 괜찮을 것, 되긴 돼요. 될 거 같아요. 바로 직장을 갖는. 직장을 구하려면 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무직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고. 아니면 그냥 품 일 있죠. 봄부터 가을까지. 자기 농사 없이 품일만 하셔서 먹고 사는 여자 분들이 있어요. 그냥 품일로.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이 농사를 하겠다 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그런 써야 되는 비용도 그렇고. 조금 준비는 해 갖고 내려와죠.

[사례 17번] 도시에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디자인만 배웠으니까. (중략)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디자인)을 하려고 내려왔죠. 그거를 막 피피티로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막 선생님도 보여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때 말씀하신 게. '농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건 지역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지역이 어떻게 흘러가지는 지도 모르는데 이거 사업하겠다고 갖고 오면 누가 도와주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일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리고 지역의 이장님이나.

둘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큰 자본이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향촌 이주자의 이주와 생활이 더 주의를 끌게 되고, 걱정과 갈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례 10번이 이러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사례 10번] 다 욕먹을 일들. 귀농인들이 하는 활동들이, 저렇게 살려면 왜 왔냐. 엄청 질책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5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욕먹지 않았어요. 이제 서울사람들이 오면, 어쨌든 집 하나

로 몇 억은 들고 오잖아요. 전세금을 빼도 2-3억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왔어요. 땅 10만원도 안해, 한 평에. 얼마나 거저에요. 그러니까 그냥 몇 천 평을 산단 말이에요. 집도 짓고. 으리으리하게 집도 짓고, 몇 천 평에다가 막 갖가지를 다 심어. 꼴 뵈기 싫은 거에요. 여기서 한 평생을 일궈가지고 겨우겨우 땅도 장만하고, 남의 땅도 해가지고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어디서 온 애들이 왠 몇 천 평의 땅을 사가지고 농사의 농도 모르면서 막 심어놓고, 그렇다고 제대로 농사를 짓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못지어요. 몇 천 평 그거 되게 힘들어요.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중략) (마을에) 와 가지고 뭣도 모르는 데, 아무 논이나 가가지고 땅 싸다고 땅 잔뜩 사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동네사람들한테 욕먹고 못 어울리다가 되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엉망이 되잖아요. 잡곡도 주인이 넘어가고 그러면. 동네 물도 흐려질 수도 있고.

이도향촌 이주가 실제로 '실천'되는 이 단계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이들의 이주가 고정되지 않은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 단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움직이는 자본의 크기가 얼마나 큰 가에 따라서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의 귀농귀촌 담론은 천편일률적으로 지역의 '텃세'[56] 혹은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을 '상수'처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도향촌 이주 행위자와 지역 주민, 지역 사회 간의 관계맺음의 양상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이 새로운 전망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전개의 폭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절의 결론이다. 이도향촌 이주 행위자의 이동과 지역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고, 그렇기에 그 전망을 실천하는 전략도 다양하며,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금까지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절. 소결

지금까지 이도향촌 이주를 하나의 '모빌리티'로 보는 관점에서, 이 이

56) '텃세'라는 명명에서부터 도시 중심의 시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주 실천을 장기간의 맥락과 의미, 그리고 사회구조 속에서 발단-전개된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전통적 인구이동 이론에서 이주의 움직임은 비용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고, 이주 행위도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회적 사건으로 초점화되었다. 귀농귀촌 담론 일반에서도 이주는 행위자의 돌발적 동기와 의지적 실천으로 의미화되고 결과적으로 귀농/귀촌, 청년/은퇴, 농업/문화 등으로 쉽게 범주화되어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모빌리티 이론의 맥락적 관점을 통해, 이도향촌 이주를 '배경-결정-선택-실천'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포착하였으며, 이렇게 분석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던 다양한 모빌리티의 요인과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그동안 '왜 귀농귀촌 하는가, 왜 촌 지역으로 이주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경제적 요인이나 생애주기 요인은 '결정' 단계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들 요인이 주로 부각되었던 이유는 그간의 연구가 이주 시점 혹은 이주 이후의 정착기만을 분석의 범위로 설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이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이주는 '배경' 단계에서부터 장기간 동안 다차원적 층위에서 전개된 모빌리티의 의미와 맥락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모빌리티 감각의 형성', '문화적 의미와 가치 태도', '도시 생활에 대한 평가', '지역공간과 이동에 대한 전망'으로 주제화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도향촌 이주 결정 이전의 배경 단계를 '모빌리티가 형성되는 맥락'으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동기' 차원의 설명과는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행위자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를 설명하는 관점에서는 도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가진 이동과 그렇지 않은 이동, 농(農)적 가치나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동과 그렇지 않은 이동이 구별된다. 그러나 이들 동기의 저변에는 공통적으로 '모빌리티 감각'이 형성되어 이동을 추동하고 있을을 발견하였다.

셋째, 모빌리티가 촉발되는 결정 단계과 지역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생애주기 요인, 일자리 요인(결정 단계)과 지역의 사회연결망과 제도 공간,

그리고 자연 환경과 지역사회의 분위기, 마지막으로 '빈 집'과 같은 요인(선택 단계)들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같은 검토를 통해 청년들의 귀농귀촌이나 문화귀촌을 설명할 때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었던 사회적·제도적 요인들의 작동을 좀더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었고, 추상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였던 미디어의 귀농귀촌 담론의 구조 혹은 경로로서의 작동 양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기존 논의에서는 향촌 이주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생애주기 요인이 모빌리티의 관점에서는 차이를 낳기보다는 전환 혹은 변화의 압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진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은 생애주기 요인뿐 아니라 일자리 요인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을 '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촉발 구조'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틀로 종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종합의 가능성은 귀농귀촌 담론 내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식 중 하나인, '청년 대 중장년층'과 같은 세대 구도를 다시 그려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이주 실천을 모빌리티의 '무게'라는 은유의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주 단위의 가구 형태와 자본의 크기에 따라 지역과의 상호작용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촌 지역에서의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의 준비와 자본이 필요하다'는 통념과는 어긋나는 지점, 즉 '모빌리티의 무게가 가벼운' 이주가 지역사회에 더 쉽게 융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섯째,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실천 속에는 '비(非)자연으로서의 도시'와 '자연으로서의 촌'의 이항 구도를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 부여와 전망이 역동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전망이 부여될 수 있다면 이동의 경로는 꼭 '촌 지역'일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2010년대 향촌 이주의 특이성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제5장에서는 촌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기에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향촌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인지를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 향촌 이동을 지역 공간과 인구, 그리고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은 이도향촌 이주 과정을 분석적 전략에 따라 '배경-선택-결정-실천'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하였지만, 때때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형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다. 각 단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며 각 요소가 떨어져 있는 단계에 우발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시적 우발성과 관계성의 작동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모빌리티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면모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도향촌 이주 과정은 각 단계뿐 아니라 지역의 경계에서도 서로 연결되고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며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공간으로서만 촌 지역을 전망하고 있지 않았고, 생태적 가치나 '힐링'과 같은 안식을 얻기 위한 대안적 공간으로서 촌 지역을 전망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양한 전망과 실천 전략으로서 이동이 추동되었음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런 전망과 실천은 향촌 이주 행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에 있어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결국 이러한 혼종성, 복잡성이 이 이동 현상과 촌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다음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마지막 장으로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속에서 촌 지역이 어떤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함축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겠다.

제5장.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속에서 재구성되는 농촌 공간

이 장은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경험 속에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켜가는 농촌 공간의 모습을 세 가지 주제로 개념화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제4장의 분석이 이도향촌 이주의 움직임, 즉 모빌리티적 성격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이 장은 이도향촌 이주가 흘러드는 공간, 즉 농촌 공간을 이도향촌 모빌리티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동과 지역 공간을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제4장은 이주 전과 이주 당시의 시점까지를 분석 범위로 하였지만, 이 장은 이도향촌 이주 이후 농촌 공간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까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도향촌 이주에서 사람들이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이 이도향촌 이주에서 농촌 공간을 농업과 자연의 공간으로 표상하여왔고, 이에 따라 이주 동기도 '자연이 좋아서'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인터뷰 속에서 농촌 공간은 훨씬 다양한 맥락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본 장은 이도향촌 이주자들이 이주 전후에 농촌 공간을 어떻게 전망했고, 실제로 겪어나가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먼저 이도향촌 이주와 지역 공간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논의함으로써 분석의 관점을 논의한다(1절). 다음으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촌 지역 환경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계와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제4장의 중심 주제인 '모빌리티'와의 연결을 기준으로 정리해나간다(2절). 이를 통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농촌 공간을 전통적인 농촌 지역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성해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새로운 인구이동 모빌리티로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이 농촌 공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1절. 이도향촌 이주와 농촌 공간

모빌리티 이론이 현대 사회의 유동성 증가를 예민하게 감수한다고 하여 이를 유목성의 무한한 확장으로만 읽어내는 것은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적 구조들을 비가시화 한다. 매끈한 흐름(flow)으로 은유되는 모빌리티를 긴장과 갈등으로 채워진 불투명한 유동(flux)으로 만드는 불평등과 경계들(Urry 2014: 70, Mezzadra and Neilson 2021)을 누락하는 것이다. 흐름이 통과하는 '공간'이 함께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이주 현상은 인구가 이동하는 지역과 밀접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이주 행위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실천들이 집합적으로 모이면 일정한 인구이동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흐름 속에서 이동과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는가에 따라 지역의 성격도 변하게 된다. 산업 발달 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도시 공간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이다(Simmons 1968; 정일홍, 이성우 2010: 167). 한편으로는 지역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이동의 흐름이 증가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장은 이도향촌 이주 속에서 나타나는 농촌 공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촌 지역은 흔히 '자연의 공간'으로 표상되지만, 이 역시 인문·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자연과학적 지식으로서의 공간, 물리적이고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공간은 인간 행위자에게는 인문사회적 의미로 채워져있다. 에드워드 소자가 1989년에 '모든 공간들은 항상 사회적 생산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공간적 전회'를 선언한 후 공간과 장소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수행적 행위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왔다(Loew 2020: 5-6).

의미로 채워진 공간으로서의 장소 개념을 강조한 대표적인 논의는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랠프의 저작이 있다.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의미의 강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상이한 논의를 전개했고, 이-푸 투안이나 랠프는 지속적인 경험과 반복되는 시간 속에 축적되는 의미를

통해 장소가 형성된다고 보았다(Tuan 2007; 2011; Relph 2005). 이-푸 투안은 사람들이 공간을 주거 자원으로서 인지할 때, 그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환기한다. 가령 “세계가 우리의 욕망에 부응할 때 세계는 광활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지만, 세계가 우리의 욕망을 좌절시킬 때 세계는 답답한 느낌을 준다(Tuan 2011: 113)”. 이 때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은 사회적·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간 혹은 장소에서 느끼는 체험의 내용이나 공간 혹은 장소에 대한 전망의 내용 역시 사회적·문화적으로 틀지워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망 속에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기대, 상상이 형성된다는 점은 이도향촌 이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를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 속에서 농촌 공간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촌 지역을 단순히 비어있는 자연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어떠한 사회적 기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이주 행위자들이 농촌 공간을 어떻게 전망하면서 이주를 실천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어떻게 경험되고 구현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0년대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으로서 이도향촌 이주에 의해 농촌 공간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변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절. 촌 지역이 이주 공간으로 전망되고 경험되는 세 가지 방식

이주 행위자들의 서사 속에서 전망되고 경험된 촌 지역은 이 절에서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분석되어 논의될 것이다. 첫째는 촌 지역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 ‘비어있는 공간’은 다시 여러가지 의미의 공백을 의미하는데, 인구나 생활의 밀도가 낮은 데서 오는 공통

의 체감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된 개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둘째는 촌 지역이 '텃밭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텃밭은 '비어있는 공간'과 동일한 의미 맥락의 선상에 있으면서, 몸을 움직이고 다양한 실천을 '가볍게'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공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촌 지역은 이도향촌 이주의 이후 국면에서 '정거장'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이 분석되었는데, 이 정거장은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세 가지 공간적 특성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속에서 구성되어가는 촌 지역의 모습이기에,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성격과 농촌 공간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 공백: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는 공간

이도향촌 이주 경험에 나타나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전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첫번째 주제는 '비어있음'이다. 지역에서의 삶에 대해 무엇을 전망하든, 그리고 지역 공간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한 경우였든 전환의 움직임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였든, 연구참여자들의 서술 속에서 농촌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지되고 표현되었다. 즉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채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인구의 밀도, 생활의 밀도, 집과 땅의 밀도-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공간의 비어있음에 대한 감각은 애초에 도시 공간의 본질이 인구의 과밀한 집적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자연스럽게 추론된다고 볼 수 있다. 어리(Urry 2014: 56-57)는 짐멜의 『대도시와 정신적 삶 The Metropolice and Mental Life』에서 논의된 도시의 빠른 속도와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신경과민'과 '대도시적 개성'을 재언급하면서, 도시의 모빌리티가 도시 거주자들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만들어내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삶의 감각적 기반(Urry 2014: 56)”은 대도시의 삶과 농촌에서의 삶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한다고 보았다. 즉 대도시의 사람들은 고밀도의 인구와 고속의 모빌리티(인구이동을 포함한 모빌리티)가 야기하는 감각적 체험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리의 이러한 논의는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서술 속에서 나타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전망이 저밀도의 공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다.

1) 경쟁과 얽매임이 낮은 인구 밀도

‘비어있는 공간’으로서의 촌 지역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방식은 ‘인구밀도의 낮음’이다. 이도향촌 이주의 서사 속에서 전망되는 농촌 공간은 공통적으로 ‘사람’, 즉 인구가 없는 공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주에 작용하는 요인이 생태적 가치이든, 대안적 생활 방식이든 상관없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촌 지역을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 볼 여지가 있는 공간’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다양한 가치와 생활 방식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는 공간, 삶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는 공간이라는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도시에서의 경험, 도시 생활과 도시 공간에서 체감한 고밀도의 느낌에 비교되어 더욱 활성화된다. 도시의 풍경은 “빽빽한 아파트(사례 3번)”로 표상된다. 도시는 “항상 시끄럽”고, “사람이 너무 많은”(사례 9번), “포화 상태”의 공간(사례 11번)이다.

[사례 9번] 서울은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렇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그, 이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옛날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솔직히. 가다가 동대문운동장역에서 환승을 하는데, 그 환승을 해서 타는 4호선이 진짜 '지옥'이고 이런 거.

이렇게 사람과 건물로 가득 찬 도시에 대비되면서 촌 지역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경쟁이나 빡빡함이 상대적으로 덜한 공간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농촌 공간에 사람이 없다는 것, 즉 인구밀도가 낮은 환경이 이도향촌 이주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쟁이 없음'의 의미와 '연고가 없음'의 두 가지 의미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1) 경쟁이 없음

여기서는 지역 공간의 인구밀도에 대한 상상이 '이 공간에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경쟁이 없을 것'이라는 서사로 해석되는 서술들을 살펴본다. 이 서사에서 촌 지역은 도시보다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경쟁으로 지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를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사례 17번은 도시에서 다녔던 회사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개인 사업체를 꾸리기에 도시는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든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사례 17번]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공부를 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상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은 할 수가 없고 거기 윗사람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하나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힘들었죠. (중략) 물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겠지만 (도시는) 워낙 사람도 많고 내가 하려고 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하려고 하든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부모님한테 엄청 큰돈을 받아서 사업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뭐를 도시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그 판은 도시에서는 이미 모든 것들이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조금 더 밖에 나가보자.

사례 17번에게 포화 상태인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곳, "조금 더 밖에

나가보자"고 시야를 확장했을 때 포착되는 공간이 촌 지역이었다. 도시에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촌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좀더 '내가 하고싶은', '만족도가 더 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작업은 "도시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돈은 못 벌더라도",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내 삶을 이끌 수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돈 몇백 더 버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삶의 만족이 큰"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저밀도 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 반응은 아래 사례들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사례 17번처럼 직업적인 경쟁이 아니더라도, 경쟁적으로 일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삶의 방식(사례 1번, 10번)이나 입시 경쟁(사례 5번)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농촌 공간이 모색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사례 1번] (도시에서는) 계속 뭔가가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허. 집값이 올랐대. 어떻게 해서 저걸 하지.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허, 저기는 더 많이 올랐네. 이렇게 비교 경쟁인데. (중략) 도시하고 다른 점은, 그거(경쟁적 비교)가 없어요. 거기(촌 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보편화 되지가 않았어. 여기(도시)는 보편화가 됐잖아. 그런데 거기(촌 지역)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의 시스템이 좋은 거야.

이들의 서술 속에서 도시는 수많은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이 생활 영역에까지 스며드는 공간이다. 사례 10번도 도시에서는 '집'을 평수와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급을 나누고 경쟁하는 체제 속에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이를 벗어나게 된 것을 이도향촌 이주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로 꼽았다. 도시에서는 집이 '투자'의 공간이었지만, 촌 지역에서 집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 한끼 해먹이고 편안히 잠재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집이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타자가 부재하는 환경 때문(덕분)이다.

[사례 10번]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집에 대한 그게 되게 컸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네는 몇 평에 살고. (중략)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시골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 있을 때는 아, 그러면 느티마을 살면 어떠니까 우성으로 살면 어떻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돼. 평을 넓혀가고 주상복합은 어떻고. 이런 생각을 그냥, 그 때 되게 많이 하고, 집으로 인한 투자나 이런 거 많이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시골에서, 제가 지금 시내도 아니고 시골에서 살고있으니까. 집이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촌에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다 농기구랑 놓다보면 다, 다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의 경쟁적 밀도를 벗어나는 전망은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도 함께 적용된다. 학생 수도 많고, 그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체제 속에서 경쟁하는 도시 학교에서는 "치이는 편"이었던 자녀도,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가면 "그렇게 치이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10번] 작은 애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치이는 편이었어요. 그런 대도시에서는 애들이 막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를 잘해야 인기도 있고 막 이런데,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다, 하는 그게 스스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되게 보고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시골 학교에 가면 그렇게 치이지는 않겠지해서 데리고 왔는데 (중략) 전에는 학원도 다니기 싫어했는데. 재미있게 학교 생활하고. 얘한테 물었었어요. 너 여기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학교다닐 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례들에 나타나있듯이, 이도향촌 이주자들에게 농촌 공간은 높은 인구밀도가 발생시키는 비교와 경쟁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비어있음'이 긍정적인 해석의 단초가 되어 이주를 추동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래 사례 5번은 농촌 공간을 심리적 압박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고요함'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례 5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농촌 사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이제 약간 입시문화에 대해서 진통을 느껴서. 제가 입시를 엄청 오래 했거든요. (중략) 그

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막 주눅 들고 이렇게 좀 압박감을 항상 갖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남편된 사람이, (향촌 이주 지역의) 댐을 보여주더라구요. (중략) 고요함을 바라보고 있으래요. (중략) 자연으로 저를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힘이 됐어요. 고요 속을 바라본 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도시에서의 입시 생활은 “진통”과 “압박감”의 감정으로 표현되는데, 이 감정들은 앞의 사례들에서 표현되는 “빡빡함”, “포화”와 같은 느낌들과 유사성을 가진다. 이에 대비되어 농촌 공간은 탁 트인 댐의 전경, 고요함의 느낌으로 체험되고 ‘치유’의 의미를 획득한다. 농촌 공간은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서사 속에서 사람들이 없는 공간,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경쟁이 없는 공간으로 전망되고, 경험되고 있다.

(2) 연고(관계)가 없음

농촌 공간의 낮은 인구밀도가 이도향촌 이주 과정에서 작동하는 또다른 방식은 연고, 즉 사회적 관계가 없는 지역에 대한 전망이다. 기존의 귀농귀촌 담론, 특히 초기의 귀농귀촌에서는 고향이나 부모님 혹은 친인척이 살고있는, 즉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가 유리하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서술 속에서 드러난 것은, 이들의 이동이 지역 공간의 공백에 대한 전망으로 추동된 이동으로서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연고 혹은 연고처럼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가 오히려 지역을 피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제4장의 ‘사회연결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 안전 상의 문제, 정착에 부족한 자본 보완하는 문제 등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역,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는 크게 유리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귀농귀촌 담론에서는 지역 연고의 효과가 이주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의 이도향촌 이주에서도 이러한 작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또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

기서 살펴보는 사례는 지역 연고나 공동체가 이주 행위자가 해방감과 자율성을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의 여지를 좁히고 제약하는 조건으로 인지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 13번이나 14번은 연고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이주 지역을 선택할 때 다른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연고지에서는 "물론 도움은 많이 받겠지만", "스스로 뭘 이뤄나가고, 하고 싶은 그런 농사를 하기는 또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3의 지역을 물색했다.

[사례 13번] 사실 남편이 그 17살 때 OO에 가서 유기농을 제대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중략) 거기가 굉장히 역사가 깊이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다 본인들 지역으로 오라고 굉장히 '콜'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도움은 많이 받겠지만, 처음부터 혼자 스스로 뭘 이뤄나가고 하고싶은 그런 농사를 하기는 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그 분들의 콜을 다 그냥 좀 접어놓고.

[사례 14번] 저희가 한 번 갔어요. (친척분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그 친척분께서는 저희가 이제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실무자 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중략) 저희가 가서 도와주면 같이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거다, 했는데 가족끼리 이제 이야기한 게 그렇게 도움받는 거보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정착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로 도움을 받으러 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지역 공간'을 탐색하는 양상은 연고 지역을 피하는 것 외에도, 잘 알려진 귀농귀촌 지역을 피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연고지가 없는 향촌 이주자들에게 귀농귀촌 공동체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은 지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 유입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례들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지역을 피하기 위한 의식적 선택이 작용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사례 4번] 저는 지리산(을 이주 지역으로 고려했음). 왜냐하면 그 귀촌하는데,

귀촌이 되게 유명한 고 몇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만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거기면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굳이 왜 거기에 모여있는 곳으로 가고싶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뭉쳐서 뭣도 할 수 있고,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한데. 그냥 그런 것 보다는 없는 곳. 아무 연고지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례 4번의 설명에서 드러난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 이들의 지역 공간 전망에 '비어있음'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구 밀도가 낮을 뿐 아니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닌, 이러한 관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과 전망의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사례 9번도 사례 4번과 지역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러한 지점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례 9번] 여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보통 그게, 저랑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땅값이 싸다. 그리고 산지이고 인구밀도가 적고 하니까. 좀 어디 이렇게 골짜기 끝땅 같은 데 살고싶어하세요. 주변에 마을에 간섭 안받고.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살고싶은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어. 저희만 가난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지자체도 가난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뭐 되게 부자고 돈자랑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돈을 되게 많이 벌려고 오시지도 않고. 여기가 뭐 농사가 되게 잘 되고, 도시와 가까워서 농산물을 팔 수 있고 이런 데도 아니잖아요. (중략) 그, 뭐라고해야하지? 공동체나, 모여서 으싸으쌰, 모여서 뭐 재미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볼까? 막 이런 모임 같은 게, 되게 잘 생겨지지 않아요.

아래 사례 12번에서는 이러한 전망의 작동이 좀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례 12번은 다양한 예술적·문화적 활동의 무대로서의 촌 지역을 전망하며 이주하였는데, 이때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귀농귀촌 커뮤니티'나 활동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례 12번] 그건 약간 세대의, 제 세대의 느낌같은 거일 것 같은데. (중략) 인생

선배? 선배들. 아니면은 회사라면은, 회사에 다니면 저보다 열살 많은 사람이 팀장이었고. 저보다 삼십살 많으면 회사 대표고. 이런 거에요. 저보다 다섯살 많으면 저보다 먼저 팀장 다는 선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귀촌 커뮤니티도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중략) 그 귀촌 커뮤니티가 되어 있는 곳이 그런 그 시절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했고.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제 일을 이런 쪽에서 사람들하고 사업에서도 관계를 맺었고, 일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뭐 그 먼저 귀촌한 선배들 있는 데 가면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일하는 거랑. 뭐. 정부 정책은 이래야 한다.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 저런 걸 해보자 이러면은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은 (중략) 막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만약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실천이 그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농촌 공간을 '빈 공간'으로서 전망하고 그 공백을 모종의 전환의 움직임으로 채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한다면, 이주 지역에서 도시에서의 방식과 같은 관계맺음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나 자율성이나 독립성의 방식을 제한받지 않고자 하는 경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생태적·대안적 가치, 삶의 지속가능성의 설명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지점이자, 이도향촌 이주를 모빌리티와 지역 공간에 대한 전망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가령 '문화적 이주'의 관점으로 분석한다면 사례 12번의 이주는 '문화 귀촌', 혹은 '청년들의 대안적 삶의 기획' 등으로 해석되는 반면 사례 13번의 이주는 '전통적인 귀농' 모델로 해석됨으로써 서로 다른 이주 양상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농촌 공간에서 '공백'의 의미를 읽어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는 사례 12번과 13번의 이주가 하나의 틀, 즉 '빈 공간으로서의 지역에 유입되는 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례에서 연고지나 귀농귀촌 커뮤니티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례 2번과 10번, 11번은 연고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였고, 사례 16번은 '안전함에 대한 욕구'로 귀농귀촌 공동체

가 발달한 유명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사례16번] 어쨌든 집을 전국 어디 가서 모르는 지역에 가서, 고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 가서 집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고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죠. 안전한 집, 안전한 뭔가 관계에서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인 있는 곳(을 선택했음).

이렇게 여전히 많은 경우에 사회적 관계망의 존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 속에서 촌 지역이 '빈 공간'으로서 모색된다면, 이러한 의미가 강할수록 지역 연고나 특정한 방식의 지역공동체는 기존과는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위 사례 16번 역시 유명 귀농귀촌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고향으로 이주하고 싶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향 대신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 16번은 고향 혹은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 비해 현재 이주한 지역은 귀농귀촌인이 많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살아있고, 그래서 '숨통'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석했다.

[사례 16번] OO은 약간 귀농자, 귀촌인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을에서 공동 학습회도 있고 새로 추모 집회나 이런 행동들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은 시민 사회가 살아있는? 그런 곳을 원했던 거 같아요, 약간 '숨통'처럼?

이 '숨통'은 앞서 연고지나 유명 귀농귀촌 지역을 배제한 사례들이 모색했던 지역 내 '자율성'의 공간,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와 상통한다. 즉 연고 지역이나 유명 귀농귀촌 지역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이든 선택하는 경우이든, 운신의 폭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동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푸 투안의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즉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공간은 '답답함'과 '구속'의 이미지로, 욕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광활함'과 '해방'의 이미지로 해석된다. 2010년대 이도향

촌 이주에서 농촌 공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행위자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공간적 상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표상된다.

2) 자율성이 가능한 생활 밀도

다음으로 농촌 공간의 '비어있음'이 해석되는 근거 요인은 도시와는 다른 생활 방식이다. 앞서 살펴 본 '경쟁 없음', '연고(관계) 없음'이 사람들이 없다는, 일종의 인구밀도와 관련된 체감 방식이라면 여기서 살펴 볼 요인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체감 방식이다. 도시에서의 생활이 너무 많은,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는 관련없는 활동으로 포화되어 있었다면 촌 지역에서의 생활은 결정되지 않은 채 비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활동, 의지가 반영된 방식의 삶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농촌 공간은 사례 10번에서는 '핸드폰 같은 걸 꺼낼 일이 없는' 공간으로, 사례 3번과 8번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에 갇혀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공간으로 대비되고 있다.

[사례 10번] 와서 있다 보면 주말에 핸드폰 같은 걸 꺼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에 있으면 핸드폰이나 뭔가 시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있으면은, 주말에 별로 핸드폰에. (중략) 가방 어딘가에 던져놓고 하는데. 그게 뭔가 편안했어요.

[사례 3번] 아침마다, 진짜 출퇴근. 서울에 출퇴근 진짜 너무 그거, 너무 빡빡하잖아요. 진짜 지하철에서 껴서 가야되고.

[사례 8번] 저는 그게(이전 사무직 직업) 너무 재미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무직 일을 하는데 돈은 벌지만 이게, 그냥 억지로 한거죠. 억지로. 저는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무튼, 정해진 시간에. 그 안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사는 거 같지 않다 그러면서 오니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음', '꽉 막혀있음', '빡빡함'의 체감은 앞선 논의와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사례 9번과 15번은 도시의 '회사 생활'의 강박적 답답함, 원하는 활동을 하지 못함에 대한 답답함을 향촌 이주 후의 생활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례 9번에서는 배우자가 환경단체에 일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에서 해달라는 연구'의 정해진 틀 속에서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의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자연과 가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 생활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사례 9번] 그게 남편도 그때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단체생활이라는 게.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 그니까 단체가 항상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원을 받지 못하거나 국가에서 해달라는 연구나 이런 걸 받기 힘들면 단체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활동을 못하고. 근데 이제 또 그런 돈을 받고 하는 쪽으로만 활동하다 보면 정작 마음을 다해서 활동하지를 못하고.

사례 15번은 빡빡하게 날짜마다 짜여져 있는 강박적 일정으로 도시 생활의 '포화 상태'를 표현하였다. 도시에서의 회사 생활은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주말이든 밤낮이든 일을" 해야 한다. 반면 농촌 이주 이후의 생활은 '도시의 마감'에 비해 여유가 있고, 그것이 "해방감"을 준다.

[사례 15번] (이주에 대해) 기대 했던 거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확실히 뭔가 해방감은 있었어요. 그전에 했던 토목 설계를 했을 때는 날짜에 대한 강박이 매우 심했거든요, 이거를 몇 월 몇 일 까지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이 나와. 그러면 그건 회사 차원에서도 입찰을 볼 때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주말이든 밤낮이든 일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농사라는 부분은 뭐 오늘 수확을 해야 좋지만 내일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당장 오늘 내가 밤새 이거를 따야 되나 이런 고민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이 바쁘면 어제 하루 전날 미리 수확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게 기대했던 거.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들었어요.

여유로운 생활 밀도는 직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사례 3번은 도시에서는 "뭔가 빡빡"한 활동, 강박적으로 무언가

를 하려고 하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도향촌 이주 후에는 “뭐라도 하겠지”라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나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물소리 들리고”하는 농촌 공간의 모습과 연결지어 설명하고있다.

[사례 3] 저는 이제 뜨개질이나, 뭐 재봉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었어요. 뭐라도 하겠지, 내가 내려가면. 뭐라도 하겠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심심하면 뭐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것 같고. 뭐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뭔가, 빡빡하다고 해야하나. 그러니까 어, 이 시간에 어디라도 나가야돼, 그런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뭔가 내가 할 일을 못했어,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쉼이라는 게 꼭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만 가면 유원지도 있고, 조금만 가면 계곡 있고, 이런 데도, 음. 그렇게 막, 어- 나가야돼, 나가서 저거를 꼭 보고와야 돼 이런 뭐라고 해야돼지, 도시가 주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집에만 있어도 좀 편안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그냥, 아 되게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따로, 뭔가. 도시처럼, 서촌이라도 나가야 되고 경복궁이라도 한번 봐야되고 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는, 그냥 여기 나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물소리 들리고 이러니까. 굳이 막 조급하게 여가생활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빈 공간은 성찰과 창의, 능동성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상상되고 시도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음’에 대한 전망을 단순히 ‘한가한 전원생활’이나 ‘힐링을 위한 자연 체험’으로 해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점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촌 지역의 공백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의 자원이라는 것을 아래 사례 5번의 설명이 잘 보여준다. 사례 5번은 농촌 지역의 아이들의 생활 방식에 “자유분방한” 창의성과 다양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사례 5번] 시골은 서울에 비해서, 도심에 비해서 가진 게 없잖아요. 높은 빌딩

이라던지, 아이들 육아로 따지면 학원 학교 집 이런 거. 그리고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구요. (중략) 노는 것도 요즘 애들은 이제 키즈카페를 가고 초등학생들도 카페를 가서 놀고 PC방을 가고. 시골은 무조건 나가서 노는 거예요. 학교 앞에서 만나면 노는 거고 놀이터에서 만나면 노는 거고. (중략) 노는 거는 뭐하고 놀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면 노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서' 놀아야 되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생각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보아서 자유분방한 애들이랑 많이 못 봐서 자유분방한 애들이랑 다른 사고를 가지게 된 거 중에서, 저는 이쪽이 훨씬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촌 지역에서 발휘되는 창의성의 원천이 '도시에는 (너무 많이) 있는데 시골에는 없는 환경'으로 연결되어 해석된다는 것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워넣고자 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때 촌 지역의 빈 공간을 어떤 활동으로 채우고자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 2절 '텃밭으로서의 공간'과 3절 '정거장으로서의 공간'에서 논의할 것이다.

3) 사람도 없지만, 집도 땅도 없는 공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농촌 공간이 '비어있다'는 체감은 지역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전망하는 일종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촌 지역의 '공백'은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전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제 이주 경험에서 드러나게 된다. 지역은 다양한 차원에서 비어있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백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주와 정착을 어렵게 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할 때 구체성에 차이는 있더라도 지역에서의 주거와 생활에 대해 일정한 전망을 가진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이루기 위한 거점 공간, 즉 '살 집'과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것이 촌 지역에서는 도시만큼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실제 경험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농촌 공간은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다양한 전망

이 가능하지만-, '집도 땅도 없는 빈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집도 땅도 없음'은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물리적으로 집과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 집'과 '노는 땅'은 많은데 향촌 이주자들이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과 땅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례 10번은 오랜 기간동안 지역에서 생활의 터전을 닦으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빈 집은 있어도 파는 집은 없다'.

[사례 10번] 막 어디, 동네 깝깝하게 있는 집은 싫구, 조금은 이렇게 한적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런 데를, 마음에 드는 집은 잘 안 나서고, 막 하다보니까 마음에 드는 동네가 생겼는데 언덕 위에 있는데, 그런 동네는 찾았는데, 그 동네에 빈 집은 있는데, 그 집을 아무리 수소문하고 찾아가도 파는 집이 없어요.

이렇게 집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소유자가 향촌 이주자와는 집이나 땅을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향촌 이주자에게 적합한 매물과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사례 15번은 '외지인이 들어와서 마을 분위기를 흐리는' 것을 경계하는 기존 주민들이 거래를 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였다.

[사례 15번] 새로운 집을 구할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쉽게 안내어 주시더라고요. 마을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분도 좋진 않았죠. 어차피 빈 집인데 왜 내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들어보면, 이장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들어보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마을 분위기를 흐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 토박이 분들이 그런 것들을 쫌 꺼려하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도향촌 이주자들에게 알맞은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현황도 이러한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사례 6번은 1인 가구로 이주하

기 때문에 저렴한 월세 조건의 원룸이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만, 도시에서와 달리 지역에서 이러한 공간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사례 6번] 시골이 월세가 진짜 없어요. 전월세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집 매매도. 그리고 월세가 있다고 해도 원룸 같은 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집 한 채를 그냥 다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그럼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집 구하는데 애를 되게 먹었거든요. 나 혼자 사는데 집 평수가 너무 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너무 비싸고. (중략)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래요. 그니까 도시하고 뺨치는 거에요.

이렇게 공간 찾기의 어려움은 이주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례 5번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적절한 가격대에 찾기 어려웠고, 그래서 현재는 인접한 타 행정구역에 살면서 과수원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급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 계약은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전세 계약을 하자니 지역에 30평대 2억원 수준의 아파트만 있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 정부의 '농가 주택 지원'을 받아 집을 짓는 것은 '당장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현실성이 없다.

[사례 5번] 결론적으로 OO에 집이 없어요. (중략) 저희가 저는 아직 20대, 오빠도 30대 초반인데 무슨 자금이 있겠어요. 여기는 신혼부부를 위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군 가족이 많거든요 군 가족은 군인 관사가 있잖아요. (중략) 군에서 제공해 주는 관사에서 외에는 30평대 아파트 2억원대 아파트 그런 데 밖에 없어요. 그런 데에 저희가 갈 순 없잖아요. 빌라도 한 채 없고 월세, 저희는 농부라서 월세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달달이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달이 내는 방 혹은 관사 2억 원대 아파트. 아니면 집을 짓고 살아? 농가 주택 지원을 받아? 당장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집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뿐 아니라 월세나 전세 등 거래 형태와 무관하게, 조건에 맞는 거주 공간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주거지를 확보할 때, 도시에서 계약하듯이 다수의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일단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앞서 4장 2절[57]에서 논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이후에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찾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사례 17번도 현재 거주 공간은 일단 계약이 가능했던 곳이기에 "잠시 사는 곳"으로 생각하고 이주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훨씬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사례 17번] 지금 사는 거는 잠시 그냥 집을 짓기 전에 잠시 사는 곳.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 공간의 '비어있음'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도향촌을 계획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촌 지역은 고밀도의 도시 공간과 대비되어 '비어있는 공간'으로 전망되지만, 이곳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미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거주자들이 있고, 먼저 이주한 '선배 귀농귀촌인'들이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집도 땅도 없는 공간'의 양상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이도향촌 이주자들은 기존 거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형성되어있는 관계망과 관습 속에서 빈 공간을 찾아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사례 10번] 만약에 길이 저희 땅의 옆이다, 뭐라고 해야하나, 당연한 건데 그 분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하면 당연하지 않은 거에요. 이게 내 땅인데, (마을 분들이) 옛날에 길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집 모양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면은 이거는, 도전이에요, 도전. 그 분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살려고 하면, 제가 손해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내 꺼를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못 배운, '어디 도시에서 온 젊은 것들' 이렇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선을

57) 3.선택: 이동의 경로 설정 중 '3) 거주 공간과 생활 방편의 마련'

지키는 게 어렵기는 하지요.

특히 '기존 거주민'에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 온 '원주민'뿐 아니라, 먼저 이주한 '선배 귀농귀촌인'도 포함된다는 점이 '초기 귀농귀촌'과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귀농귀촌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주한 사례 16번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례 16번] 또 40-50대, 50-60대, 그리고 40대 중반, 이런 분들은 귀농 선배들 한테는 '니네들은 보조사업 그렇게 많아서 우리 때보다'. '라떼'가 나오면서 시기, 질투하는 부분들? 근데 이게, '새로 생겼으니까, 센터가 새로 생겼으니까, 장년층에 대한 것도 추가해서 이런 발전 방향, 우리 세대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정책지원이나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뺏어서, '왜 니네만 해주냐?' 이래서 뺏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앞서 제3장의 '주택 수' 변수의 부(-)의 효과와 제4장의 '연고지나 유명 귀농귀촌 지역을 피하는 이주 방식'에서 살펴본 내용과도 연결된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에서 '공백으로서의 지역 공간'의 의미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이 공백이 조화롭게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농촌 공간에 부여되고 있는 두번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텃밭: 즉시적 실천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

이도향촌 이주에서 농촌 공간이 전망되는 방식의 두번째 양상은 '텃밭'으로서의 지역이다. 이도향촌 이주에서 농촌 공간은 마치 '텃밭'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공간으로 전망되고 실천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망과 실천은 실제 텃밭 공간을 대상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텃밭'은 이

도향촌 이주자들이 농촌 공간의 '공백'을 다양한 활동과 실천으로 채우는 양상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텃밭의 사전적 정의는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58]"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텃밭'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면서도 농촌 공간에 대한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전망에 공통적으로 내포된 개념에 대한 은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절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먼저 이들의 경험과 서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텃밭'의 모습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 텃밭 공간에서 어떤 실천들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와 '공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확장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1) '텃밭'의 의미

텃밭은 연구참여자들의 서사 속에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고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점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텃밭 경작은 본격적인 영농활동과는 구분되는, 간소화된 '가벼운' 농업 활동의 위치성을 부여받는다. '귀촌'한 이주자도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이주 후의 장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경영업체로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도 별도로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텃밭이 거의 대부분의 이도향촌 이주자에게 활용되는 이유는 작은 단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 원하는 소망을 충족해주는 역할, 다양한 작물을 길러내어 수확하고 먹는 기쁨을 제공해주는 공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텃밭은 본격적인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과 달리, '웬만한 시골집'에는 텃밭이 딸려있어서 무언가를 심어볼 수 있다. 또한 작은 단위로 '이것저것' 작물을 심어보는 식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지 않고, 작물이 금방 자라서 수확되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것을 다시 심어볼 수 있는 공간, 즉 가볍고 유동적인 속성을 가진 땅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5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2021년 10월 29일)

사례 9번의 설명 속에는 '텃밭'의 의미가 '농지'와 대비되어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경작의 의무에 묶이게 되고, 적절한 규모의 수확이 뒤따르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평판도 잃을 수 있다. 앞서 198쪽 사례 10번의 이야기 속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있었다[59].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구한 땅을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농지이다. 그렇기때문에 농업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이도향촌 이주자가 바로 농지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농지는 '무거운 땅'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사례 9번] 한국에서는 내 소유가 아니면 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땅을 덥석 하고 샀는데, 그거에, 땅을 사니까 또 땅에 사람이 묶이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지만 아무튼 그 땅에 계속, 농지법 같은 거 보면 농민이 땅을 소유해야 되고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자경을 해야 하고. 근데 저희가 자경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요,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그래가지고 막 산나물들이나 그런 게 있는데 풀 속에 묻혀있고 봄에 가서 뜯다가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여름 되면 풀밭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의 짐인데 가벼운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본격적인 영농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농지는 녹록치 않은 땅이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농사로 돈 벌기 힘들다"는 것이다. 귀농한 경우라면 이러한 인식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늘날 한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농산업에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어렵고, 더욱이 늦깎이로, 혹은 연고나 배경없이 농촌에 진입한 귀농귀촌인이 농사로 돈을 벌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귀농귀촌 교육 현장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도시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과장된 전망을 가지고 초기 사업투자를 과도하게 했다가 회복불가능하게 실패하는 사례가 어렵지않게 발견

59) "와 가지고 뭣도 모르는 데, 아무 논이나 가가지고 땅 싸다고 땅 잔뜩 사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동네사람들한테 욕먹고."

되고, 이것이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향촌 이주자들이 농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들의 이주가 직업적 성공이나 경제적 수입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 8번의 이야기 속에서 명료하게 표현되어있듯이, 이도향촌 이주자들은 '흙을 만지며 밭에서 일하는' 농업 활동이 좋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며, '잘먹고 잘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먹고살만큼'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농지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8번] 저는 귀농. 농사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흙 만지면서, 밭에서 일하는 게 좋아서. 농사 말고 딴 걸로, 귀촌이 아니라. 그보다 농사로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농사로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의. 그래서 이제 쓰는 걸 좀 줄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 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이나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는 먹고살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영농 활동과 농지에는 다소 '무거운' 의미가 부여되는 데 비해, 텃밭은 가벼운 땅이다. 그래서 텃밭은 사례 12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기 전의 '입문 경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례 12번은 '(이주한) 첫 해니까' 지식과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때문에 '한번 익혀본다, 한 텀을 돌려본다'는 실험적 도전으로서 텃밭 경작을 시도하였다. 땅과 소유자가 무거운 관계로 엮이는 농지와 달리, 텃밭은 임대한 집에 딸려있는 작은 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용 과정을 통해 이도향촌 이주자는 농업 활동에 대한 적성을 확인해볼 수도 있고, 작물 재배 기술을 학습해볼 수도 있다.

[사례 12번] 첫 해였고, 내 땅도 아니고 동네 할머니 땅이었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익혀본다 방법을 익혀본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 방법을 익히고 첫 해니깐 뭐 이것들을 한 해 턴을 돌려봐야 익잖아요. 한 텀을 돌려본

다 그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 이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은 것도 한 텀을 돌려봐야 아는 일이니까.

더욱이 텃밭은 '농업 입문'의 공간에서 더 나아가,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공간이다.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길러보고싶은 여러가지 농작물을 '재미삼아' 경작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따로 텃밭을 가꾸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사례 18번] 저도 멜론농사 짓다가 처음 보는 농장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모종을 몇 개 줘서 (텃밭에) 심어봤는데 이런 게 재밌죠. 옥수수도 심어가지고, '센 옥수수' 같은 거 종자로 쓸려고 말려놓고. 하우스 뒤쪽에, 여기는 주로 거의 아욱만 하는데, 여기 조그만 텃밭 있는데 거기다가 옥수수도 심고, 들깨, 참깨도 하고. 그런 걸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먹는 게 사실 사람한테 중요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식재료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의미까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례 18번은 영농 활동과는 별도로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여러가지 농작물을 심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텃밭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즐거움', '재미'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체감하고 있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한 이주이든, 그렇지 않은 이주이든, 이도향촌 이주의 배경에서 밭에서 생명을 기르고 그 결과를 수확하는 체험의 기쁨이 어느정도 보편적으로 의미화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텃밭은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농업 활동과 농촌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 자기 실현의 경험의 의미까지도 선사해주는 공간으로 역할한다. 사례 13번은 농촌으로 이주한 후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로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례 13번은 배우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사를 짓고있지만, 자신이 따로 마련한 텃밭을 가꾸고 있다. 이 공간에서 사례 13번은 작물을 재배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텃밭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직접 길러서 먹는 즐거움'을 '실

현시키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사례 13번] 좋았던 점은, 텃밭을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단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길러서 먹는다는 그 되게 기대감? 즐거움?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래서 텃밭 가꾸고 그리고 마을 산책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나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보리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 오디가 이런 나무에 달리는구나 이거 따먹어도 되는 거구나. 아, 막 가을에 가을 되니까 대추가 막 열리네 대추도 따먹고. 그리고 들풀 같은 것도 나물로 데쳐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막 발견하고. 직접 채집해서 요리해서 먹어 보고. 그런 것들. 그리고 도시에서는 진짜 비싼 돈 주고 프리미엄급으로 유기농 중에서도. 맨날 월급 타면 맨날 그런 거 사먹는데 돈을 썼는데. 인제는 그런 것들을 직접 길러서 생산해서 먹는다는 즐거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텃밭의 속성으로 인해 많은 귀농귀촌 담론과 이도향촌 이주에서 '텃밭'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상상과 실천이 얽혀들게 된다. 이러한 관심과 선호는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생활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텃밭 경험'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양상과 연결된다.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이든 아니든,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경험 속에는 사는 곳 한 켠에 텃밭 공간을 마련하거나 작은 평수의 땅을 빌려 텃밭을 가꾸는 실천이 자주 발견되는 것이다.

또다른 한편, 사례 13번의 서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직접'의 느낌이다. '직접 기르고', '직접 알아가면서', '직접 채집하는' 활동들이라는 점이 표현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 사례 12번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례 12번] 내가 먹을 걸 내 손으로 만드는 게 살아가는 의지를 내게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니까 생산은 내가 사무직 노동자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만드는 어떤 무형의 생산물인데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게 눈에 보이고 내가 먹고 환원 가치를 같이 직접 느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중략) 심심하면 밭에 나가서. 밭에 나가는 시간이 좋았던 건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고.

사례 12번은 '귀촌'하여 문화예술 프로젝트 공모전을 준비하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일로 바쁘게 지내면서도, 소규모지만 나름의 텃밭을 일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동력이 되었던 것은 이 텃밭 공간이 주는 의미였고, 그 의미는 '내 손으로 만드는 것'과 '나만의 시간'으로 표현된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행위자들의 경험 속에서 '텃밭'이 유의미한 공간으로 표상되는 이유는, 텃밭이 이들에게 쉽게 열려있는 공간이자,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스스로의 의미와 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실현의 느낌은 이 공간이 몸을 움직이고 활보하는 공간으로 체험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움직임의 공간으로서의 텃밭

'텃밭으로서의 농촌 공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고 활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느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내 손으로 직접 기른다'는 느낌 역시 넓게 보면 몸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사례 1번은 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이 주는 기쁨을 몸 동작(흙을 만지는듯한 손 동작)으로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이 느낌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구성해보면, 지역 공간은 밭에서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길러내는 동적인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표상될 수 있다.

[사례 1번] 뭔가를 키워서 그게 나온 거에 대한 기쁨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흙을 만지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농사를 한번도 안 지어 봤거든요. 집도 시골도 아니었고. 그런데 흙을 만지고 있는 그게, 저에게, 속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기쁨

이 올라와요. 희안하데. 잘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흙을 만지는 거.

사례 18번 역시 '손으로 직접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직접 하는 것의 만족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서울에 있으면 잘 몰랐"던 것으로, 농촌 공간에서 고유하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사례 18번] 제 성격 하고 연관 있는 것 같은데 손으로 직접 해야 하잖아요. 직접 만들고 하우스도 누가 와서 지어주면 돈이니까 기계 같은 것도 간단한 건 자기가 직접 고쳐야 하고 그렇게 스스로 직접 해나가는 일에 그런 걸 좋아하더라구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 잘 몰랐는데 그리고 또 제가 농사에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기계 같은 것도 잘 운전하고 제가.

신체를 움직이는 동적인 활력, '몸을 씀'에 대한 표현은 사례 6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사례 6번은 귀농학교에서 여러가지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땀 흘리면서 몸 쓰면서 하는 일'의 매력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이주 지역에서 어떤 일이든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도 연결되었다.

[사례 6번] 근데 제가 여기 시골에 와서 보니까 몸 쓰면서 이렇게 하는게 너무 재밌고 좋은 거에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니까 여러가지 했었거든요. 고추 수확, 고추도 하고, 애호박도 하고, 뭐 양배추, 여러가지 뭐 감자도 하고. 다양한 작물들을 했었는데. 진짜 몸은 힘든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몸 쓰면서 하는 게 재밌다라는 걸 느끼면서 더 뭔가 시골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땀 흘리면서 몸 쓰면서 하는 일이 재밌는 거구나.

사례 8번에서 밭일은 동적인 활력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아무 생각도 안나"는 몰입의 상태로 표현되지만, 밭에서 흙을 만지고 호미질을 하는 노동을 통해 긍정적인 상태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례 8번] 그냥 밭에서 풀 매고 있으면은, 그냥 흙 파는게 좋고, 흙 만지는게 좋고. (중략) 흙을 만지는 거 자체가 좋았어요, 그냥. 지금도 (밭에) 나가서 제

일 좋은 거는, 풀 매고있거나, 호미로 하고 있으면 제일 아무 생각도 안나고. 잡념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제일. 저는 그래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공간'은 본격적인 영농 활동보다는 텃밭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텃밭으로서의 농촌 공간'이 잘 드러나고 있는 사례들 모두가 주요한 생계 터전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농경영업체에 등록된 논밭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원래 농사 지으시던 분들에 비하면 제대로 농사짓는 것은 아니'라고 자신의 영농 활동을 평가할만큼, 본격적인 영농 활동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농업은 노동보다는 활동에 가까운, 대농(大農)보다는 소농(小農)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텃밭'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지점이 사례 6번의 서술에서 잘 드러나는데, '몸을 쓰는 일의 재미'를 강조하지만 "농사를 일년 내내 지으라고 하면은 못하겠"다는 것이 그러한 지점을 잘 보여준다.

[사례 6번] 사실 농사를 일년 내내 지으라고 하면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가끔씩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건 너무 재밌는 거에요. 그래서 일부로 제가 뭐 일손 필요 필요하지 않냐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가서 도와줄 때도 있고 그렇게 소소하게 몸 쓰면서 그렇게 일하는 건 되게 재밌고 좋아요.

다만 이러한 서술 내용들은 '농사일'의 고됨을 회피하는 경향 속에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한 경외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겸손한 표현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장 명시적으로 설명한 사례 1번은 농경영업체에 등록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위치를 '농사맹'으로, 농업 일반을 '하늘의 일'로 표현한다.

[사례 1번] 제가 그렇다고 일을 잘하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농사맹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나보고 웃긴다고 그러는 거지. 왜냐면, 고추를 300포기 심으면 100근이 나와야 된대. 그런데 나는 30근뿐이 안나와요. (중략) 정말로, 이게, 농

사, 농부라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견지에서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농촌은 전통적인 농업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좀더 유연하고 유동적인 토지, 즉 텃밭의 공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몸을 움직이는 텃밭'으로서의 농촌 공간은 신체의 해방적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의 감각은 하나의 활동만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이 구성되면서 더 풍부해진다. 사례 15번이 이를 잘 표현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사례 15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그랬고 사람들 만나서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중략)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설계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여기는 컴퓨터랑 나 둘만 일하는 거더라고요. 각자의 프로젝트로 각자 설계해서 개인이 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내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고 나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어 와서 한 번 해볼래? 그럼 가면 거기에 참여한 거에 대한 그런 만족감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 역할을 좀 해볼래? 그랬을 때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에 대한 재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해방감이지 않나 싶어요.

이 서사 속에서 텃밭에서 다양한 작물을 직접 길러내면서 얻는 성취감과 농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직접 수행하면서 얻는 보람과 해방감이 중첩되어 상통한다. 그런데 이때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농촌 공간과 활동이 '텃밭'으로 표상된다고하여 향촌 이주자들의 영농활동의 전문성이 폄하될 수는 없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실천은 단순히 일탈이나 해방감을 주는 움직임으로만 파악될 수는 없다. 아래 사례 18번이 자신의 농업 공간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오독(誤讀)의 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사례 18번] 제가 작업동을 요 앞에다 붙여서 지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업공간, 하우스가 저에게는 되

게 소중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없는 공간에서 만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동선도 중요하고 다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농기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눈에 띄는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가 그나마 정리를 잘 안 한 편인데 그래도 깔끔하게 해야 제가 일과를 생각할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지, 지저분하고 하면 가기가 싫거든요. 그런 거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속에 나타나는 농촌 공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내려오는 농토를 가장 정주적인 공간의 모습으로 놓고, 휴일에 자연풍경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놀다 가는 체험농장을 가장 유목적인 공간의 모습으로 놓는다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속에 나타나는 농촌 공간은 어느 한 쪽에 가깝게 나타나는 공간이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이 결합되어 있는 공간이다.

3) 변화를 체감하는 공간으로서의 텃밭

마지막으로 살펴 볼 '텃밭으로서의 농촌 공간'의 중요 특징은 공간의 변화가 느껴지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 공간은 건물의 사면으로 막혀있는 공간 혹은 다른 건물들로 에워싸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바깥, 자연에 열려있는 공간이며 계절의 순환과 변화가 그대로 느껴지는 공간이다.

[사례 15번] 설계회사, 그 작은 '네모 박스' 안에 갇혀서 일만 하다가 바깥에 나와서 자연에 있어 보니까 그게 즐거워서.

이러한 변화는 텃밭에 나가 몸을 움직여 일하면서 체감되는 자연의 느낌이다. 흙과 바람의 촉각, 풍광의 시각, 새소리와 벌레소리의 청각 등이 함께 불러일으키는 공감각적 변화의 느낌이 연구참여자들의 서술 속에 드러나고 있었다. 사례 1번은 이러한 변화를 과수원에서 사과나무를 통해 목격하고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사례 8번의 서술 속

에서도 배우자가 사과나무를 통해 느끼는 시간과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례 8번 역시 밭에서 씨를 뿌리고 걷는 과정 속에서 이를 체감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사례 1번] 이렇게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배워요. 사과를 이렇게. 이제 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략) 자기가 뿌리로 영양분을 다 내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걸 아는 거에요. 바람과 햇볕이 달라지잖아요. 걔가 아는 거야. 걔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거에요. 걔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크는 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례 8번] 남편이 말한 거 보면, 계속 변화. 변화 하는 거. (중략) 사과는 계속 변화하는 거를, 변화하면서 나무들이 균형을 찾아간대나 어쨌대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는 게 신기하다고 하고. 저도 이제 보면, 씨 뿌리고 씨 나고, 거두고, 다시 죽고 다시 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좋고요.

이러한 자연의 변화가 다양한 감각으로 체감되는 가장 집중적인 공간은 '밭'으로 언급되고 있다. 밭에 나가 몸을 움직이면서, 열려있는 공간을 통과하는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모습이다.

[사례 10번] 가을에 한번씩 오면, 제가 아까 누런 들판을 한번 보여드리고싶다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되게 예뻐요, 지금. 그게 계절의 변화를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모를 막 심었을 때 연두색 쪼그만 걔네들이 있다가, 금방 걔네가 자라고, 몇 개월만 지나면 누렇게 변했다가 그게 되게 특히 가을에 좋아요. 제가 가을을 타거든요. (웃음)

사례 13번은 현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위생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읍 지역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지만, '예전 시골 마을 농막 컨테이너'에서 살 때 해가 뜨고 지는 과정과 산바람의 순환을 느꼈던 체험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회상하였다.

[사례 9번] 이제는 봄이 되어서 소쩍새가 우네? 좀 지나면 뻐꾸기가 우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새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냥. 제가 농사를 안짓게 되면서, 밭에서 그거를 느끼면 더 계절의 변화같은 거를 그냥 깊게 느낄 수가 있는데. (중략) 지금은 귀뚜라미가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귀뚜라미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6월~7월 이럴 때는 안 울다가 입추 지나고 나서 한 이 정도 되면 애들이 또 많이 울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너무 좋구요.

이렇게 농촌 공간의 느낌은 '집 안'이 아닌, '바깥'의 공간에서 체험되고 있으며, 이러한 체험의 중심에 '밭' 혹은 '텃밭'이 놓여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도시적 관점에서 농촌 공간은 시각 차원 중심에서서 표상되어 왔지만,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 속에서 이 공간은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첫째, '텃밭'으로서의 농촌 공간은 자연 풍경이나 관광 경관을 '감상'하는 시각적 체험을 넘어서, 촉각, 시각, 후각, 청각 등의 감각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체감되고 있다. 둘째, 농촌 공간은 정적인 공간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순환하며 변해가는 공간, 즉 움직임과 흐름의 공간으로 체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 공간의 모습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다.

3. 정거장: 도착하고, 출발하고, 연결하는 공간

이도향촌 이주에서 농촌 공간이 전망되는 방식의 마지막 양상은 '정거장'으로서의 지역이다. '정거장'이라는 주제는 세 가지 의미를 담는다. 하나는 이도향촌 이주의 '도착지'로서의 의미다. 농촌 공간은 일차적으로 이동의 목적지다. 사람들은 농촌 공간에서 다양한 삶을 전망하고 이곳에 정착해서 의도했던 바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실천의 공간으로서 농촌 공간은 의미를 가진다. 다만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서 이 공간은 전통적 인구이동의 목적지, 정주의 공간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자 중에는 촌 지역을 영구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정주의 공간, 도착지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들에게 농촌

공간은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지'로서 활용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거나, 다른 공간 혹은 다음 이동으로 연결되는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2010년대 이도향촌의 경험 속에서 농촌 공간은 도착하는 이동, 출발하는 이동, 그리고 다양한 지역로 연결되는 이동의 '정거장'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시먼(Seamon 2020: 20)은 장소를 "사물, 인간, 체험, 의미, 사건을 모으고 활성화하고 유지하고 식별하고 상호연결하는 공간적 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 공간은 다양한 이동이 흐르며 상호연결되는 장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은 도시와 단절되어 생활하지 않았다.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시를 왕래하기도 하고, 도시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촌 지역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도향촌 이주'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연결을 형성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해외 공간까지 확장하여 상상해보는데, 이 속에서 농촌 공간은 이러한 연결과 교류의 거점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이렇게 도착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다양한 이동을 촉발하고 연결하는 장소로서의 농촌 공간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흐름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구도를 점차 불분명하게 만들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의 근거로 '정거장으로서의 농촌 공간'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도시-농촌 경계의 넘나듦

'정거장'으로서의 농촌 공간의 첫번째 모습은 도시와의 연결이다. 이도향촌 이주자의 이주 후 모빌리티를 개략적으로 추적했을 때, 이 연구는 이주자의 모빌리티가 다양한 공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원래 살던 도시에 오가기도 하고, 생활의

필요에 따라 인근 도시를 왕래하기도 하며, 도시에서 관계맺었던 사람들을 촌 지역으로 초청함으로써 다양한 모빌리티를 수행, 촉발시키고 있었다. '도시를 완전히 떠나서' 단절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은 어떻든간 도시에서 기존에 형성한 관계나 가족들과 왕래하고 있었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촌 공간의 성격을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 공간을 오가는 모빌리티를 실천함으로써 삶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살펴보았듯,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가 도시에 대한 부정(不定)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파악되는 맥락과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 9번과 19번은 직업적 필요 또는 생활적 필요에 의해 인근 도시를 주기적으로 왕래하고 있었다. 농촌 공간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자원을 구하기 위해 도시를 방문하기도 하고, 사업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도시 방문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와의 왕래는 '어쩔 수 없는 활동'이라기 보다는 '대도시인 놀이'로 표현되듯이, 행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긍정적인 활동의 의미로 나타난다.

[사례 9번] OO에서는 조달이 안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OO에 자주 나가는 편이고. 진짜로, 도시인, 제가 대도시인 놀이가 하고싶을 땐 OO도 가고요. (중략) 자주 가요. 2주에 한번은 가는 것 같아요.

[사례 19번]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드리는 업체 사장님들이 다 서울권에 계시니까 자주 왔다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왔다 갔다.

그러나 도시 방문은 경제적, 생활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연구참여자들에게 여러가지 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모빌리티로 활용되고 있었다. 가령 사례 1번은 촌 지역에서는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고정적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 1번] 제가 또 마음이 답답한 거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소통해야하는 거잖아. 그래서 도시에 나오는 거에요. 한 달에 두 번 고정적으로, 저희 이제 동반하는 모임이 있어서 오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나오면 그게 보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기 갔다고 거기만 박혀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다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어, 성취를 하면서, 무언가 저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살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에요. 통합되는 그런 느낌. 그게 양쪽이 보완이 되는 거에요, 저한테.

그러나 사례 1번의 도시 왕래가 농촌 공간의 결핍과 부정의 표현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서술에서는 두 공간 중 어느 한 공간만으로는 현재의 상태, 즉 '통합되는 느낌'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 판단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보완'하는 삶의 방식이 발견되는 것이다. 연령대와 생활 방식, 도시를 오가는 양상은 완전히 다르지만 사례 17번에서도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례 17번은 자녀에게 '시골에서의 삶'과 '도시에서의 삶'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주 근처의 도시 지역에 가족 나들이를 다녀온다고 설명했다.

[사례 17번] 일단은 재밌게, 이 아이를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가 하고 싶은 거는 도시에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구요. (중략) 부모가 일하면서 즐겁고 재밌게 살아가다보면, 그런 것들(자녀의 양육 공간)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걱정은 들긴 들어요. 시간 될 때마다 도시를 자주 올라가려고, 본가가 거기 있으니까, 가서 도시에도. 농촌에만 살면, 도시도 자주 보여주려고는 하는 거죠. 근데 터는 농촌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농촌이 지긋지긋해서 도시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도시도 어렸을 때부터 보면 '도시도 좋긴 한데, 농촌도 나쁘진 않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지점은 도시와 농촌을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어느 한 쪽을 지향하고 선택하는 서사가 아니라, '도시도 좋고 농촌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현재 필요와 선호에 따라 이동하고 머물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서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이후 그 지역에 단절되어 ("거기만 박혀서 사는") 생활하기보다는 도시 공간을 오가며 다양한 필요와 의미를 충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를 오가는 이들의 모빌리티가 농촌 공간에 어떠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농촌 공간은 도시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거점으로 실천되고 있는 양상이 자주 발견됐다. 사례 10번은 지금 살고있는 집이 아닌 다른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전원주택보다는, '사람들이 놀러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구축하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례 10번] 서울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제가, 제가 살기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집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지금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온다고 그러면 편안하게 재우고싶고, 어쨌든 저는 도시에서 왔으니까 제 주변에 시골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 오면 이게 시골생활이야, 하고 같이 밥 한끼 해먹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사례 15번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주 지역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례 15번] 초반에는 (인근 도시에)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전에 다니던 직장 거기 동료들하고도 좀 만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선배들도 OO 지역에서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분들이랑 만나서 나 요즘 농사 짓는데 아유 힘들어 이런 하소연도 해보고. 그리고 감자 수확을 해서 결실을 갖고 와서 그분들한테 '형, 제가 귀농해서 지은 건데 맛이나 한번 봐요'. (중략) 이번에는 11월

달에 그분들이 오기로 했어요. 농장으로. 저한테. 다 같이 이렇게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농장에 와서 한 1박2일 재밌게 좀 놀아보자 이래 가지고.

이 뿐 아니라, 가족 연쇄 이주도 일어날 수 있다. 향촌 이주자의 영향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주하게 될 가능성도 관찰되었다. 사례 17번은 친구들에게 '내려오라'로 자주 권하지만 실제로 선뜻 실행한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례 8번의 경우에는 '오빠네 가족'이, 사례 13번은 '배우자의 가족'이 거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연쇄가 이루어졌다.

[사례 17번] 저도 항상 몇 년 전부터 친구들한테 내려와 내려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못 내려오는 게, 일단은 집 산다고 대출을 몇 억을 받았는데 한 달에 대출금이 몇 백씩 나가는데, 내가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면 누가 갚고. (중략) 아무래도 힘들어 하더라구요.

또다른 한편, 도시와의 연결과 이동성이 향촌 이주 후에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이주 지역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도 드러난다. 아래에서 사례 10번은 이주 지역의 큰 장점으로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꼽는다. 특히 서울과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향수를 못느끼"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사례 10번] 정말 여기 OO가, 교통의, 정말, 교통의 요지에요. 어디를 가도 2-3시간 거리. (중략) 그래서 제가 향수를 못느끼나봐요. 가고싶으면 언제든지. 먼 곳이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전라도 OO(배우자의 고향)에 갔다면 서울 가기가 정말 큰 맘 먹고 가야되고. 차비도 들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반대로 사례 15번의 경우 이주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 좋지 않아 배우자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은 인근 도시 지역에서 생활할 때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요인이다가, 농촌 공간으로 이

주한 후에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제약이다. 이러한 제약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못 만나는 것'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고싶어도" 가기 어려워지는, 향촌 이주자의 모빌리티를 전체적으로 한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실천에 상당한 깊이의 모빌리티 맥락이 작동하고 있다면, 촌 지역 공간의 이러한 모빌리티 제약은 이도향촌 이주자들에게 보다 큰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도 시사된다.

[사례 15번] 저는 원래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지가 않은데 아내가 많이 불편해 해요. 술을 못 먹어서. 난 이 시간에 지금 친구랑 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서. 또 가끔 OO에 이렇게 있다가 아내 친구 분들이 '술 먹자' 이러는데, 이게 서울인 거예요. 근데 OO(인근 대도시) 있을 때는 서울 그냥 갔어요. 왜냐면 야간 버스도 많고 가서 한 시간 반이면은 서울 가서 놀다가 심야에 내려와도 되고. 근데 OO은 5시 반이 막찬가 그래요. 그니까 그런 게 답답하다고 좀 하소연을 하죠. 친구들이랑 못 만나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어도 OO는 OO공항 그냥 시내버스로 가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렇게 지역 공간과 모빌리티의 결합, 혹은 모빌리티를 통한 지역 공간의 확장이 도시 지역뿐 아니라 다른 농촌 공간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해외 지역으로까지 넓은 범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지평의 확장은 사례 3, 4번과 같이 '도시를 싫어하기 때문에' 도시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정거장으로서의 농촌 공간'은 훨씬 보편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2) 지리적 상상과 연결망의 확장

이도향촌 이주에서 지역 공간이 '정거장'처럼 다른 여러 지역으로의 확장과 연결 거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펼쳐지는가를 살

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모빌리티 반경은 살고있는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 범위의 지리 공간과 해외 지역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주 행위자의 모빌리티 반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 행위자의 연결망이 넓어지면서 농촌 공간의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이다.

먼저 이주 행위자의 모빌리티 반경이 넓어지는 양상은 사례 6번과 16번의 설명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례 6번은 귀농 학교 근처로 거주지를 정한 후에도 지역의 다른 곳들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았던 경험을 설명하였고, 사례 16번은 향촌 이주 후 '우리나라가 되게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을 좀더 탐색해보고싶다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 6번] 그래서 제가 또 여기가 되게 좋았던 게, OO 중에서도. OO을 정하고 나서도 OO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들도 돌아다녀 봤어요. 내가 지금 귀농학교,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귀농학교 근처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만 내가 생활을 했었으니까 다른 OO도 내가 모르니까 다른데도 한 번 봐보자. 근데 다른 데도 너무 좋아요.

[사례 16번] 수도권에서 살다가 수도권을 벗어나서 삼 년 살아보니 우리나라가 넓더라, 되게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전국을 십 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좀 다른 지역 특히나 전라남도나, 전라도쪽 남쪽에서 살아보고 싶다, 좀 따뜻한 곳 평야가 있는 곳. 이런 생각을 OO의 경험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러한 탐색적 전망은 다양한 지역 공간으로의 여행(사례 16번, 1번)이나, 장래의 해외 이주에 대한 상상(사례 10번, 15번)까지로 확장되기도 한다. 앞서 이도향촌 이주 후에 '우리나라가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례 16번은 이주 지역을 선택할 때도 여행을 떠나기 좋은 환경인가(기차역)를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사례 1번 역시 '역동이 일어나는 일'을 모색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례 1번과 16번은 연령대가 크게 차이나지만, 농촌 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의 모색이라는 점에

서는 큰 차이가 없다.

[사례 16번] 여행은 OO(인근 대도시) 공항에 차를 대놓고 제주도로 자주 가고, 기차로 이동하고 그래요. 기차역이 가까워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OO지역을. 기차역이 여기서 제일 가까운 OO역, 그 다음에 좀 시내로 가면 OO역을 두 군데나 지나가거든요. 제가 기차를 워낙 여행 다닐 때 좋아했고 그래서 기차로 전국을 다 다닐 수 있어서.

[사례 1번] 우리 그러면 여기 이제 살면서 그러면 이제 좀 여행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행자금 마련을 위해서 뭐 일을 좀 하든가 그런 걸 좀 해보자. 저는 성향이 어떠냐하면, 그냥은 안 있는 거 같아요. 뭔가를 계속, 역동이 일어나는 일을 하고싶은 거에요. 뭔가,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좀, 신선한 거?

사례 10번이나 15번은 더 나아가 해외 지역 이주 가능성에 대한 상상까지 이어진다. 앞의 사례 1번에서 표현된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모색은 사례 10번에서도 '새로운 거, 새로운 데 살아보는 재미'에 대한 긍정으로도 나타난다. 새로움을 주는 지역은 제주도도 있고, 미국도 고려된다. 이주에 대한 지리적 지평이 그만큼 넓은 것이다. 사례 15번도 배우자가 농업 방식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해외 이주도 하나의 전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0번] 제가 어디 가서도 적응해서 사는 거에 대한 겁이 없는 편이에요. (중략) 오히려 새로운 거, 새로운 데 살아보는 재미라고 해야하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전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서도 아직은 새로와요. (중략) 제주도에서 살아보고싶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진짜 뭐든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해야지, 여건이 된다면 그 때 살아보면 좋았을텐데, 그 때는 뭐 그럴만한 사정이 아니었고, 현재는 제주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갈 수가 없고. 그렇죠. 그 때였으면 정말 가서 살아봤으면. 뭐 영어를 잘하면 미국가서도 살아보고 싶고.

[사례 15번] (배우자가) 한국 농업이 자기가 생각하는 농업을 현실화 시킬 수 있

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아내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해외로 나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요즘 많이 얘기해요. 뉴질랜드나 호주쪽으로. 뭐 또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서 뭐 이런 기후변화 강의도 가고 하는데, '북반구 지역에서 농사는 글렀어' 이러면서 남반구로 가야 된다고.

이러한 서술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농촌 공간으로 이주한 후, 새로운 모빌리티를 추동할 수 있는 맥락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보았던 '배경' 단계의 모빌리티 감각이, 이도향촌 이주 후에도 그 다음 새로운 모빌리티를 추동하는 감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경 공간으로 농촌이 마치 '정거장'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촌 공간이 '정거장'으로 작동하는 또다른 방식은 이주 행위자가 농촌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사회연결망에 접속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내 다른 향촌 이주자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향촌 이주자와 교류하기도 하고, '4-H'나 귀농귀촌 교육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형성된 관계를 통해 타 지역 귀농귀촌인이나 활동가, 농업인들과 교류하기도 한다. 사례 12번은 다른 농촌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 청년들의 삶이 궁금했고, 다른 청년들도 서로의 생활을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고 '한번씩 방문'하기도 한다.

[사례 12번]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2018년에 OO이 진행했던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춘천에 있는 친구가 한번 놀러온 적이 있고. (중략) '우리는 OO에 있다' 사실이 알려졌을 때, 놀러오죠. 제주에 있는 친구들도 오고, 춘천에나 강화도나. 뭐. 하동이나, 전주. 그런데 꾸준히 교류한다기보다는 한번씩 방문하는 정도?

사례 19번이나 15번도 다양한 활동과 관계맺음을 농촌 공간을 거점으로 펼치고자하는 지향성을 보여주었다. 사례 19번은 자신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지역으로 새로 오는 향촌 이주자, 귀농자들에게 '멘

토'로서 조언하고 협동하는 역할을 하고싶다는 전망을 보여준다.

[사례 19번] (내가) 자리가 잡혀있다 하면은 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거. 경험을 하는 거. 이런 거. 그 멘토-멘티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중략) 저만 혼자 이렇게 딸랑 있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어떤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농공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굉장히 좋아요.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되거든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사실 그럼 정말 사회적 의미도 클 것 같아요.

사례 15번은 농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전망을 설명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관계망을 넓혀간다.

[사례 15번] 사람 만나고 다양한 활동 하는 걸 좋아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걸 여기 투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 중에 하나가 체험프로그램이나 체험 교육을 좀 여기에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중략) 유기농 농사 짓는 공간도 보여주고 우리가 하고있는 토박이 살림 운동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직접 흑을 이렇게 만져보고 뭘 고구마든 감자든 캐 보는 거를 경험하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지역에 마을활동, 활동과,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외에 이제 마을에 있는 그 시니어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떠나서 마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 식으로.

이러한 교류의 범위는 국내 지역 범위를 넘어서, 해외로까지 상상된다는 점도 흥미롭게 드러난다. 사례 14번은 지역으로 찾아오는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위해 여가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고있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들의 모빌리티와 지역공간 전망의 범위가 외국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례 14번] 온라인 영어도 제가 등록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외국어가 조금 너무 미흡해서 둘 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기초적인 걸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 사실 필수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도 농사를 하더라도 관련해서 당연히 영어가 필요할 것 같고. (중략) (해외)이주까진 생각은 없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외국 분들이 (이 지역에) 오시는데 청년분들이 그래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 뭐 다른 나라 말, 외국어, 제2외국어 다른 것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안내하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그게 부족하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다만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 이와같은 활동 범위의 확장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귀촌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역의 한 특징으로 소개한 사례 9번의 이야기나, 함께 할만한 또래가 없어 지역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사례 3번의 경우를 보아도, 이도향촌 이주가 곧 다양한 지역으로의 연결을 내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례 9번] OO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보통 그게, 저랑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땅값이 싸다. 그리고 산지이고 인구밀도가 적고 하니까. 좀 어디 이렇게 골짜기 끝땅 같은 데 살고싶어하세요. 주변에 마을에 간섭 안받고.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살고싶은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중략) 그, 뭐라고 해야하지? 공동체나, 모여서 으싸으쌰, 모여서 뭐 재미있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볼까? 막 이런 모임 같은 게, 되게 잘 생겨지지 않아요.

[사례 3번] 저도 지역활동을 하면 되게 좋겠다, 이랬는데. 막상 그렇게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혼자는 잘 안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 또래가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해서 두세명이 모였어요. 그럼 모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성향상 제가 추진해서, 내가 뭘 바꿔놓겠어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뜨개질도 할 수 있고 뭐, 약간 이제 재활용, 업사이클링같은 강의도 몇 번 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런 분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연계해서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해서 (활동을) 해야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두,세 사람 모으면 딱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없더라고요. 관심있는 그 두,세 사람이.

그러나 사례 3번에서도, “관심있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활동이 확장될 가능성이 시사되듯이, 이도향촌 이주의 흐름 자체가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을 언제든 연결하고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충분히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3절. 소결

이 장은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에 대한 마지막 분석 부분으로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농촌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을 통해 이도향촌 이주에서 촌 지역이 ‘빈 공간’으로 전망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때 ‘빈 공간’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와 같은 경쟁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일과 생활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실천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이주 후에 지역에서 ‘텃밭’이라는 비유적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생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텃밭’은 본격적인 영농활동처럼 ‘무거운 의미’는 아니지만 이도향촌 이주에서 전망했던 다양한 생태적 경험과 자율성, 해방적 활동과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박한 공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내가 심어보고 싶은 작물’을 다양하게, 하지만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는 부담없이 심어보고 재배와 수확의 기쁨, 공간 변화의 감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땅이 텃밭이다. 텃밭의 이런 의미로 인해 전업농인 이주자의 생활 속에서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이주자의 생활 속에서도 텃밭은 쉽게 발견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텃밭이 규모가 작고 ‘본격적’이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 의미도 그만큼 가벼운 것은 아니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 속에서 촌 지역은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공간으로 전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의 실천 공간으로서 전망되고 있었고, 이를 추구하는 모빌리티의 정거장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거장으로서의 작동은 촌 지역을 다른 지역, 다른 사회와의 연결을 추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시 한번 '텃밭' 현상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텃밭은 이도향촌 이주자의 경험 속에서 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난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은 도시텃밭을 통해 촌 지역에 대한 전망을 형성하기도 하였고, 이주 후에는 도시텃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지식 전수의 공간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장기적 정착에 실패하더라도 도시로 가면 꼭 텃밭만큼은 계속 할 것이라는 지속적 전망을 품기도 하고, 도시로 돌아간 사례에서도 다시 촌 지역으로의 재이주를 전망함에 있어 '텃밭'으로 표상되는 촌 지역 공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정거장'의 의미에서 도출되는 바는 이들에게 '모빌리티'의 욕구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촌에서도 살아보고싶다'는 탐색적 지향, 두 공간을 모두 경험해보고 자신이 살고싶은 지역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거 이동권'에 대한 감수성은 2010년대 한국 사회의 주거 모빌리티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도향촌 이주자들의 도시, 더 나아가 전국 지역과 해외 지역과의 교류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들의 이동과 주거에 더욱 주목하게 한다.

이렇게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는 촌 지역을 '농촌 지역'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서도 '농(農)'의 가치와 비도시적 생활과 탈성장의 가치 지향을 적극적으로 확장해나감으로써 도시 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해석과 지역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나가는 혼종적 모빌리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2010년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인구이동과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201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이 흐름은 기존에 ‘귀농귀촌’의 개념으로 포착되고 논의되어 왔다. 또한 점차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조명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귀농귀촌 담론은 농업, 반(反)도시적 가치, 은퇴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지역인구 담론은 경제, 개발, 생산인구(청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들 담론에 공통적으로 전제된 관점은 ‘촌 지역 공간은 도시에 대한 대립항의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동은 비용이라는 것’, ‘지역 문제의 해법은 생산인구를 통한 성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관점 모두 2010년대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도향촌 이주 흐름을 제대로 포착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이동의 새롭게 읽어내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의 출발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이도향촌 이주’라는 인구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이 이동의 성격과 발생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2010년대 한국사회의 인구이동에 이도향촌 방향의 새로운 인구이동이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형성되어있음을 확인했다. 전체 인구이동 속에서 촌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구조적 지속성을 확인하였다. 인구 크기의 관점으로는 인구이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시간적 지속성과 공간적 확장성의 관점에서 이 이동은 2010년대에 주목되는 새로운 인구이동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과거 귀농귀촌처럼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 국한되거나 특정 연령층에서 유행하는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외화된 이동과는 구분되는 이동으로서, 비도시적 이동이면서도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대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역 수준의 통계와 미시적 행위자들의 경험 서사를 함께 살펴보는 분석 방식으로 설명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는 아직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현상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인과적 모형으로 풀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현상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존 논의가 많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 전략으로 이 논문은 혼합적 자료와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차용하였다.

먼저 지역 수준의 통계와 인구이동 기제 모형을 사용하여 이도향촌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경제적 요인은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수준 보다는 경쟁이 포화상태가 아닌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요인은 이주 후 정착에 영향을 미칠 뿐, 이주 시점에서 지역을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하다. 3) 생활환경은 지역에 주택이 많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으며, 교육시설이나 도로와 같은 도시적 환경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중심의 이동 기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인구밀도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주 지역에 적정 수준의 인구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자연환경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경관과 관광경관, 농업경관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관광경관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도향촌 이주에서 기본적인 생활환경은 도시로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도시와 동일한 요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기제가 행위자의 미시적 경험 속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에 대해 이도향촌 이주 경험을 '배경-결정-선택-실천'의 단계적 과정으로 재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과 추동력을 모빌리티 이론의 관점에서 찾아내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귀농귀촌 경험 분석에서는 조명되지 않았던 2010년대 이도향촌 이주의 새로운 의미와 작동 맥락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한국 사회의 모빌리티 증가와 농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이도향촌 이주는 이미 행위자들의 생애 속에 모빌리티의 감각, 문화적 가치와 태도, 도시 생활에 대한 평가, 농촌 공간에 대한 전망이라는 요인을 배경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2010년대 들어 증가하고 심화되어 온 한국 사회의 이동성과 유동성 증가, 그리고 귀농귀촌 담론의 증가, 다양한 삶과 생태적 가치의 확산 등과 맞물려 형성된 것들이다. 이 요인들은 행위자들의 생애 속에 잠복되어있다가, 행위자들이 생애 사건이나 일자리 상황으로 인해 삶의 전환의 압력을 받게 되었을 때, 도시에서의 삶의 유동성과 맞물려 이도향촌 이주를 추동하고 촉발했다. 그리고 이렇게 촉발된 이주 결정은 사회연결망, SNS, 미디어, 귀농귀촌 정책 등을 통해 지역에 연결되는 경로를 설정하게 되고, 지역의 '자연 환경', '생활 방편', '지역주민의 환대' 요인에 따라 최종 목적지를 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이주로 실천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촌 공간은 전통적인 농촌 지역의 표상과는 다르게 전망되고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도향촌 이주자들은 농토와 공동체를 일구면서 오랫동안 뿌리내리려는 '정주의 공간'으로 농촌 공간을 전망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농촌을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공간이나 한적한 전원생활의 공간으로 모색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농촌 공간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전략으로, 실천으로 다양하게 구성해내면서 '농(農)'의 가치와 대안적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확장해가고 있었다.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보기 보다는, 자신의 전망과 전략에 따라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농촌 공간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경험 속에서 농촌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정거장이자, 이주 행위자들의 다양한 전망을 실천할 수 있는 텃밭과 같은 공간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

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농촌 공간의 조건은 '비어있음'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경쟁, 미리 정해진 규칙, 타인들이 만들어놓은 틀의 부재'가 2010년대 이도향촌 모빌리티에서 전망되는 농촌 공간의 중요한 속성이었다. 다시 말해, 2010년대 이도향촌 이동은 다양한 실천과 연결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인 농촌으로 흘러들거나 통과하는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로서 인간은 언제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구이동 변천의 흐름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인구이동의 흐름은 그 흐름이 통과하는 공간을 변화시킨다. 산업화 시기, 성장과 발전을 향한 인구이동이 도시 공간과 도시 문제를 만들었듯이 2010년대 이도향촌 흐름 역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빌리티 증가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이동과 농촌 공간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정주를 통해 번영하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아니라, '유동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중심으로 지역과 인구이동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관점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강동우. 2019.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노동리뷰≫ 2019: 47-60.

강상진. 2016.『다층모형』. 학지사.

계봉오, 김중백, 김현식, 이민아, 이상림, 조영태. 2013.『인구와 보건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권상철. 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71-584.

권용우, 이자원. 1995. "수도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0(4): 21-39.

권태환, 김두섭. 2002.『인구의 이해(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기흥. 2018. "귀농귀촌 개념과 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충남 사례를 기반으로." ≪농촌사회≫ 28(2): 47-86.

김동수, 장재홍, 이두희. 2009. "지역별 인구이동 분석." ≪경제발전연구≫ 15: 133-152.

김두환, 성주인, 김영단. 2014.『일본의 농촌 주거정책 및 마을 활성화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민영, 최현. 2015.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50: 39-78.

김반석. 2019.『모빌리티의 상상과 새로운 삶의 실험: 농촌 이주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원. 2013. "경기도 시,군 인구의 전출입특성과 지역산업의 관계 분석." ≪국토연구≫ 76: 81-92.

김용진, 손용훈. 2018. "뉴스데이터의 LDA 토픽 분석을 통한 장수군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의 특징: 관광·생활 키워드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 24(4): 69-80.

김이선, 김재인, 김반석, 박경숙. 2019. "동태적 연령구조 모형에 기초한 지역 유형화와 지역의 인구, 경제, 교육, 복지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인구학≫ 42(2): 83-113.

김이선, 손명아. 2018.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지역사회 경험이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9(3): 199-228.

김정섭, 김종인. 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1): 33-48.

김정섭, 오내원, 김경인. 2016.『농가의 다면적 경제사회활동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보고서.

김정섭, 이정해. 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KREI-농정포커스≫ 151.

김정섭. 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3.

김창현, 강호제, 이종열. 2008.『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국토정책 과제』. 국토연구원.

김철수. 2017. "귀농귀촌 증가와 농업포털의 출범." ≪건축≫ 61(12): 54-57.

김태희, 이상봉, 김재인, 강혁, 도승연, 김진택, 강진숙, 김재희, 이명수, 박일준. 2019.『모빌리티 사유의 전개』. 앨피.

김현아. 2008.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10(2): 75-103.

김현중, 여관현. 2019. "한국의 미래 인구분포 변화에 대한 예측." ≪GRI

연구논총≫ 21(1): 301-312.
김홍배, 이창우. 2008. "성별·연령별 지역효용을 고려한 지역간 인구이동 예측 모형개발." ≪도시행정학보≫ 21(1): 257-268.
김홍배, 이창우. 2009. "ANP기법을 이용한 지역효용측정과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4(7): 61-70.
김홍중. 2019. "인류세의 사회이론 1: 파국과 페이션시(patiency)." ≪과학기술학연구≫ 19(3): 1-49.
김화환, 이태수, 김종민, 안태후. 2015.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소지역 분류 및 유형화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9(2); 229-240.
구양미. 2021.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55(3): 301-32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2016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미간행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0.『귀농귀촌가이드북 귀농귀촌종합센터』. 농림수산부 발간.
노재선, 정진화, 전지연. 2013. "귀농과 농가 고령화: 귀농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 인구구조 변화 예측." ≪농촌계획≫ 19(4): 203-212.
마상진. 2018. "귀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53-72.
마상진, 남기천. 2015.『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유형별 관련 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대식. 2019. "귀농귀촌의 역사적 고찰과 시사점." ≪농촌사회≫ 29(2): 7-32.
마상진, 박대식, 안석, 윤순덕, 남기천. 2018.『귀농귀촌인 마을 사례조사: 3차년도(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승태, 김선애. 2011. "도시민의 농촌생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2): 75-93.
민지애. 2018.『청년의 안정적 귀산촌 정착과정과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 2017.『인구학 방법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경환. 2017. "역도시화인가 촌락 젠트리피케이션인가? 개념적 적합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87-107.
박공주. 2006.『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기서, 정일훈. 2012. "귀촌 도시민의 선호지역과 결정요인." ≪주거환경≫ 10(2): 91-105.
박문호, 임지은, 서환석, 황재현. 20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귀농, 귀촌 추진 방안 연구." ≪농업경영 정책연구≫ 41(4): 795-820.
박성복. 2013. "귀농인의 농촌 생활만족도와 그 요인들 간의 통합적 영향관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4(3): 253-277.
박성정, 이선주, 진명숙, 장희영. 2012.『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소현, 이금숙. 2019. "이동요인별 시공간적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인구분포 예측: 마르코프 연쇄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3): 351-365.
박수진. 2018.『이도향촌 청년의 지역 선택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수진, 나주몽. 2016.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최근 연구경향 분석." ≪지역개발연구≫ 48(2): 111-141.
박수진, 나주몽. 2017. "농촌지역별 이도향촌 인구점유율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연령계층별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291-323.
박시현, 최용욱. 2014.『귀농귀촌요인과 농촌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연구원.
박정일. 2015.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 개발 및 적용." ≪국토계획 ≫ 50(6): 159-172.

박철민. 2020. "경남 청년인구의 생애주기별 이동과 시사점: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GOMS)를 중심으로." ≪경남발전≫ 2020: 68-80.
박현제. 2015.『귀농자를 위한 다목적 마이크로 모빌리티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영민. 2018.『R을 이용한 다층모형』. 한나래아카데미.
삼선배움과나눔재단. 2015.『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삼선재단.
서만용, 구자인. 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145-171.
성주인, 김성아.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농업전망 2012: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239-26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박시현, 정문수, 민경찬. 2019.『농어촌 사례 마을의 변화 실태 종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능수, 이재모. 2014.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와 정책방안: 경상북도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5(4): 49-79.
손승호. 2014. "서울 대도시권 인구이동장의 사회·경제적 속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125-138.
손호기, 이동관, 김상범. 2011. "에코뮤지엄 개념에 기초한 친환경 농업경관지구 조성계획 연구: 충주시 주덕읍 일원을 중심으로." ≪농어촌관광연구≫ 18(2): 87-100.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2015.『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수연. 2013. "새로운 문화정치의 장, 자립문화 운동: 문화귀촌, 청년의 소셜 네트워크, 메이커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73: 145-159.
송인하. 2013.『생태가치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엄창옥, 노광욱, 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한 결정요인: 대구

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염미경. 2019. "산업화 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지역사회학≫ 16(1): 49-90.
왕재억. 2017.『귀촌 영향요인에 따른 정주의식에 관한 연구: 귀촌정책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성호. 2013.『귀농귀촌의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성호, 이성근. 2015.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3): 75-94.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2010년의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77-90.
오수호. 2013.『귀농·귀촌 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은열, 문채. 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시행정학보≫ 29(4): 67-92.
우성호, 이성근. 2015.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2(2): 101-116.
유기은, 고성수. 2015. "경기도 귀농귀촌 전원주택 거주자의 이촌 의사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 인구이동이론과 주택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3(4): 99-131.
유정규. 1998. "귀농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시와 빈곤≫ 34: 23-41.
이다혜, 주경식. 2013. "대도시 교외지역 제조업 입지와 종사자의 거주지: 양산시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641-653.
이민수, 박덕병.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1137-1170.
이민수, 이승형, 김명룡, 김정섭. 2009.『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이상림.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

환 이동." ≪한국인구학≫ 32(3): 43-72.
이상직, 김이선, 권현지. 2018.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남녀 대졸자 노동이력으로 본 위기 전후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경제와사회≫ 118: 139-181.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봄): 4-17.
이선영. 2017.『문화귀촌과 문화거점공간의 역할』.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일. 2016.『귀농귀촌의 경험 및 준비기간에 따른 갈등요인과 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희, 황동룡. 2021.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산업융합연구≫ 19(2): 33-38.
이연경. 2017.『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연경. 2018.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2(2): 301-335.
이연숙, 전은정, 김민주. 2019.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도모하는 소규모 공동체주택 사용자 참여 계획."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6): 15-27.
이정섭, 은석인. 2016. "도시 계층성에 따른 단계적 이동과 과소화 검토: 1995~2014년 도시 순위-규모와 자연적 인구증가율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120-134.
이정섭. 2014.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성장과 단계적 이동." ≪대한지리학회지≫ 49(4): 525-545.
이종상. 2013. "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한 행정구역의 통합기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91-108.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이찬영, 문제철. 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

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이찬영, 이흥후.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143-169.
이철우, 전지혜. 2015. "경상북도 귀농귀촌의 지역적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49(1): 73-88.
이해진, 김철규. 2013. "대안가치지향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특성과 역할." ≪농촌사회≫ 23(2): 49-90.
이형수. 2012. "석탄을 캐던 마을에서 문화를 캐는 박물관 고을로." ≪한국관광정책≫ 49: 87-93.
이희연. 2003.『인구지리학』. 법문사.
이희연. 2008.『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국토연구원.
이희연, 노승철. 2010.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 흐름 분석." ≪국토연구≫ 123-142
이희연, 박정호. 2009. "경로분석을 이용한 인구이동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구조." ≪경제지리학회지≫ 12(2): 123-141.
임병호, 지남석, 윤진성. 2015. "전출입 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 간 연관성 분석." ≪도시행정학보≫ 28(4): 177-191.
임석회. 2017. "이촌향도와 도시화 단계 전환에 대한 귀촌 귀농 인구이동의 함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45-48.
임준홍. 2021.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주거이동의향 실증분석: 도시와 농촌 차이." ≪주거환경≫ 19(1): 13-24.
임창호, 이창무, 손정락. 2002. "서울 주변지역의 이주 특성 분석." ≪국토계획≫ 37(4): 95-108.
장경섭. 2009.『내일의 종언』. 나남출판.
정상순. 2015.『시골생활』. 문학과지성사.
정규호. 2013. "도시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정신문화연구≫ 36(4): 7-36.
정다래. 2009.『비혼 귀농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대안적 삶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일홍, 이성우. 2010. "농촌이주 도시민의 특성과 공간적 선호." ≪농촌사회≫ 20(2): 163-190.
정진화, 노재선, 장원철, 김새봄, 윤기열, 김준식. 2014. "귀농인의 지역별 이동패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4): 221-232.
제현정, 이희연. 2017.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27-43.
조혜종. 2006.『새 인구론』. 푸른길.
진명숙, 박성정. 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진안지역 사례." ≪여성연구≫ 275-297.
진양명숙. 2008.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4): 105-131.
진양명숙. 2014. "젠더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 특성." ≪농촌경제≫ 37(3): 79-100.
진양명숙, 김주영. 2014. "도시민 농촌이주에 나타난 농촌성 담론 분석." ≪농촌사회≫ 24(2): 121-160.
채상헌. 2013. "성공적인 귀농 정착에의 영향 변인: 귀농정착 현황 및 귀농정착 성공요인 분석."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43-60.
채성주. 2015. "지역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 분석: 충북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지역정책연구≫ 26(2): 1-21.
채성주. 2017.『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중심성 분석』. 충북연구원.
최돈우, 김동춘, 이항아, 임청룡. 2019. "도시민 귀농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농촌계획≫ 25(3): 29-36.
최민정. 2015.『인구정책의 지방화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성호, 이창무. 2013. "연령대별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19(2): 87-102.

최은영. 2004. "지역 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5(3): 49-66.
최현선. 2016. "귀농귀촌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물리적 지원에서 신뢰와 역량강화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2016: 33-44.
통계청. 2018.『이용자용 통계정보 보고서 2018』. 통계청.
하상근. 2005.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9(3): 309-332.
한이철, 이정재, 정남수. 2005. "집단 생잔 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모델 개발." ≪한국농공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5: 456-460.
한주성. 2015.『인구지리학(개정판)』. 한울.
한주성. 2020. "생산·가공공동체의 사회자본과 지역재활성화: 충북 괴산군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5(6): 573-588.
홍윤실. 2019.『귀농·귀촌 관련 정책이 귀촌인의 영농 의사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의정, 우명제. 2016. "전국 도시권의 도시 스프롤 측정을 통한 유형 및 특성 분석." ≪국토계획≫ 51(5): 21-42.
황정임. 2012.『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쟁점.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세미나 자료집』. 김정섭, 임지은 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번역서

Adey, Peter. 2019.『모빌리티 이론』. 최일만 옮김. 앨피.
Bissell, David. 2020.『통근하는 삶』. 박광형, 전희진 옮김. 앨피.
Charmaz, Kathy. 2006.『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박현선 옮김. 학지사.

Loew, Martina. 2020.『공간의 사회학』. 장유진 옮김. 제르미날.
Massey, Doreen. 2015.『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Mezzadra, Sandro and Brett Neilson. 2021.『방법으로서의 경계』. 남청수 옮김. 갈무리.
Relph, Edward. 2019.『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옮김. 논형.
Seamon, David. 2020.『삶은 장소에서 일어난다』. 최일만 옮김. 앨피 출판.
Simmel, George. 2006.『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옮김. 새물결.
Tuan, Yi-fu. 2007.『공간과 장소』. 구동회 옮김. 논형.
Tuan, Yi-fu. 2011.『토포필리아』. 이옥진 옮김. 에코리브르.
Urry, John. 2012.『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윤여일 옮김. 휴머니스트.
Urry, John. 2014.『모빌리티』. 강현수, 이희상 옮김. 아카넷.
시오미 나오키. 2016.『반농반X로 살아가는 법』. 노경아 옮김. 더숲.

3. 국외 문헌

Abbott, Andrew, and Angela Tsay. 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9(1): 3-33.
Abrams, Jesse B., Hannah Gosnell, Nicholas J. Gill, and Peter J. Klepeis. 2012. "Re-creating the Rural, Reconstructing Nature: An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of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Amenity MIgration." *Conservation and Society* 10(3): 270-284.
Aner, Louise G. 2016. "Dwelling habitus and urban out-migration in Denmark."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3(4): 662–

676.

Bell, Michael M., Giorgio Osti. 2010. "Mobilities and Ruralities: An Introduction", *Sociologia Ruralis* 50(3): 199-204.

Berry, Brian L. 1980. "Urbanization and Counterurb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51(1): 13-20.

Benson, Michaela and Karen O'Reilly. 2009. "Migration and Search for a Better Way of Life: a Critical Exploration of Lifestyle Migr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57: 608-625.

Byun, Pillsung, Adrian X. Esparza. 2005. "A Revisionist Model of Suburbanization and Sprawl: The Role of Political Fragmentation, Growth Control, and Spillover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4(3): 252-264.

Castells, Manuel. 2000. "Toward a Sociology of the Network Society." *Contemporary Socioilogy* 29(5): 693-699.

Christensen, Ann-Dorte, and Sune Q. Jensen. 2011. "Roots and Routes: Migration, belonging and everyday life." *Nordic Journal of Migration Research* 1(3): 146-155.

Clifford, James.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Coulter, Rory, Maartan van Ham, and Allan M. Findlay. 2016. "Re-thinking residential mobility: Linking lives through time and 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0(3): 352-374.

Cresswell, Tim. 2006. *On the Move: Mobility in the Modern Western World*. Routledge.

Duffy, Andrew. 2017. "'The locals are friendly!' An empirical analysis of mobility and mooring in travel blog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3): 444-459.

Elliott, Anthony, and John Urry. 2010. *Mobile Lives*. Routledge.

Fielding, Anthony. 1989. "Inter-regional migration and social change: a study of South East England based upon data from the Longitudinal Stud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989: 24-36.

Fisher, Peter F., and Mitchel Langford. 1996. "Modeling sensitivity to accuracy in classified imagery: A study of areal interpolation by dasymetric mapping." *The Professional Geographer* 48(3): 299-309.

Gkartzios, Menelaos, and Karen Scott. 2015. "A Clutural Panic in the Province? Counterurban Mobilities, Creativity, and Crisis in Gree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 843-855.

Gkartzios, Menelaos, Kyriaki Remoundou, and Guy Garrod. 2017. "Emerging geographies of mobility: The role of regional towns in Greece's 'counterurbanisation story'". *Journal of Rural Studies* 55: 22-32.

Gibbs, Jack P. 1963. "The Evolution of Population Concentration." *Economic Geography,* 39(2): 119-129.

Gosnell, Hannah, and Jesse Abrams. 2011. "Amenity migration: diverse conceptualization of drivers, socioeconomic dimensions, and emerging challenges." *GeoJournal* 76: 303-322.

Greenwood, Michael J. 1997. "Chapter 12: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647-720. Elsevier.

Gustafson, Per. 2001. "Roots and Rout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Mo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3(5): 667-686.

Halfacree, Keith. 2008. "To Revitalise Counterurbanisation Research? Recognising and International and Fuller Picture." *Population, Space and Place* 14: 479-495.

Hannam, Kevin, Mimi Sheller, and John Urry. 2006. "Mobilities, Immobilities, Moorings." *Mobilities* 1(1): 1-22.

Knapp, Thomas A. and Philip E. Gravest. 1989. "On the Role of Amenities in Models of Mig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9: 71-87.

Kley, Stefanie A. 2017. "Facilitators and constraints at each stage of the migration decision process." *Population Studies* 71: S35-S49.

Kley, Stefanie A. and Clara H. Mulder. 2010. "Considering, planning, and realizing migration in early adulthood. The influence of life-course events and perceived opportunities on leaving the city in Germany." *Journal of House and the Built Environment* 25: 73-94.

Meijering, Louise, Bettina van Hoven, Paulus Huigen. 2007. "Constructing ruralities: The case of the Hobbitstee, Netherlands." *Journal of Rural Studies* 23: 357-366.

Milbourne, Paul. 2007. "Re-populating rural studies: Migrations, movements and mobilities." *Journal of Rural Studies* 23: 381-386.

Milbourne, Paul, and L. Kitchen. 2014. "Rural mobilities: connecting movement and fixity in rural places." *Journal of Rural Studies*, 34: 326-336.

Mitchell, Clare J. A. 2004. "Making sense of conterurbaniz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20: 15-34.

Morris, Meaghan. 1988. "At Henry Parkes motel." *Cultural Studies* 2(1): 1-47.

Nefedova T.G., N.E. Pokrovskii, and A.I. Treivish. 2016. "Urbanization, Counterurbanization, and Rural–Urban Communities Facing Growing Horizontal Mobility." *Sociological Research* 55(3):

195-210.

Park, Keong-Suk. 2019. "A Few Thoughts on Very Low Fertility, Aging Society: Reflection 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Modernity." *Journal of Asian Sociology* 48(4): 459-490.

Ravenstein, E. G. .1885.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48(2): 167-235.

Relph, Edward.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Salazar, Noel B. 2017. "Key figures of mobility: an introduction." *Social Anthropology* 25(1): 5-12.

Schachter, Jason P., Pachel S. Franklin, and Marc J. Perry. 2003. "Migration and Geographic Mobility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merica: 1995 to 2000." *United States Census 2000 Special Reports CENSR-9.* US Census Bureau.

Sheller, Mimi, and John Urry. 2006.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207-226.

Simmons, James W. 1968. "Changing Residence in the City: A Review of Intraurban Mobility." *Geographical Review* 58(4): 622-651.

Simmel, Georg. 2012.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The urban sociology reader*. Kurt H. Wolff (ed.): 37-45. Routledge.

Thimm, Viola, and Mayurakshi Chaudhuri. 2019. "Migration as mobility? An intersectional approach." *Applied Mobilities* 6(3): 273-288.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Todaro, Michael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148.

Tuan, Yi-Fu. 2001.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Ulmer, Jeffery T., and Brian Johnson. 2004. "Sentencing in context: A multilevel analysis." *Criminology* 42(1): 137-178.

Vannini, Phillip. 2011. "Mind the gap: the tempo rubato of dweling in lineups." *Mobilities,* 6(2): pp.273-299.

Zelinsky, Wilbur. 1971. "The Hypothesis of the Mobility Transition."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61(2): 219-249.

<부 록>

각 모형 분석 결과 및 AIC, BIC 값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종속변수: log(이도항존 유입인구)	δ	S.E.	δ	S.E.	δ	S.E.	δ	S.E.	δ	S.E.	δ	S.E.	δ	S.E.
A. 고정효과														
1) 경제적 요인														
인구 당 사업체 수	*-2.16	0.95	**-3.79	1.21	*-1.88	0.87	**-2.81	1.04	*-1.89	0.92	*-2.89	1.19	┼-1.38	0.82
인구 당 종사자 수	***0.82	0.18	***1.64	0.27	***0.75	0.17	***1.50	0.25	***0.87	0.19	***1.38	0.29	***0.79	0.17
'좋은 일자리' 비중	*0.70	0.30	0.61	0.42	*0.56	0.27	0.26	0.39	┼0.51	0.29	┼0.73	0.40	0.33	0.26
2) 생활환경 요인														
인구 당 주택 수	***-2.66	0.30	***-2.28	0.29	***-2.13	0.39	***-1.68	0.42	***-2.18	0.29	***-2.06	0.28	***-1.59	0.38
인구 당 교육시설 수	***-0.20	0.03	***-0.19	0.03	***-0.23	0.04	***-0.19	0.03	***-0.20	0.03	***-0.19	0.02	***-0.21	0.03
인구 당 의료시설 수	***0.21	0.03	***0.16	0.03	***0.22	0.04	***0.17	0.03	***0.19	0.03	***0.16	0.03	***0.20	0.03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3.92	2.11	*-4.15	2.03	┼-4.02	2.21	┼-3.52	1.86	*-5.28	2.18	*-4.64	2.10	*-4.43	2.00
인구밀도	***2.41	0.20	***2.41	0.20	***2.95	0.20	***3.91	0.32	***3.13	0.23	***2.96	0.23	***4.17	0.37
3) 자연환경 요인														
자연 경관 면적 비중	0.09	0.66	0.12	0.66	0.12	0.60	0.61	0.58	-1.21	1.25	-0.58	1.24	-0.22	0.82
관광 경관 면적 비중	*17.69	8.10	12.12	7.76	*15.30	7.09	10.66	6.59	7.82	9.81	11.62	10.68	5.41	11.45
농업 경관 면적 비중	0.09	0.71	0.17	0.71	0.25	0.65	0.63	0.63	-1.33	1.38	-0.67	1.37	-0.32	0.90
(절편)	5.44	0.04	5.44	0.05	5.44	0.05	5.44	0.05	5.44	0.05	5.44	0.05	5.44	0.05
B. 무선효과														
읍면동 수준 분산		0.22		0.18		0.15		0.11		0.18		0.16		0.12
지자체 수준 분산		0.18		0.19		0.20		0.20		0.19		0.19		0.20
인구 당 사업체 수				37.45				28.13				46.53		
인구 당 종사자 수				1.73				2.57				2.94		
'좋은 일자리' 비중				0.87				1.88				0.92		
인구 당 주택 수						6.51		9.60						6.61
인구 천명 당 교육시설 수						0.07		0.04						0.05
인구 천명 당 의료시설 수						0.05		0.02						0.01
지역 내 도로면적 비중						98.27		20.93						28.75
인구 밀도						12.69		2.93						5.11
자연 경관 면적 비중										53.85		55.59		9.96
관광 경관 면적 비중*100										1933.96		1414.48		1858
농업 경관 면적 비중										71.13		72.68		13.42
AIC		1654		1609		**1541**		1588		1457		1569		1493
BIC		1724		1723		**1709**		1702		1744		1773		1780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1$

<Abstract>

Migration from Urban to Rural in the 2010's: New Possibilities of Population Mobility and Rural Space

Kim, Ee-Su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constructs the increasing phenomenon of rural population inflow in the 2010's with the demographic concept of 'urban-rural migration', and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migration. It is confirmed that in the 2010's,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structural demographic shift toward rural areas. We have discovered that the context behind this migration is the increased mobility and diverse imaginations of rural spaces.

The structural sustainability of urban-rural migration in the 2010's was confirmed by chronological analysis of rural inflow population in the overall population movement. In terms of population size,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s a whole is not yet large, but it is a new population trend that is drawing attention in terms of persistence and spatial range. It is also distinguished from sub-urbanization. Although it is a non-metropolitan movement, it has persistence and scalability.

The reason why this phenomenon has occurred in the 2010's was analyzed by regional-level statistics and micro-level interviews with migration actors. Urban-rural migration in the 2010's is still a new phenomenon, relatively small, and is progressing in various ways, making it difficult to explain in a causal model. For this reason, there are few overall and comprehensive prior studies. Therefore, this paper uses mixed data and various theories.

First of all, using regional-level statistics and a demographic migration model,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rural population inflo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or each factors. 1) Economic Factors: Employment is important, but competition dens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lity of employment. 2) Policy factors; It only affects the settlement, while the effect on the selection of region is unclear. However,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negative effects. 3) Living environment: The more houses there are in the area, the more negative effects appear. The urban environment (educational facilities, roads, etc.) has a negative effect. In other words, it shows a different characteristic from the urban mobility mechanism. Population density, however,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However, population density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It was reconfirmed that a reasonable level of population is important to the local society. 4) Natural environment; non-artificial natural scenery, tourism landscape, and agricultural landscape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mong them, only the sightseeing scenery was meaningful. Summarizing theses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mechanism of urban-rural migration in the 2010's is different from that of migration toward a city.

Then, how does the mechanisms of urban-rural migration work on the experiences of people who has moved to rural area in the 2010's? The study reconstructed people's migration experience as a step-by-step process of "background - determination - choice - practice." Then, from a mobility theory perspective, this study tried to find factors and driving forc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ach stage. Through this, what is the new meaning that has not been illuminated in the existing discussions and what is the common context of various causes of occurrence is explained as follows.

In the interview, senses of mobility, cultural values, evaluation of urban life-style, and prospects for rural place appeared as the background of the urban-rural migration. These factors are linked to the increase in mobility and liquidity, the trend of 'returning to rural' movement, spread of diversity and ecological values in Korean society in the 2010's. These factors were latent in the lives of actors and triggered urban-rural migration when pressure of transition occurred due to life events or jobs. The triggered migration decision establishes a path to the region through social networks, SNS, media, and policies.

Finally, the destination was determined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natural environment', 'living conditions', and 'resident's hospitality'.

In this process, it was discovered that rural space are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raditional ones. In traditional discourse, rural spaces are represented as an opposite site of a city. Rural space also functions as a 'kitchen garden' where actors can practice their prospect. The reason why people think so is that the countryside is 'empty'. There are only few people, there are low competition, no rules, no orders.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people can freely decide and experiment on your own. Urban and urban problems arose from domestic migration toward development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This study argues that the new flow of urban-rural migration in the 2010's is also likely to create a new space in rural region.

As described above, this paper presented a new possibility of urban-rural migration in the 2010's. The direction of movement, the mechanism of operation, and the meaning of space are different from before. Up until now, rural areas have been described by keywords such as "agriculture, opposition to urbanization and retirement". Regional population problems have been explained by keywords such as "economy, development, productive population and the youth". However, these keywords are based on the view that "rural areas are opposing spaces against cities", that "movement is cost", and that "the production population and growth are key solution to demographic crisis".

However, this study has argued that all of these perspectives did not properly recognize the urban-rural migration phenomenon in the 2010's. This article proposes the possi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The phenomenon of urban-rural migration in the 2010's is a new flow of migration, a result of various mo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rural spaces.

Keywords : Rural Migration, Domestic Migration, Mobility, Rural Place, Rural Restructuring, Ex-urbaniztion

Student Number : 2016-35613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단보 심계진
장학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